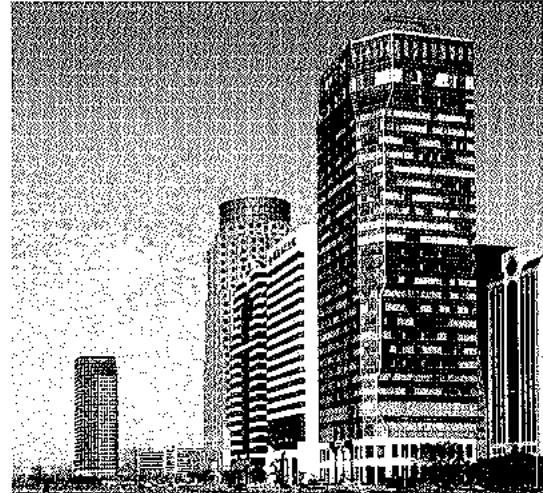


# 建築十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5월호 통권313호



May  
5

건축의 도전.....	김석철
화원작품.....	김우성 장재현 이용호 이경숙 김서용
제일증권사.....	
하남시정사.....	
울산제2정사.....	
소에보월스.....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일하미 생각하며.....	박연심
컴퓨터와 설계.....	
작품노트.....	승효강
고 해.....	
건축 여행.....	김인철
전남미 문화기행(2).....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3).....	양승숙
연구.....	
도시환경과 건축문학(5).....	황용주
승 「영조법식」〈대목작제도〉 주예(6).....	김도경 + 주남철
전통 건축.....	
한국유교 건축의 재조명(1).....	김지민
해외 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3).....	박효순
역사설계.....	
한미예술문화회관(KOMA).....	
대구신천 공동주택.....	

#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 삼성셔틀파킹



###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에 대기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에 대기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었습니다.

####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 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깨나요.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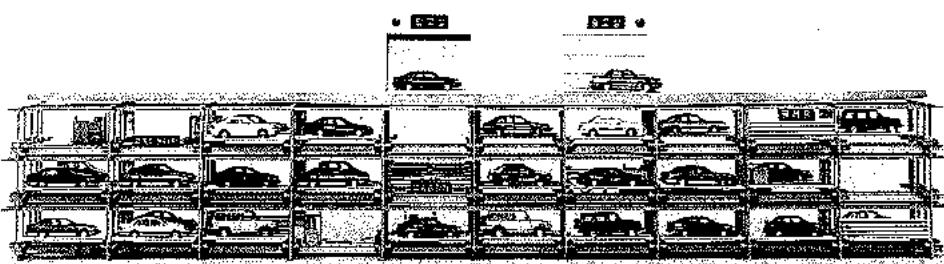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수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 다중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비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주)중앙창호

본사·공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통재시업부 (032)571-7771 Fax 575-6655  
검기구사업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울전시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박회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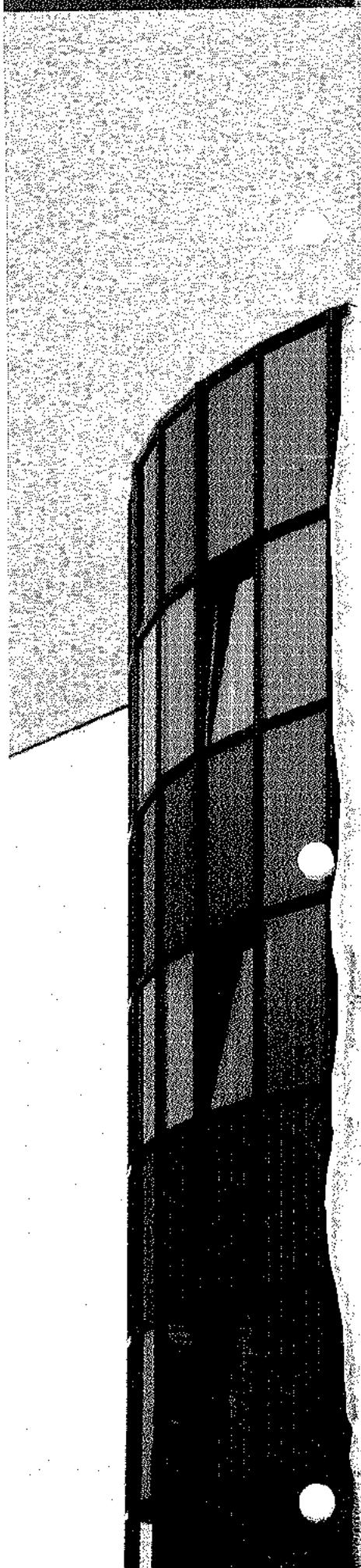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삼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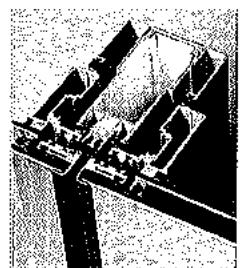
신공간

신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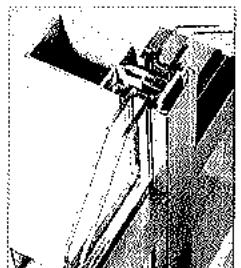
기술이 다르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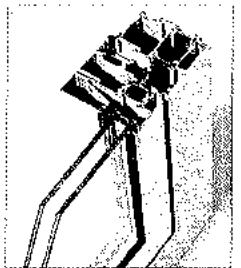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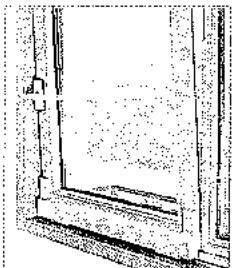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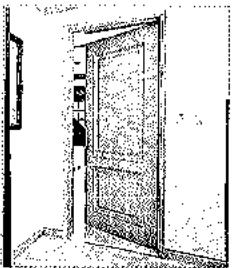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기구, 시스템카친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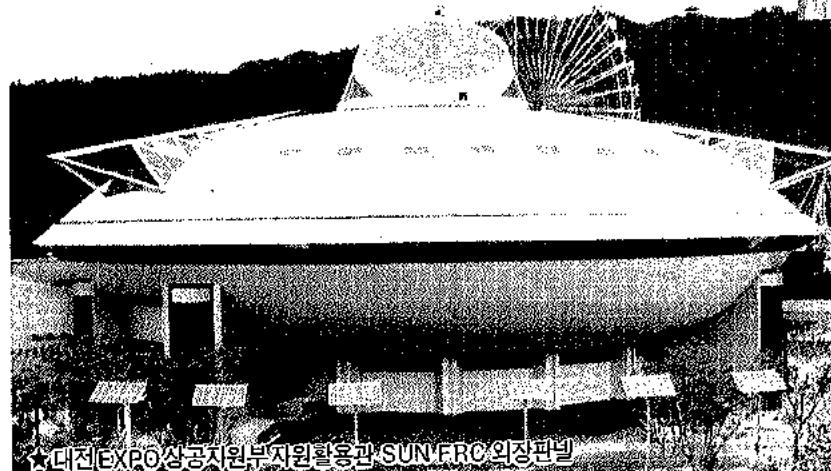




#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 SUN F.R.C 장기시험

험		과
내연성(aA법)	불연성	
인장강도 (kg/cm <sup>2</sup> )	254	
압축강도 (kg/cm <sup>2</sup> )	663	
휨강도 (kg/cm <sup>2</sup> )	407	
충격강도 (kg cm/cm, Charpy)	9.0	
밀도 (g/cm <sup>3</sup> )	1.762	
흡수율 (%)	0.01	
경도 (Durometer, H <sub>D</sub> )	93	
내열성 (100°C, 2hr)	이상없음	
내 약 품 성	• 10% 황산	이상없음
	• 10% 염산	이상없음
	• 10% 질산	이상없음
	•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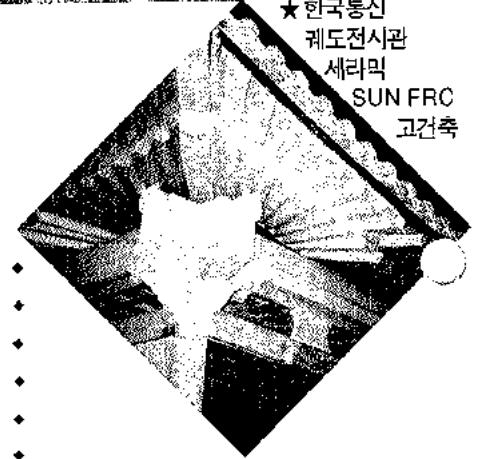


\* 대전 EXPO 장공지원부자원 활용관 SUN FRC 외장판넬



\* SUN FRC 지구판 세라믹 형상인공목판

★ 한국통신  
궤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크기 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낫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낫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실험 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력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낫은 F에서 inch당 7~10<sup>-6</sup>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이 전기용접, 불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재와 고건축 문화재 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 물가자료 75쪽 참조



\* 제주도 보문관광단지 F.R.C 인공목판



株式會社大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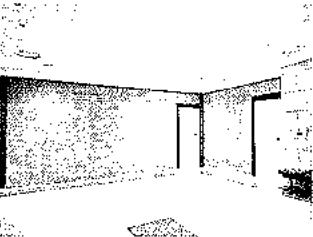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366-13 (大陸日/D)  
TEL:(02)5555-056 (代) FAX:(02)538-3236

#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종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증진만족 사기며 세계최초로  
방화시스템을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 푸마 방화 셔터 설치현장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복궁 프라자
- 부산 리비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현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 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힐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양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암시목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外 100여 업체 시공

## 제작설계 현장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설계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충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  
**東樂産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6 (代)

FAX : 838-0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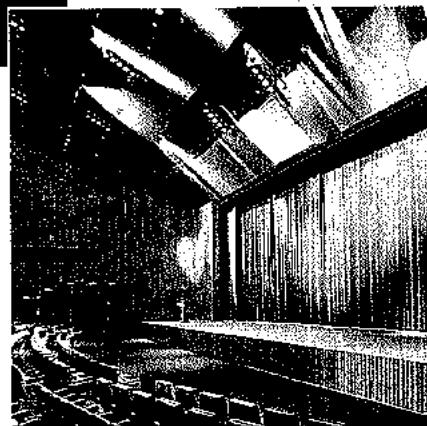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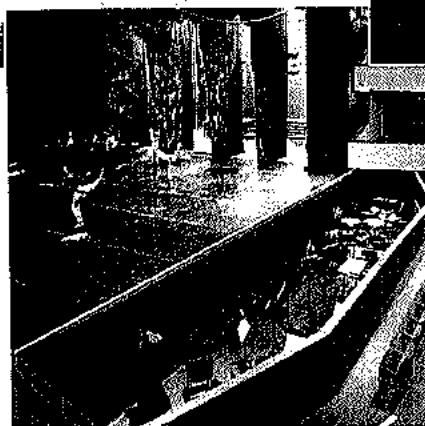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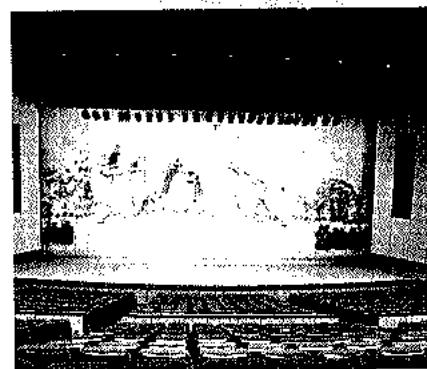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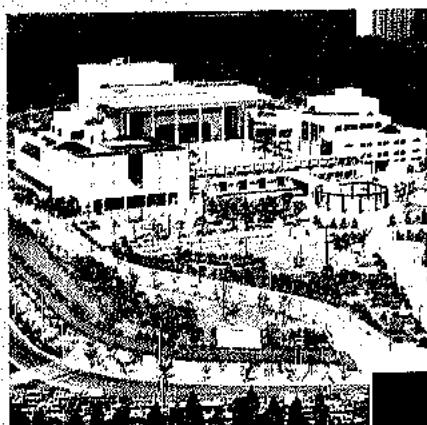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무  
대  
기  
계

무  
대  
조  
명

영  
상  
설  
비



기획 · 설계 · 시공



(주)성스테이지엔지ニア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

(시화공단 2나 209)

TEL (02)855-5373 (0345)499-8100~4

FAX (0345)499-810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국립극장
- 충현교회 본당
- 쇼라톤워커힐
- 문화예술진흥원(문화예회관)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전용 공연장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판광호텔
- 인암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 강당
- 계몽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 雅 五 電 株 式 會 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

京畿道 全浦郡 全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987-4184, (02)632-0216

#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건설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 건축 지하구조물의 설계, 감리, 시공은 안전제일주의 무지보 역타설 공법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주) 정남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

-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가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 HANGING 장치에 의한 거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자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부 지하굴로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 동바리 사용 불필요
-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 거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 지하총수 증가할 수록 원가절감 효과 상승

####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 흙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휨, 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 임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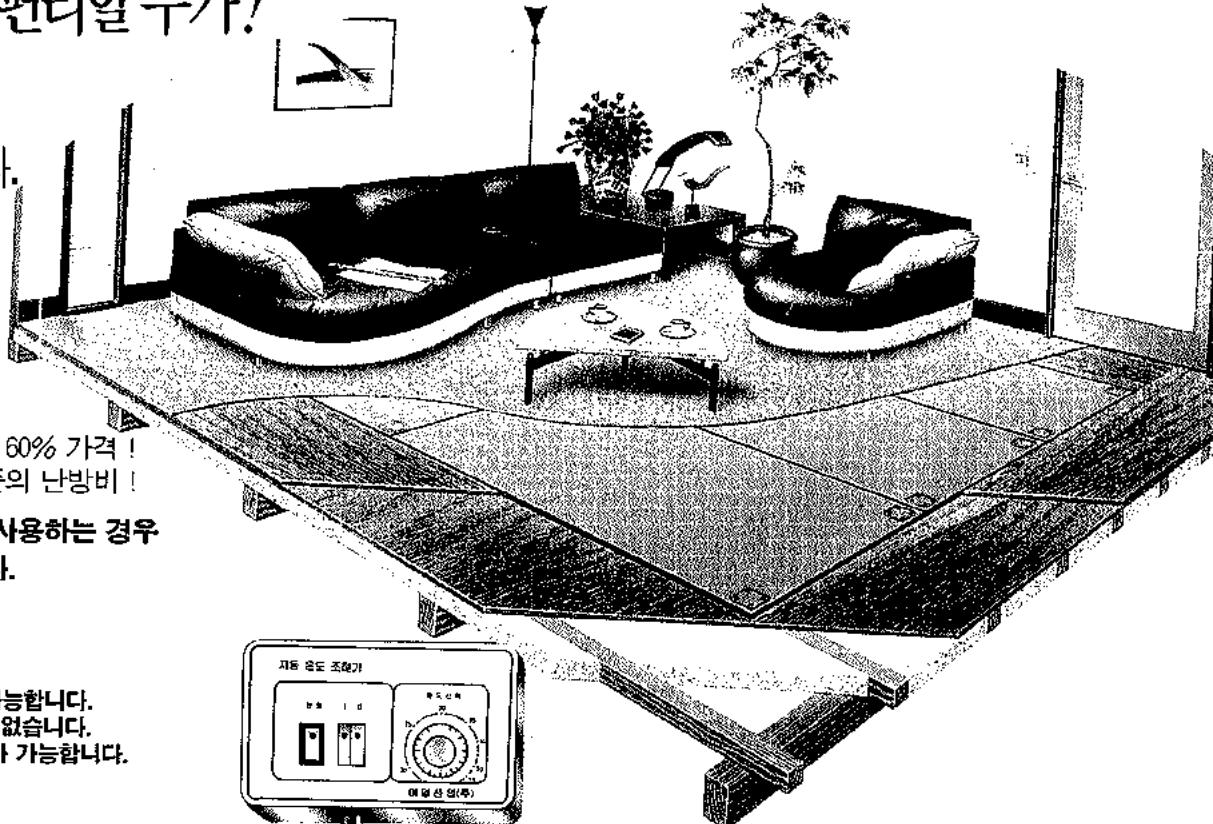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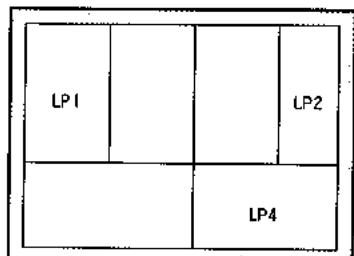
상업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例



공진천 형식승인 ☎ 3-7-4527  
설정신안전증원 제91-11674호  
설정신안전 출원 제92-18466호  
도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 면적 10.2m<sup>2</sup>/난방면적 7.5m<sup>2</sup>/부설율 73.5%
- 소요 가격
  - 온돌판넬 LP1 (220V/ 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 14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 180W) × 1장
  - 온도조절기 (종형) × 1대
- 전기동량 소요 1.28kw
- 전기 요금 예상
  - 1.28kw × 10Hr/월 × 0.7 × 52원/kwh = 466원/월
  - 466원 × 30일/월 = 13,98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 단가 52원/kwh의 월간전기 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 지방지역 충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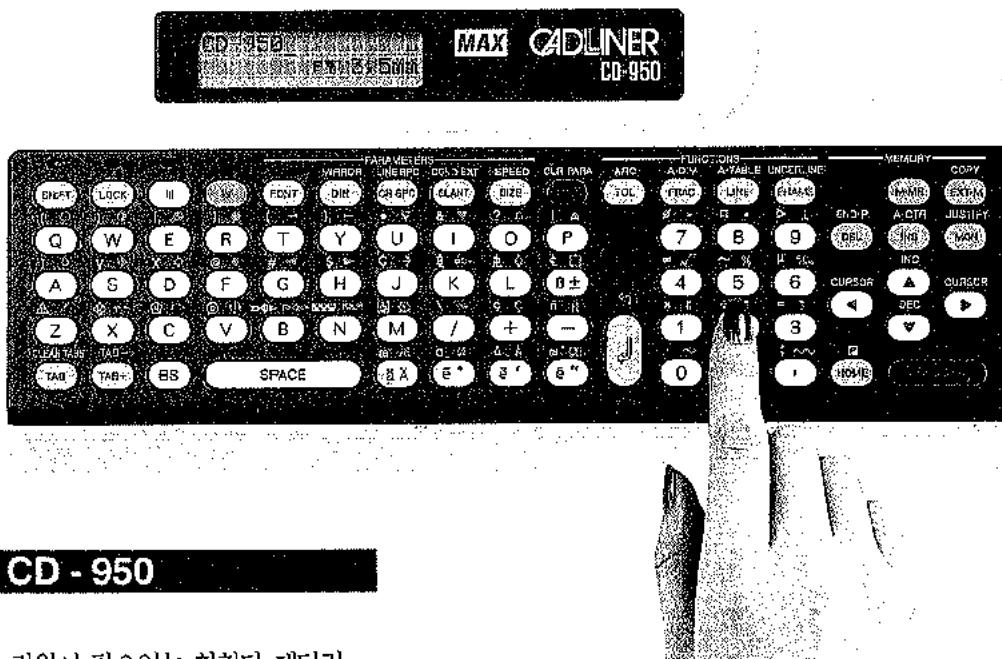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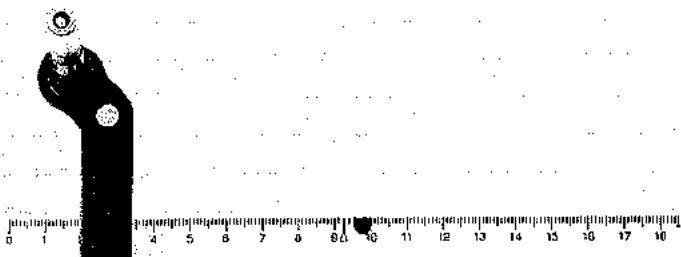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말기십시오!



### CAD LINER CD - 950

#### ■ 특 장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 ■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 CADLINER CD-950

**MAX**<sup>®</sup>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육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풀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카뮤,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끽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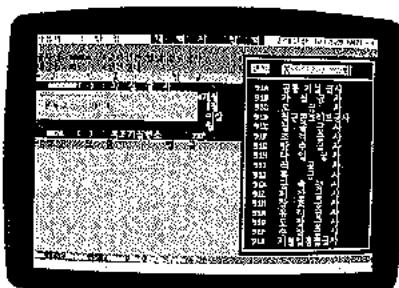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이전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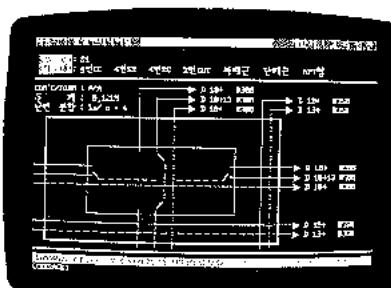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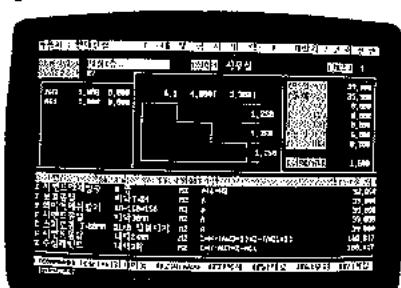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 S/W 목록

- EMS-I 내 역 관 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 목 내 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특장:**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접계분석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아프터 서비스

## - 新刊案内 -

□ 건축계의 금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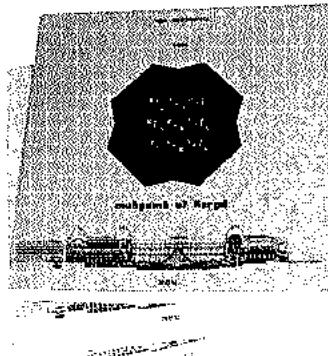
### 韓國의 現代建築

한국건축가협회 편

■ A4 · 825쪽(2도 인쇄) / 정가 100,000원

- 개항기부터 현재(1876~1990)까지 한국 건축계 전반에 걸친 최초 한국 현대건축사의 완벽한 자료집성!
- 한국 현대건축의 여명기에서 오늘까지 역사적·사실적 흐름을 생생하게 총망라 수록!
- 건축 역사의 단편을 총체적으로 기록한 시간적, 분야별 기술서!  
(윤도근/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 건축을 공부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온고지신의 교훈을 주는 홀륭한 교과서!  
(장석웅/아도무건축 대표)
- 한국 현대건축의 완벽한 자료집성! 가장 사실적인 새로운 자료 발굴!  
(황일인/일간건축 대표)

□ 전시공간의 예술!



###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국민대 건축과 교수 徐 商 雨 著

제1권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 규외·컬러 · 199쪽 / 정가 20,000원

제2권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 규외·컬러 · 373쪽 / 정가 45,000원

제3권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 규외·컬러 · 324쪽 / 정가 45,000원

제1권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에서는 현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건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폭넓게 기술하고 있으며, 제2권 “세계의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세계의 유명 51개 박물관·미술관, 제3권 “한국의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의 52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건축사례를 각각 시대별, 유형별로 심도있게 분석·정리하고 있다.

□ 건축인의 필수서!



### '95 建築法·條例解說

尹 赫 敬 著

■ B5 · 1,135쪽 / 정가 28,000원

이 책은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과 주차장법·주택건설촉진법을, 서울시 및 서울 25개 자치구 건축조례와 체계적으로 연계 해설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례·행정심판례·건설부와 서울시의 각종 고시·지침 및 질의 회신 등을 수록한 건축인의 해결서이다.

※ 전국 유명서점에서 발매 중! 본사로 직접 주문시 배분·우송 가능!



圖書出版 技文堂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6-20  
TEL. 295-6171~5/FAX. 296-8188



##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작도와 편집기능  
• 한글 변화      • 철저한 교육지원



###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불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 QUE 3

입찰견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음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피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계성을 지닌  
Dyna 486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1995년 5월호 통권 313호

發 行 人 :	金吉泰
編 輯 企 劃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	李俊憲
委 員 :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魁, 金宗植
編輯・取材 :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同 1603-55
郵 便 番 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 시 밀 리 :	(02)586-8823
登 錄 番 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64-2) : 0612(519)
印 刷 人 :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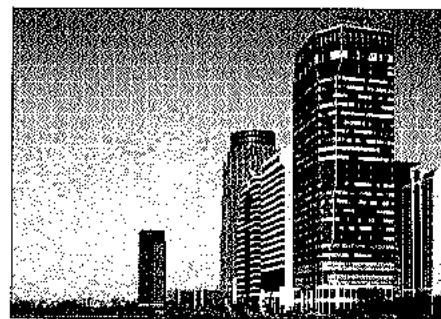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6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 차례

1995년 5월호 통권 313호

건축의 도전 / 金錫澈	18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3) / 黃鏞周	20
제일증권사옥 / 金字成	22
하남시청사 / 林長烈	28
울산시 제2청사 / 李龍欽+權元亨+鄭泰福	34
소울보울스 / 方喆麟	40
한국수자원기술공단 / 徐鏞植	46
꽃마을 한방병원 / 文聖雲	50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 金相景	52
누메로우노 / 徐鏞植	54
꽃(45×65) / 韓昌鎮	56
남한산성의 봄(20호F) / 李相澈	57
컴퓨터와 설계 / 朴研心	58
고해(告解) / 承孝相	60
중남미 문화기행 (2) / 金仁喆	66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 (3) / 梁勝宿	72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5) / 黃鏞周	80
미래지향적 주택건축의 온돌난방시공 / 池健相+朴成圭	88
송 「영조법식」〈대목작제도〉 주해 (6) / 金度慶+朱南哲	90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 (1) / 金知民	100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3) / 朴孝洵	104
LA 한미예술문화회관	114
대구 신천 공동주택	118
1995년도 3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24
한국소식	126



표지사진 / 제일증권사옥 (설계: 김우성)

## CONTENTS

VOL. 313. MAY 1995

### CONTENTS

A Challenge to Architecture / Kim Seok-Cheol	18
FEATURE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3) / Hwang Yong-Ju	20
ARTICLE	
The First Securities Co. LTD / Kim Woo-Sung	22
Hanam City Hall / Lim Jang-Yul	28
Ulsan the 2nd City Hall / Lee Yong-Heum, Kwon Won-Hyeong & Jung Tae-Boek	34
Sole Bowls / Bang Chul-Lin	40
Korea Water Resources Engineering Corporation / Seo Yong-Shik	46
PROJECT	
Kkotmaul Herb Medical Center / Moon Sung-Un	50
Chosun University Dental College and Hospital in Kwangju / Kim Sang-Kyung	52
Numerouno / Seo Yong-Shik	54
ARTICLE	
Flower(45×65) / Han Chang-Jin	56
The Spring of Namhansansung / Lee Sang-Eun	57
WORK	
Computer & Design / Park Yeon-Shim	58
ARTICLE	
Confession / Seung Hechih-Sang	60
ARTICLE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 (2) / Kim In-Cheol	66
REPORT	
Korean Architect, Lee Hui-Tae / Yang Seung-Suk	72
REPORT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5) / Hwang Yong-Ju	80
FEATURE	
The Korean Under Floor Heating System / Chi Keon-Sang & Park Seong-Kyu	88
REPORT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 (6) / Kim Do-Kyoung & Joo Nam-Chull	90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1) / Kim Chi-Min	100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3) / Park Hyo-Soon	104
COMPETITION	
Korean American Museum of Art and Culture Center	114
Taegu Shincheon Apartment	118
STATISTICS	
Korea News	124
	126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미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8 · 등작분회/9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92 · 중랑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4-4973~80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3)47-6129~30  
직할분회/10331)43-6662 · 인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1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10351)876-0468 · 송탄분회/1033)666-6153 · 고양분회/10344)63-8902 · 구리분회/10346)63-2337 · 이천분회/10336)635-0545 · 광명분회/102)684-5845 · 안산분회/10345)80-9130 · 시흥분회/1032)694-4121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10371)43-7290 · 강릉분회/10391)41-7371 · 속초분회/10392)33-5081 · 삼척분회/10394)31-8708 · 영월분회/1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043)56-2752 · 53-7342

충주분회/10441)847-3082 · 청주분회/10443)43-6253 · 익천분회/1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10417)551-4551 · 통영분회/10541)32-2755 · 부여분회/10463)835-2217 · 대전분회/10452)34-3367 · 서산/1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이리분회/10633)52-3796 · 군산분회/10654)43-3816 · 남원분회/1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10631)172-3349 · 순천분회/10661)743-2457 · 여수분회/10662)32-5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10562)44-6029 · 경주분회/10561)4710 · 구미분회/10546)51-1537~8 · 안동분회/10571)54-5703 · 김천분회/10547)434-2541 · 영주분회/10572)34-5560 · 청송분회/10681)53-6677 · 삼주분회/10582)32-5868 · 경산분회/1053)812-6721 · 달성분회/1063)634-6336 · 영천분회/1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10522)74-8836 · 진주분회/10591)745-6403 · 총구분회/10557)645-7420 · 김해분회/10525)35-5692 · 밀양분회/10527)355-4848 · 거창분회/10598)43-6090 · 양산분회/10523)84-3050 · 거제분회/10568)635-3432 · 삼천포분회/10593)35-8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1064)62-2233

# 건축의 도전

A Challenge to Architecture

金錫澈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0:키반  
by Kim Seok-Cheol

**현실적 여건에 마음 악하다 보면, 새로운 공간형식의 제안이 진부한 건축으로 전락할 수 있다.**

건축은 한시적 주인보다 영원한 주인들에 대한 포괄적 의무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역사에 참여하여 자기를 실현하려는 순수한 열정을 지녀야 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건축기는 도시와 건축, 전통과 현대의 이원합일을 자신의 공간형식으로 한 건축물속에 실현해야 한다.

이 시대의 건축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서울에 서면 자만스럽다. 아무 이룬것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주어진 편한 입장 을 사는 까닭이다. 이제 그러한 나태와 진부의 늪을 벗어나야 한다. 많이 버릴 수 있어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벽에 잠이 깨어 일을 하다가 지난 20년간 해 온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 20대에 건축적 실험의 예언적 스케치를, 30대에 한옥이후 한국인의 주거를, 40대에 예술의 전당과 도시에의 건축도전을 시도 했다. 이제 건축가로서 최고의 나이인 50대가 되었다.

일에 대한 집요함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실적 여건에 마음 악하다보면, 새로운 공간형식의 제안이 진부한 건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욕심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집념이 필요한 데 쉽게 현실과 타협한다. 건축은 건축주의 것

이 아니다. 한시적 주인보다 영원한 주인들에 대한 포괄적 의무 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일 욕심보다 세속의 욕심이 크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이미 작가가 아니다. 세속적 처세는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욕심은 버리자. 명예, 부, 권력 … 이런 것에 연연하려면 건축을 버려야 한다. 역사에 참여하여 자기를 실현 하려는 순수한 열정을 지녀야 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높은 완성도를 향한 집념이 필요하다. 순간적 발상의 다양함과 완성을 향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몰두가 있어야 한다. 예언적 스케치 만으로는 건축이 아니다. 건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키울 수 있어야 하며 비켜서서 그들이 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화두의 마련도 중요하다. 여럿이 함께 일 할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우선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의 아이디어를 공간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념을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한다. 개념은 언어형식이고 디자인은 시각형식이므로 남의 메모리가 개입되어서는 고유의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건축은 할수록 더 일이 많다. 미스의 디테일만한 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단계는 반복을 수 없이 거친 끝에 나오는 추상적 경지의 것이다. 현대건축이 갖는 물시대성과 물문화성을 어떻게 고유의 문명적 언어로 표현하는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토론되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건축가로서 어느 누구, 어느 시대와 다른 나만의 구체적 사상과 미학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가는 도시와 건축, 전통과 현대의 이원합일을 자신의 공간형식으로 한 건축물 속에 실현해야 한다.

유럽에서의 건축가의 역할과 한국에서의 건축가의 역할은 다르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도시와 건축이 갖는 내용의 이해를 통해 주어진 부지와 주제의 해석을 스스로의 건축표현으로 실현하는 것이 건축가의 일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도시문명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건축표현 이전에 도시적 내용의 상당수를 건축이 실현해야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꼬르비체의 건축을 보면 대부분 반세기 이전에 지어진 집인데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보다 더 오늘의 건축들이다. 그곳에는 시공을 초월한 공간형식의 건축 언어가 있다. 건축가가 시·공간의 상형문자로 인간과 그의 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공간에도 그의 눈부신 미술적 재능이 가득하다. 그러나 크게 느껴오는 것은 그의 건축이 뛰어난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서양건축사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건축은 서양건축의 부정으로 시작된 전위형식이었으나 오히려 가장 서양건축사적이다. 무엇보다 그의 건축에는 내부공간이 있고, 공간의 상형문자인 형태가 있다.

발표되기 위한 건축과 도시와 마을에 더불어 역사적 실체가 되는 건축은 다르다. 우리는 전자의 건축에 익숙해 있다. 건축가는 여느 예술가와는 다른 본질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예술가는 자기의 것을 다하면 되지만 건축가는 역사와 사회에 구체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 시대에는 일그러진 우리시대의 영웅같은 건축이 많다. 새로운 현대건축의 대부분이 건축적 유희에 머물러 있다. 많은 건축의 새로움이 옛건축의 역사의식에 못미치고 있다. 아무나 건축을 할 수 있음을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도시는 도시의 역사적 실재를 이해하고 이를 증언할 수 있을 선택된 소수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문명도시가 있어온 것인데 돈 만으로 만들어진 최근의 건축은 대부분 민망스럽다. 위대한 건축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건축은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워야 한다. 최근 건축과 인테리어에서의 이론은 흐름이나 사조가 아니라 논리적 취향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미술적 감수성에 매인 채 언어의 논리와 수사에 매달린 독자적 세계의 불완전한 미술적 도전에 빠져있는 인상이다. 자기의 것을 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문명의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건축의 기반인 인간공동체이다. 이웃과 마을이 한 도시인 그런 건축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도시의 미래는 도시와 건축의 통합속에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적 의미를 가진 건물이 등장할 때이다. 도시란 자연과 역사와 생명이 한 실체일 때 시작되는 것이다. 도시적 메카니즘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도시적 메카니즘을 넘어서 실지의 도시인 건축이 등장하여야 한다.

한번도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카스텔 산 텔모에서 나폴리 전 시가지가 내려다 보인다. 산상에 산이 스스로 한 성이 되었다. 바위산이 허공으로 산화한 거대한 성채다. 성의 가장 위로 가면 하늘의 광장이 나타나고 기리코의 가로와 건물이 푸른 하늘 사이를 가로 지른다. 도시형식으로 만들어진 건축이다. 바로 이곳에서 나폴리시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스파카 나폴리가 산과 바다를 도시 가득히 흡입시키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도시개혁의 아름다운 파괴가 불쾌의 성 산 텔모와 함께 나폴리의 한 명소를 만들고 있다. 서울의 산이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파괴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현상설계중인 박물관에 대해 생각한다. 한국의 국립 박물관은 일종의 범세계적 컬렉션인 루블박물관, 대영박물관, 베트로폴리탄 뮤지움과 다르다. 특정시대에 한정된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과 다르고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려는 북경의 고궁박물관과도 다르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이 지향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디서나 접근이 상징화될 수 있는 장소성을 가져야 한다. 마크로 스케일의 어프로치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 하고 도시 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케일에서의 환경조정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토지의 이해와 주제의 해석이 각각 대위적 입장에서의 두 접근을 극명히 종합할 수 있을 건축의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 언어형식의 시각형식전환을 시도하여 보편적이면서 고유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하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공공장소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로 열려진 공간이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으로 열린 민족의 유전인자가 각인된 도시의 건축이어야 한다. 먼저 서울의 도시공간 공동체의 기본틀에 구체적으로 닿아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과거의 모든 시간으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형식이 아닌 시각형식의 장소로서의 특유의 시공간 형식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흐름과 서울의 그린네트워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의 회랑, 역사의 광장을 생각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공동체인 역사적 실체를 시도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통성과 유전인자의 상징공간인 박물관의 역할이 21세기에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은 현대미술관과 달리 역사적 미술품을 담는 곳이므로 그런 분위기와 성격에 맞는 기능적이며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 동선, 채광, 관리 등에 세심한 신경을 쓴다. 아름답고 독특한 공간이 오히려 반박물관적이다. 중앙박물관이 현대미술관과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미술의 장소라는 점이다.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시활동공간이다. 한국의 국가적 보물들을 위한 최고 최선의 전시형식이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을 관람하기 위한 사람의 흐름 역시 크게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다. 다른 문화공간과 달리 역사와 고고와 미술을 시대별로 전시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전시형식과 동선의 체계는 미래 계획의 근본틀이 되는 것이다. 컬렉션에 따른 전시방식과 관리에 깊이 신경을 써야하며 무엇보다 역사적 가치와 경쟁하려는 무모한 공간 만들기를 피해야 한다. 자기를 과시하기 보다 전시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원론적 논의와 함께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확장에 대한 대비이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움이 100주년 기념으로 계획한 마스터플랜이 올해 완성된 과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25년 사이에 기존건물의 틀속에 두배의 면적을 확보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운 미래에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짓고자 하는 규모인 백만스케어피트를 증축하려 할 때 나온 말이 왜 증축하는 냐. 지금도 충분히 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상 증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70년 전 맥심 미드 앤 화이트의 안이 증축되었을 때도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상징인 박물관은 아무리 커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립박물관은 한국역사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집합체이므로 끊임없는 발견과 창조가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이 시대의 건축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도시발전에 따른 건축가의 역할

건축가들은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한다. 사회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거의 공통으로 실감하고 있으며 무엇이 건축가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이나 일본과 달리 근대화의 역사가 짧고, 그나마 20세기초부터 충반까지의 일본 강점시대와 해방후의 전쟁, 수복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축가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의 이상형으로

서구의 '아키텍트(architect)'상을 자항하였으나 아직도 그 직능(profession)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건축가'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직능은 무엇일까라는 문제는 일본건축가들이 제기한 문제와 또 다르다.

옛날과 달리 건축생산의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농경사회때의 생산방법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계와 전자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이루어내는 시스템도 혼용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건축설계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건축생산체제도 부분적이나마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에서 직종별 영역은 점점 더 전문화되는 추세이고 자연히 전문 영

역이 모여 협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건축생산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설계조직도 따라서 대형화되는 움직임이 강하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규모 조직의 건축가들은 우선 전문 종합집단으로서의 대규모 조직과 경쟁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management)업무도 그 시간에 더 많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건축가에게는 치명적인 압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페션, 즉 의사와 변호사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문제이다.

건축과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서구의 역사를 통한 관점이기는 하지만 건축물(architecture)과 건물(building)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은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건축물이 실용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때 그 기준에 따라 정리된 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척도, 미적인 관점,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라 그 가치를 재는 틀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물' 혹은 '건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대상이 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건축가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직능으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건축이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척으로 건축가의 통솔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갔다.

건축은 감성의 산물이라고도 말한다. 건축의 실천을 통하여 치밀하게 계산되고 제어된 감성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때 문화로서 건축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정신적인 사고를 형태와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여 건축을 만들어

##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과 제도개선(3)

Architect Role and Public Function  
-A New Urban Amenity Creation Movement

黃鏞周/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u

건축에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척도, 미적인 관점,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따라 그 가치를 재는 틀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기준에 따라 '건축물' 혹은 '건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축'은 사회의 가치기준을 반영하는 대상이 되고,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건축가는 인간을 위한 환경을 창조하는 직능으로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건축이 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근대시민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척으로 건축가의 통솔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도시건축분야는 디자인 산업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도시설계디자이너,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내는데 이 과정을 설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수행하는 작업을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에 대한 건축가들의 역할도 건축가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중세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계몽주의시대를 지나 산업혁명시기 이후로 보는 것이 좋겠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고 있을 즈음에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의 선언과 활동은 당시로서는 도시건축에 대한 하나의 철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1925년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이 활동은 당시의 스럼화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와 국제주의의 양식의 건축은 인간성, 지역성 등을 상실케하고 획일적인 개발로 도시의 성격과 구조를 파괴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 후 1962년경 결성된 팀틴(Team 10)의 활동과 선언은 파괴되어 가는 도시조직을 회복시켜보려는 젊은 건축가들의 시도로 그 결성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코르뷔제(Le Corbusier)는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1930)를 제안하였으며, 용거스(O.M.Ungers)는 '새로운 건축에 관하여'를 통하여 기능주의 건물에 대한 비판과 도시공간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도시에 대한 선언과 비전을 제시한 솔레리(Paolo Soleri), 아키그램(Archigram) 등의 건축가 또는 건축가 그룹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하였고, 독시아디스(C.A.Dosiadis)의 에키스틱스(Ekistics)는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구조물 등의 성격과 관계를 규명하고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시도를 부여주고 있으며,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패턴 랭귀지(Pattern Language)를 통하여 도시의 구성요소를 언어로서 분석하고 재조합하여 도시에 적용하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어(Rob Krier)는 도시조직을 통하여 재발견하고, 파괴된 도시공간(urban space)을 지역특성에 맞게 회복시키고 창출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를 진단하고 해석하며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도시건축에 대한 제안과 선언과 철방을 시도한 많은 건축가들의 노력은 근대건축운동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건축가들의 제안과 시도가 기존의 도시 성격과 조직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거나, 활력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이 있다. 니마이어(Oscar Niemeyer)가 설계한 브라질리아 신도시 계획의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많은 실패사례에 위축되어 우리 건축가들은 이제 도시에 대한 제안과 선언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러한 실패를 우리마저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난립상태의 도시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이미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를 생각하고 해석한 것과 같이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도시를 건

축과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서 해석하여 도시성을 회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도시로 몰려들어 삼시간에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 지난 3,40년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 채 바꾸어 놓았다. 토지와 함께 삶을 꾸려온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은 이제 도시에서 오갈데 없는 미아가 되어 떠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서구의 도시문화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아무런 여과없이 밀려드는 가운데 우리의 도시는 크게 다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농촌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는 폭발하듯 확장되고 엄청난 양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터도, 쉬는 곳도 늘어가고 부정적인 도시시설도 생겨났다. 혼잡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쾌락을 부추기는 다른 매력이 도시에 가득차게 되었다.

세계의 도시인들이 뉴욕을 선호하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교통, 공해, 소음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의 불쾌함때문에 도시에 사는 일이 힘들다고는 하여도 도시는 도시대로의 분위기와 문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는 단지 일터와 집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의 발산지로서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도시 속성을 이해하고, 도시적 삶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건축가의 몫이다. '하나의 건물은 작은 도시이며 하나의 도시는 커다란 건물이다' 라고 말한 알도 반 아이크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건물이 모여 결국 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에 엄청난 양의 건축물이 세워졌을 뿐 우리의 도시는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도시의 환경개발은 건축가가 선도하여 나가야 할 영역이다. 더이상 경제행위 수단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문화와 호흡하는 생명력있는 건축을 세워야 한다.

80년대 우리는 올림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환경정비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문화의 중심으로 재창조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배양된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 실패한 경험을 살리고 우리의 도시적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 분야는 디자인 산업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도시설계디자이너, 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의원작품

# 제일증권 사옥

The First Securities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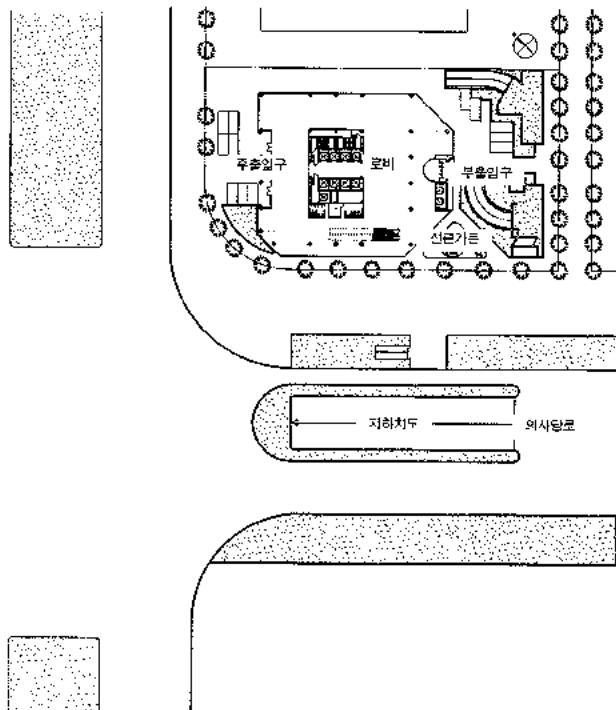
金宇成 / (주)아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Woo-Sung



남측전경



서측 여의도 광장에서 본 전경



배지도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지역 /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3,707.81m<sup>2</sup>

건축면적 / 1,603.69m<sup>2</sup>

연면적 / 59,640.90m<sup>2</sup>

건폐율 / 43.25%

용적률 / 948.51%

규모 / 지하 7층, 지상 27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134.30m

주요용도 / 업무시설

외부마감 / 벽 - 저층부 석재, 기타 치색복층유리

내부마감 / 바닥 카펫타일

벽 - 아크릴 페인트

천장 - 암면텍스

설계담당 / 정형량, 오경교, 홍사원

감리담당 / 이종택, 오경교, 이광재

Location / 23-5, Yeouido, Yeongdungpo-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Site Area / 3,707.81m<sup>2</sup>

Bldg. Area / 1,603.69m<sup>2</sup>

Gross Floor Area / 59,640.90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43.25%

Gross Floor Ratio / 948.51%

Bldg. Scale / 7 Stories Below Ground, 27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Maxim Height / 134.30m

Exterior Finish / wall-stone, Double Grazing

Project Team /

Design-Jung Hyung-Yang, Oh Kyeng-Kyo, Hong Sa-Won

Supervision / Lee Chong-Taek, Oh Kyeong-Kyo, Lee Kwang-Chae

#### 배치계획 / 옥외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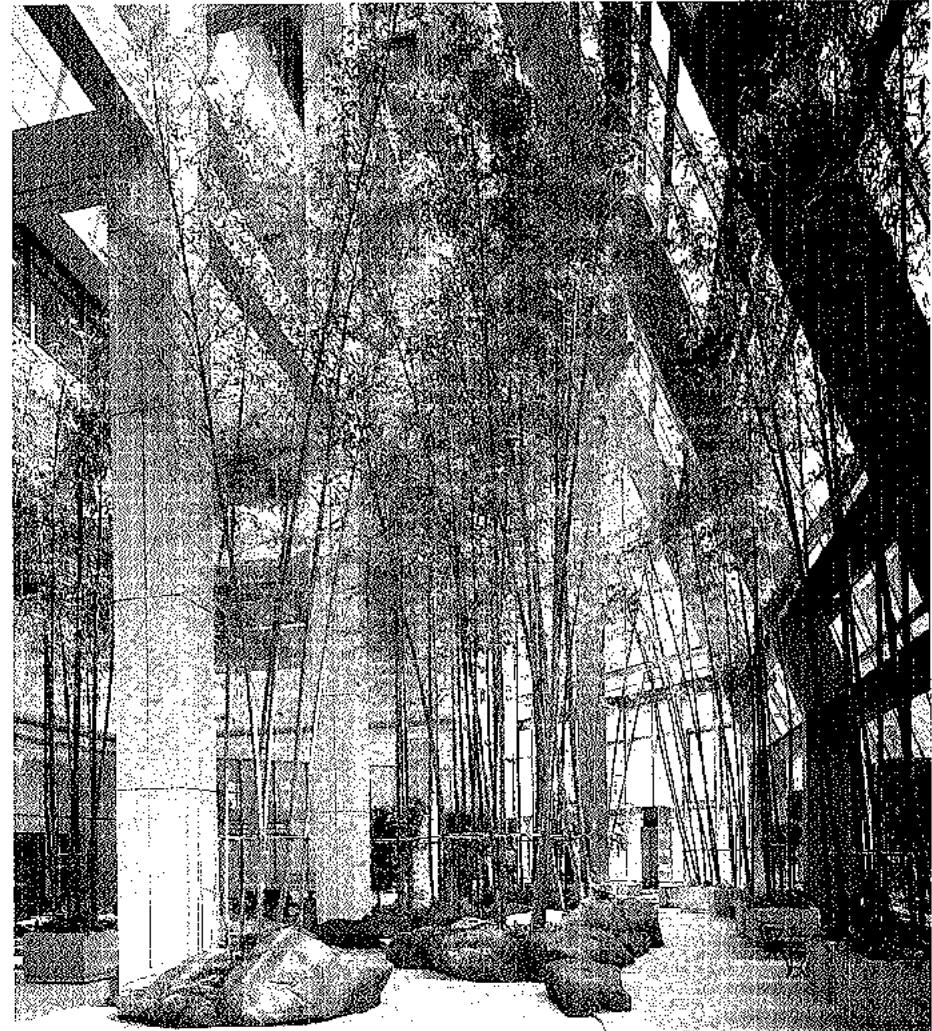
- 코너대지의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 진출입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동선처리
- 옥외 휴식공간 및 녹지를 공동조경공간과 연계하여 머무를 수 있는 대화의 장소로 제공하고, 지하아케이드와 직접 연결되는 SUNKEN GARDEN을 휴식 녹지로 조성
- 예술장식품은 부드러우면서도 빛나는 재질로서 건물의 GREEN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보행 동선이 가장 빈번한 공동조경입구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건물외부 SKIN 계획/ 색채계획

-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며 가시광선 활용률이 높은 GREEN TINTED 복층유리 사용
- 건물의 투명성을 통해 내부공간의 투시 및 연결을 도모하여 배터적이 아닌 외관을 연출하고, 특히 야간에는 실내의 밝은 조명이 외부로 투과되어 주변 야경을 활발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조성되도록 기여
- GREEN 유리색과 대비되는 은백색의 FRAME과 코너시트를 사용하여 ALL GLASS CURTAIN WALL의 유연성에 골격을 부여함으로써 형태를 강조

#### 형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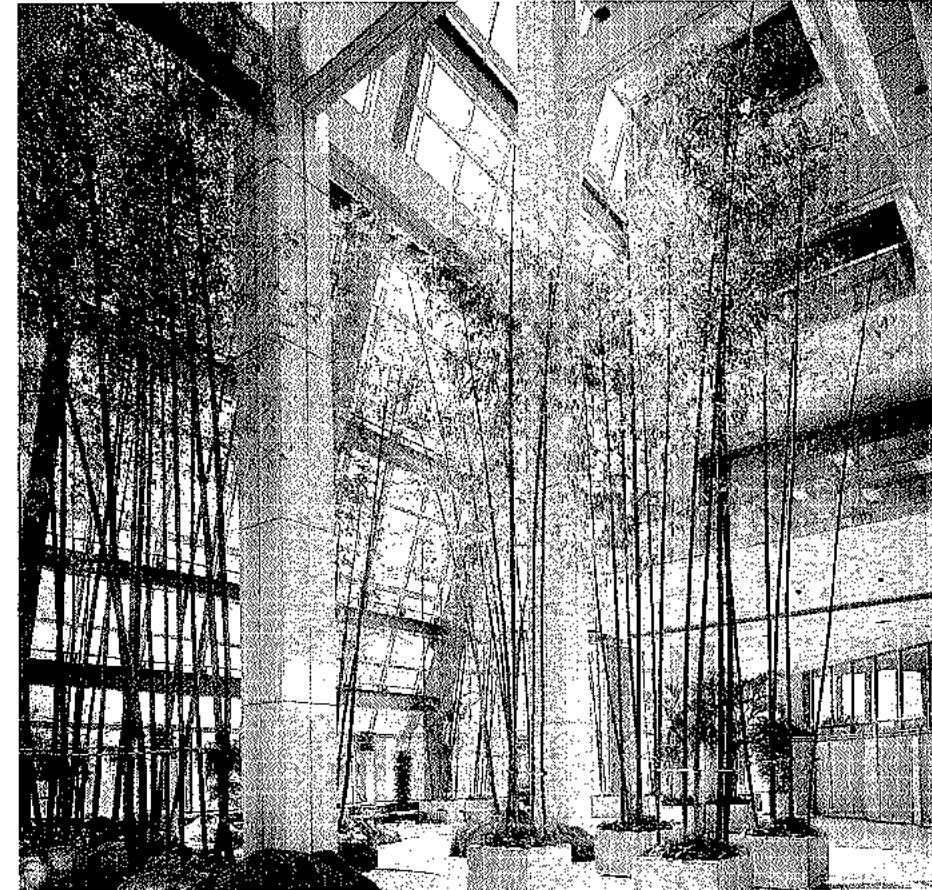
- 중권단지의 좌우대칭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SKYLINE유지와 코너대지에 적응하는 CORNER MASS의 사면처리를 통해 전체단지의 건물군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영등포 - 마포간의 광장로에서 차량흐름에 따라 신선감과 IDENTITY가 제공되도록 고려하고 건물주위의 각 방향에서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유도하며 변화있는 MASSING 계획



4층 아뜨리움 1

#### 내부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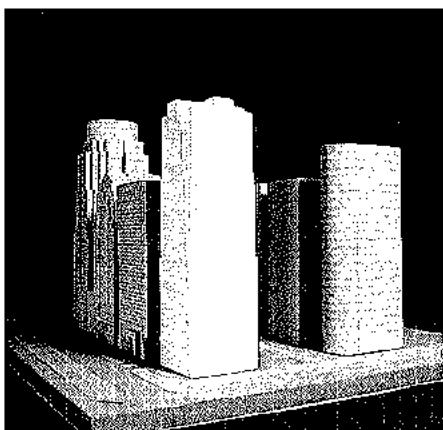
- 4~9층까지 관통하는 WINTER GARDEN ATRIUM의 설치를 건물내의 PUBLIC SPACE를 제공하면서 입주자들의 휴식 및 대화, 취미활동 공간이 되도록 기여
- 중심 CORE와 외주를 제외한 무주공간을 외부에 면하게 처리하여 밝고 넓은 공간형성
- 건물의 CORNER가 가장 인기있는 공간이므로 CORNER의 개방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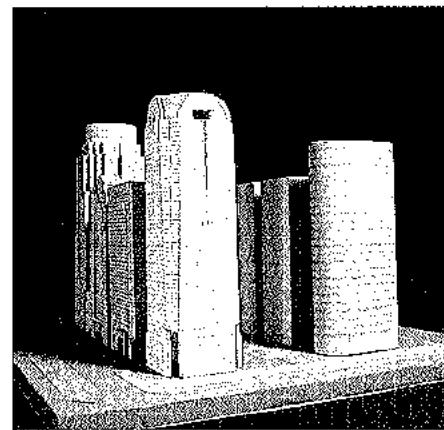
4층 아뜨리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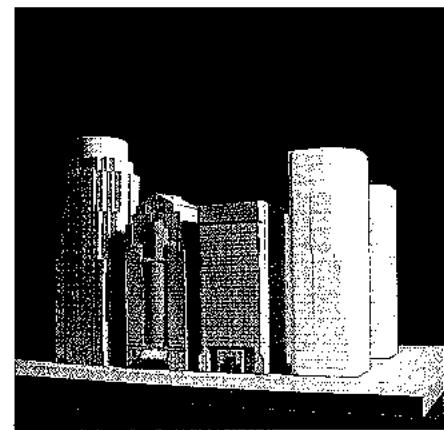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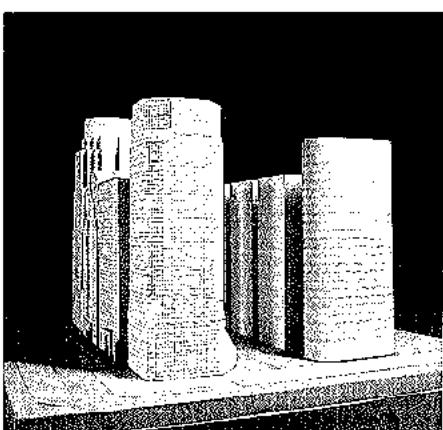
모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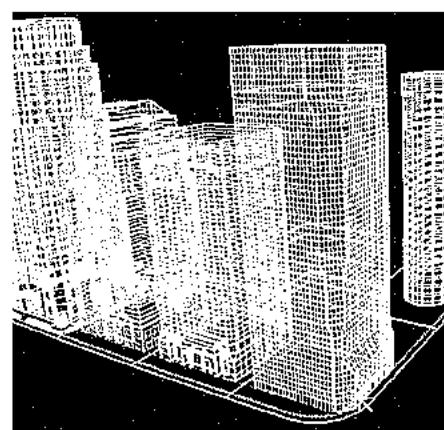
모델2



모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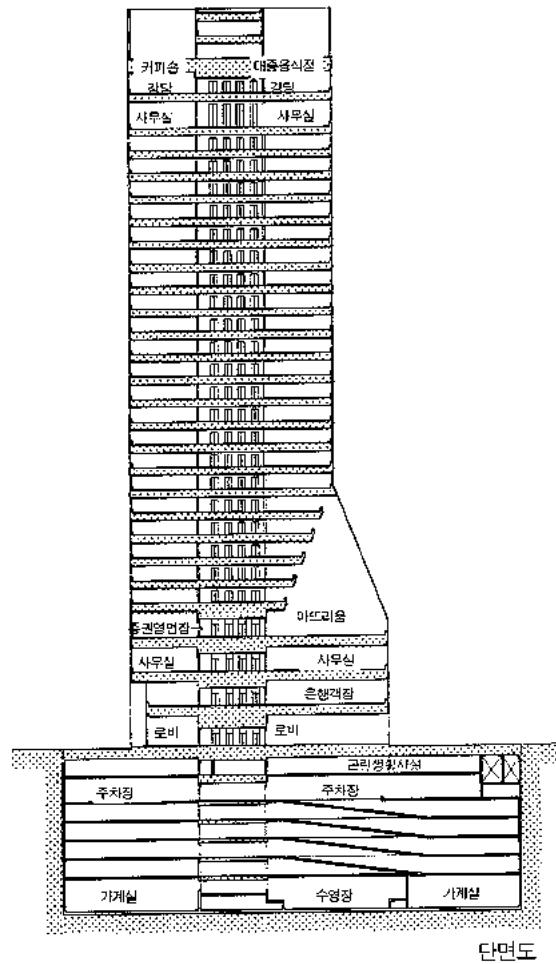
모델4



모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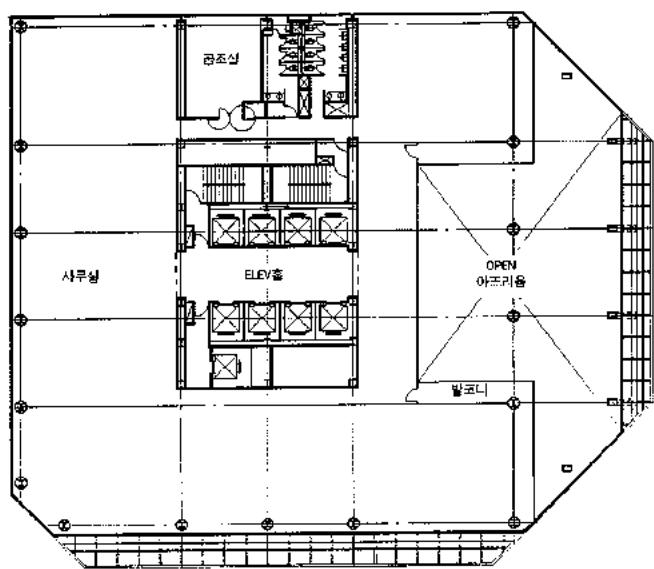
모델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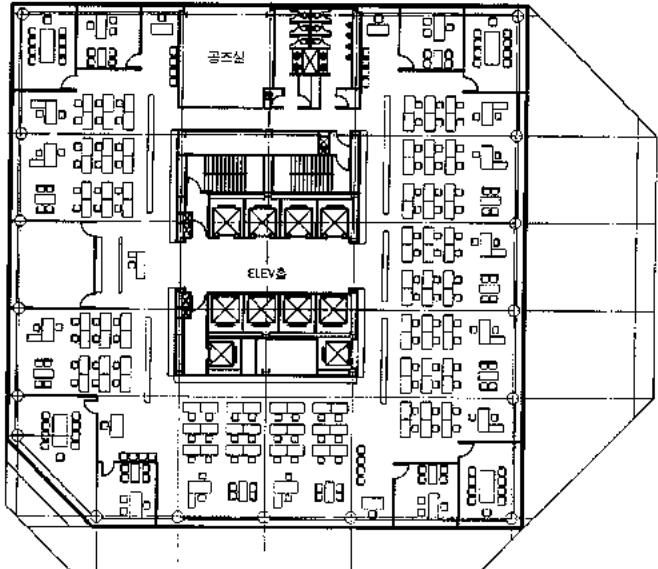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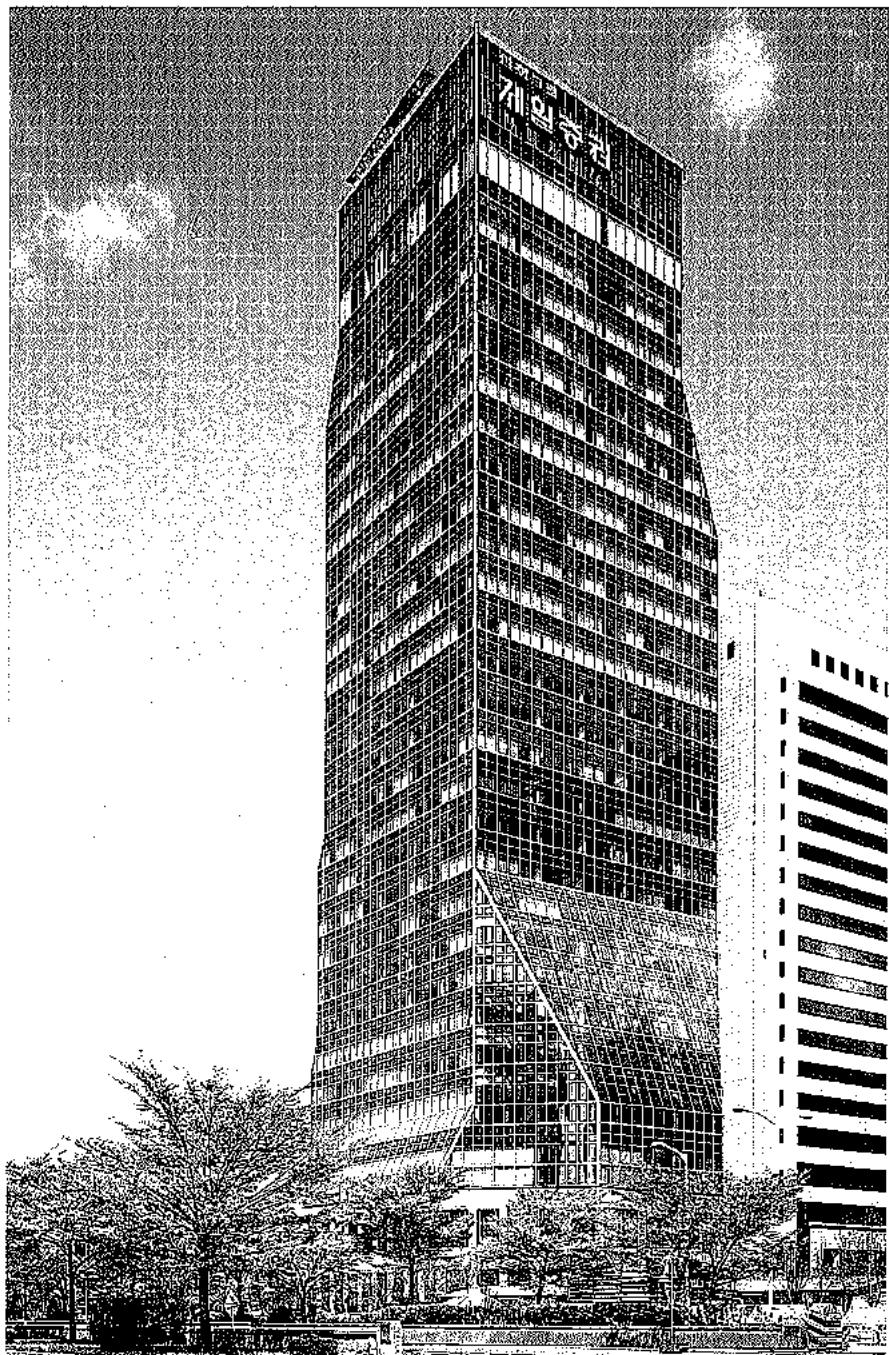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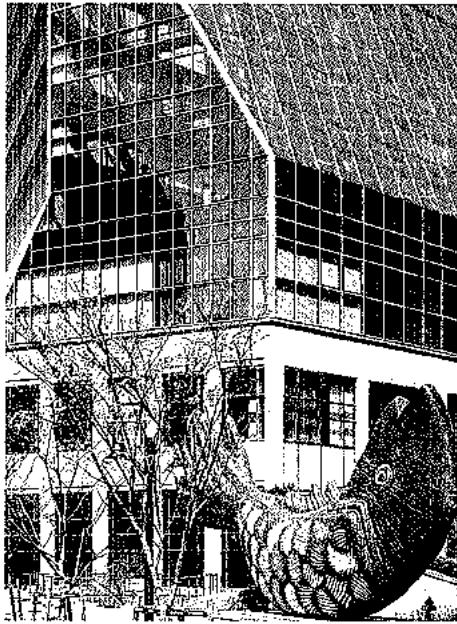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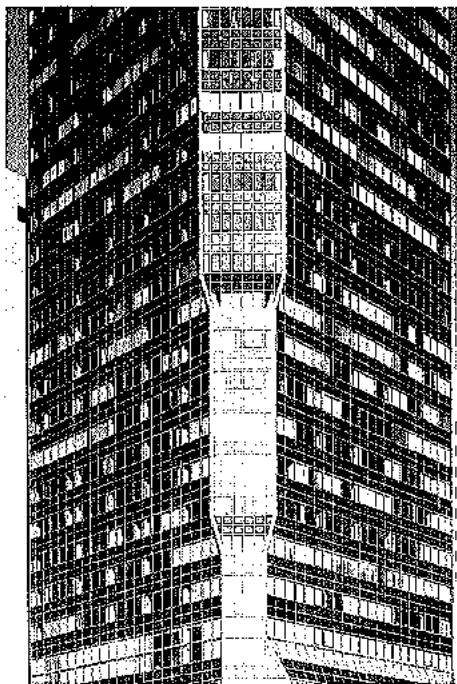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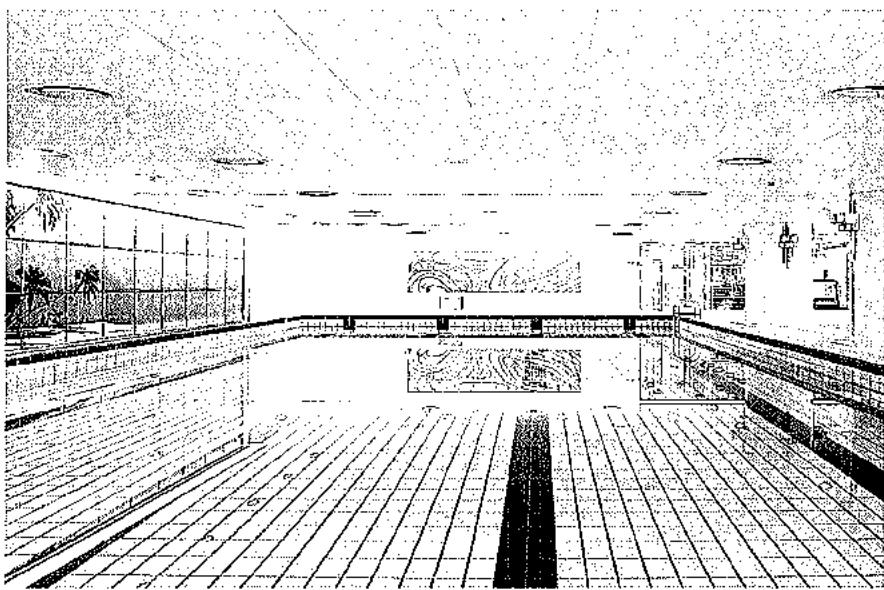
외사당로에서 본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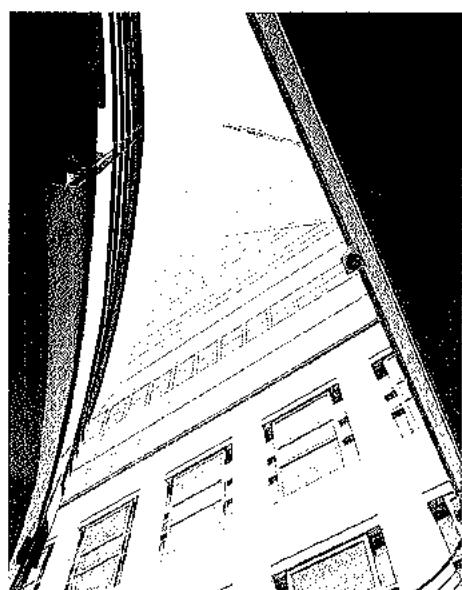
외부 조각물



서측벽면 상세



지하 7층 수영장



선큰가든에서 올려다 본 모습

# 하남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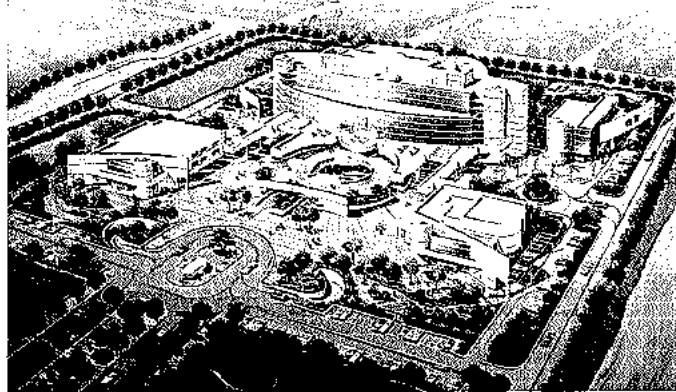
Hanam City Hall

林長烈 / (주)성링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Yul



북서측 원경



조감도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127

대지면적 / 28,000㎡

건축면적 / 4,602㎡

연면적 / 13,759㎡

건폐율 / 16.44%

용적률 / 41.78%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 희강석 벼나구이

Location / 127 Shinchang-dong,

Hanam-shi, Kyeonggi-do

Site Area / 28,000㎡

Bldg. Area / 4,602㎡

Gross Floor Area / 13,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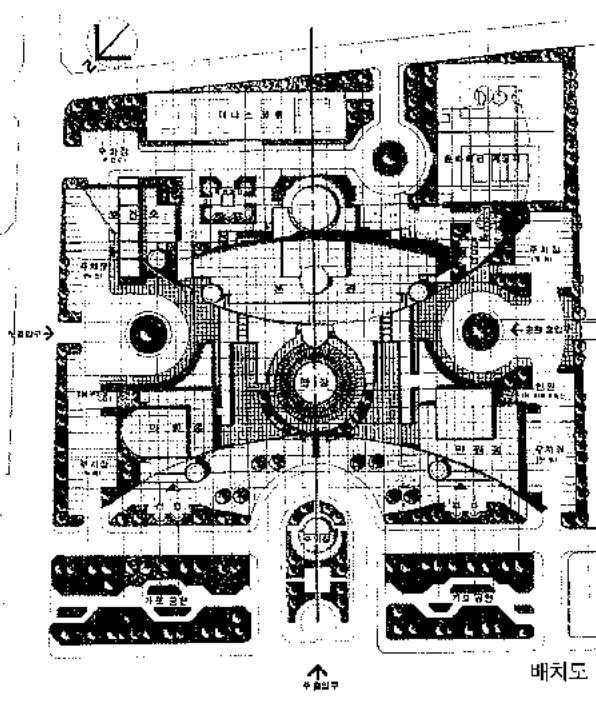
Bldg. Coverage Ratio / 16.44%

Gross Floor Ratio / 41.78%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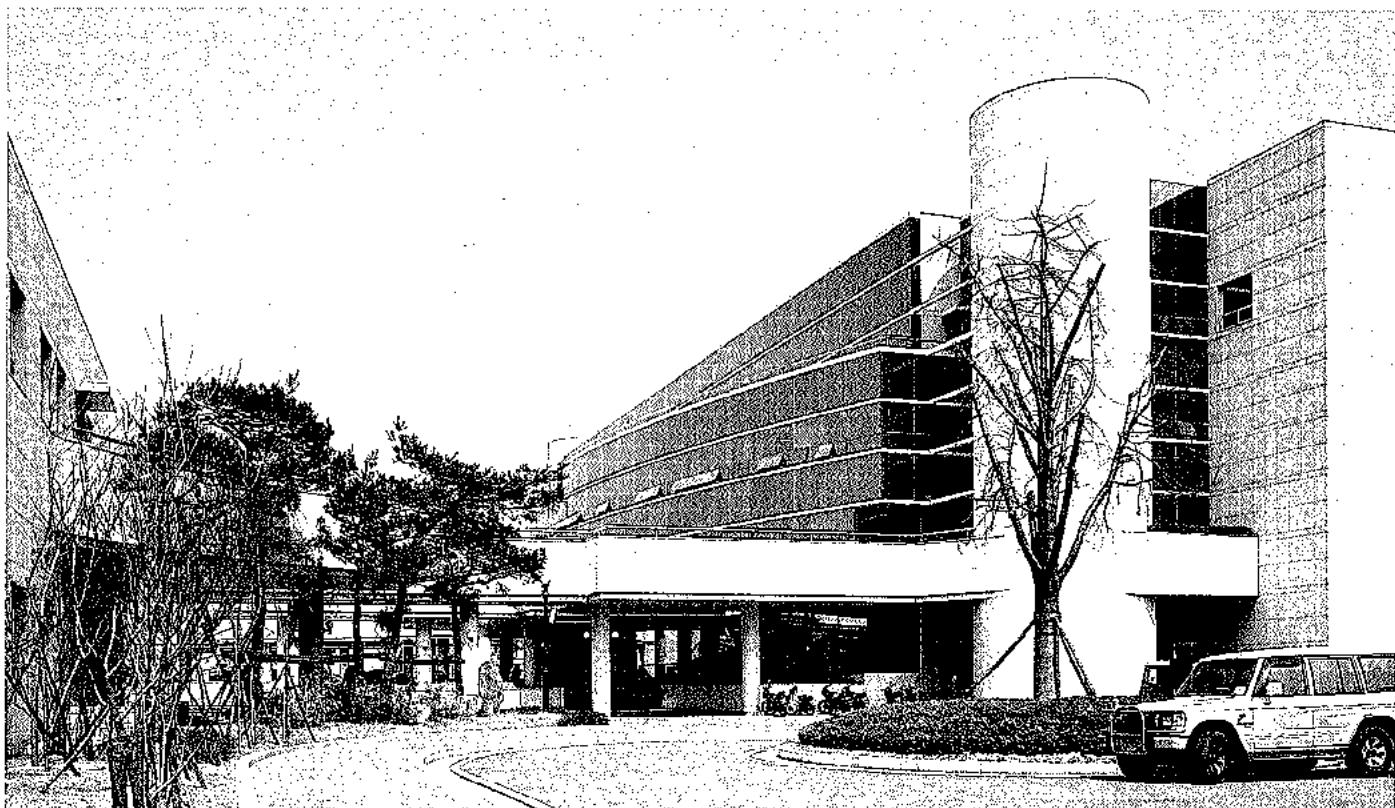
4 Stories Above Ground

Exterior Finish / Granit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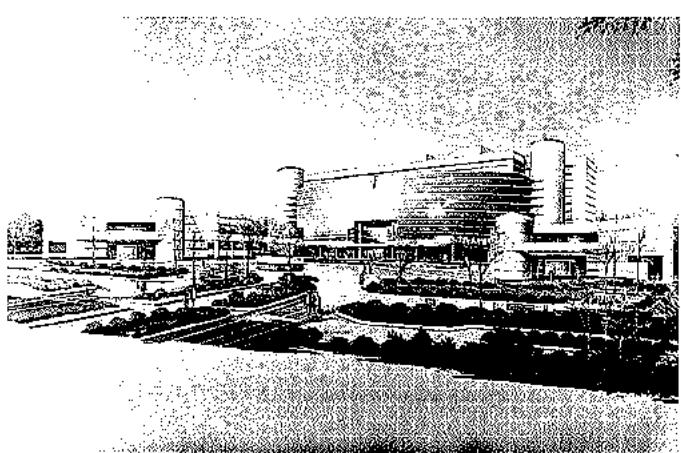
본관동 동측 전경



본관동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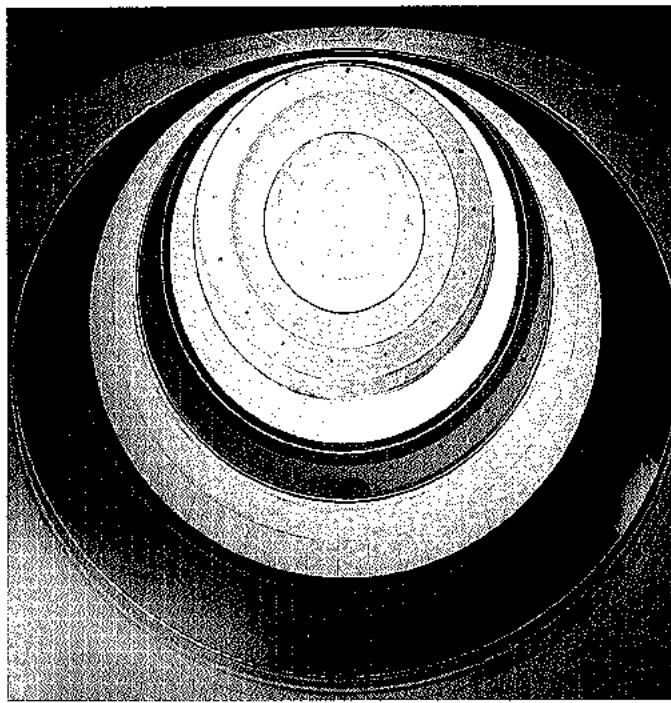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본 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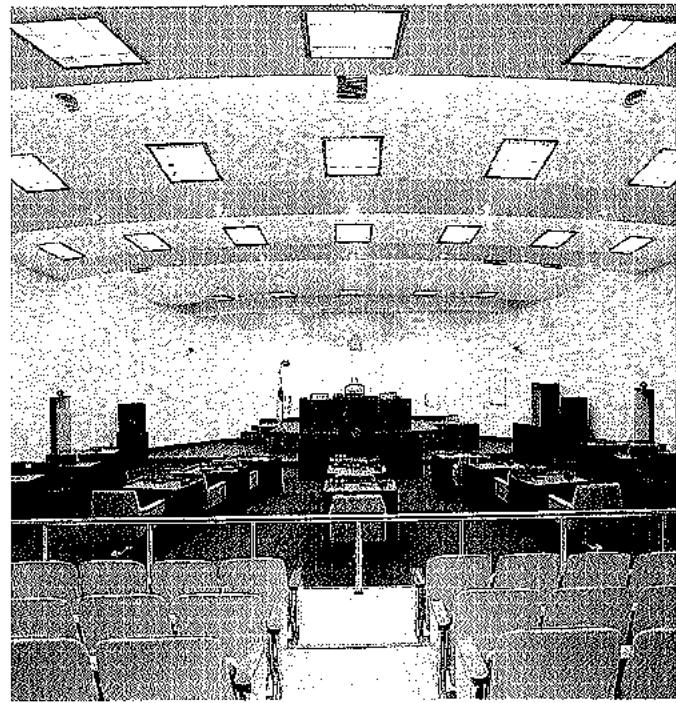
투시도



남서측 원경



로비천장



의회동 대회의실

덕풍동일대 기존시가지와 근접한 신장택지 개발사업지구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대지는 대지전면 3m, 북서측 30m, 동북측 15m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지반고가 19.6m이며 설계고는 25m로 성토하여 설계하였다.

#### 배치선택

- 전체적인 배치는 강의 흐름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였고, 공공건물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포용성있는 광장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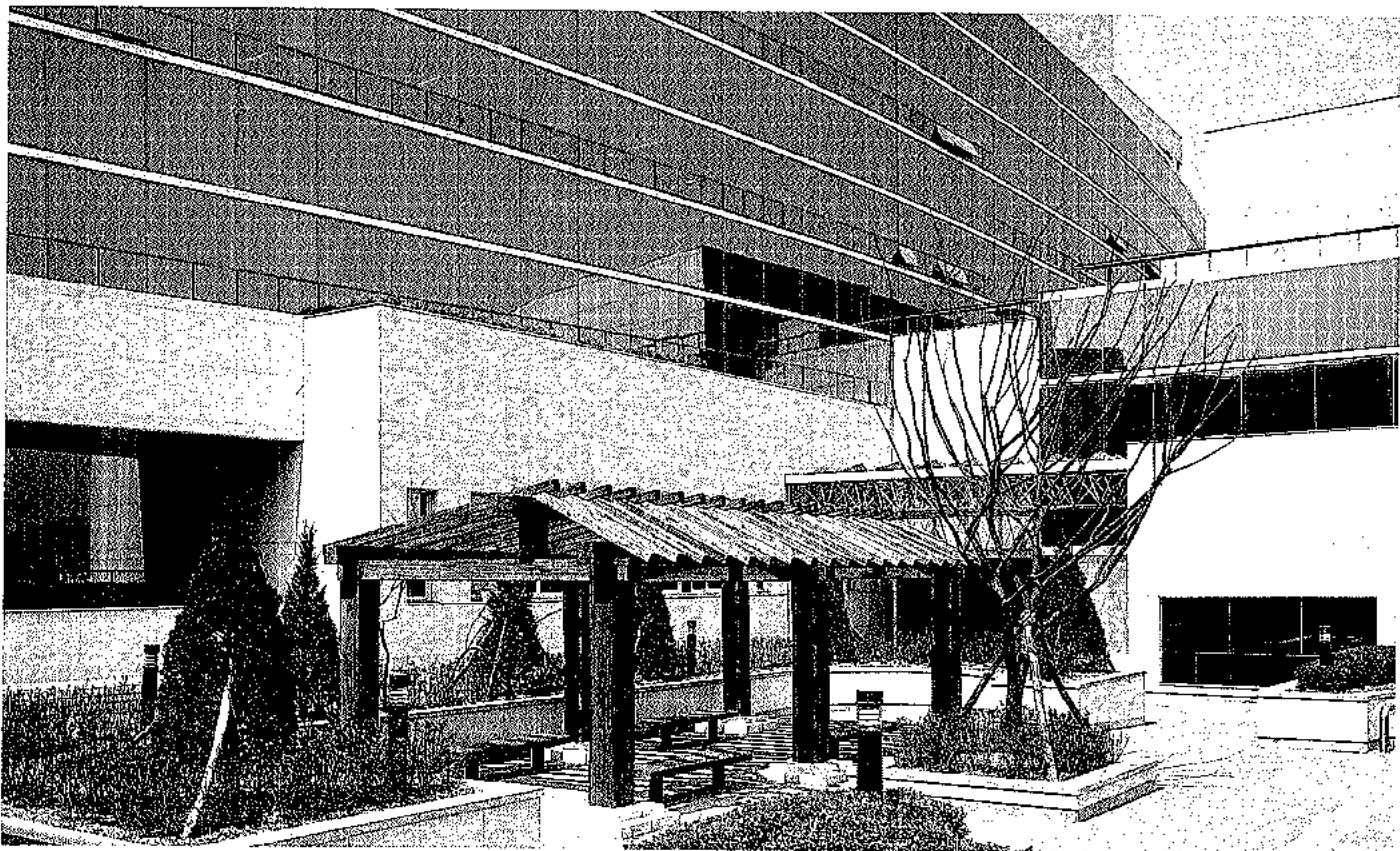
- 중앙광장 주변의 회장은 우천시와 하절기에 셀터로서의 기능과 특별한 행사시 군중의 모임터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였다. 또한 시민의 접근성과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위해 민원동을 별도로 배치하였다.

- 전체적인 동선의 흐름은 중앙의 주출입구와 건물 양측 부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며 건물뒷편

에 보조 출입구를 설치하여 동선을 원활하게 하였고, 코아는 동선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져도 록 중앙에 위치를 선정하였다.

#### 설계 개념

- 각동별 연관된 기능들이 상호 근접된 지점에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사용빈도 높고 이용자 수가 많은 실은 저층부에 배치하였다. 또한 내부



본관동 배면(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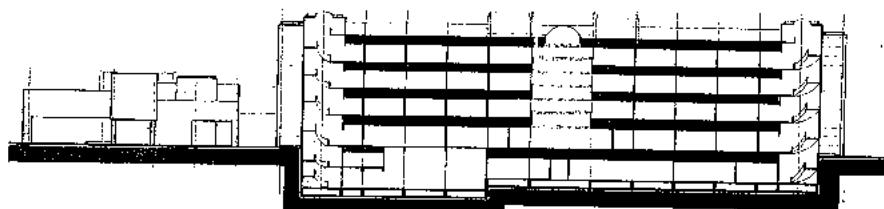
로비



본관동 주출입구 신문가든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개방감)를 설치 하였으며, 주 진입로 전면에 곡선을 두어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에 일주문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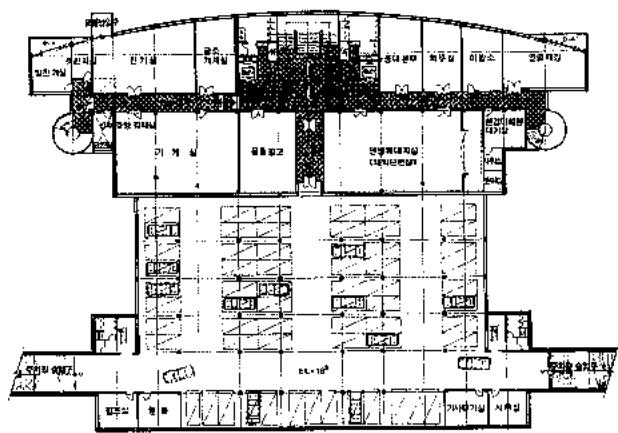
- 배치계획에 제시된 쌍곡선 결절부에 중앙광장(포용성 재강조)을 설치하였으며 건물 양측에 원형계단을 두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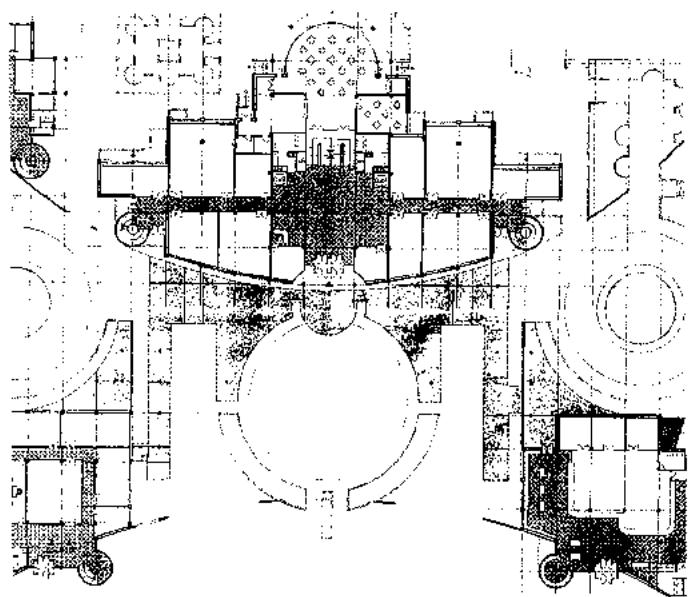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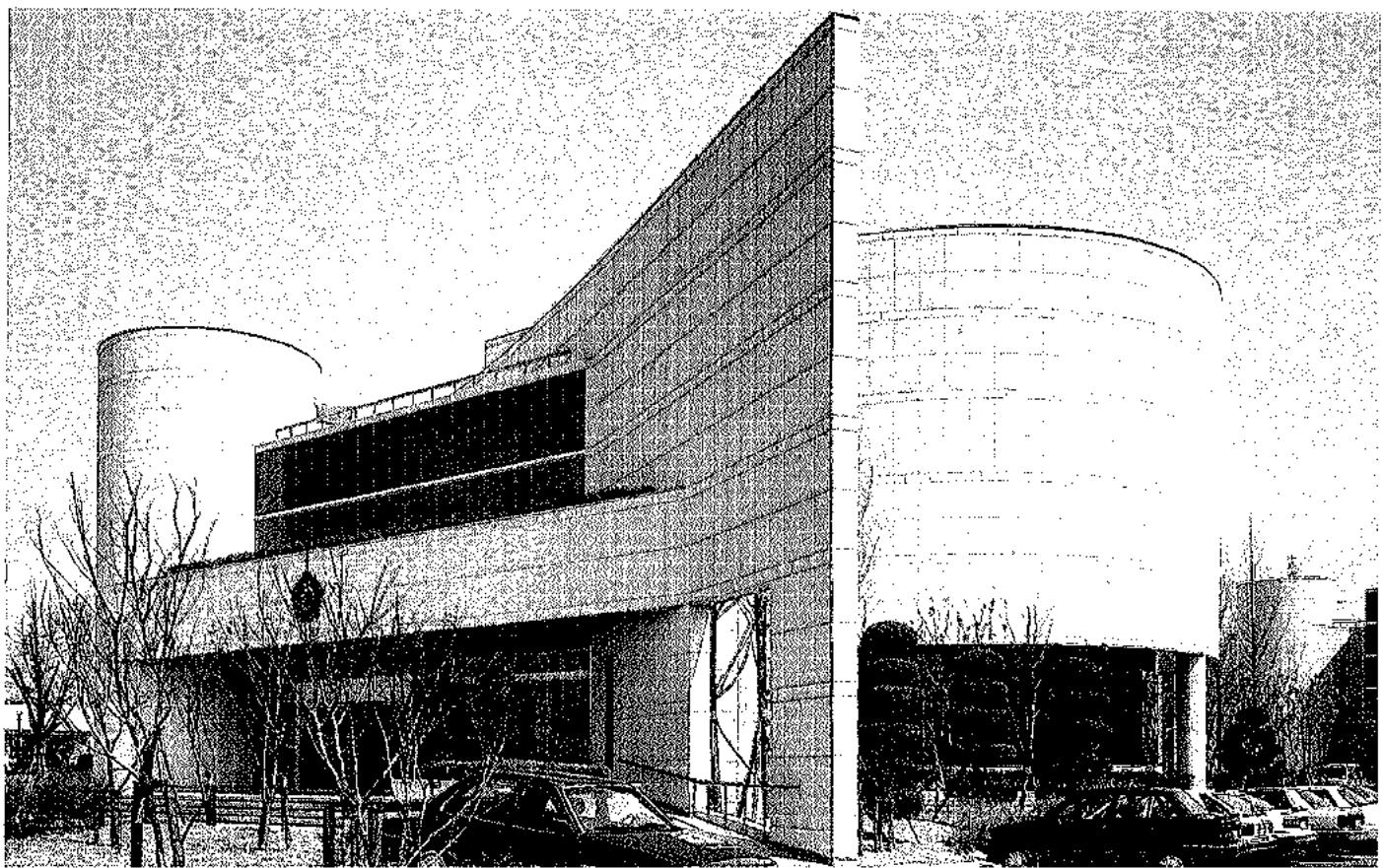
본관동 2층 대학의실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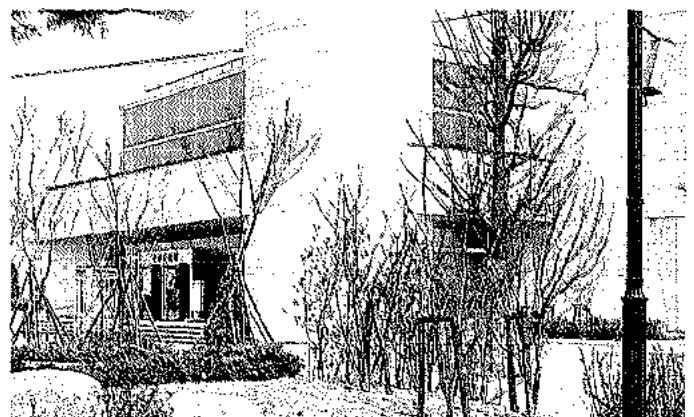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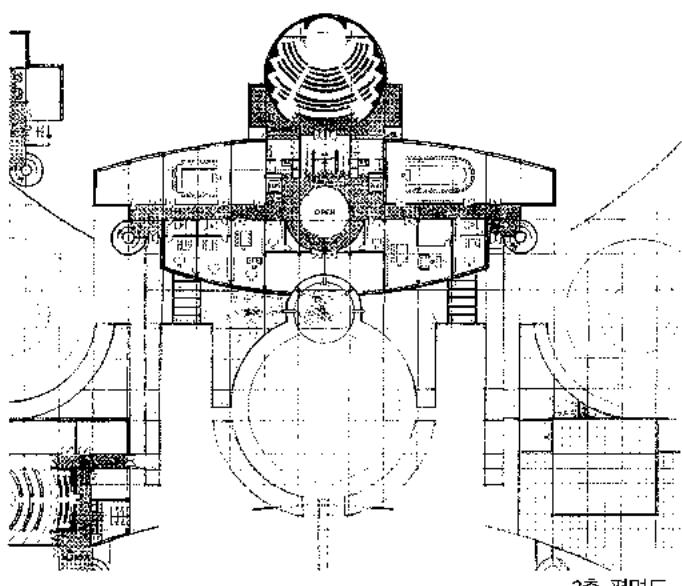
의회동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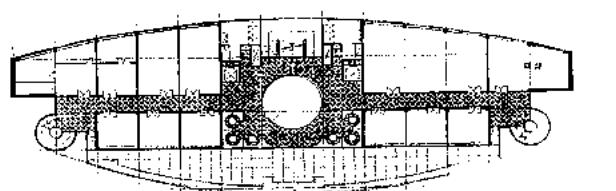
데크에서 본 민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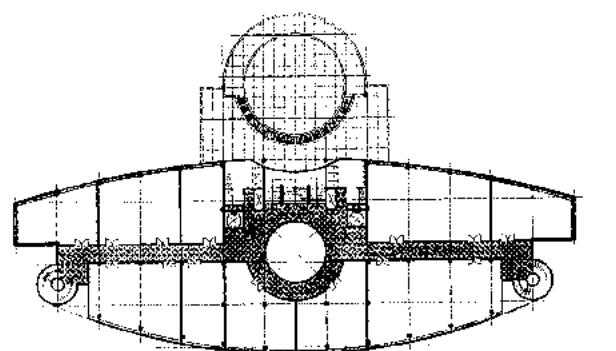
민원동 북측 전경



2층 평면도



4층평면도



3층평면도

# 울산시 제2 청사

Ulsan the 2nd City Hall

李龍欽 + 權元亨 + 鄭泰福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eum, Kwon Won-Hyeong & Jung Tae-Boek



북측전경

위치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 640-4

대지면적 / 22,599.70 m<sup>2</sup>

건축면적 / 3,594.85 m<sup>2</sup>

연면적 / 22,760.87 m<sup>2</sup>

건폐율 / 17.50%

용적률 / 73.73%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Location / 640-4, Shincheong-dong, Nam-gu,  
Ulsan-shi, Kyongsangnam-do

Site Area / 22,599.70 m<sup>2</sup>

Bldg. Area / 3,594.85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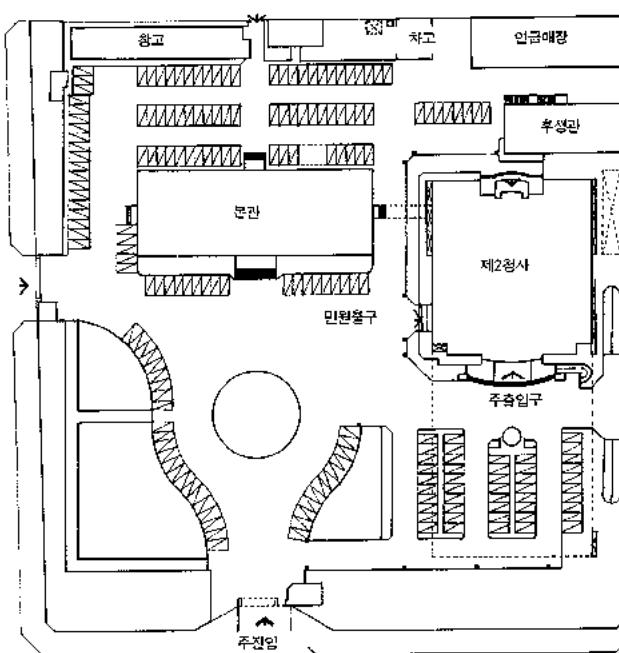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22,760.87 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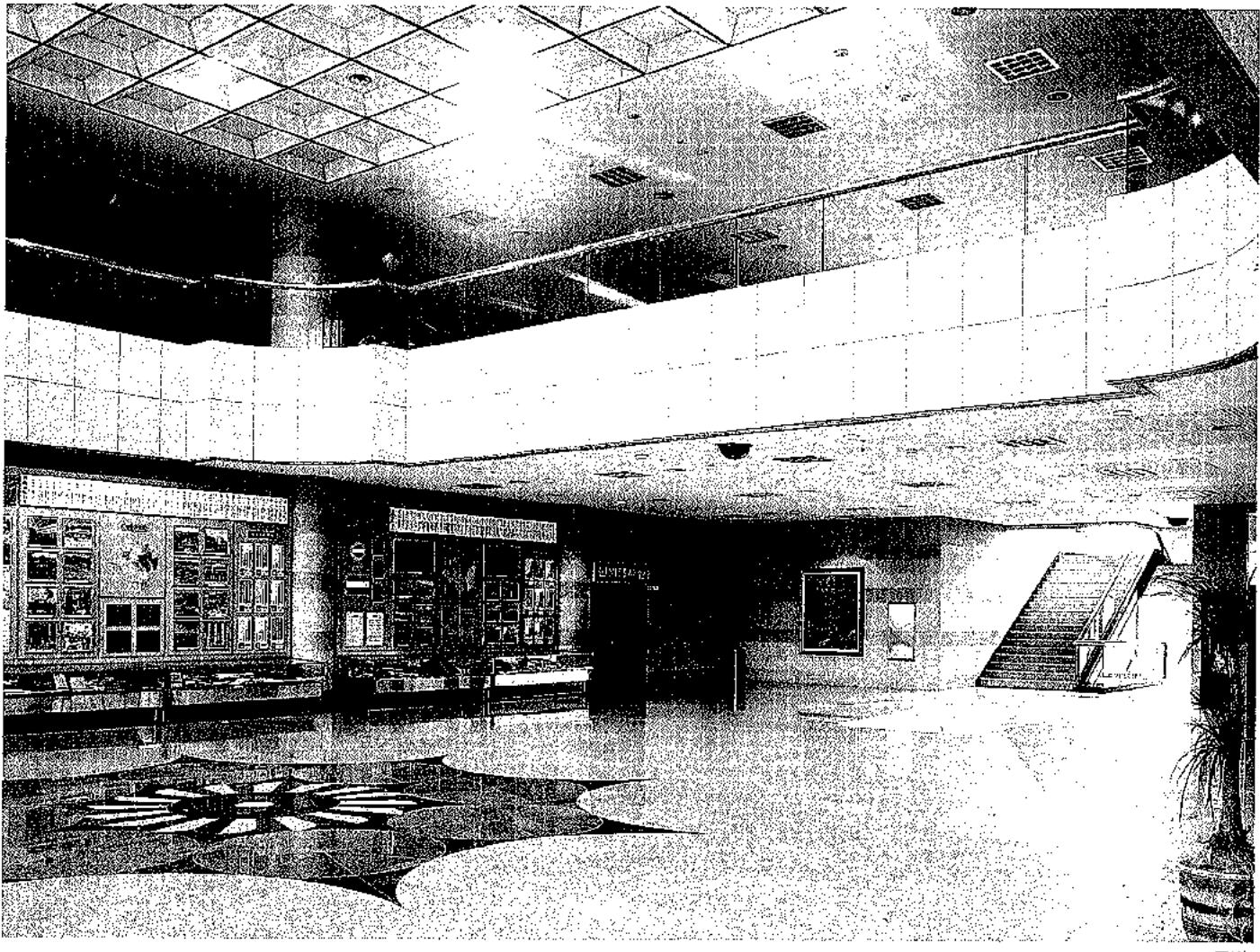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73.73%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배치도



로비

설계경기작품을 접수하고 1년이 가깝도록 당락의 소식조차 없던 울산시 제2청사의 낭보가 들려온 건 92년 3월 초로 기억된다.

본격적인 지자제가 되면서 생겨난 많은 시·구 의회청사 중 일신에 의한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에 이어진 울산의 의회청사 설계작업은 남다른 감회로 와 닿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25년전 시공된 울산시청과 브릿지로 각종을 연결한 모습인 이 건물은 증축건이면서도 전작인 경남도의회 규모를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속한다. 작업에 앞서 우선 울산시청 전체단지 level 검토와 기존건물의 실측으로 시작된 설계작업은 수많은 프로젝트 회의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차츰 자리를 잡았고, 울산시 보고회를 통한 지하 1층 주차장의 추가증설을 마지막으로 대체적인 건물윤곽이 완전히 결정되어졌다.

그러나 변경부위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결정화신이 늦어지면서 정해진 스케줄은 자꾸만 변경이 되어가고, 설계실 전체 작업일정 때문에 부족해지는 작업인원으로 준공계를 접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설계작업을 진행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다못했던 미진한 여려 부분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양금으로 남겠지만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 관공서 실시설계라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 할 수 있다.

#### 계획의 전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의회 의사당과 대민봉사 행정기능을 갖춘 현대적 시설의 종합기능 청사를 건립하고, 또한 울산시 의회로서의 상징성과 미래상을 반영하며 기존 시청 및 부대시설의 조화와 기능에 맞는 합리적, 경제적인 건물계획에 초점을 맞춘다.

#### 배치계획

**중심축:** 전면 30m 중앙로에서의 정면성 설정  
**부축:** 기존 시본청 건물축을 부축으로 설정하여 기존시청 대지 내의 질서 추구

**독립성 및 연계성 조화:** 기존 시본청 건물과 동일 진입축을 설정하여 대등성을 부여하고 상호연결로 기능적 연계성 도모

**영역의 독자성 부여:** 기존 시청사 대지내에 건립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진입광장과 독자적 영역을 부여

**상징성 부여:** 전면 30m 중앙로에서의 정면성 부여로 지방의회로서의 위상 부각

#### 평면계획

중심축에 의한 좌우 대칭구조의 평면개념으로 내부공간의 위계부여와 구조적 경제성을 추구하고 또한 시청 본관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행정업무 및 의회기능의 포괄적 수용을 의도하여 민원수령과 이용편의의 극대화를 도모

#### 입면계획

**수직개념과 수평개념의 조화:** 자치민주에의 의지와 발전염원을 내포하여 울산시의 장래 발전, 도약의지를 표출(수직요소)하고, 건물성격에 다른 민주주의의 수평적 개념과 민의를 상징.

#### 단면계획

대칭구조의 개념으로 단면계획의 질서와 경제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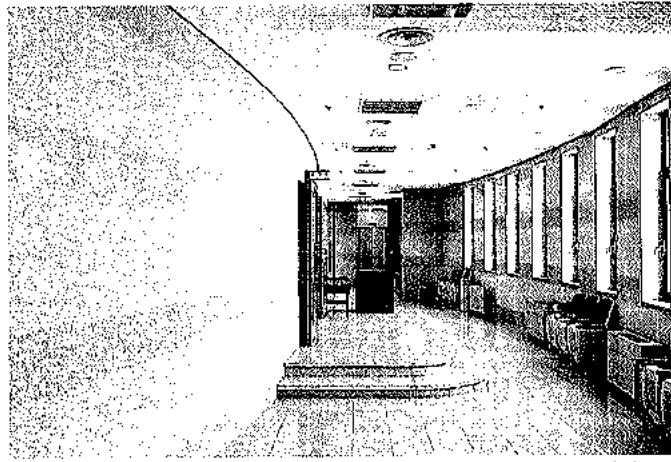
본관과의 기능연계, 행정사무실 수용의 기능 등 각실 용도 및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실내 배치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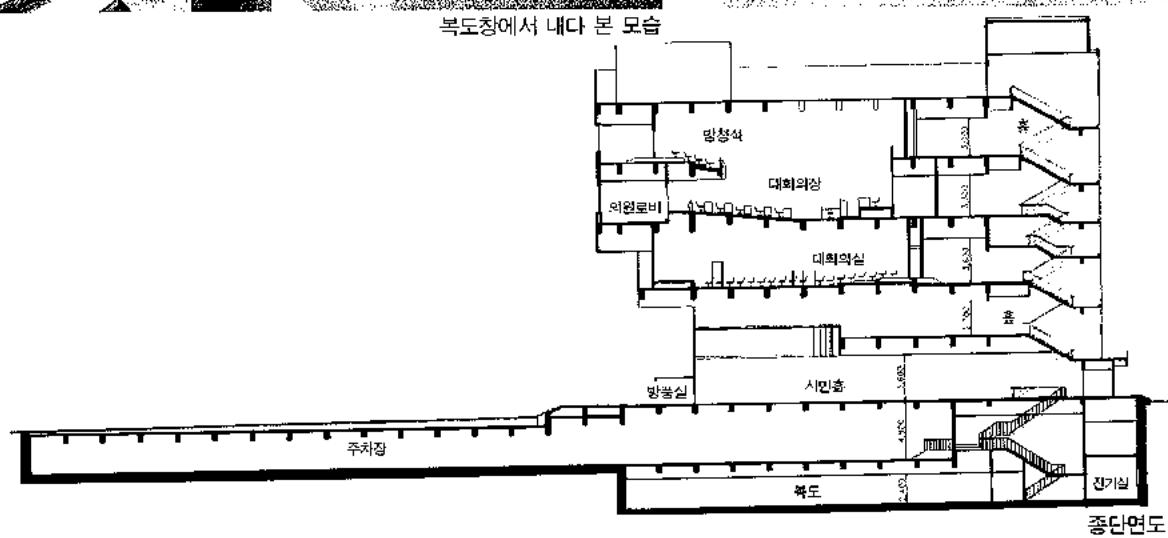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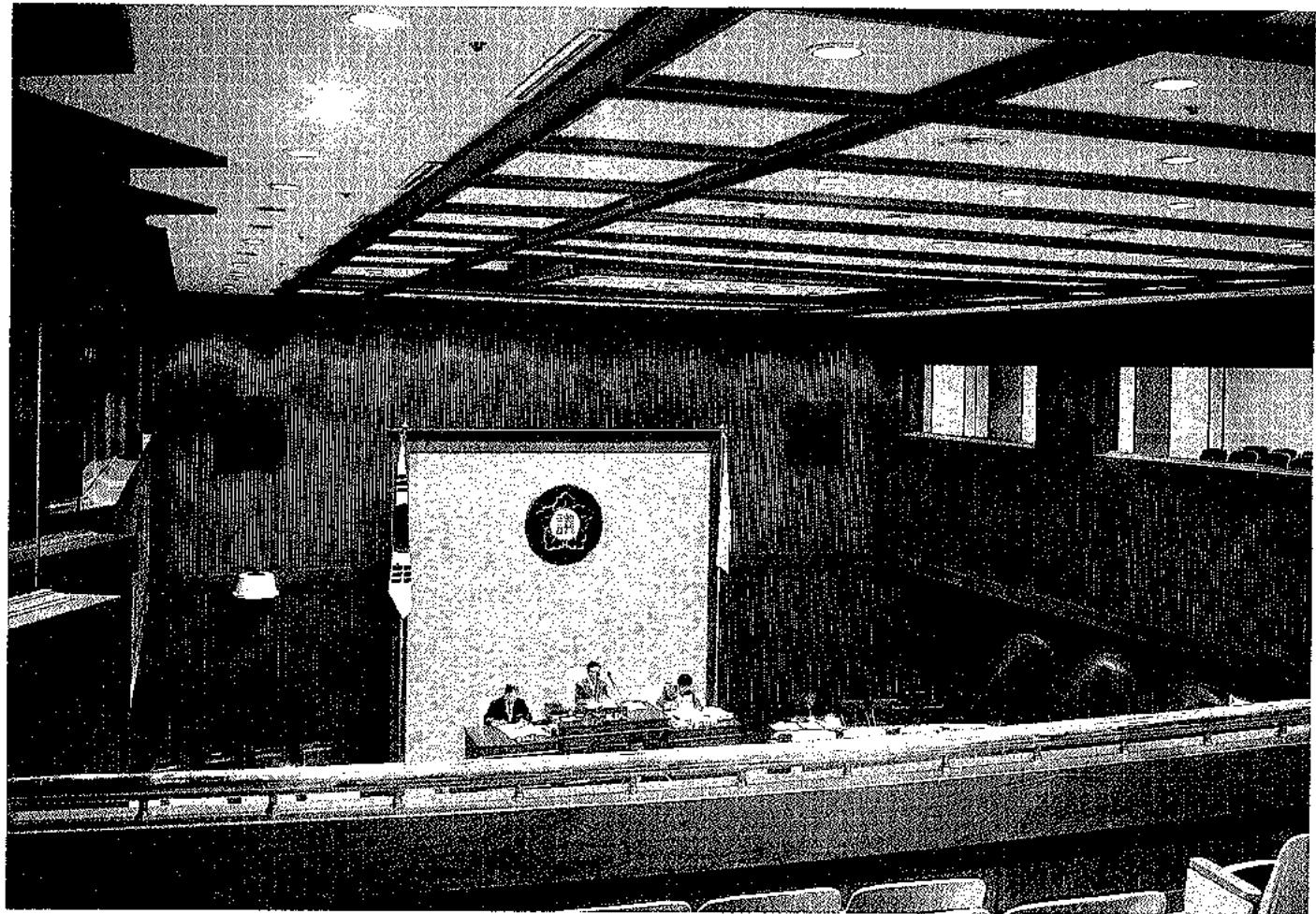


복도창에서 내다 본 모습



4층 의원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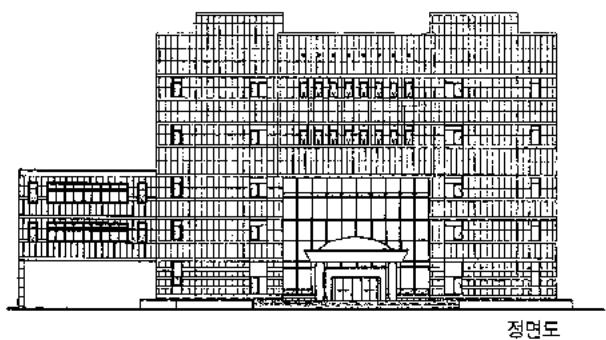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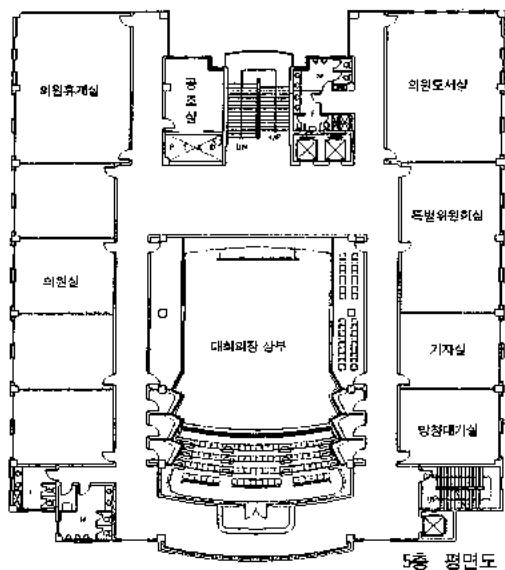
4층 대회의장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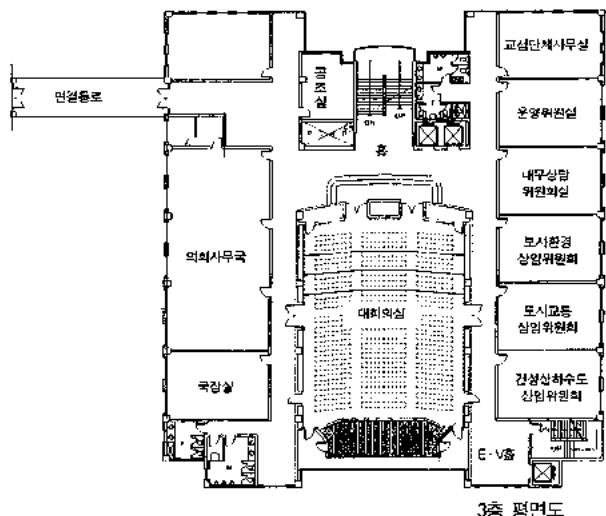
3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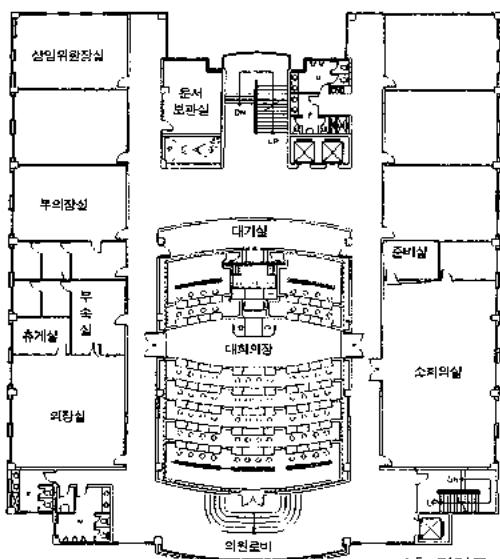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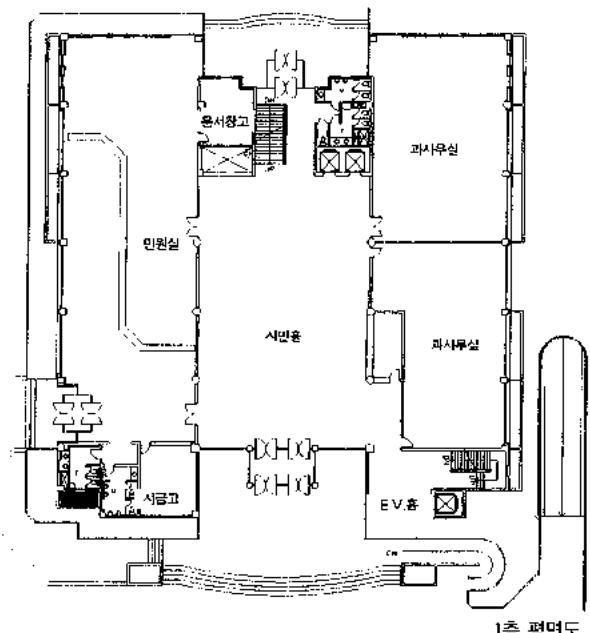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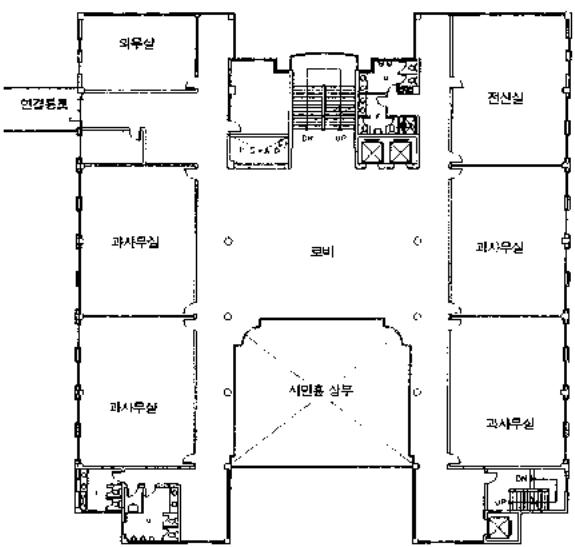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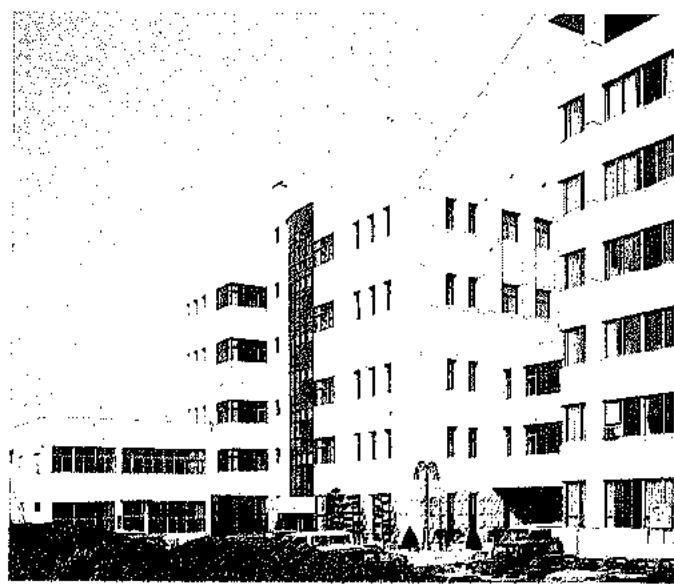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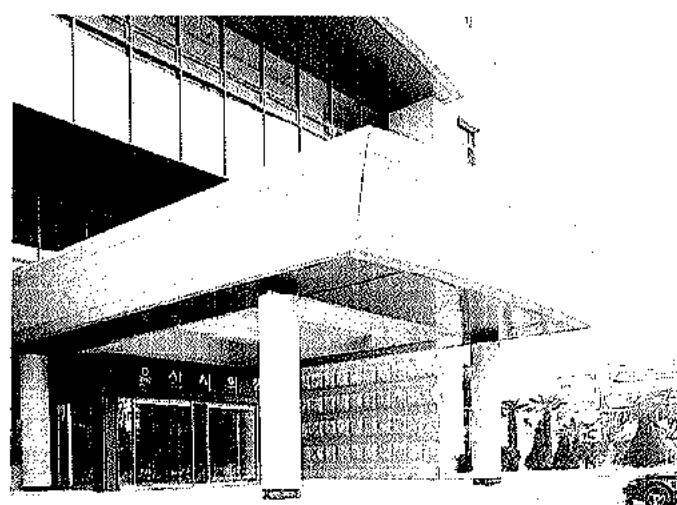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기존청사와의 연결 브릿지



남측전경



주출입구 전경

의원자료

# 소울 보울스

Sole Bowls

方喆麟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토  
Designed by Bang Chul- Lin



남동측 정면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4-6, 8호

대지면적 / 2,361.20m<sup>2</sup>

건축면적 / 1,072.10m<sup>2</sup>

연면적 / 3,134.14m<sup>2</sup>

건폐율 / 45.4%

용적률 / 111.33%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Location/984-6, 8, Daechi-dong, Gangnam-ku,  
Seoul

Site Area / 2,361.20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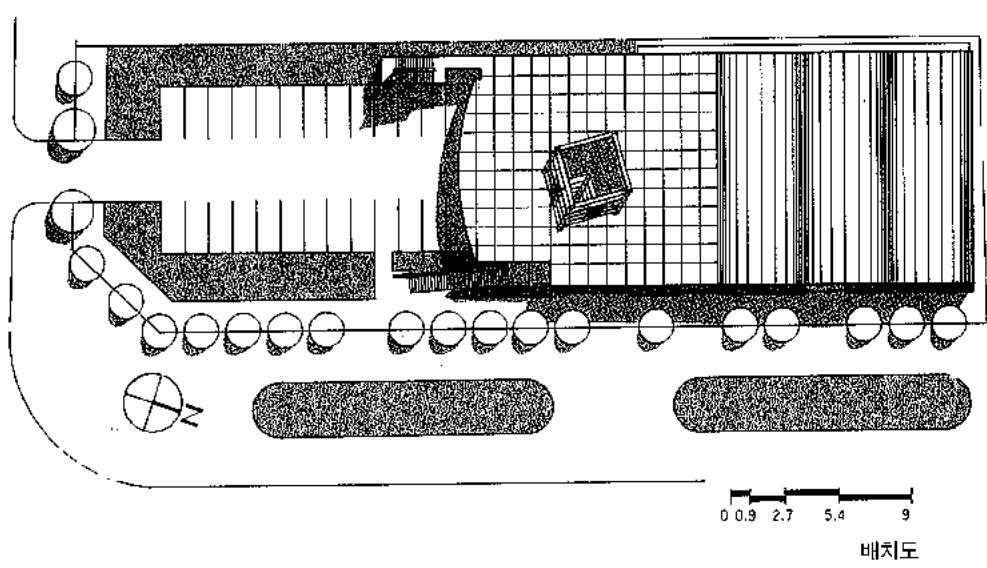
Bldg. Area / 1,072.10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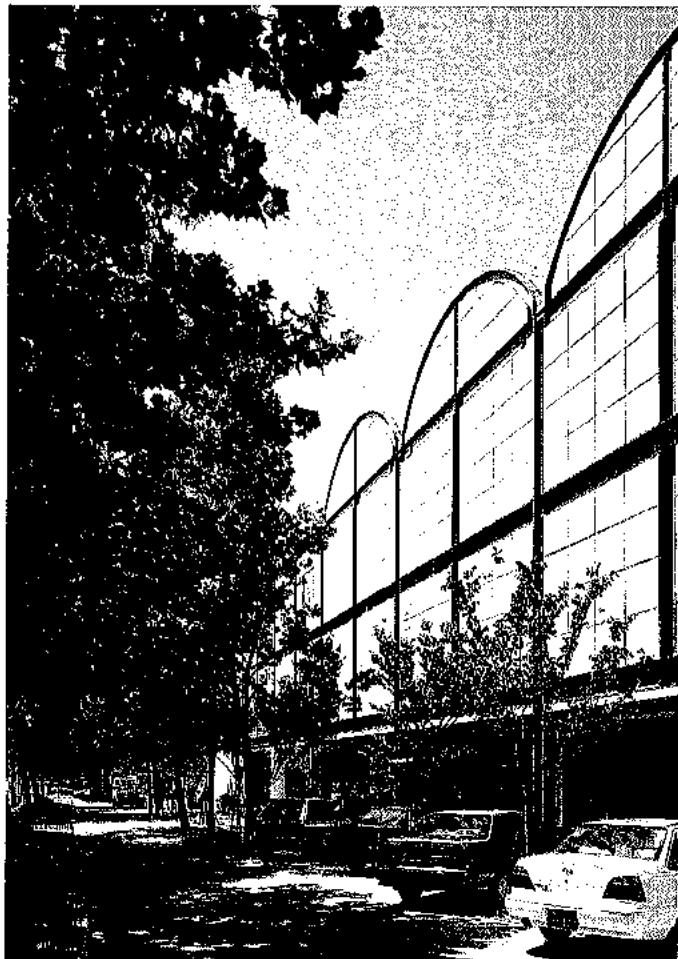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3,134.14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45.4%

Gross Floor Ratio / 111.33%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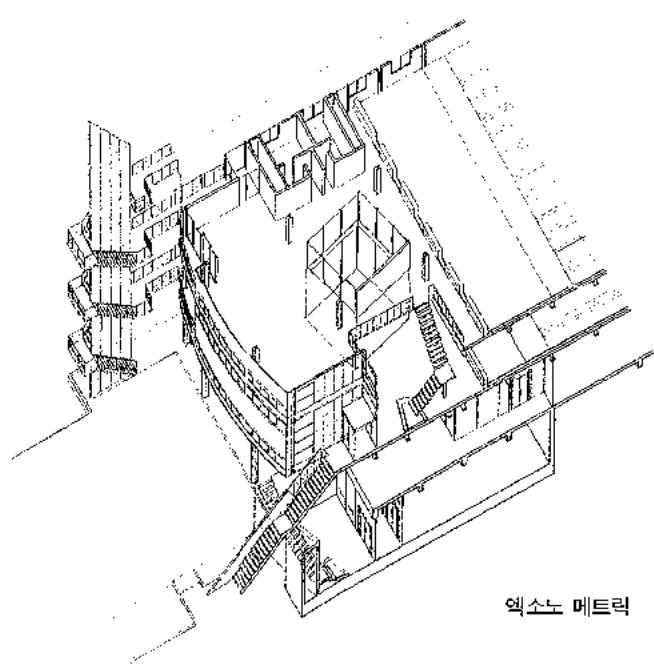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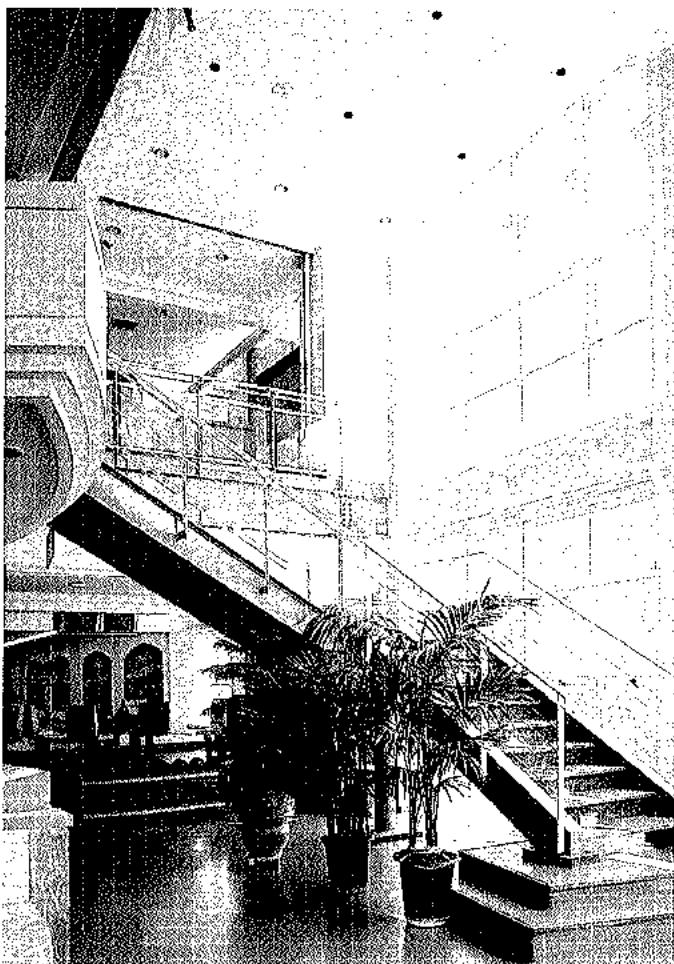
북쪽에서 본 보링장 동측 벽면



북동쪽 벽면 상세



엑소노 메트릭



1층 로비



남동쪽에서 본 2층 연결 계단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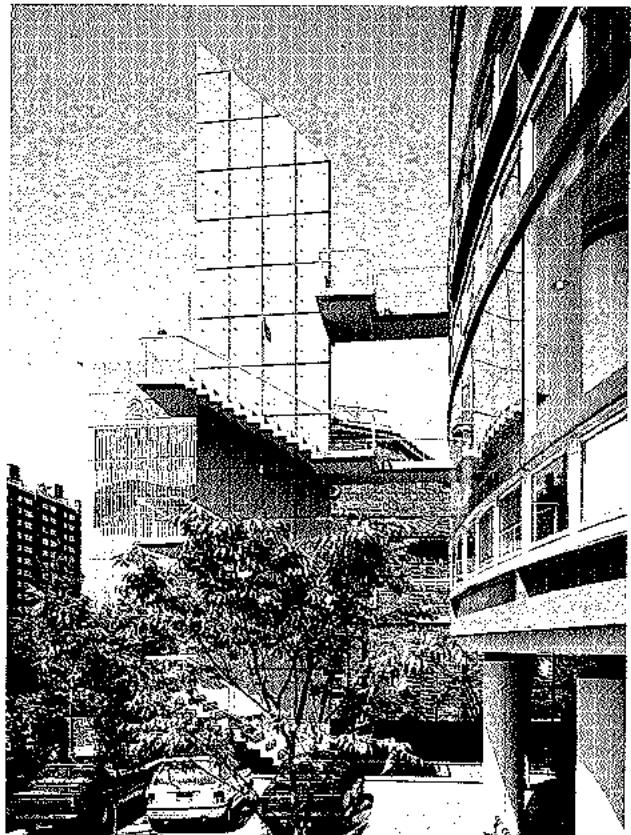
소울보울스의 대지는 거대한 아파트군 북쪽 상단에 위치하며 그 대지 동쪽에 연하여 남북으로 달리는 대로변에는 중소규모 사무소 건축물들과 음식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활기가 넘치는 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왕래는 적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도시내부에서 일어나는 야간의 공동현상의 발생은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링장의 이용시간 대역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넓다는 점은 도시의 공동현상 제거에 상당히 고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하며 이러한 소울보울스의 형태적 에너지는 도시를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화로의 탈바꿈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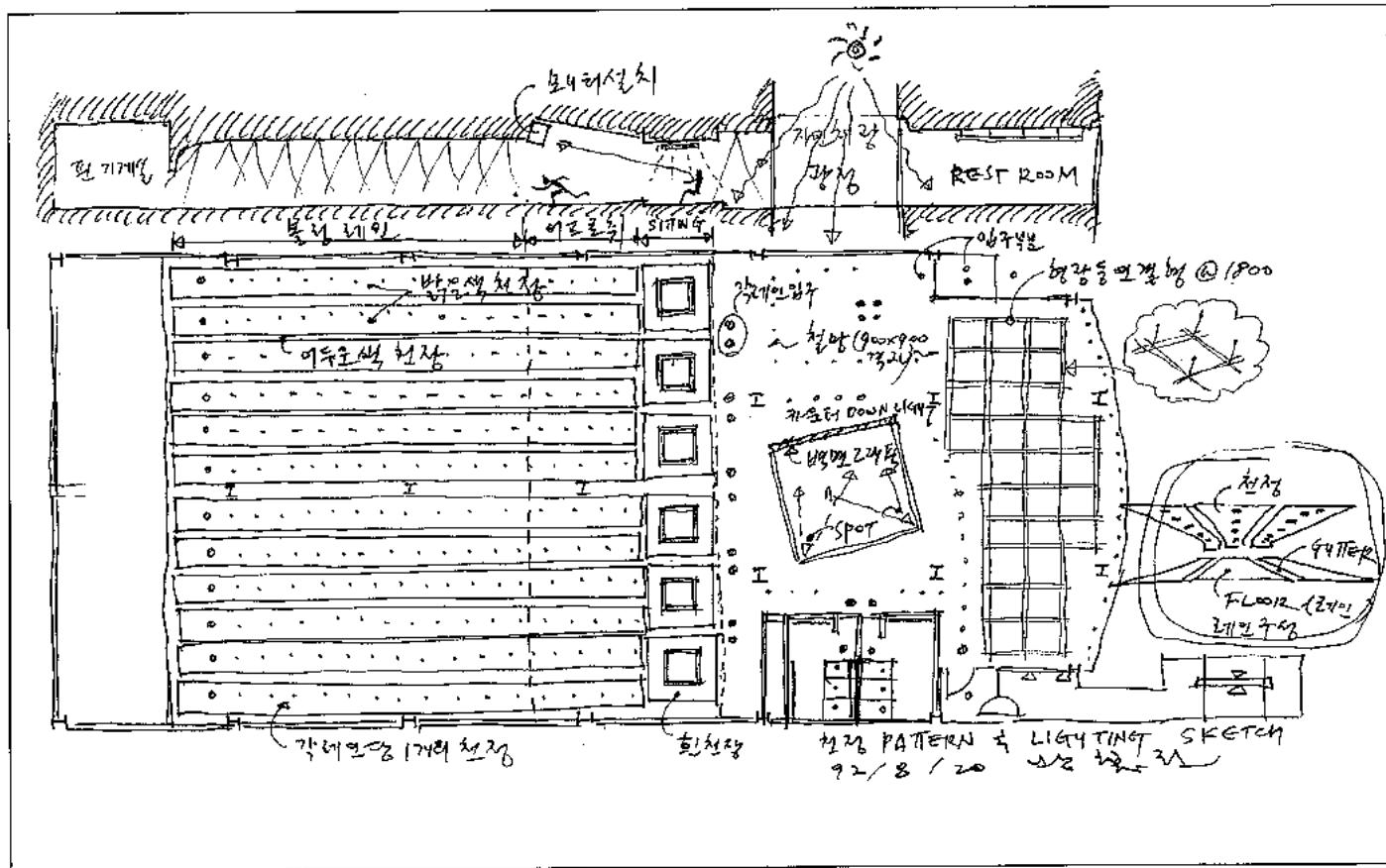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위는 도시화된 건축 위에서 도시에 노출됨으로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소울보울스의 건축적 구성개념은 이러한 도시적 요구가 기본이 되었다. 도시와 건축의 영역의 구분화보다 상호관입 가능성성이, 폐쇄적이기보다 개방적인 배치방법이, 그리고 건축의 요소들의 중간영역화 등이 건축에 요구되어졌다. 관객석쪽으로 열려있는 극장의 무대 - 그것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확연한 것이 아니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 배우와 관객이 호흡할 수 있는 - 같이 소울보울스는 그 자체가 도시의 무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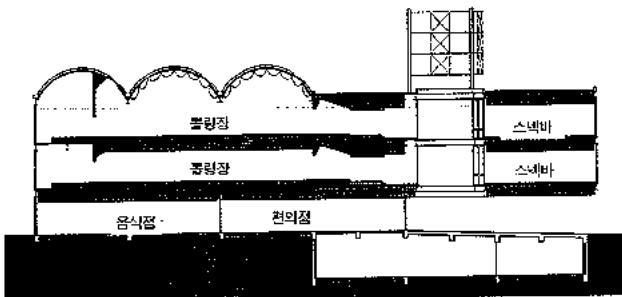
건축에 동원된 모든 건축요소들 - 두개의 옥외계단, 피로티, 발코니, 선콘가든, 분산된 출입구, 내외부가 교감을 갖게하는 투명창, 수목들 - 모두가 도시의 무대요소로 쓰여지도록 구성되었으며 이곳을 찾아 드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앉아서 담소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무대 위의 배우가 되어 그 자체가 도시의 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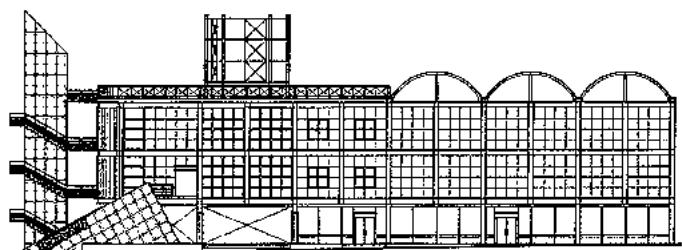
동측에서 본 전면부와 외부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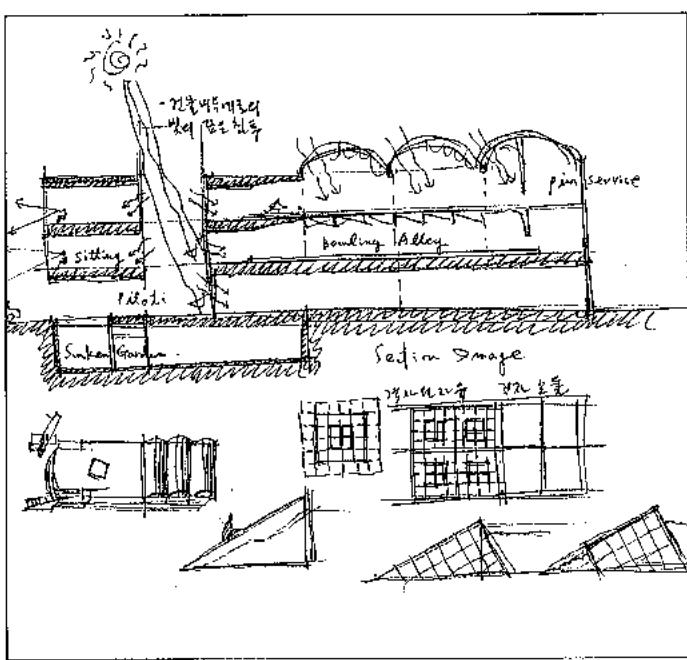
실내 공간 계획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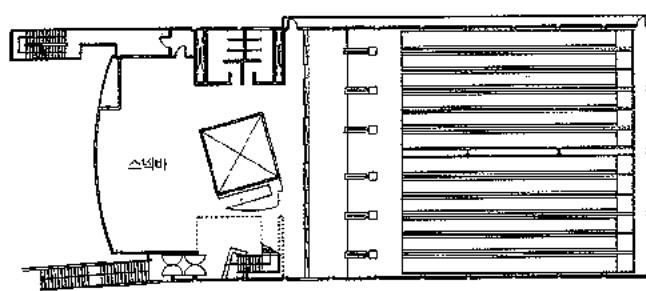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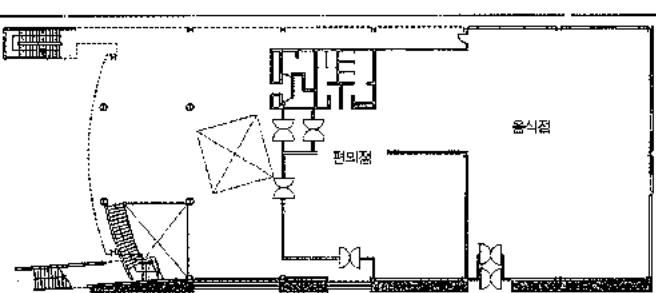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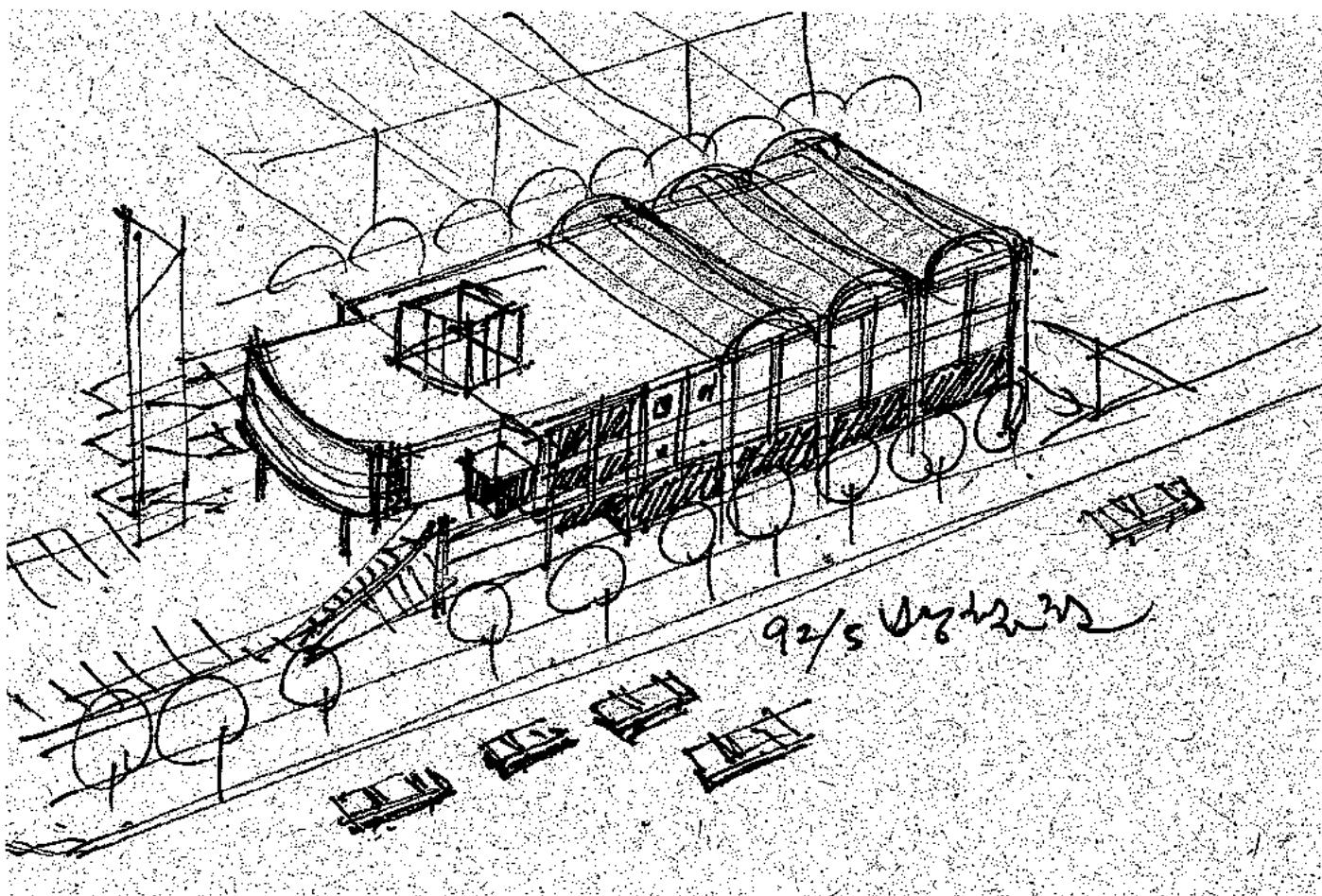
부분 상세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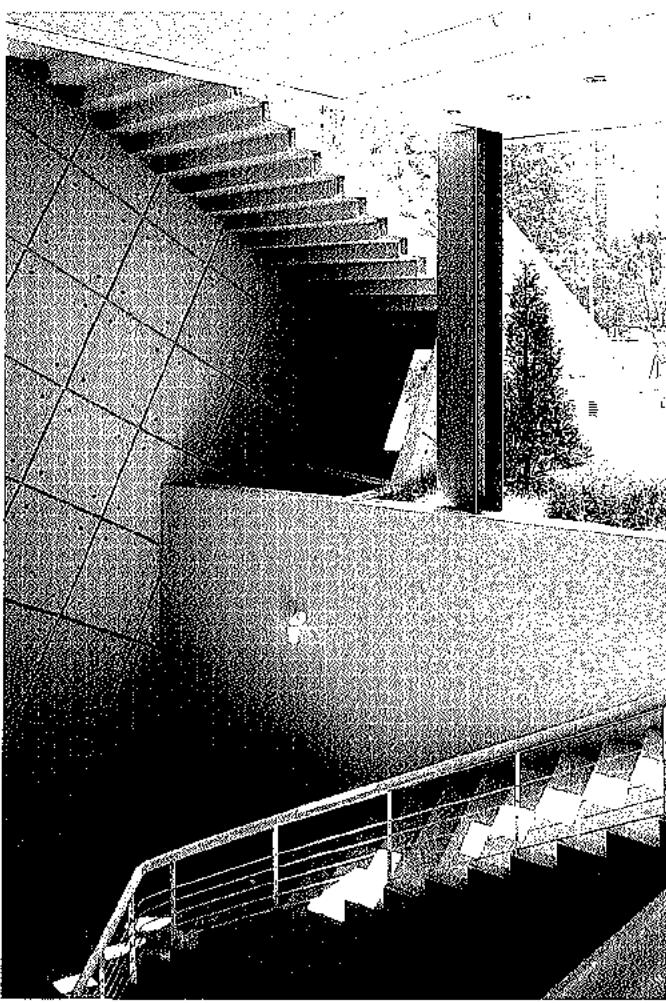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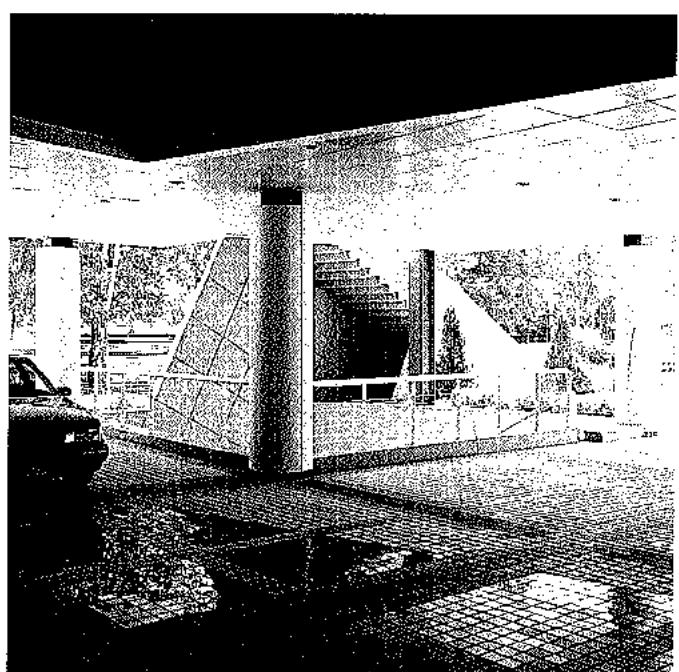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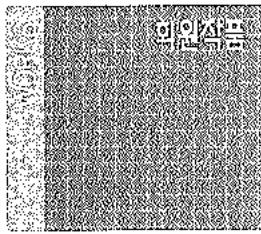
스케치



신큰가든



피로티



# 한국수자원기술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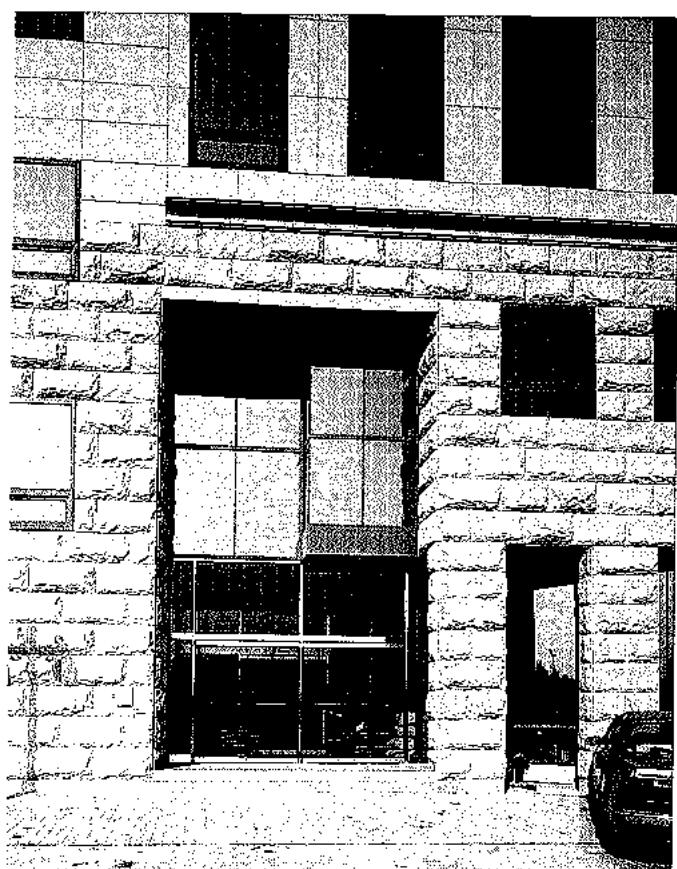
Korea Water Resources Engineering Corporation

徐鏞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수목  
Designed by Seo Yong-Shik





은행출입구 벽면 상세



주출입구 전경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8

지역 · 지구 / 일반가주지역,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928.20m<sup>2</sup>

건축면적 / 472.36m<sup>2</sup>

연면적 / 5,520.87m<sup>2</sup>

건폐율 / 5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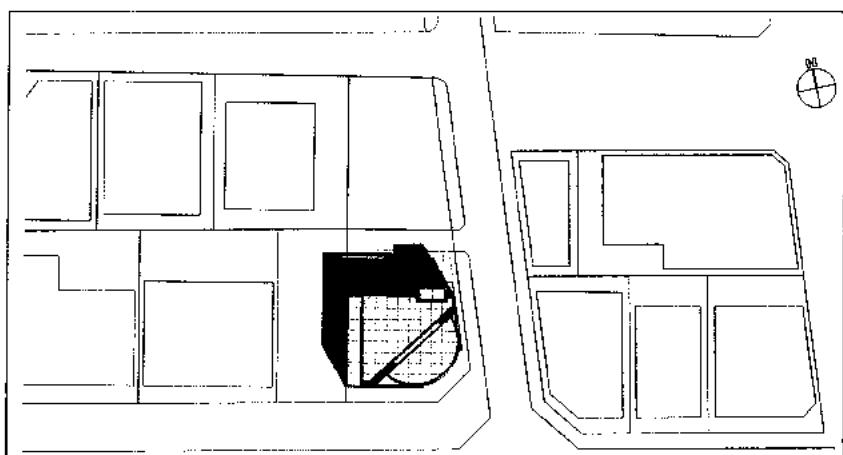
용적률 / 349.41%

규모 / 지하3층, 지상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회강석 물갈기+화강석 흙두기

설계담당 / 이성용, 현순섭, 하민천, 주광성, 구무길, 곽성진, 박미연, 김승범



배치도

Location / 448-8, Seongnae-dong, Kangdong-gu, Seoul

District / House, City planning

Site Area / 928.20m<sup>2</sup>

Bldg. Area / 472.36m<sup>2</sup>

Gross Floor Area / 5,520.87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50.88%

Gross Floor Ratio / 349.1%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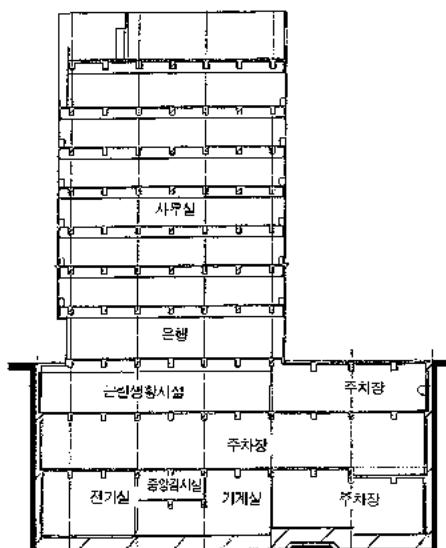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Project Team / Lee Sang-Yong, Hyeon Sun-Seop, Ha Man-Cheon,

Ju Kwang-Seong, Ku Mu-Kil, Kwak Seong-Jin,

Park Mi-Yeon & Kim Seung-Beom



주단면도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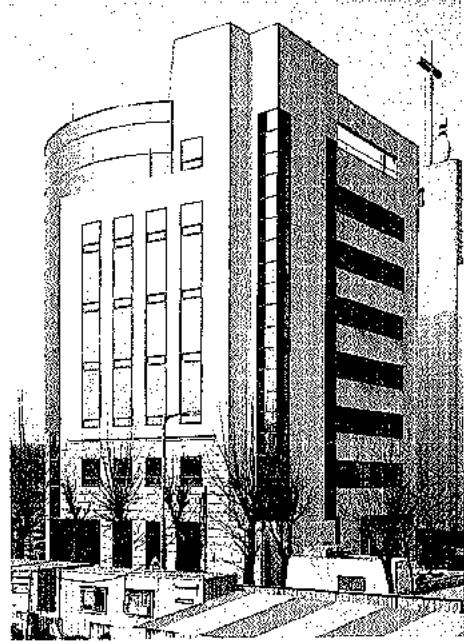
계획 대자는 올림픽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아직은 숨통이 트여 있고,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으로 도시설계에 의하여 융통성은 없지만 비교적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중인 곳 중의 하나이다.

계획의 사업주체가 정부투자기관 이라는 점,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인접지대와의 합법 처리관계, 2면도로에 접함으로 인한 가각처리 등 계획시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 비교적 복잡하게 얹혀있는 프로젝트이다. 종래의 관건물이 갖고있는 형태구성의 권위적, 획일적 이미지로부터 탈피, 도시적 스케일과 인간적 스케일(내·외적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3부 구성(저, 중, 고) 원칙에 의한 시각적 비례로 분할하여 이질적인 성격(어린이용 완구 회사)의 옆건물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도심속의 오피스에 내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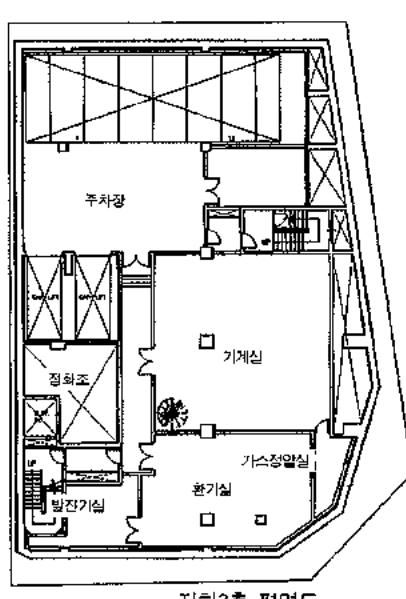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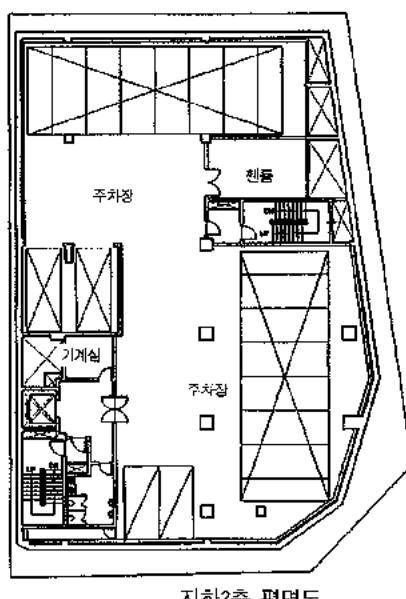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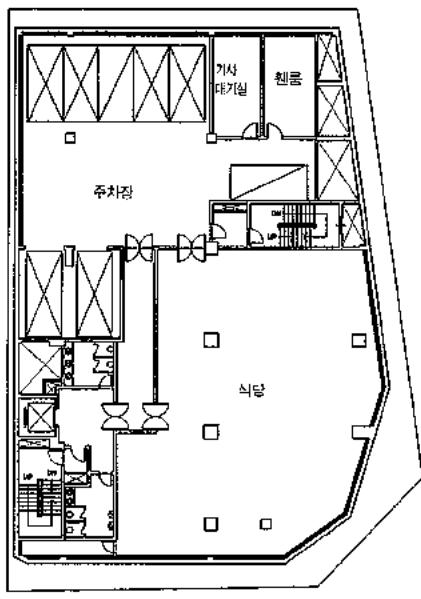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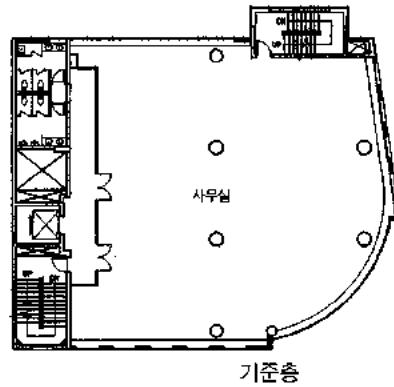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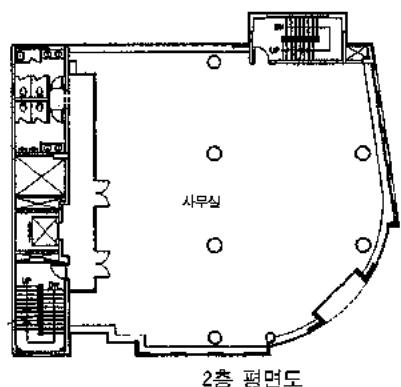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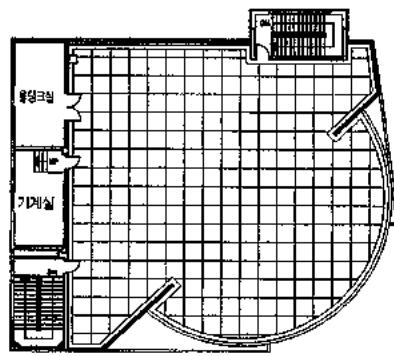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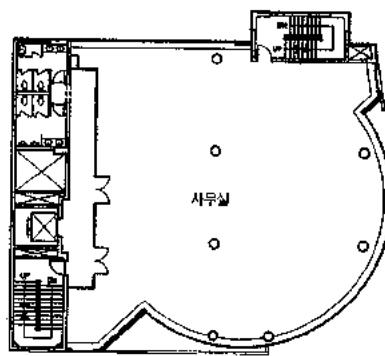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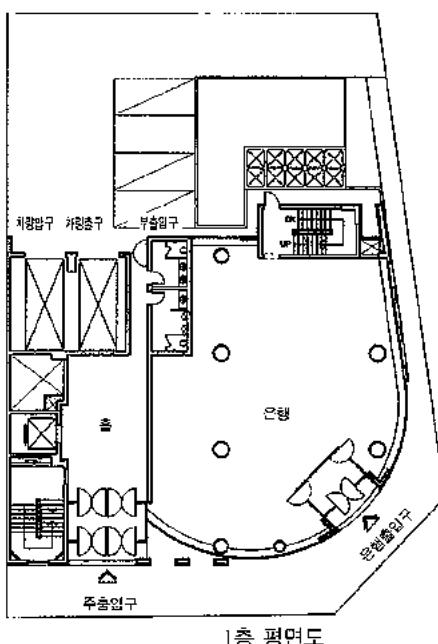
이원적 성격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2중코드의 사용'이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그 결과로서 이 계획은 도심인의 다양한 감각성향에 부응하는 구성방법, 이에 의해 유발되는 건축물의 상업적 가치의 상승, 형태와 상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매개체로서 좀 더 절충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를 띠면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2중코드를 사용, 모더니즘의 실존적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내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결국 이들이 주는 인상이나 의미는 단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이미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를 위해 그리고 지역적이고 다소 감각적인 하나의 상징으로서 현재를 나타내고자 한다.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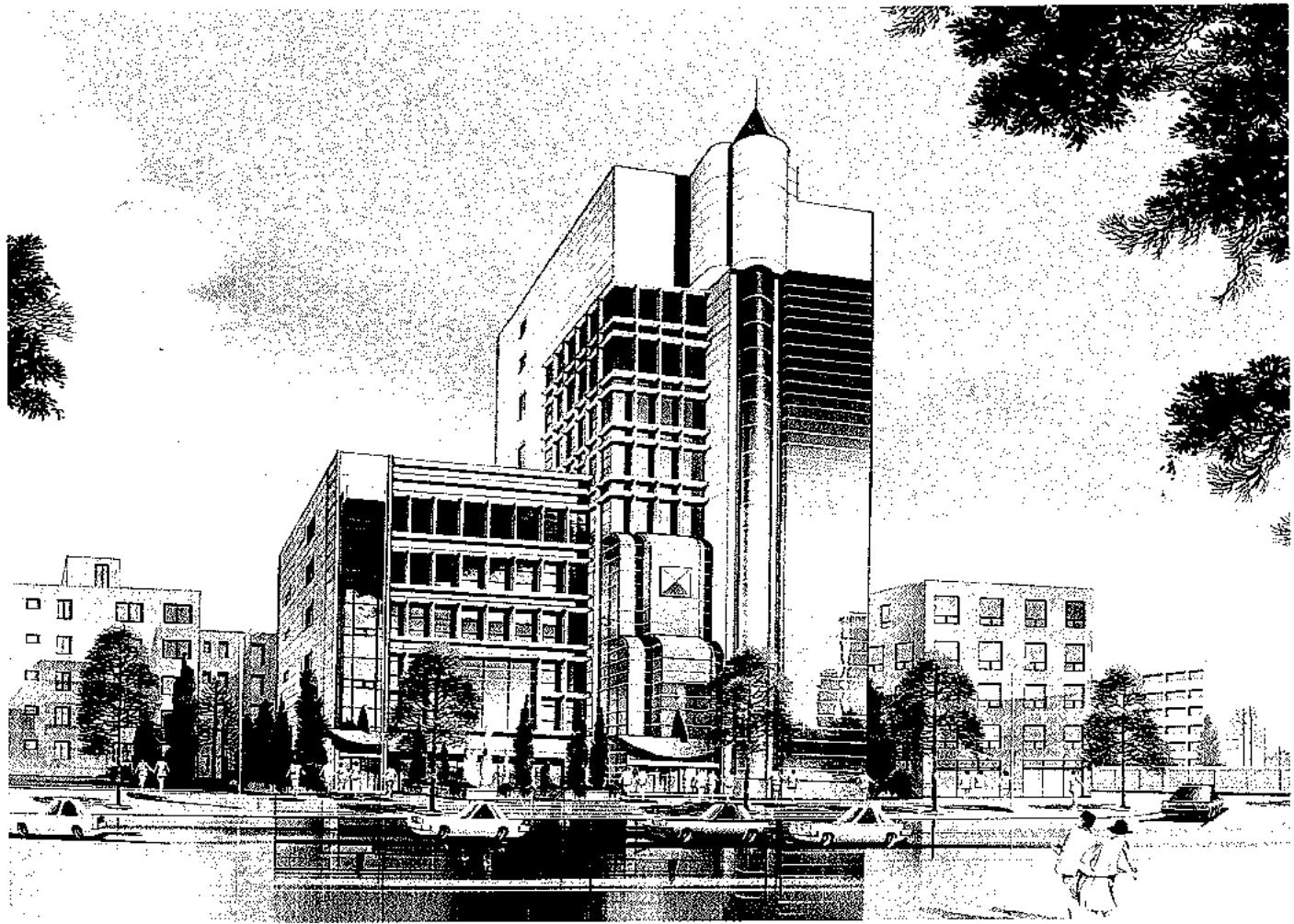


# 꽃마을 한방병원

Kkotmaul Herb Medical Center

文聖雲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ung-Un



투시도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4,5,8호

대지면적 / 1,098.00m<sup>2</sup>

연면적 / 6,063.56 m<sup>2</sup>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 10층

설계담당 / 이종훈, 김영호, 이은경

Location / 1656-4,5,8 Seocho-dong,

Seocho-gu,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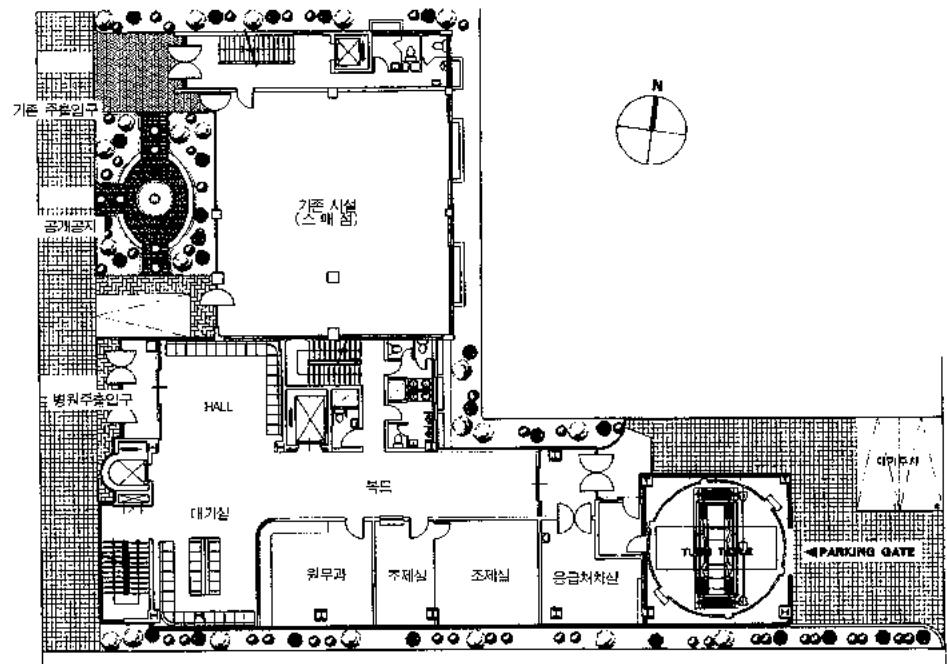
Site Area / 1,098.00 m<sup>2</sup>

Gross Floor Area / 6,063.56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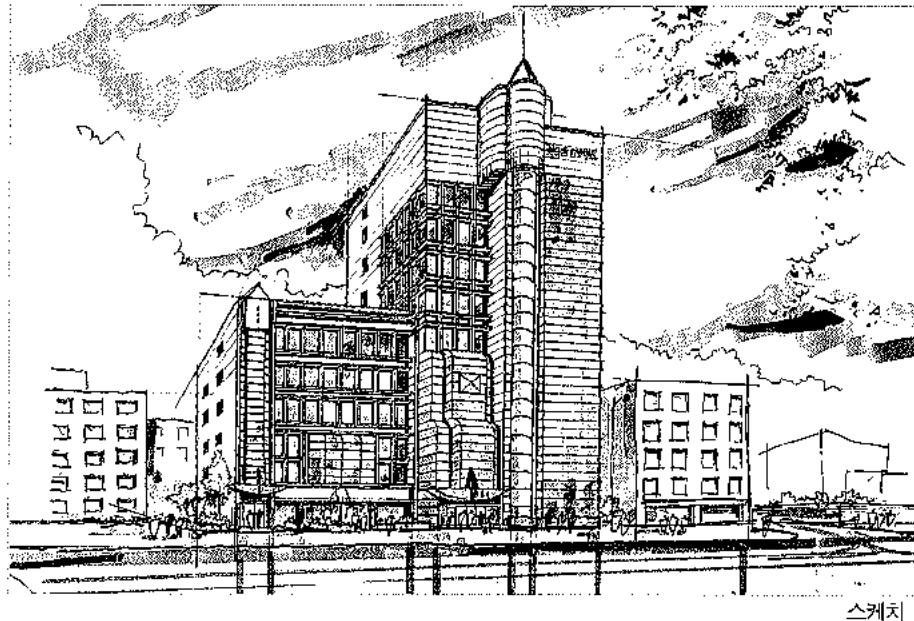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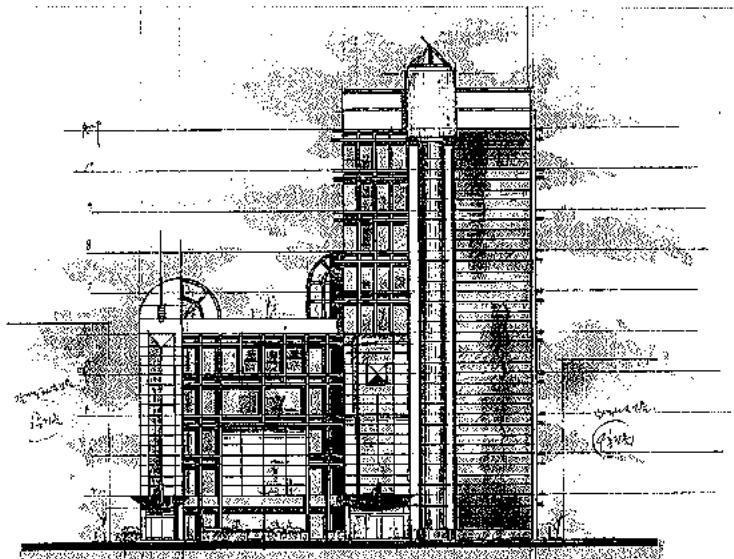
Project Team / Lee Chong-Hun, Kim Young-Ho &  
Lee Un-K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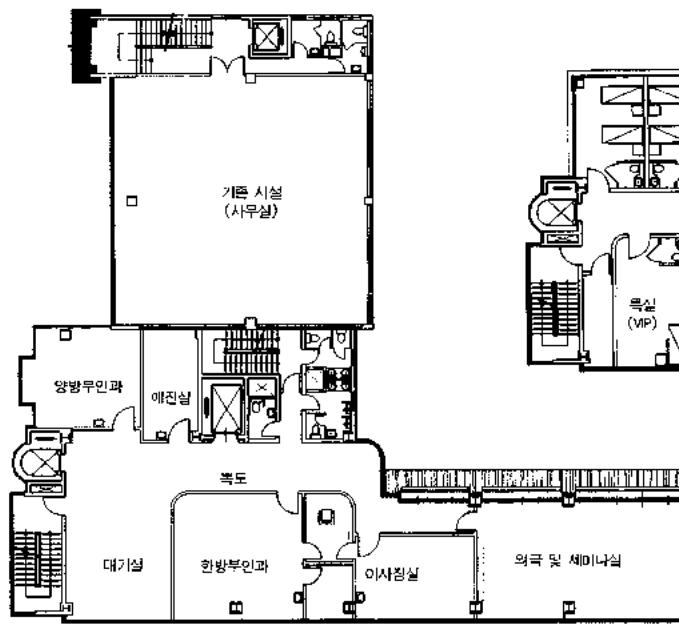
배차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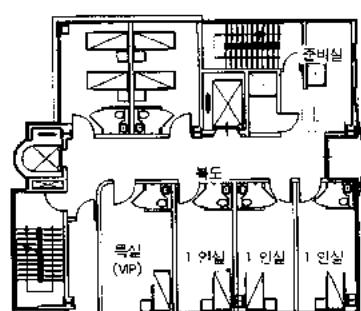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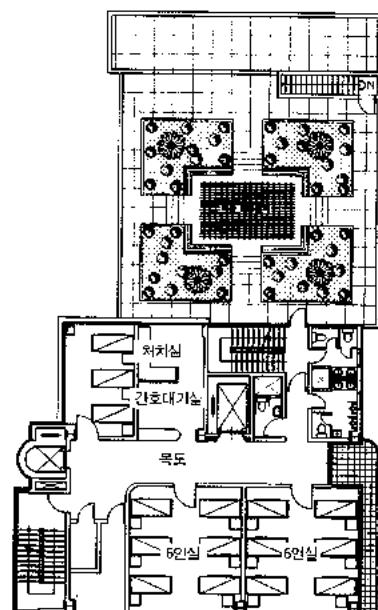
스케치(초기안)



3층평면도



9층평면도



7층평면도

테헤란로의 끝자락이자 출발점이기도 한 법원 사거리에 위치한 부지는 교통 및 행정의 요충지로서 그동안 법원의 위상에 눌려 테헤란로의 다른 지역보다는 발전이 약간 늦어진 감이 없지 않은 곳이다.

꽃마을 한방병원 설계는 기존의 6층 건축물을 포함하는 증축으로서, 계획초기 단계부터 기존의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바로 옆의 서울 교육대학교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어두운 색상의 기존 주변 건물들과 산뜻하게 대조될 수 있도록 밝은 색의 외관과 청명함을 줄 수 있는 청색 패스텔 복층 유리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였다.

다행히 건축주와의 의견도 일치가 되어 계획 안 자체는 큰 수정없이 바로 본 설계로 연결되어졌다. 전면 부분에는 교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상당히 혼잡한 지역으로서, 공개 공간을 도심 미니 공원 식으로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여 주므로써 병원으로서 갖는 봉사성을 조금이나마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층부 옥상에는 정원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 및 외래환자와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 동선은 이면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교통 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병실부와 외래진료부 그 외의 한방 병원의 특수성에 기인한 텅전실 등은 각각 그 기능에 따라 층별 구성을 달리하였고, 너스스테이션은 1간호 단위가 2개층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전문 한방 병원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겠고, 모쪼록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지리라는 믿음이 크다.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Chosun University Dental College and Hospital in Kwa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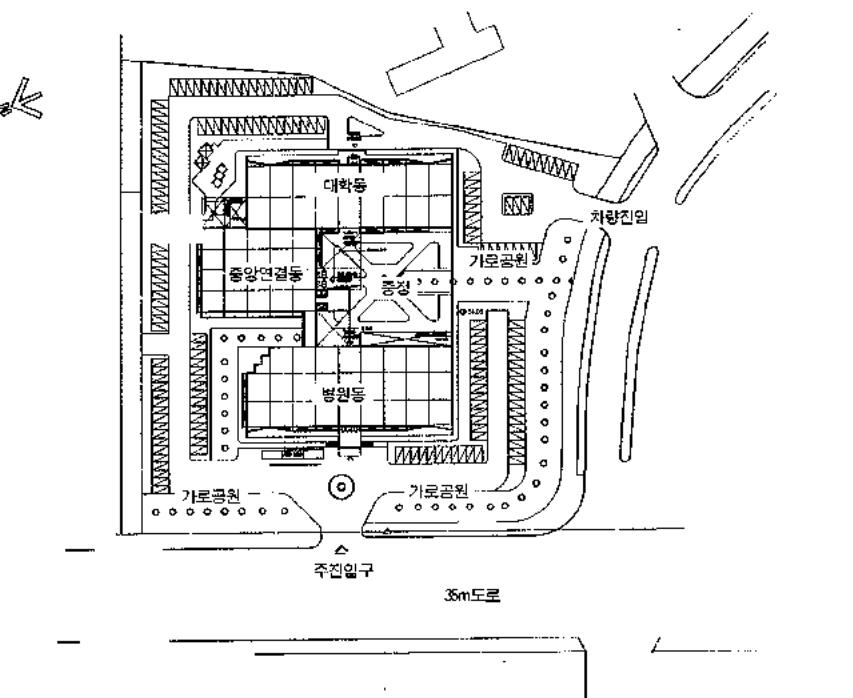
金相景 / 예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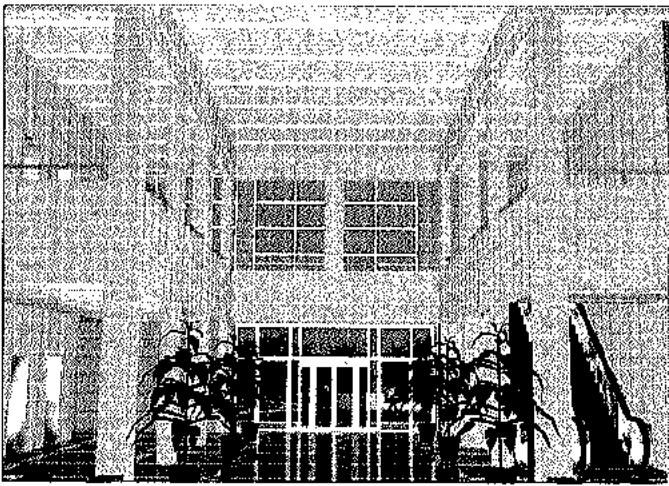
캠퍼스에서 중정을 바라본 전경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번지 외 10필지  
대지면적 / 16,000 m<sup>2</sup>  
건축면적 / 3,279 m<sup>2</sup>  
연면적 / 17,629 m<sup>2</sup>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화강석 바너 및 물길기, 알루미늄 복합페널  
치마/알루미늄 스판드렐  
창호/18mm 투명 및 24mm 반사복층유리(Blue)  
설계담당 / 이현식, 김선웅, 오정연, 이영일, 이경자

Location / 421Seoseok-dong, Tong-gu, Kwangju-si  
Site Area / 16,000 m<sup>2</sup>  
Bldg. Area / 3,279 m<sup>2</sup>  
Gross Floor Area / 17,629 m<sup>2</sup>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Aluminum Panel 24mm Double Glass  
Project Team / Lee Hyun-Sik, Kim Sun-Yong, Oh Jung-Hyun, Lee Young-il, Lee Kyung-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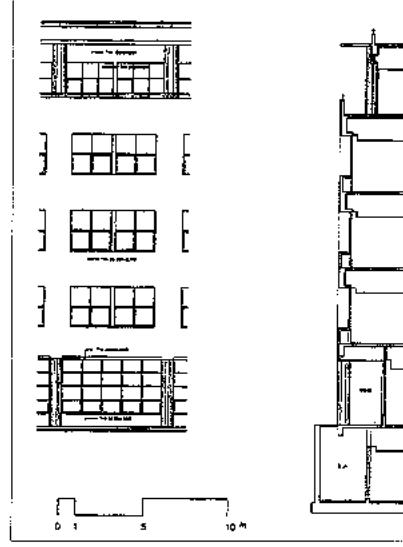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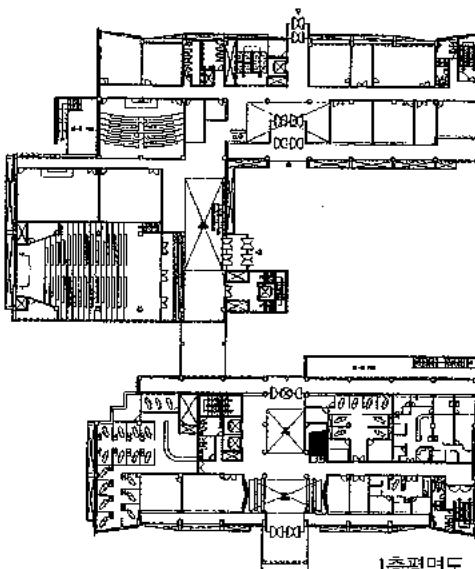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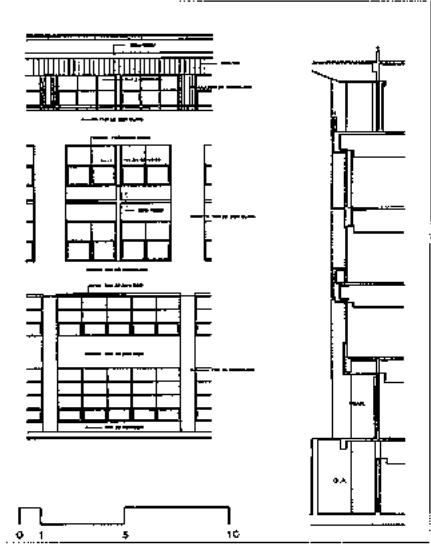
병원의 실내 가로형 로비전경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입면, 단면 상세도 (중정에 면한 부분)



입면, 단면상세도 (정면도로에 면한 부분)

오랫동안 대학에서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의 캠퍼스 환경이 보다 독특하고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의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가을 조선대학교에서 현 상공모하여 당선된 작으로서 그동안 발전시켜 최근 기본설계를 마쳤다. 전면의 도시가로환경과 기존 캠퍼스의 분위기를 조화시키면서, 캠퍼스가 더 이상 도시의 고립된 장소가 안되도록 도시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교육기능과 진료기능의 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 도시와 캠퍼스가 만나는 집

그 해결 방법으로서 전면의 도로와 캠퍼스의 우측 주도로에 접하여 앞마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넓은 기로공원을 조성하고 그 앞에 병원을 그리고 뒤에 대학을 배치하며 그 사이에 중정을 구성함으로써 전체동선을 상호통합시켰다. 그 결과, 도시와 캠퍼스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모임장소가 부여되며 도시에서의 접근이 쉬워지고 개방적인 [열린건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면의 병원과 후면의 대학 사이의 중정, 아케이드, 아트리움, 수직타워, 지하정원, 처마, 코너창 등의 요소를 도입시켜 BOX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하게 전개시켰다. 특히, 땅과 접하는 아케이드와 격자형 창문 및 투버로 구성되는 주요형태,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깊은 처마와 밸코니 등이 한결 캠퍼스 분위기를 친근하고 독특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통의 현대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시 전면의 가로환경과 캠퍼스의 중정 이런 이중적 상황을 1층의 아케이드와 5층 처마 및 밸코니의 형태를 각각 달리 처리함으로써

#### 개성있는 도시건축형태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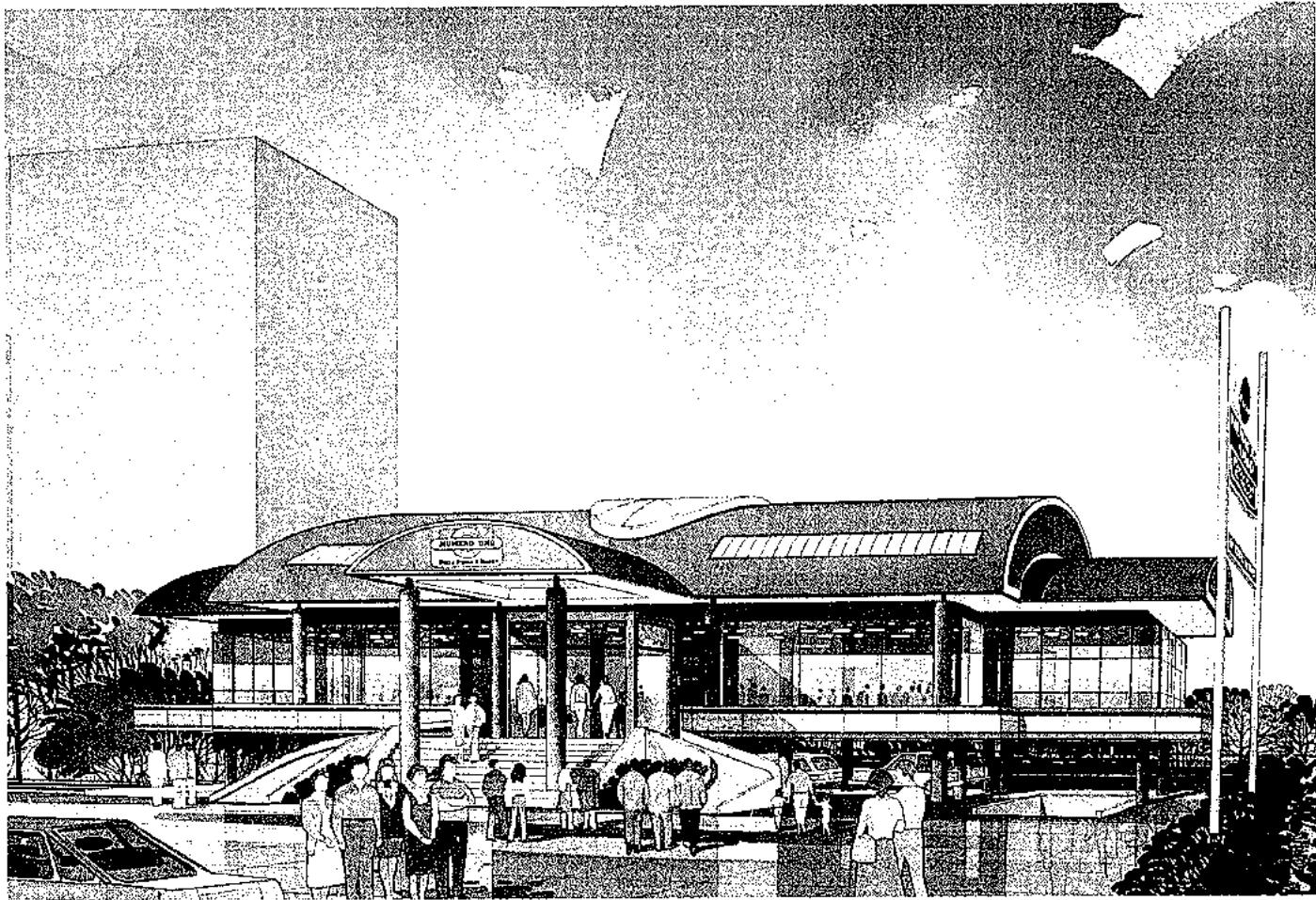
실내공간의 동선전개에 있어서도 병원에서는 상부가 오픈된 가로형 로비공간, 접수와 대기실 및 라운지 그리고 각 진료과로 연결되는 투명한 공간을 조성하여 외부공간에서 중층적으로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전개시켜 개방감을 시도하였다. 대학은 행정, 강의, 연구 순서로 수직기능을 연결시키며 중앙의 연결동은 아트리움처리로서 대형강의, 도서관, 실험실, 옥상정원 등을 구성하여 병원과 대학을 연계시켰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내부에로까지의 일련의 일관된 공간과 형태의 체험은 필자가 추구하는 건축설계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이 현재의 우리의 건축과 도시상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학교측에서 설계의도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신일에 감사드린다.



# 누메로우노

Numerouno

徐鋪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수록  
Designed by Seo Yong-Shik



특시도

위치 / 강남구 대치동 962-21

대지면적 / 990 ㎡

건축면적 / 490 ㎡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구조 / 철골조

주요용도 / 피자전문점

외부마감 / 박-컬러 복층유리

지붕-컬러 아스팔트 싱글

설계담당 / 현순섭, 주광성

Location / 962-21, Taech'i-dong, Gangnam-gu

Site Area / 990 m<sup>2</sup>

Bldg. Area / 490 m<sup>2</sup>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1 Story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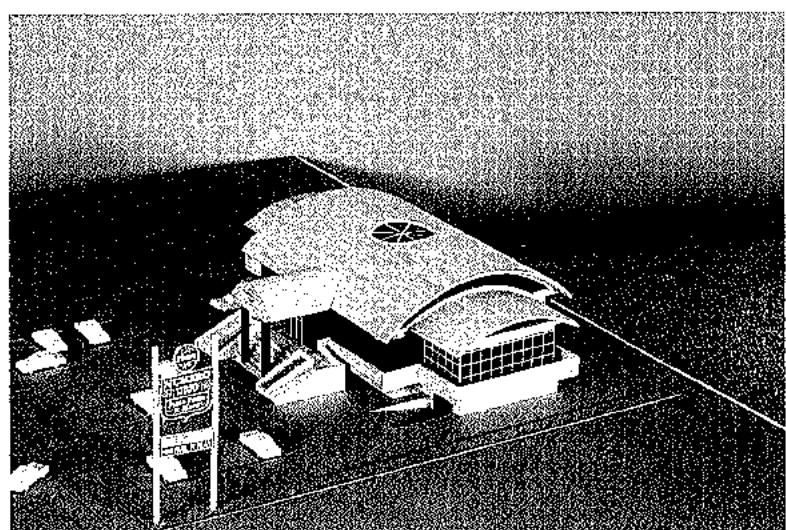
Structure / Steel

Use / Pizza Chain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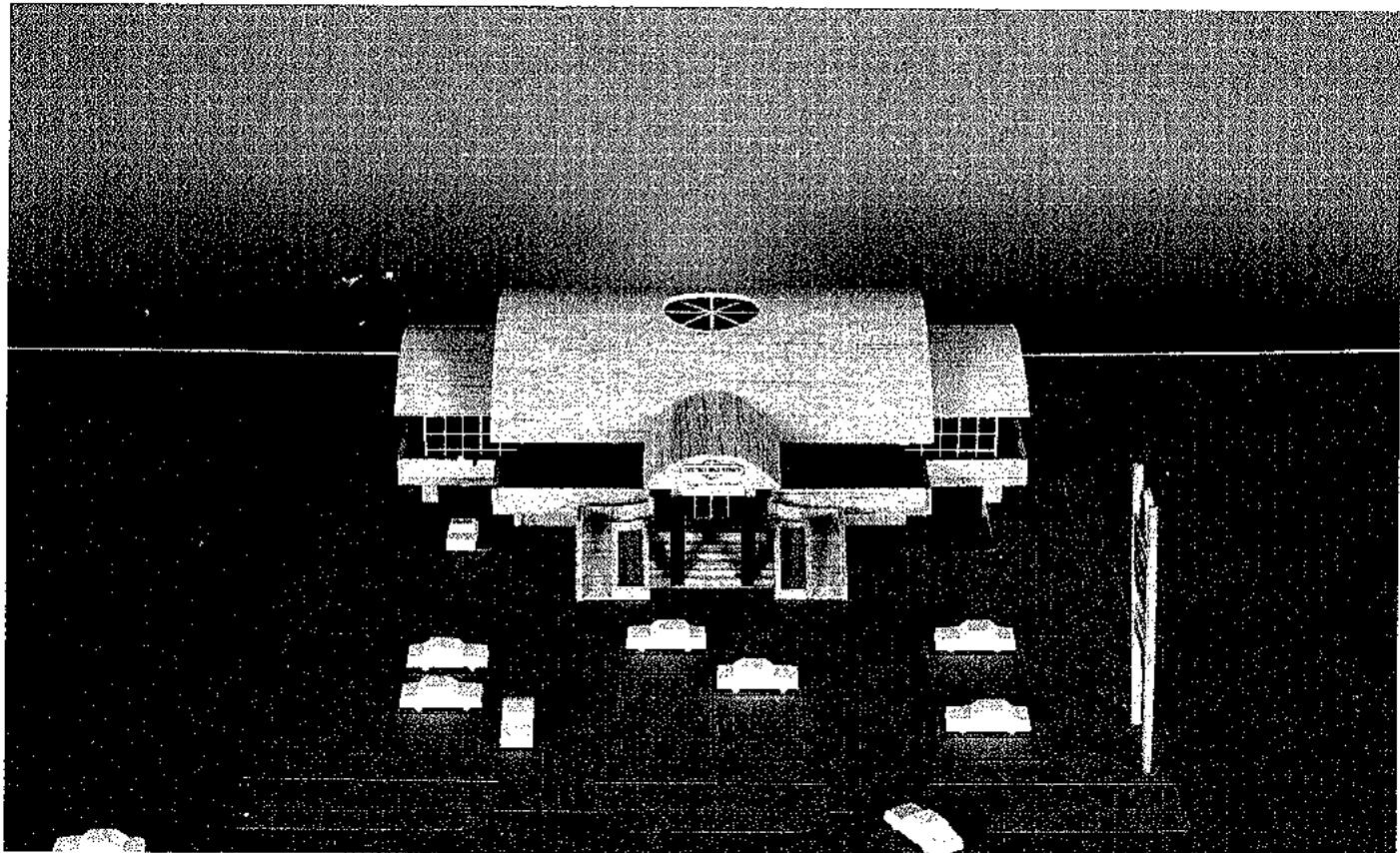
Exterior Finish / Wall-Color Double Grazing

Roof-Color Asphalt Shi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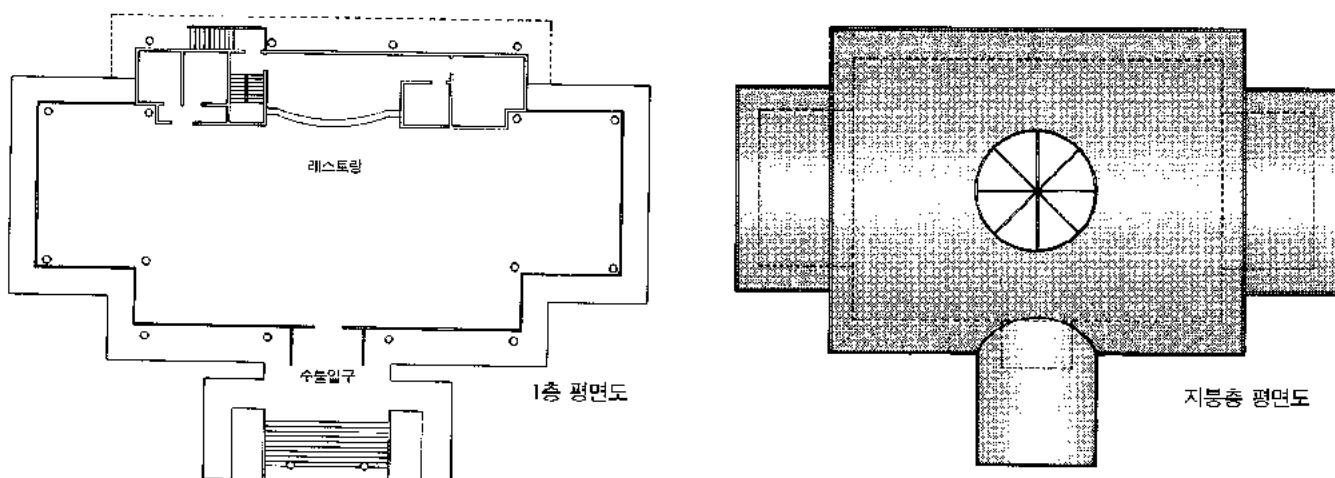
Project Team / Hyeon Sun-Seop, Ju Kwang-Seong



모형도



모형도 2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가 우리의 생활속에 움트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민족 자존심이 흥보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피자 체인회사로 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권 체인의 표준 모델작업을 의뢰받았다.

국내에 00여점 그리고 동남아 지역 각국에 같은 형태로 추진될 본 계획안은 어쩔 수 없이 상품은 개방되었지만 우리의 도시에, 우리가 사는 곳에 세워지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우리 것을 찾아야 되고 동남아 지역에 우리의 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을 갖게 했다. 본 계획을 정리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피자 체인점이 위치하는 곳이 도시 빌딩 속 사이에 상대적으로 낮고 아늑하게 자리잡음으로 해서 접근 체계에서의 시퀀스와 고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작적 고려를 위한 지붕 형태였다.

그리고 피자집을 즐겨 찾는 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젊은층이지만 기성 세대의 시작적 흔적을 남겨두기 위해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로 했다. 옛날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방패연을 지붕형태에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우리의 것을 국제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았다. 건물 전체의 이미지에서는 기단이라든지 열주의 형태에서 보다 한국적인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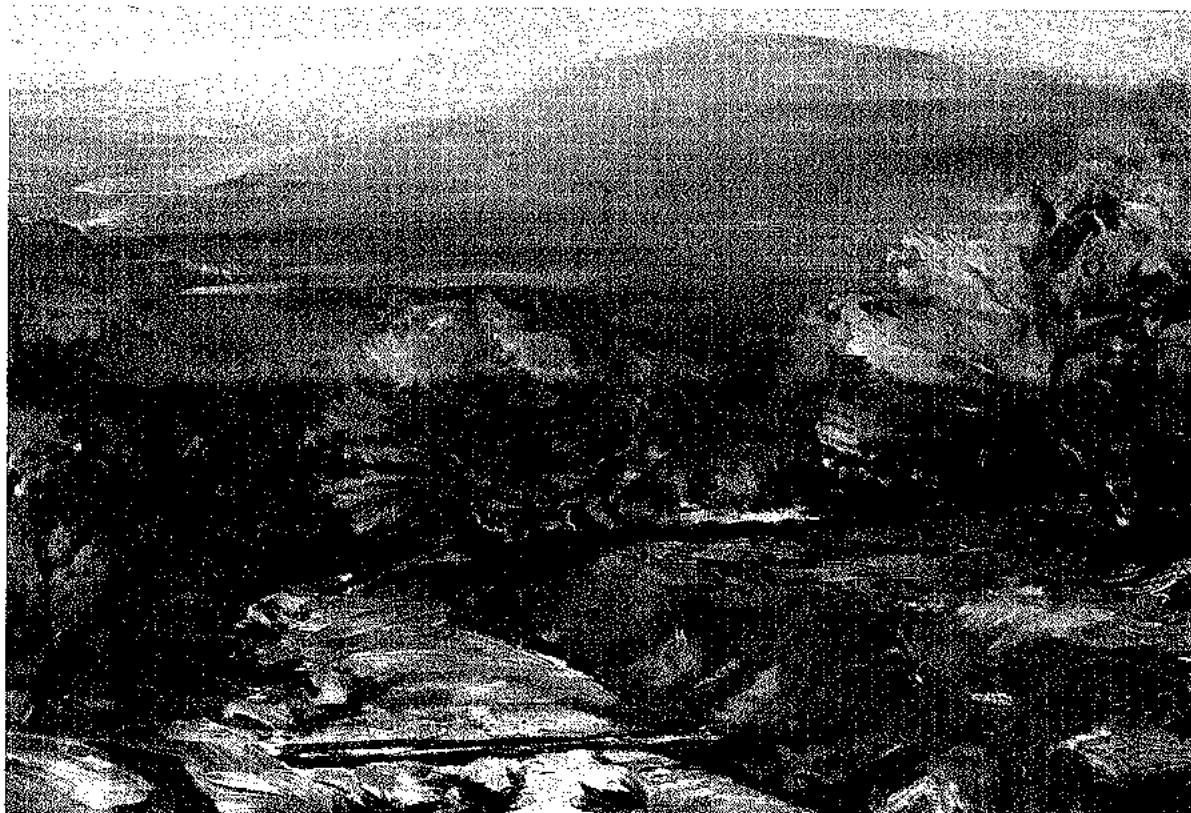
이젠 피자를 먹으면서 방패연의 둑근 연살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름다운 한국의 햇살’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국제화된 우리의 것을 만날 날을 기대해 본다.



꽃 (45×65), 한창진 / (주) 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고 넉넉한 마음이다  
스스로 쪼개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여유  
손쉽게 파스텔로 이 것 저 것 그려보는 것 뿐인데  
더 잘 그리고 싶은 연심이 날때는 혼자 웃는다.  
거장 피카소가 그림이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거짓”  
이라고 했다든가 …  
끝없이 진실에 도전하기 위한 거짓, -- 거창하다



남한산성의 봄(20호F), 이상은 / (주) 예탑종합건축사사무소

햇볕이 따사하게 비추던 어느 봄날,  
남한산성 입구의 작은 낷가에서 봄을 본다.

# 컴퓨터와 설계

Computer & Design

朴研心 / 건축사사우소 장원  
by Park Yeon-Shim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서 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걱정하게 되는 기술의 존적 비인간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스케일의 건축계획을 유도하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나 도구(tool)들이 경험자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개발유도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건축주를 설득하거나 공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시도들을 쉽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컴퓨터가 설계실에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한지 벌써 칠, 팔년 되어간다. 다른 사무실에서도 아직까지는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지만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제도책상을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면의 보관은 원도는 원도대로 디스크은 디스크대로 보관하여야 하니까 아래저래 사무실은 더욱 비좁아진 채로 견디고 있다. 컴퓨

터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사이 완벽한 정보사회로의 가속도가 붙었는지 어느 큰 기업체는 사무실에서 종이를 아예 없애고 모든 결재도 컴퓨터상에서 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극단적가치(extrime value)의 기준으로 말하면 아마도 종이는 화장실에서나 필요하게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2차원 도면작업은 매 프로젝트마다 거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용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설계의 애니메이션 작업은 우리같이 작은 사무실에서 아직은 컴퓨터용량에도 문제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이 분야의 앞으로의 적용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설계해 오는 프로젝트나 주택공사, 큰기업체 등에서는 대형빌딩, 아파트단지조성 등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 아파트 동간거리 및 단지배치, 건물의 색상 등 시공 후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들을 설계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설계자는 화면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태양의 고도에 의한 각세대들의 일조량을 측정한다든가, 고층인 경우 풍향, 풍속의 변화 및 주변에 일으키는 바람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모의 실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상현실(virtual-reality)기법을 도입한다면 실제와 수정된 실체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컴퓨터회사들이 개발한 가상현실기술은 처음에는 공상과학영화나 전자오락 등에 이용됐으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실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때문에 항공우주, 자동차, 의료 등 각종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부엌가구가 배치된 실내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대신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이다. 가격면에서는 컴퓨터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싸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업적 실현성은 높다 하겠다.

이처럼 3차원 설계의 시뮬레이션은 그 건물에 접근을 가정하여

사용자의 시각을 경험하게도 한다. 건축가들은 사실 2차원의 도면만으로도 머리속에서 3차원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머리속에서의 디자인 전개보다는 그것을 화면에 띄워서 볼수 있다면 더욱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만 정확하나면 실제로 지어진 공간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컴퓨터게임의 자동차 경주나 우주전쟁 같은 것에서 화면속의 공간이 게임자의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또 허치콕의 스클리퍼물 중에 장면전환에서 범법자의 시각이 시청자의 시각으로 전환하는 기법을 써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착각을 일으켜 영화에 긴장감을 더하는 수법과 같다고나 할까.

시각적인 경험의 정도차이이긴 하지만 이런 시각적 위치는 종래 투시도나 아이소메트릭적 시각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아이소메트릭의 위치는 과장되게 말하면 신의 위치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작업대 위의 공간(desktop-space)'이라는 말처럼 작업대위에 놓인 모형을 다루는 건축가는 마치 신적 위치에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컴퓨터상에서도 그런 뷰는 가능하지만 요즘 컴퓨터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현실과 유사하게 보이는가(real-world)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 상황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스케일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한 컷 한 컷의 정지된 장면(scene)들에서 모델링과 템파링의 알고리듬은 경험자의 시각의 연속적(animated sequence) 경험이 동반된다.

이러한 관점은 역설적이게도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서 우리가 흔히 걱정하게 되는 기술의 존적 비인간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스케일의 건축계획을 유도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나 도구(tool)들이 경험자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개발유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이용은 또 건축주를 설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도구의 이용은 공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쉽게 될것이다. 실제 상황하에서의 내부공간의 검색은 공간의 시각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외관 투시도나 모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내외부 공간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도 한다.

현대성(modernity)의 특징 중에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용어개념이 있다. 이는 현대 건축의 명제로서 건축공간이 동시성과 연속성을 가지며 중첩된 공간이 상호관입하여 내부와 외부의 양면적 가치를 시간을 초월하여 공유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주택의 대표적인 필립 존슨의 주택에서 예를들면 거실과 식당, 현관의 전실, 계단의 위치, 보이드, 서재 등 전체가 동일하고 균질된 공간속에 있으면서 서로 중첩되어 시각상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내부 공간의 깊이(inner-sequence)를 느낄 수 있게 하며 그러한 공간들이 하나의 층(layer)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차원적 컴퓨터에이드 설계는 바로 이런 현대성의 특징을 더욱 확장하여 종래의 현대건축이 추구하던 내부지향의 공간에서 확장되고 전환되어져서 투명성의 시각은 외부로 향하게 되고 보다 더 보행자 지향이며 문자그대로 사용자 접속(user-interaction) 시대로 들어서게 한다. 현대건축에서 유리의 사용이 도시를 타락시켰다고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래의 도시는 건축물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 및 도시 전체에 적용되는 투명성의 회복으로 좀 더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모형직업이 한창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3차원 모델링은 hidden-surface에 약하고 빛의 완벽한 처리는 요원한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사무실은 비좁다. 그러나 언젠가는 컴퓨터와 제도판사이에서, 도면과 디스켓사이에서의 여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나 설계자나 건축주가 실제로 그 건물이 지어지는 긴 기간전에 이미 그 건물내부를 같이 걸어(walk-through)볼 수 있는 때가 오리라.

1993년 5월 5일

이날은 대전변동성당의 봉헌미사가 집전된 날이다. 나는 이날을 잊지 못한다. 어느 준공의식이 천주교회의 것보다 더 정중하고 장엄하라. 나는 그 의식에 변동성당의 건축가로서 초대받았으며 그 의식의 시종일관을 한가운데 앞줄에 앉혀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성가와 말씀과 축복들이 본당내 충만한 가운데 그 의식이 마무리되어질 즈음 -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건축으로서가 아니라 그 의식으로 받은 감동이 절정에 올라 있었음을 할 때 - 나는 감사패를 전달받는 건축가로서 호명되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일어섰다. 그순간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자괴감에 빠져,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후에 나는 어떻게 그 나머지 의식과 절차를 마쳤는지 모른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속에서 내내 뱉은 말이 '다시는 이 성당을 보려오지 아니할 것' 이었으며 그 다짐은 지난 2년동안 사실이 되었다.

이 변동성당은 나의 건축이 아니었으며, 내가 믿었던 김수근선생의 건축도 아니었다. 오로지 김수근건축으로 위장된 종교공동체일 따름이었다.

벌써 18년전, 병역을 막 마친 나에게 김수근선생은 마산성당의 설계를 담당케 하였다. 나는 그때 저으기 흥분하였을 것이다. 내가 건축을 선택하게 한 동기의 상당부분이 어릴적 나의 사고 체계를 지배한 기독교도의 신념이었고, 마산성당의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그 신념의 실현에 풀 빠져 있었다. 물론 그 실현의 방법은 김수근건축본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나는 그로써 김수근건축의 완벽한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종교 공동체에 대한 정의, 그들을 위한 공간모색과 그 조직 그리고 그들을 꿰는 방식, 그 속에 흐르게 하는 빛과 소리의 조절, 이 모든 것들을 싸안는 표정 등 ...

수많은 밤을 허옇게 지새우며 나는 나와 싸우고, 김수근선생과 싸우고 - 이 말은 그다지 적절치는 못하나 - 내가 붙든 신념과 싸웠다. 아마도, 건축에 대한 짐승스러운 집념은 철저히 김수근건축으로 조련되었을 것이고 그 어휘로 무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산성당의 착공과 함께 나는 김수근선생의 결을 떠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와 정신을 다 빼앗기며 치룬 이 치열한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결단코 아물지 못하였으리라.

- 마산성당은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실패하였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무지로 인한 원인제공  
때문이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현재 원형이 무  
참히 손상당해 있는 것이 무척 가슴아픈 일이다.  
나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붙든 신념과의 싸움.

나는 마산성당이 준공된 지 1년후쯤 그곳을 들렀다. 평일이어서 본당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한동안 있었다. 그때 어느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들어와 구석에 가만히 자리하곤 한동안 앞을 응시하다가 얼굴을 파묻고 소리없이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 고해 (告解)

Confession

**承孝相**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by Seung Hchih-Sang

한참을 그렇게 한다음 옷매무새를 고치고 다소곳한 걸음으로 나갔다. 나는 목구멍이 뜨거워침을 억제할 수 없었다.

“주여 이것입니까. 저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이…”

내가 일년을 밖에서 빈둥대다가 다시 김수근선생에게 돌아갔을 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뻔뻔해져 있었다. 정신이 이미 황폐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황폐해진 정신을 다시 치유받고자 그랬는지 모른다. 몇개월 후, 그사이 이것 저것 하던 나에게 경동교회의 설계임무가 떨어졌다. 내 숨은 다시 가빠지기 시작했다. 아마 다시 투쟁의욕이 타올랐을 것이다. 김수근선생은 나를 불러 마산성당에서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던졌다.

마산성당에서 보다 볼륨을 더욱 조절할 것 그리고 멀티메타퍼를 갖도록 할 것.

멀티메타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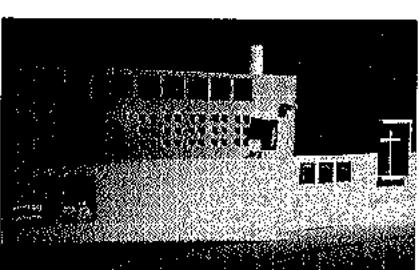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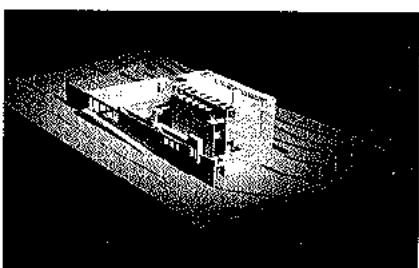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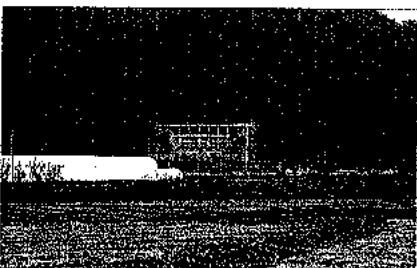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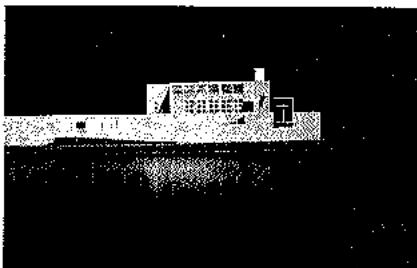
나는 이 지역이 도시의 경사지인 것을 주목하고 계단으로 경사진 광장을 그렸다. 그리고 그안에 보지도 못한 카타콤을 떠올리며 내가 생각하던 종교공동체를 그렸다. 선생은 메타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안을 거부했다. 대신 내가 그린 그림을 거꾸로 배치시키는 - 따라서 옥상에 Open Church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위한 타워가 올라가고 매스는 분절되어 적절한 크기와 높이를 가지면서 전체를 구성하는 일은 그 이후 순식간에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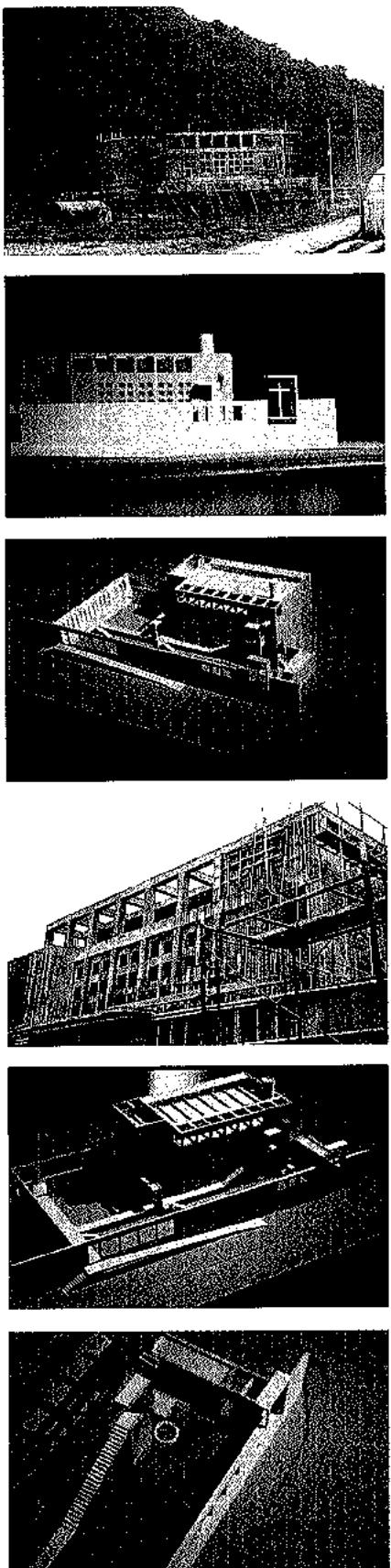
마산성당을 하면서 그토록 고뇌하고 그리고 또 지우고 다시 그리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더 이상 아니었다. 이미 숙달된 어휘로 잘 무장된 나의 손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능숙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다.

다 만들어진 도상을 두고 누구는 기도하는 모습이라 했고, 누구는 수정이라고 했으며 누구는 손가락이라 했다. 이런 말들이 Multi Metaphor이던가. 종교건축에서 상징성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나. 끝없는 질문이 속에서 솟아오른다.

건축허가를 마친 얼마후 버스 속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서울에 수정모양을 한 교회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나는 곧이어 비인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즈음 사무실에 불광동성당의 설계 의뢰가 다시 들어왔다. 다른 직원이 그 설계를 담당하였는데 내가 비인으로 떠나는 날까지 마산성당과 경동교회의 조형카테고리안에서 무수한 스케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저것은 겹데기만 남을 것이라





고도 생각했다. 저런 싸움은 대체로 부질없는 일로 끝날 수 있다. 싸울 대상은 그 성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지 그 성당 자체의 모습은 결단코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으며, 경동교회는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지난 80년 8월이었다.

비인의 생활이 다소 지루하게 생각될 즈음이었다. 서울에서 김원석선생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그 봉투안에 놀랍게도 경동교회 낙성기념 예배의 안내 팜프렛이 들어 있었고, 어떤 이가 쓴 찬사와, 준공된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나는 감동되었다.

몇 번을 보고 읽고 한 연후, 나는 귀국하고 싶은 심정을 다스릴 수 없었다. 비인의 생활을 정리하고 82년 귀국하게 된다. 나는 서울에 돌아온 그 다음날 경동교회를 찾아갔다. 상상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 옥상의 Open Church로 올라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기만히 되뇌었다.

“주여 다시 저를 도구로 쓰소서...”

86년 김수근선생이 타계한 이후, 설계사무소 '공간'의 조직과 운영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 했던 나로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지금에 보면 그 살아남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모른다. 그즈음, 대전의 변동성당 지명현상에 초대되었다. 마산성당, 경동교회, 불광동성당 등의 경험을 인정하고 '공간'을 지명했지만, 김수근선생 없는 '공간'에 대해 짙은 의구심과 불안도 또한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다.

나는 김수근선생보다 더 김수근적인 그림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한 강박관념은 그당시 '공간'의 클라이언트들 모두에게 가지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 성당건축에서는, 더욱이나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현상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이 변동성당을 위하여 종교에 대한 새로운 발견도 있지 않았으며, 카톨릭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관습적이었고, 더구나 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건축적 정의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의문의 싸움장도 갖지 못하였다.

10년전 마산성당을 그릴때를 기억하여 애썼으며, 그 때 실패한 엔지니어링을 완벽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김수근건축 나아가 김수근선생의 유지를 이어받는 '공간'건축임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기공하는 날, 그 의식을 집전하던 교구 주교가 내게 물

었다. “이 성당의 형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주교님께서 보시고 느끼신 것 자체입니다.” 이 변지르한 말은 오래전 경동교회설계할때 썼던 말이었다.

89년말 우여곡절 끝에 ‘공간’을 빠져나와 독립된 스튜디오를 만든 나는 여러가지가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의 건축적 암중보색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4.3그룹의 활동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90년 4월 3일 결성된 이 그룹에 참여하면서 나는 나와 다른 13명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건축을 고뇌하는지 똑바로 보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자극을 받았다. 세계 각지를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건축을 논하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책도 만들면서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십수년전 마산성당을 설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의 건축적 명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작년 새해를 맞이한 후 작업실로 나온 첫날 아침이었다.

여느해 보다 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다. 변동성당에서 당진성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신부의 음성이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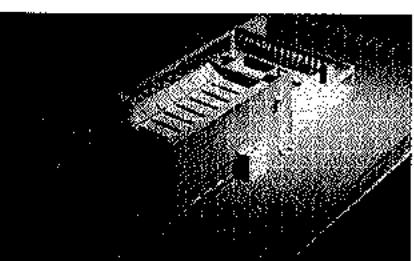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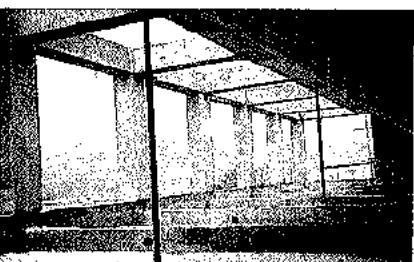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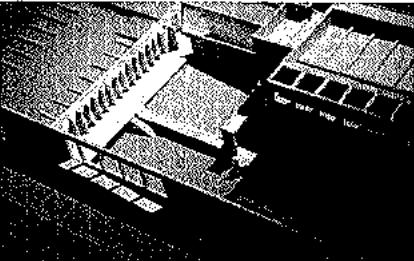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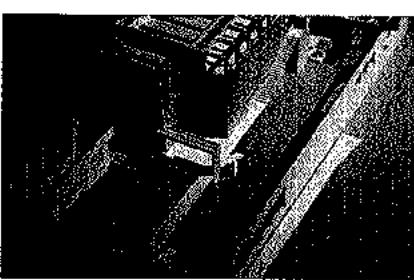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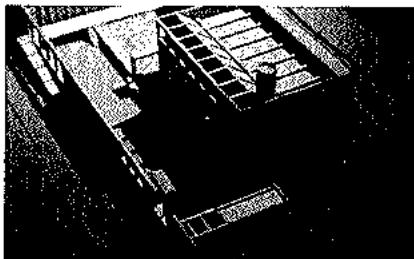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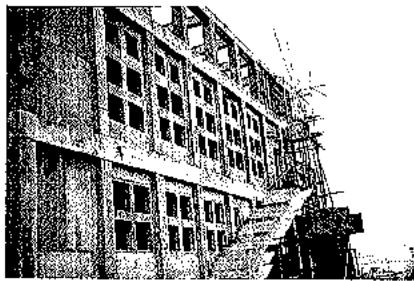
당진성당에서 관할하는 조그만 공소를 지어야 하는데 설계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로부터 한달후 땅이 확정되었다는 전갈을 받자마자 현지로 내려갔다. 당진읍에서 서쪽으로 차로 20분 정도 가면 정미면 승산리라는 곳에 돌마루라고 불리우는 나즈막한 산이 있는데 공소를 세울 곳은 그 산이 끝나는 평지였다. 국도에서 벗어나 인개낀 돌마루를 마주보며 논길로 600m 가량을 느릿하게 가는 동안 적지 않게 흥분하였을 것이다. 사람이 오래전에 떠난듯 잡초가 무성히 자란 폐가가 을씨년스레 놓여져 있었다. 나는 그 폐가의 마당에 들어가 마루터에 걸터 앉아 뚫려진 지붕사이의 하늘을 쳐다보며 속으로 뇌이었다.

“당신의 땅이 이곳입니까”

오늘날 종교공동체 특히 천주교나 기독교 계열의 종교적 실상은 원래의 본질적 모습과 거리가 많이 있음이 자주 거론되어 초대교회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간단없이 논의 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종교공동체가 너무도 샤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사실 이런 이유를 빌미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유소년기에 기독교적 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십수년간을 무교회주의자로 일관했으며



지금에도 불성실한 개신교도임을 부끄러워 한다.

특히 포교나 전도를 목적으로 외래종교의 토착화를 과정으로 해석하여 토속화되어 가는 경향을 위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공동체의 건축적 상징이 뾰족탑이며, 밤거리로 내리비치는 시뻘건 네온의 십자가에 예수를 불들고 있는 이유가 저들이 고덕의 정신을 이해해서도 아니며 칠 흑같은 사회에 구원의 등불이 되고자 해서도 결코 아니다. 오로지 구호와 선전에 지난 수십년간 길들여진 우리의 짜들린 욕망의 탈출구로서, 오히려 경건한 삶을 내던진 비겁성에 지금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성마비에서 비롯된, 샤만의 모습이라면 지나친 편견일 것인가.

종교가 백일몽적 유토피아에 매달리고, 초월을 빙자로 극단적 감정이입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와의 관계가 더욱 공허해질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은 균열될 수밖에 없고 불구적 형태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약이나 알콜중독의 효과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윤리적이지 못하며 종교적도 아니며, 더욱이 계시를 중시하는 이 공동체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

#### 계시의 종교.

그렇다. 이들 종교공동체의 지향하는 바가 계시의 내용에 있어야 함이 옳으며, 계시의 모습 자체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그 공동체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음을 믿는다. 그 계시의 모습 자체는 오로지 샤만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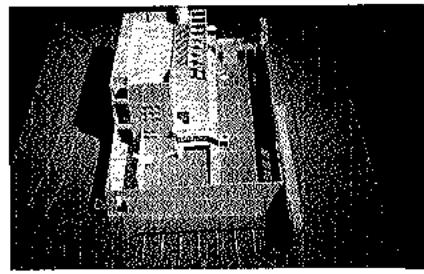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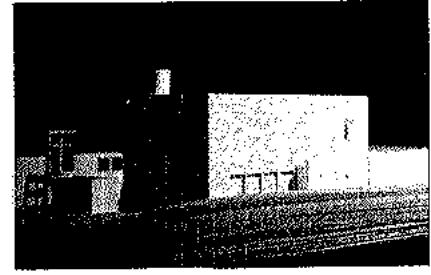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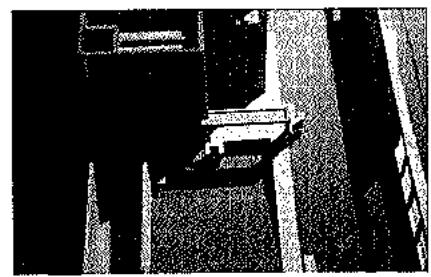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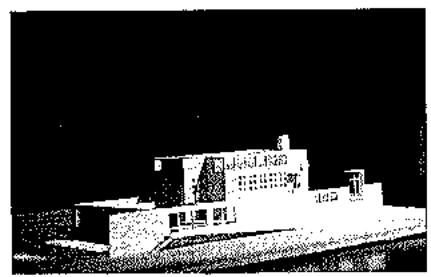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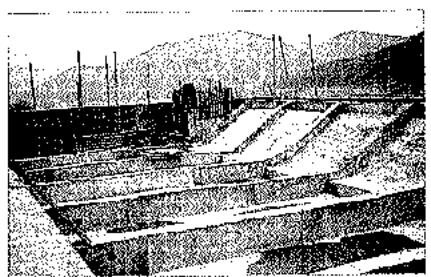
샤만의 모습은 환상적이다.

색채며, 소리며, 움직임이며 장치들이 지극히 현란하여 모두를 몰입시키는 마력을 가진다. 이 엑소티시로의 과정은 구경꾼마저 야릇한 홍분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단지 도취일 따름이다.

오늘날 이땅에서 이룩한 기독교 계열의 종교적 팽창은 이러한 우리네 고유의 샤만적 성향에 힘입은 바 클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보기드문 그러한 숫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한 까닭이, 현실의 삶과 밀착되지 못하는 그러한 샤만의 모습을 성당과 교회가 오늘날에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될 수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지나친 오류가 될 것인가.

#### 르꼬르뷔제의 동양교회당은 참 아름답다.

언덕위에 자리한 모습이 여러가지 메타퍼를 일으키며 더할나위 없는 감동을 자아낸다. 건축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이 건축은 극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그보다 4년후에 그가 그런 라뚜레뜨수도원의 성당은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름답다라는 말로는 그



성당공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거기서 추방되어 있다. 오로지 신과 수도자가 은밀히 만나기 위한 약속된 장소로서 구축되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구호도 없고 장식도 없으나 고요한 신비가 있고 영혼의 멸림이 있다.

그곳은 본질적 공간이다.

멕시코시티의 남쪽 트랄판에 있는 수녀원 성당. 루이 바라간이 구축한 이 건축은 더우기나 아름답기는 커녕 보잘것도 없다. 그러나 그가 내부에 그의 신념으로 이뤄놓은 조그만 성당은 그가 사용한 어휘가 자극히 간단함에도 결코 범상치 않다. 자극히 절제한 벽면과 천정, 단순한 가구,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한 빛… 이 조그만 공간을 들어간 순간 어쩔 수 없이 신음을 내뱉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도 이곳은 본질적이기 때문이며 그외 모든 것은 접근되어지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이 공간의 스케일을 논하는 것도, 그 구축한 방법을 논하는 것도, 디테일을 논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오로지 그의 신념을 경외할 뿐이다.

대전교구 당진성당 돌마루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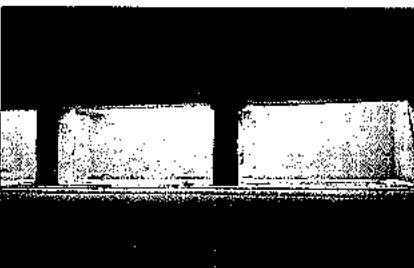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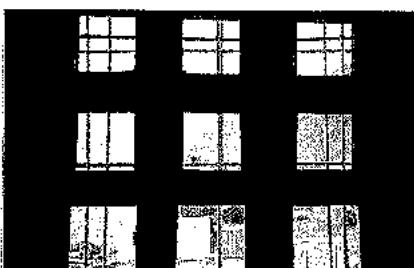
- 공소라는 곳은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성당이다. 본당에 가기에는 지리적으로 먼곳에 있는 벽지 신자들을 위해 주일에 한번 신부가 찾아가서 미사를 집전하는 곳으로 대체적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이 돌마루 공소는 100석의 좌석을 가진 비교적 큰 규모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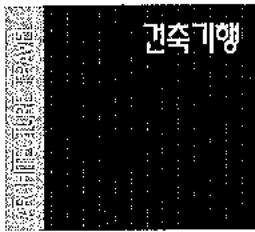
나는 예산이나 기능적문제 이외에는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정 신부의 대폭적 신임으로 이 건축을 시작하였다. 4개월에 걸쳐 마무리된 디자인을 설명하는 날, 그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정 신부는 나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였다. “변동성당 같은 디자인을 다시 가져오면 이제 안볼려 그랬어…” 나는 그날 또 몹시 취해버렸다.

이제 그 조그만 성당은 한달 후 공사가 끝날 것이다. 여느 건축의 준공 때처럼, 나는 또 대단한 좌절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벌써 몇 부분은 그러한 조짐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소의 건축에 대한 책임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나에게 있다.

준공된 후, 다시 찾아가서 내가 구축한 공간에 가만히 앉아 진심으로 물을 것이다.

“제가 과연 온당한 도구이오니까”





건축 기행

## 중남미 문화 기행(2)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

그 둘-하얀귀신, 아즈텍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  
by Kim In-Cheol

『우리는 더욱 잘 보기위해 커다란 나무위로 올라갔다. 거기서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집에서 하얀남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과 손은 하얗지만 아주 길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등 그리고 머리위에는 등그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두 아즈텍 첨자가  
복테수마왕에게 보낸  
정탐보고서

카리브해의 화려한 휴양지 칸쿤의 밤은 김영섭소장의 후라멩고로 크라이액스를 이룬다. 댄서들에 이끌려 무대에 올라간 그가 추어낸 새로운 후라멩고는 오리지날을 훨씬 능가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서 모두를 즐겁게 한다. 여행이 만드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다. 새벽의 모래사장에서 허겁지겁 해맞이를 한 뒤 마야를 뒤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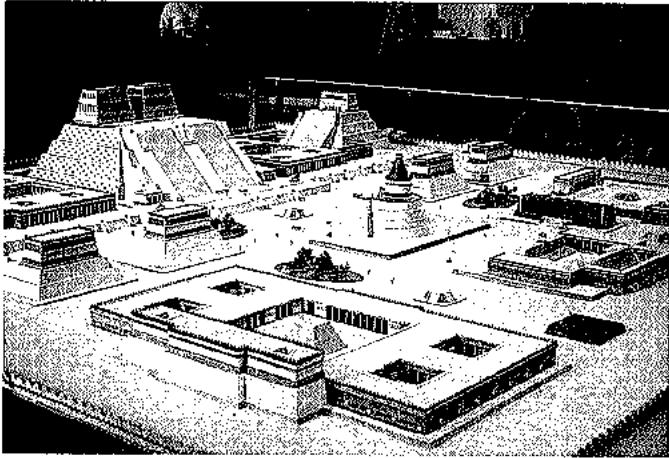
이번 여행중에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일정의 조정이다. 항공편의 스케줄에 맞추다보니 멕시코시티를 두번에 나누어서 보게 되었다. 유카탄의 마야를 둘러본 뒤 멕시코 고원으로 올라와 아즈텍을 보고 페루로 건너가서 잉카를 만난뒤에 다시 멕시코를 살펴보는 일정이 되고 있었다. 보파리를 풀어놓을 사이도 없이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피곤하였지만 오히려 고대와 현대를 나누어서 보게된 것이 다행으로 생각된다. 토착문화의 고전성과 전래문화의 현대성을 한번에 파악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메소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질을 한눈에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둔한 머리로는 이리저리 꼽씹어 모아야 겨우 실마리가 잡힌다.

페소화의 하락으로 난리가 났다는 소식과는 달리 고원의 도시 멕시코시티는 일상적인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의 학생데모가 외국에서 더 자극적인 소문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태평양에서 급격히 용기한 지각이 만들어 놓은 고원지대는 북미대륙과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흔히들 멕시코를 남미의 범주로 생각하는 것에 이곳 사람들은 강한 불만을 보인다. 남과 북의 중간인 중미, 메소아메리카로 구분하여 달라는 주문이다. 아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문화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 지역조건 만큼이나 역사재적이 다르므로 그들의 주장은 매우 당연하다. 대서양을 향한 동쪽의 저지대 마야와 고지대의 아즈텍이 서로 다른 문화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만큼이나 남미와 북미의 중간지점으로서 중미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멕시코인의 조상은 3만년전에 베링해협의 육교를 건너 북미에 발을 딛는다. 가축과 수레가 사용되기 이전의 석기시대에 본류로부터 떨어져나온 한 무리의 인간집단은 수렵과 채집으로 유지되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든다. 알래스카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그들은 기원전 2만년경에 이곳 중앙고원에 다다른다. 옥수수를 주로하는 농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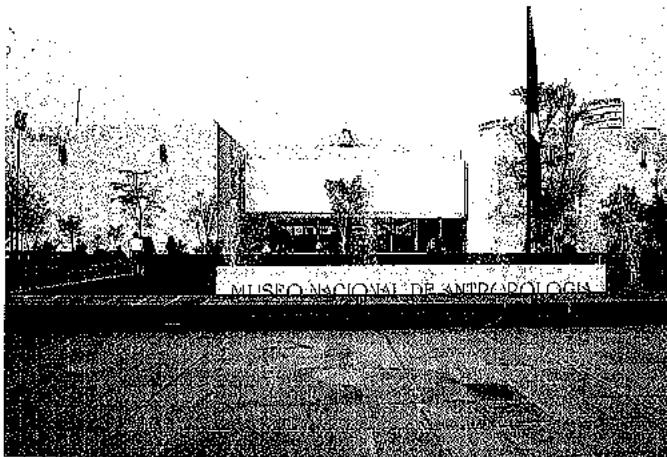
멕시코 호수의 테노치티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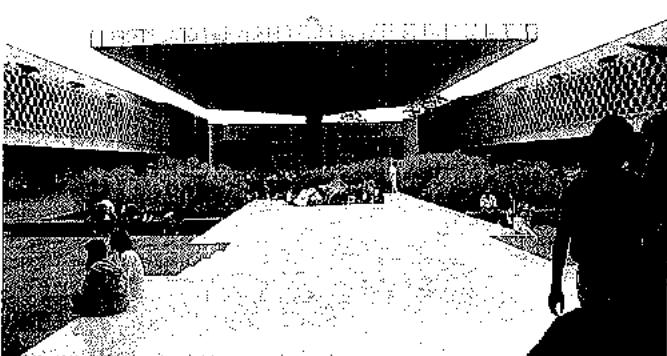
테노치티틀란의 신전과 궁전



테노치티틀란의 시장풍경



멕시코 인류고고학 박물관



멕시코 인류고고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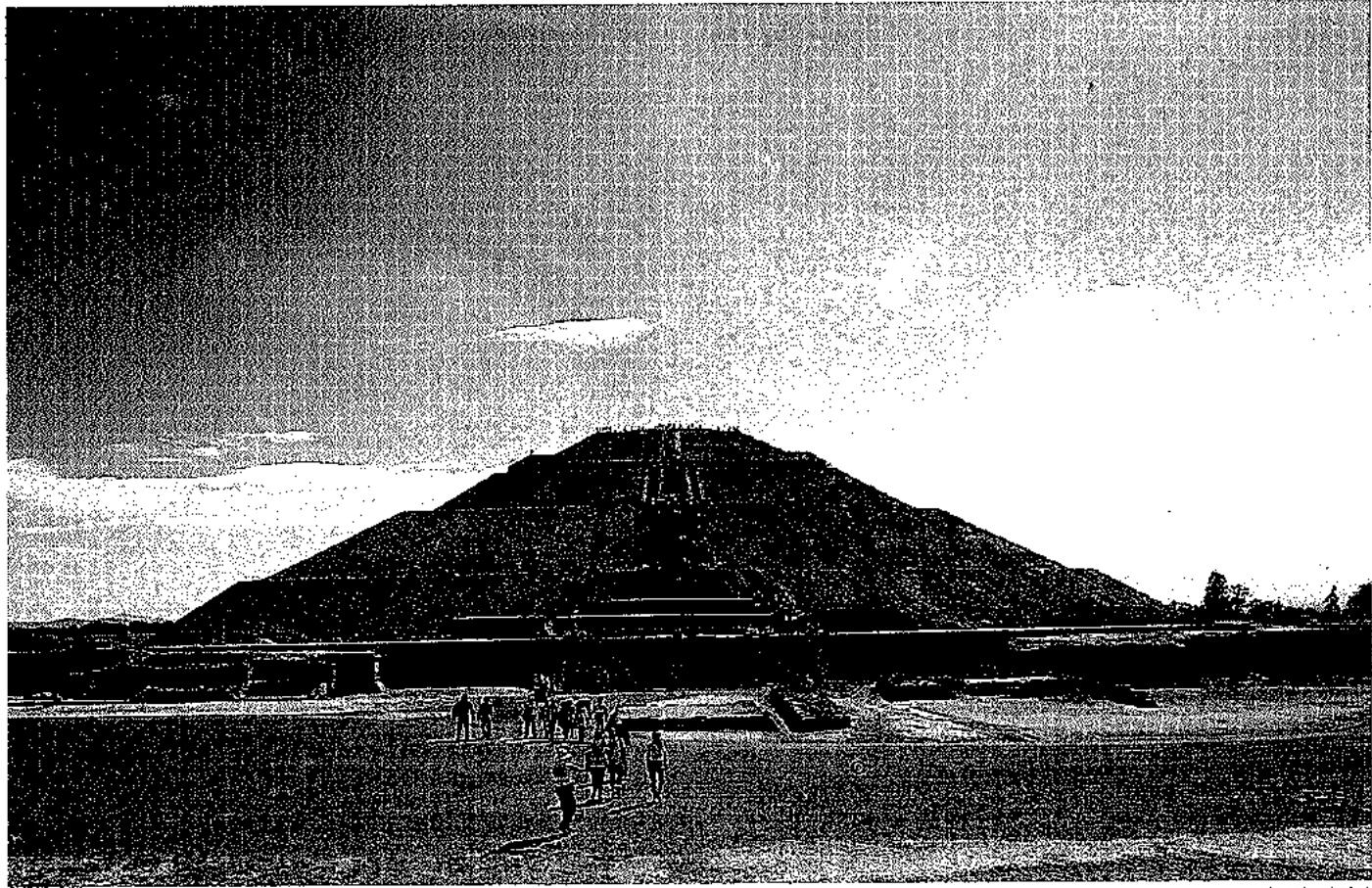


테노치티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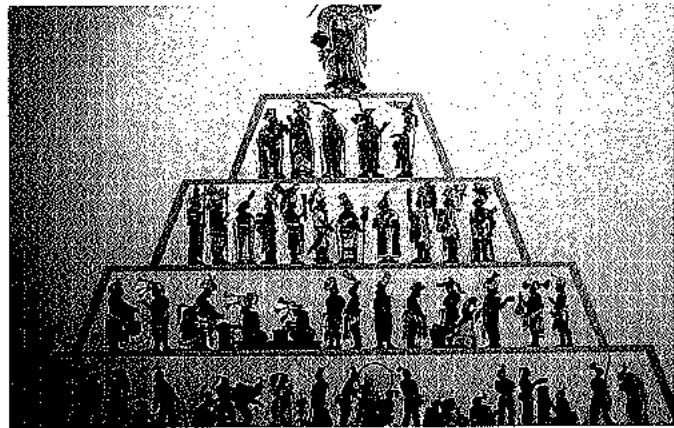
시작된 것은 기원전 5천년쯤이다. 말린 옥수수가 저장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세와 기후의 불확실한 환경조건에서 살아남아 번영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사냥과 채집과 농사를 함께 하게 된 이들은 멕시코의 전역으로 뻗어나간다. 사람이 살기에는 걸맞지 않는 멕시코만의 찌는 듯이 더운 밀림의 습지에 올메(Olme) 문명이 2천년동안이나 유지된다. 그리고 올메족이(밝혀지지 않는 이유로) 역사에서 사라진 뒤 마야문명이 뒤를 잇는다. 마야족이 멕시코 동남부의 밀림에서 그들의 문명을 지키고 있는 동안 중앙고원의 계곡에서도 여러 문명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곳의 주인은 북부의 전조지대로부터 계속 남하하여 오는 새로운 종족에게 밀려나기를 계속한다. 치첸잇사의 툴텍 역시 고원지대의 틀라로부터 밀려내려

온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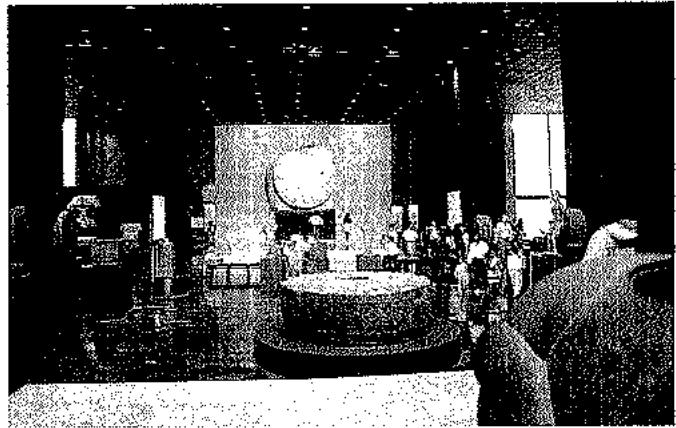
아스틀란이라고 부르는 어딘지 모를 곳으로부터 이곳에 1천2백년경 도착한 아즈텍족은 이미 자리잡고 있는 종족들의 부하노릇을 하며 그들의 신 위치로포츠틀리가 약속한『독수리가 앉아 있는 선인장이 있는 땅』을 찾게 되기를 기원한다. 도시국가 쿠와칸의 추장 쿡스록스틀리에 고용되어 그의 전쟁을 도와준 아즈텍족은 그들의 여왕으로 삼겠다고 데려온 추장의 딸을 죽여 위치로포츠틀리의 제물로 바친다. 신의 신부가 되어 전쟁의 여신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이 화근이 되어 정착지에서 쫓겨난 아즈텍족은 테스코코호수의 습지로 달아나 그들의 신이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며 갈대 숲에서 숨어 지낸다. 어느날 그들은 호수안의 조그만 섬에서 독수리가 앉아



태양의 피 라미



아즈텍의 사화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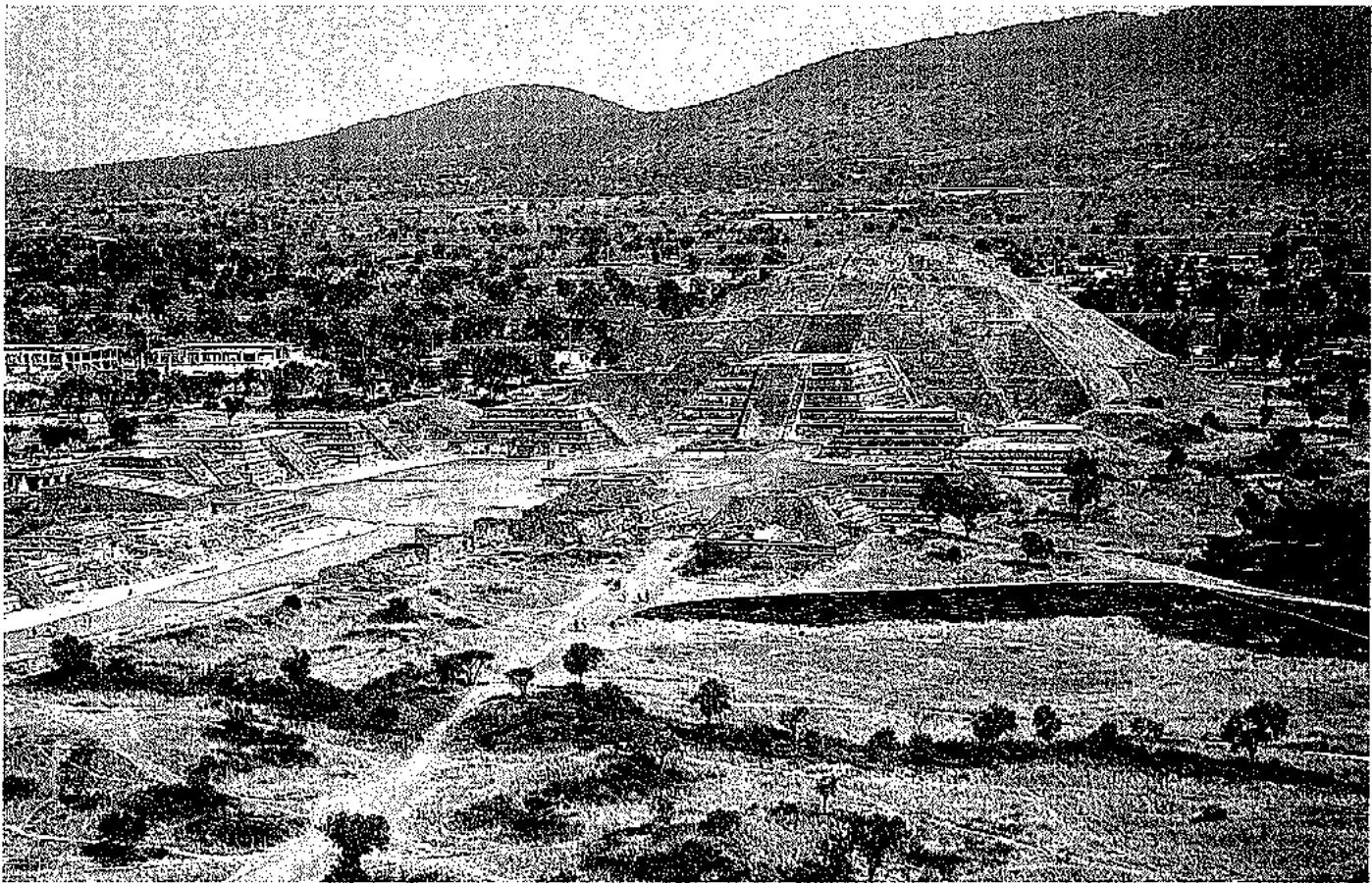
멕시코 인류고고학박물관

있는 선인장을 발견 한다.

그곳에 신정을 지은 아즈텍은 테노치티틀란(선인장의 자리)이라고 불리우는 오늘의 멕시코시티를 만든다. 1345년의 일이다. 위화도 회군으로 정도 육백년이된 서울과 비슷한 시기이다. 호수가 제공하는 여러 이점을 이용하여 아즈텍은 세력을 키운다. 호수바닥의 뼈를 퍼울려 만든 치남파스(여있는 채소밭)의 확대로 주변의 섬들은 연결되어 커져 나간다. 1440년부터 28년간 통치한 목테수마1세의 팽창정책으로 멕시코 전역의 중심이 된 테노치티틀란에는 도로와 운하가 개설되고 돌을 사용한 건축과 정원수, 샘물을 끌어오는 수도관까지 부설된다. 도시의 중심은 위치로포풀틀리신의 신전인 대회라빗이다. 전쟁의 신이며 태양의 신이기도 하였던 그에게 아즈텍은 날마다 하늘을 가르는 신의 여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간의 심장을 바치기를 계율리 하지 않는다. 철기를

사용할 줄 몰랐던 그들은 예리하게 다듬은 돌칼로 포로의 가슴을 갈라 헤친뒤 뛰고 있는 심장을 움켜쥐고 뜯어내는 의식으로 신을 경배한다. 목테수마 1세를 승계한 아위초틀의 시기에 2만개의 심장을 나흘동안 도려냈다는 기록이 있다.

1502년 목테수마 2세가 즉위한다. 팽창과 정복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아즈텍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적대세력을 주변에 만들게 된다. 또다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쿠바총독 디아고 벨라스케스의 체포령을 뒤로하고 유카탄반도의 한곳에 상륙한 1519년은 목테수마 2세가 신처럼 떠받드려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이다. 코르테스는 그가 상륙한 지점에서십자가와 국기를 끊어 놓고 그 지점을 베리쿠로스(참된 십자가)라고 명명하며 이땅이 기독교와 스페인의 것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황금의 도시를 찾아 내륙으로 진군하는 그에게 행운이



调味의 피라미



인신공양 의식



죽음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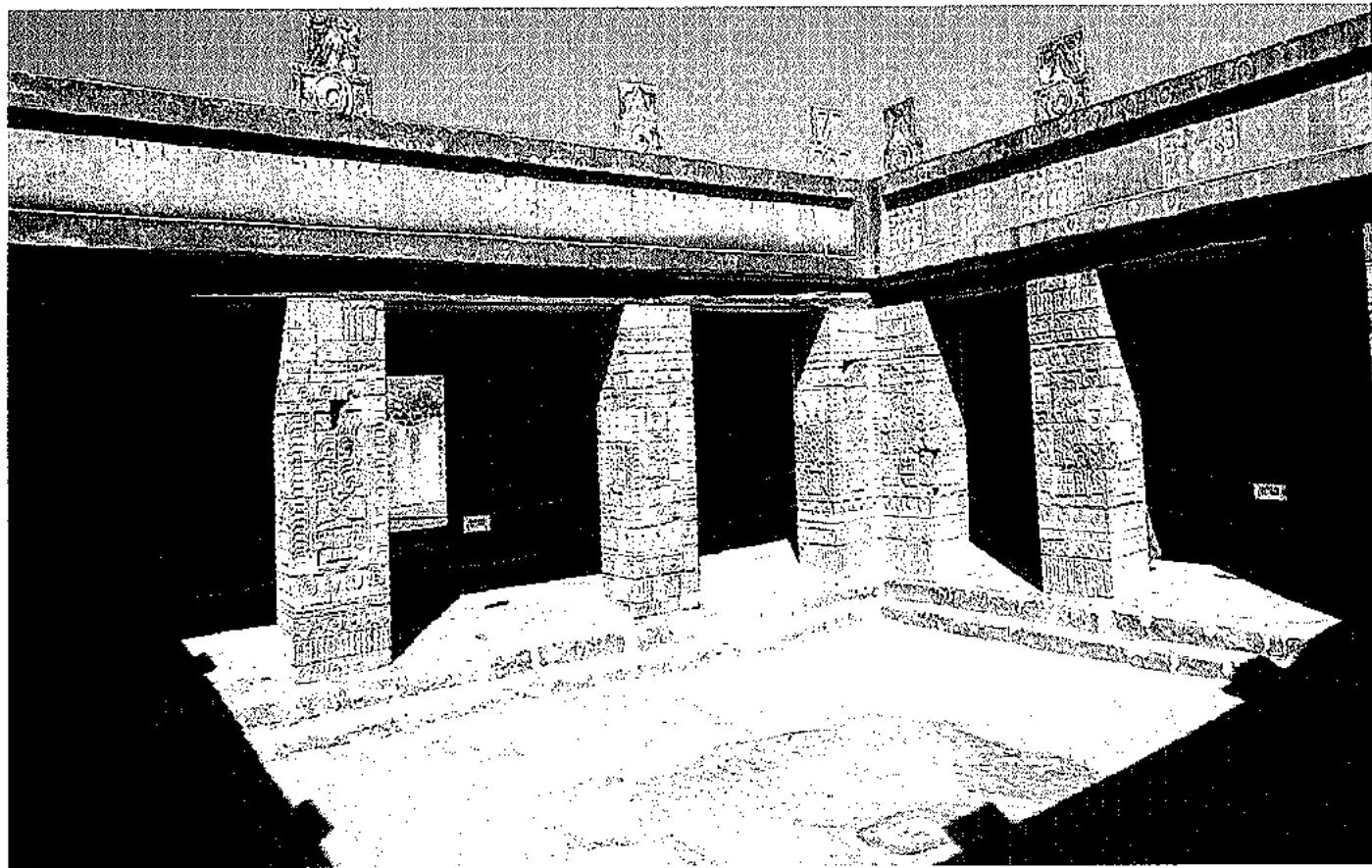
따른다. 8년전 표류중에 구출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던 스페인사람 아길라르를 만나 마야어의 통역을 삼고, 마야의 한 족장에게서 선물받은 여자중에서 아즈텍말을 할 줄 아는 여인을 얻는다.『도나 마리나』라는 이름을 얻은 그녀는 나중에 스페인말까지 익혀 그의 행군을 돋는다. 간혹 저항하는 원주민들과 싸움은 있었지만 새로운 침입자에게 협조하는 아즈텍의 적대자들을 회유하며 테노치티틀란에 접근한다.

바닷가에서 헬레벌떡 뛰어온 전령으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바다에 떠 있는 집에서 나와 이땅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혼란에 빠진다. 먼 옛날 동쪽으로 쫓겨간 새벽별의 신 캐찰코이들이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려는 신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왕은 생각한다.

계속하여 들려오는 비판적인 정보에 복테수마는 고민한다. 만일 그들이 신이라면 맞아들여야 할 것이고 정복

자라면 저지하여야 할 터인데 소문을 들은 그들의 모습과 괴력이 의미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들이 황금을 탐낸다는 말에 금을 가득담은 자루를 전령에 보내 보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군속도만 빠르게 한다. 싸우자는 동생의 주장도 물리치고 목테수마는 그들을 환영하기로 결정한다. 4천명의 아즈텍 귀족들을 도열시키고 최고의 선물로 그들을 파묻하게 한 왕의 심사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하얀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였든, 행복을 가장한 계략이었든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 테노치티틀란의 파괴 그리고 아즈텍의 멸망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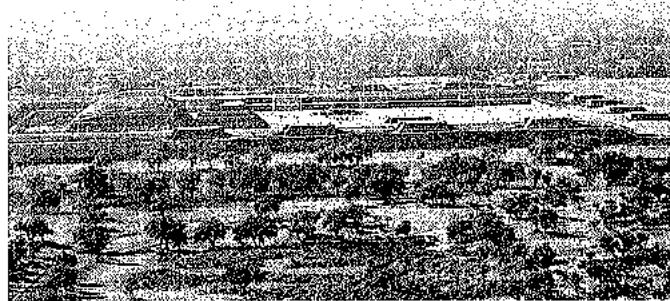
아즈텍제국의 붕괴과정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은 그 패러디와 차참함 때문에 번거롭기까지 하다. 하나의 세계가 지구 반대편에서 온 또 다른 세계와의 만남으로 어이



체찰파파로풀(나비)신전



테오티후오칸의 유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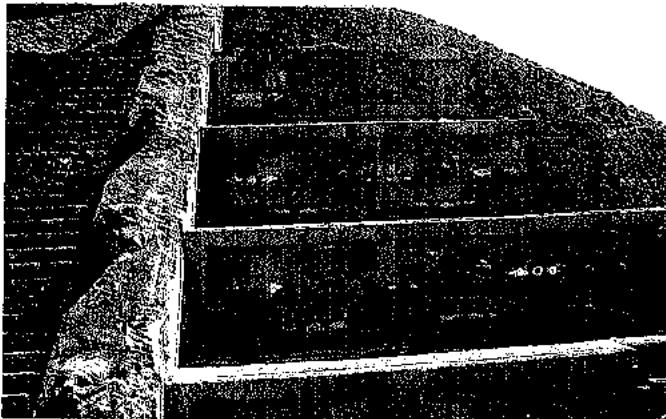


체찰코아틀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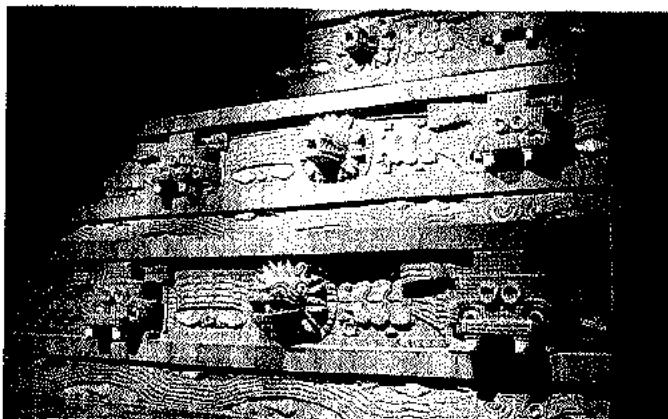
없이 사라져버린 것은 인간에 의한 역사의 비극적인 에피소드이다. 지금의 멕시코시티에는 텍스코코 호수의 흔적도 대피라밋의 모습도 볼 수 없다. 1천2백만의 인구가 모여살고 있는 대도시의 공해와 불황으로 찌들어 있다. 정복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피를 뒤집어 쓴 악마 대신 그들의 신을 내세울 명분과 사명감을 고조시켰던 궁전과 신전은 허물어져 성당이 된다. 아즈텍의 풍물로 가득찼던 시장터는 스페인식 광장으로 바뀐다. 아즈텍의 영광은バス케스의 고고학 박물관을 채우고 있는 전시물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개발중에 발견된 유물을 정성스레 빙글하고 있는 그들의 진지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코르테스의 대포로 철저하게 파괴된 테노치티틀란이 지금의 멕시코시티로 다시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고원의 유적을 찾아 도시를 벗어난다.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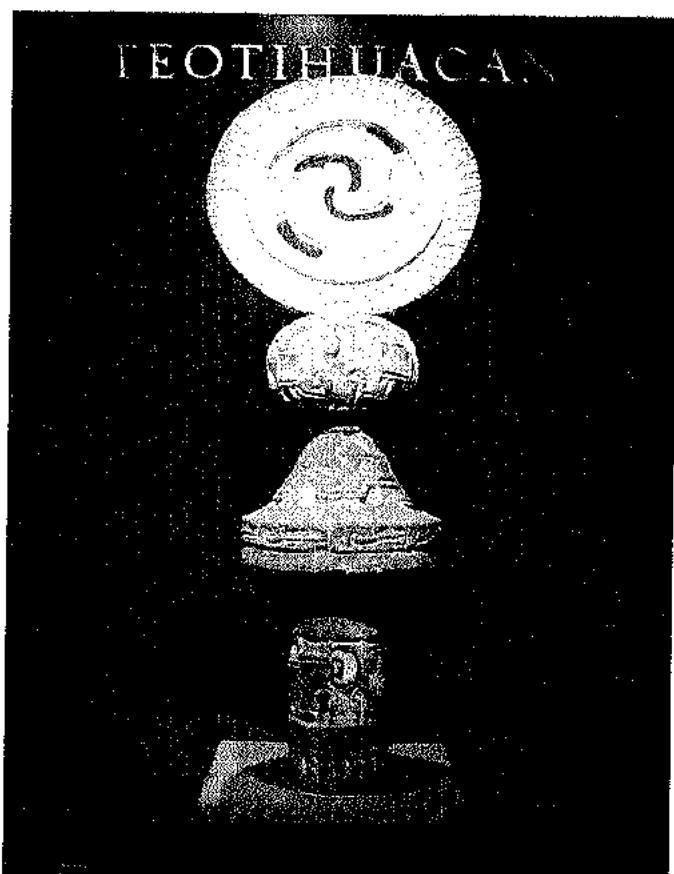
시티로부터 북쪽으로 한시간여 거리에『신들의 도시』태오티후칸이 있다. 아즈텍이 고원의 주인이 되도기 훨씬 전인 기원전 5백년경부터 천년을 넘게 이곳 멕시코 고원을 지배하였던 도시이다. 테오티후아칸이 멸망한 뒤 5백년이 지나 이곳을 지배하게 된 아즈텍은 거대한 폐허의 스케일에 압도되어 인간의 것이 아닌 신이 만든 도시라고 생각한다. 죽음의 길이라 불리우는 중심도시, 달의 피라밋, 해의 피라밋 등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죽음의 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구조의 프레임은 최소 7만5천에서 최대 2십만의 인구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의 길이 225m, 높이 75m의 태양의 피라밋의 서쪽에 평행하게 뻗어있는 죽음의 길은 북쪽 달의 피라밋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서 도시의 정점을 이룬다. 죽음의 길 좌우에 도열하고 있는 기단은 다양한 도시의 불력을 이루며 남쪽으로 이어진다. 도시의 맨아래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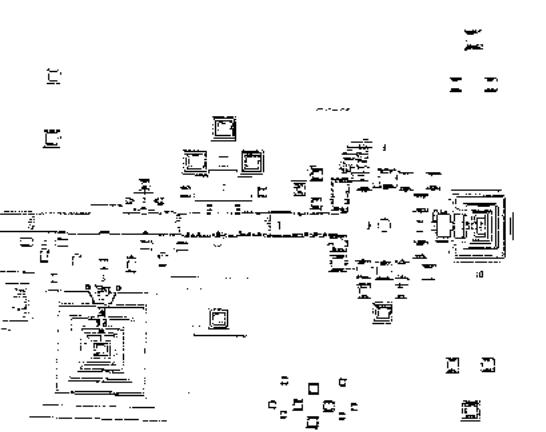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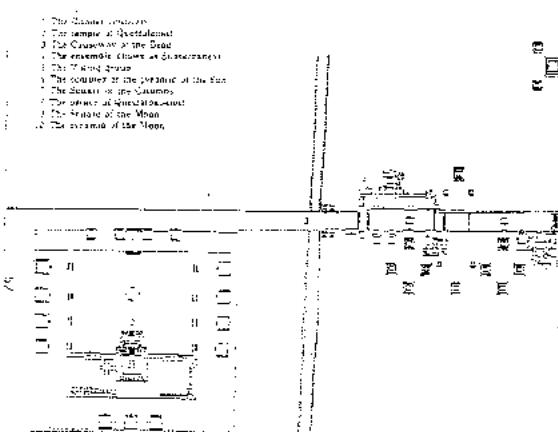
케찰코아틀 신전의 벽면



케찰코아틀 사원의 벽장식



태오티후오아칸의 명비



태오티후오아칸

케찰코아틀의 피라미트이 또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 천년의 연륜을 간직하고 있는 고대의 도시유적에서 건축적 특징을 일일이 살피기란 몇 시간의 머물으로는 불가능하다. 종교의식과 축제의 여운이 아직도 느껴지는 거대한 스케일은 인간의 조건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신의 권위와 위엄에 접근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태오티후오아칸의 초인간적인 신비로움은 폐허의 적막함이나 케찰코아틀의 그로테스크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며, 천체운행의 이치에 맞추어져 있다는 도식구조의 질서 때문도 아니다. 초목으로 뒤덮힌 형태도 알아보기 어려운 둔덕이 발굴되기 시작한 1962년 이래 도시의 거대한 규모는 그것이 복원되어 재현될 때 마다 역사의 기념성이 더하여진다. 시간과 땅 그리고 인간이 어울려서 만들어 놓은 엄숙한 사실앞에서 역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늘의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는 멕시칸 바로크의 성당들이 마을마다 서 있다. 산을 뒤덮다시피 한 빈민가의 판자집 실루엣 너머로 멕시코시티의 거대한 풍경이 나타난다. 테노치티틀란의 흔적위에 또 수세기에 걸쳐 덧씌워진 역사의 결과로서 멕시코시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가?

수염난 흰얼굴에 번쩍이는 쇠옷을 입고 불을 뿜으며 대지가 훈들리듯 달려온 동쪽의 하얀귀신이 이 땅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었는지는 이후의 역사에서 다시 정리될 것이다.



##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3)

Korean Architect, Lee Hui-Tae

이희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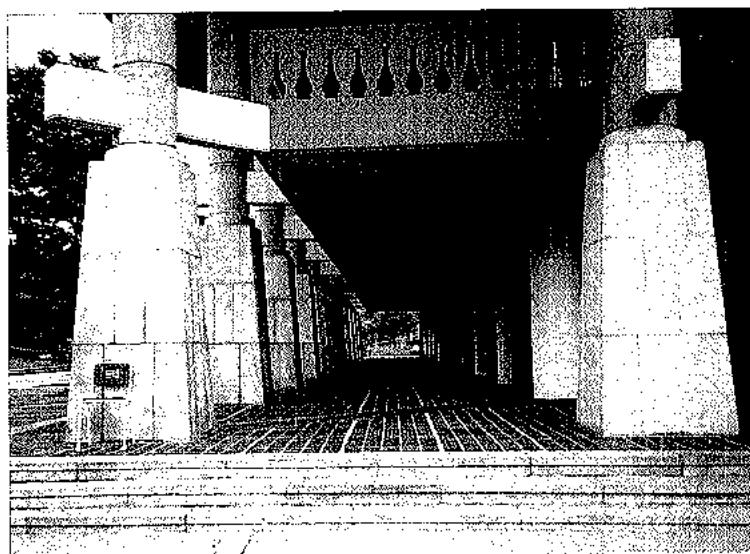
梁勝宿 / 자유기고가

by Yang Seung-Suk

### 4) 국립 경주박물관(1972)

박물관 건축형식은 그 기능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될 수 있다. 다른 기능의 건물과는 달리 공간적인 연계나 전시의 기능보다 기념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과거의 것을 담는다는 기능을 이유로 현대 재료를 통한 잘못 모사된 형식은 기존의 건축양식에 대한 평가절하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건축형식, 또는 양식에 대한 규칙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어 형식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기념성이라는 기능이 형식해석으로부터의 유추보다는 형식 외부에서 찾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립 경주박물관'의 경우는 역사적이고 복고적인 건축양식으로 역사적 모티브를 추상화하여 모사하고 있다.

경주박물관의 평면을 분석하면 전체형식은 중앙의 로비를 중심으로 대청을 이루고, 기둥의 그리드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진입하는 4면의 계단을 통해 중심성을 획득하고 있다. 경주박물관은 이런 규격화나 중심성을 통해서 격식과 질서감을 갖춤으로 해서 고전을 추상화하고 있다. 건물의 전시장은 2층에 위치하는데, 외부의 벽과 기둥은 주랑을 만들어서 공간의 켜를 만들고 있다. 이 공간은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형식으로 고건축의 어느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더군다나 시야가 열려 있어서 정자나 루의 느낌을 준다. 만일 기능과 상관없이 벽의 창이 열리고 닫힐 수 있었다면 공간은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해 질 수 있었을 것 같으나 박물관의 기능에 의해 창은 외부로 개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단하부의 주초석은 이미 '절두산 순교기념관'과 '국립극장'에 이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축요소로 이곳에서는 하부공간의 깊이감을 더 해주고 있다.(1층 기주로 둘러싸인 공간은 창고로 사용되고, 전시기능은 누(樓)상의 2층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기둥의 처리는 노출 콘크리트를 다듬어서 처리함으로서 거친느낌보다는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다. 모서리 기둥의 하부처리 방식이 다른기둥에 비해 특이한데, 쪘기처럼 가로 부조재를 박아줌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게



경주박물관(기주)

한다. 이러한 구조법은 우리나라 고건축의 독특한 형식으로 고전건축 어휘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면이다. 그리고 상세에 대한 감각이 발휘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지붕인데, 처마 아래의 서까래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몇줄의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귀솟음과 함께 전통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것인데, 이러한 디테일은 보편적인 가치 이상으로 보인다.

### 5) 국립 공주박물관(1974)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5호분과 6호분의 침수방지 공사를 하던 중 무령왕릉이 발굴되었다<sup>6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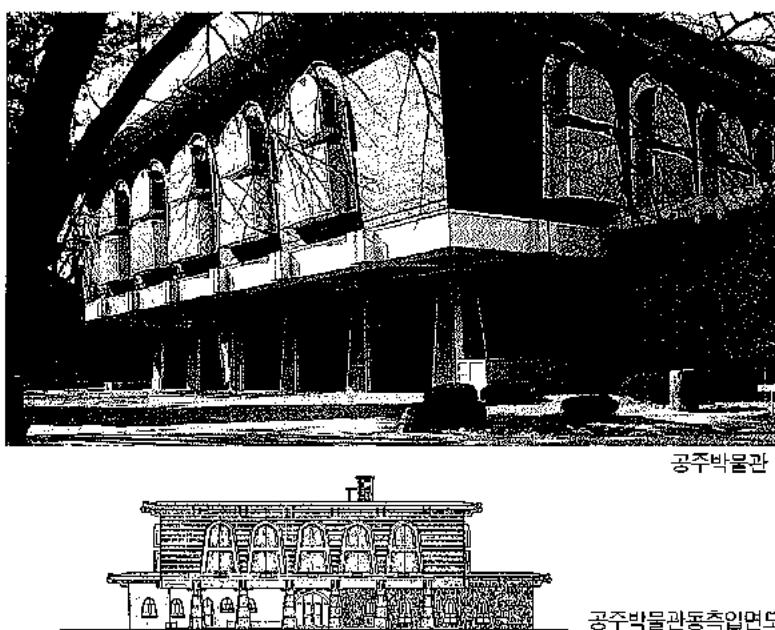
이곳에서 출토된 부장품을 수장하고 전시하기 위해 선화당이라는 전통목조건축물 맞은 편에 공주 국립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박물관은 고고학적 성과가 건축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지역의 특성과 기념전시물의 성격을 담아내야 하는 양면적인 요구사항을 담보하고 있다. 덕분에 경주 국립박물관과 같이 '근대건축의 봄체위에 전통적인 요소' 를 부가함으로써 기념성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이 강한 대조와 조화로 통합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기존의 것에 대한 긍정의 자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 건축의 경우 전축 형태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표현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에 응한 것은 박물관 건축의 성격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물관은 건축어휘의 모티브를 발굴된 무령왕릉의 형식으로부터 찾았다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전통어휘의 사용자세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평면상에서는 공간 연계성 측면-주 전시동과 부수 공간, 그리고 소강당-이 미흡하게 해결 되었다.

그러나 입면과 평면의 연계에서 박물관이라는 기능상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하는 창과 빛의 관계는 소홀하지 않게 취급되었다고 보여진다. 우선 측면의 창은 디테일을 통해 창의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즉 창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데, 창의 정면을 외장재로 마감하고 측면창을 설치함으로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천창의 경우는 삼각형의 고깔모양을 취하면서 한면으로 빛이 삽입되게 되었는데, 실내에 그림을 설치함으로써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가 원했던 것은 톱라이트 기능보다는 '빛우물' 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점은 부산 시립 박물관(1976)의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중앙의 중정을 위시하여 열려진 개구부로 인하여 전시 효과의 시각적 집중성이 떨어지는 등 중정의 개방이 사실상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정을 향하고 있는 전시장의 창을 형식만 남겨두고 뚫지는 않음으로써 전시장에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면구성은 주공간을 괴로티 위에 설정하고 있는데, 외부에서의 진입을 괴로티 사이로 하여 평면의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중심에 1,2층이 통하는 홀이 있는데, 이 홀에는 전시장이 유도하는 계단이 있고, 이 홀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즉 평면형식은 2층의 전시공간이 정방형을 이루고, 부대공간으로 소요되는 1층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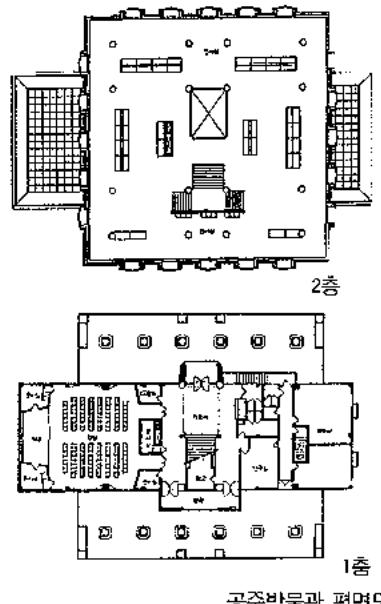
여기서 이희태의 박물관건축-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부산 시립박물관-의 공통점을 분석하면 몇가지가 있는데, 계단, 로비, 중정 등을 공간 중심에 두어 중심성을 획득하고 있다든가, 주 전시공간이 모두 2층에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출입문을 중심으로 평면 및 입면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 건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통과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측면인데, 이희태에게는 고전건축 어휘를 현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다음으로 입면을 분석해보면 창의 형식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뿐 출입문의 형식까지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령왕릉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여기서 돌출된 창은 전체적으로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공주박물관

공주박물관동측입면도



공주박물관 평면도

67) 유형문화재 92호인 선화당은 충청도 관찰사의 감영청이었던 건물이다. 본래는 공주사대 부속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공주박물관 자리로 옮겨 세 박물관이 지어지기까지-무령왕릉 발굴 이전- 공주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혈려서 무령왕릉 근처의 판아 건물터로 이전 복원되었다.

장군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데, 이 이미지는 박물관의 기능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수장품들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과 잘 맞는다. 이 건물에 대한 비평<sup>70)</sup>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천창을 통하여 내려오는 빛이 주공간을 균질하게 채우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너무 강해서 관람을 방해하고,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희미해서 천창의 존재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sup>71)</sup>라고 ‘천창’을 해석하고 있는데, 빛과 내부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천창 형식은 ‘연암회관(1979)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천창 하부에 루버를 두었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인용되는 글도 송인호의 비평 중 일부인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성과 전통성의 표현에서 전통적 형태를 근대적 재료로 표현하는 것보다 근대적 형태를 전통적인 재료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sup>72)</sup> 즉 이 평가는 한국의 토착성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지로 이 건물의 표현방식은 무속신앙의 화법만큼이나 강렬하다. 그러면서도 절제된 표현을 읽지 않고 친근한 재료(전벽돌)를 사용함으로써 주변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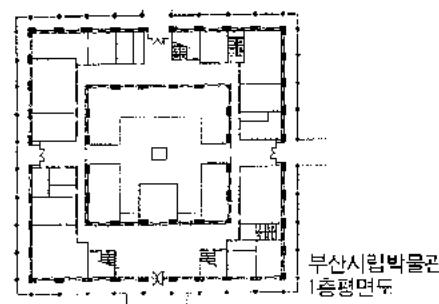
### 6) 부산 연암회관(1979)

1980년 2월에 준공된 ‘부산 연암회관’은 럭키기념관으로 럭키 초대회장인 구연경의 자택이 있던 자리에 ‘자택’을 허물지 않으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이었다. 자택을 허물지 않는 것이 설계조건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작품의 성격-전통과 관계되는 프로젝트, 박물관류으로 보았을 때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이 건물의 기능이 과거의 것을 보존하고 담고 기념하고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타당성있는 제안이었을 것 같다.

평면을 분석하면 전체 형식은 원형을 이루고 있고, 전시공간도 외벽을 따라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에 기존의 주택-전시공간의 일부로 건물자체가 전시물이기도 하다. 이 집은 타일마감으로 50년대 지어졌다고 한다-이 직사각형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면적으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1층의 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색 타일(벽)과 청동판이(지붕)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다. 외장재로 세로로 긴 타일을 사용한 것은 건축물의 형태가 원형을 이루다 보니, 가로로 긴 타일보다는 원형 벽을 마감하는데 적절했을 것이다. 지붕형식은 ‘부산 시립박물관’과 같은 형식으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면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전건축의 처마, 속처마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주 국립박물관’과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보았던 천창이 같은 형식으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데, 지붕형식과 함께 건물외부에서는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곳에서도 천창에 루버를 설치하여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미약한데, 이것은 공주 박물관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다고 생각된다. 원통형<sup>73)</sup>의 평면과 다각형의 경사지붕, 원호를 이룬 출입구는 연암회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간의 건축물들에서 발견된 어휘들을 극도로 축약시킨 것으로, 작가의 실험성이 최고조의 절제와 어휘의 단순화를 통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립극장, 경주 국립박물관 등에서 나타난 기단부 처리는 극단적으로 배제되어 버리고 일련의 외부 돌출 기둥들도 원통형의 벽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sup>74)</sup>의 겹침이 전반적으로 이 건축물의 균형을 어색하게 한다는 점은 그의 시도가 가져다 준 모험에서 거둘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건물 전체에 운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요소는 1,2층을 연속하는 세



부산시립박물관 전경

68) 송인호,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4호 통권 66호, 9404

69) 이것은 다른 측면인데 ‘부산 시립박물관’의 ‘중성’은 따로 분석내용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풀 한 포기 없이 비어 있는 이 공간은 비어 있음으로 꽉 차기도 하고, 비어 있음으로 담담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공간은 실용공간이기 보다는 관조의 대상으로 이 건물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로 긴 창·성당건축에서 주로 사용한 형식으로, 원통형 벽면의 단조로움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완벽한 원형을 이루는 벽은 마리오보타의 사무실건물(1989)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공통점은 작가의 재료를 통한 토착성과 건축의 형태를 추상해 온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건물에서도 평면은 좌우대칭과 상호대응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기능을 사각형이나 원속에서 소화시킨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생활감정과 이러한 감정에 대응하는 현재의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소망의 표현으로-기념관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모른다-개인적 자유보다는 규범을 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어떤 완성에 이르는 방법<sup>70)</sup>이라고 작가는 간주했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을

통해 형태자체에 대한 집착은 극복되었고, 근본적인 원리를 반영하려는 순수주의적인 측면이 더욱 엄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 7) 성 라자로 마을(1972~1981)

'성 라자로마을'은 '나병환자촌'으로 이 속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 영위된다. 특별한 복 일·봉사자·의료진-이 있지 않고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이곳을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어떤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만들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곳의 원장은 이 마을의 초대 신부로 부임했던 이경재신부로 7대째 이후 계속해서 맡고 있다. 마을의 최초계획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희태씨가 마스터플랜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71년 이후<sup>71)</sup>이다. 대다수의 건물은 이희태에 의해 계획이 되었고, 성당<sup>72)</sup> 만이 이경재 신부의 의견에 의해 유희준에 의해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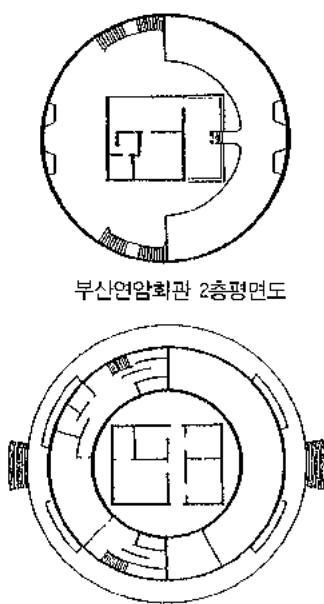
건물들의 재료는 평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페인트

색깔의 다양화와 독자적인 디자인 어휘의 개발로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디자인 양식의 변화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70년대의 문화시설건축물<sup>73)</sup>의 변화에서 보이는 양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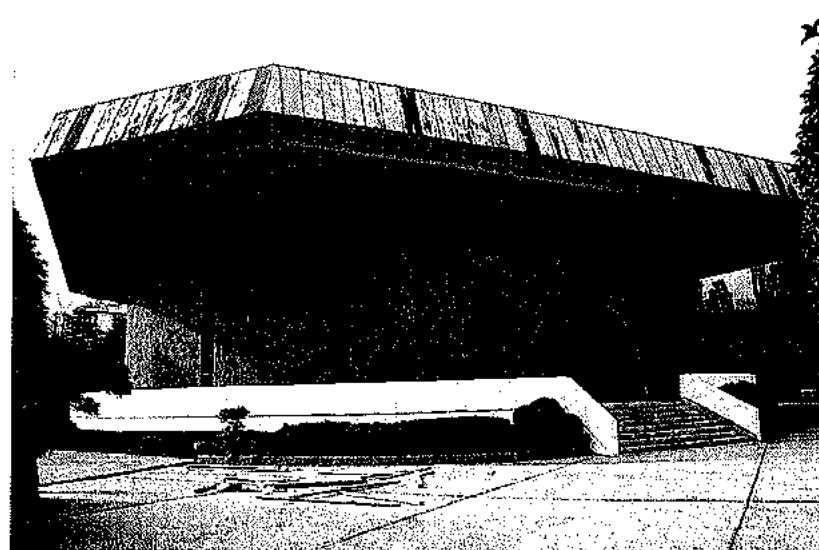
마을전체가 산비탈에 위치하다 보니, 건물 앉히기와 건물과 건물간의 연계성을 두는 것이 작가로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배치의 형상을 단면적으로 분석하면, 몇개의 층으로 나뉘어 건물들이 앉혀 있음이 나타난다. 우선 수위실을 지나서 왼쪽 길을 접어들면, '직원식당, 사제관, 사무실'이 한 데 어울려 이루어면서 층을 형성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한편에는 '라자로의 집(강당)'이, 다른 한편에는 '아록의 집'이 경사지에 앉혀져 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치유의 집, 정결의 집'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위치한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휴식장소 겸 주차장을 위한 평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경사지를 오르면 '반석의 집, 샛별의 집'이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모듬의 집'이 좀 떨어져서 위치한다. 그리고 '토마스의 집, 기쁨의 집, 고마움의 집'이 같은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주로 주민들의 생활영역이고, 주차장의 원편으로 봉사자들의 '우리의 집'과 '수녀원, 수녀원식당'이 사무실군과 연결되면서 위치한다. 그리고 이 마을의 상징인 '성당과 탑'이 그 상부에 위치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라자로의 무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식으로 일명 '묘지아파트'→유럽 등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성 라자로 마을은 이런 형식으로 작은 건물군이 하나의 층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고전건축의 배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산지형 가람배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계단이나 비탈을 오르고 나면 넓지 않은 평지에 크지 않은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



부산연암회관 1층평면도



부산연암회관

70) 송인호, 미완의 개념과 장인정신, 건축과 환경, 9004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10권4호 통권 66호, 9404

71) 송인호,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10권 4호 통권 66호, 9404

## 성 라자로 마을의 건물

건물명	설계자	준공년	건축현적	기능	마감	특 징
정결의 집	이희태	1971	14평	이발소, 목욕탕	시멘트벽돌	벽돌의 마감이 정결하게 이루어짐
사제관식당	이희태	1972	40평	식당	시멘트벽돌	출입문에 작가 특유의 눈썹아치가 보임
반석의 집	이희태	1972	32평	남자숙소	호박돌	지붕의 처마형식이 선적인 요소로 독특
셋별의 집	이희태	1973	54평	남자숙소	타일	외장재만 다른 반석의 집과 같은 형식
토마스의 집	이희태	1973	56평	부부숙소	적벽돌	지붕구조를 자연까지 연결하는 독특한 형식
성 당	유희준	1975	126평	성당	돌	
우리의 집	이희태	1876	22평	봉사자숙가게	시멘트벽돌	길에서는 1층, 주차장에서는 저하층 인식
모둠의 집	이희태	1979	145평	여자숙소	적벽돌	붉은 지붕재가 주위의 나무들과 어우러짐
라자로의 집	이희태	1981	278평	경당	적벽돌	옆에 지어진 외부화장실의 기avia가 독특
처유의 집	이희태	1982	102평	병원	적벽돌	담쟁이넝쿨이 어우러져서 천근감 연출
사무실	이희태	1983	31평	사무실	시멘트벽돌	넓은 창을 통해 외부의 자연을 끌어들임.
아름의 집 구 관	엄미건축	1986	360평	노인숙소	타일+페인트	
아름의 집 신 관	엄미건축	1990	358평	노인숙소	타일+페인트	

물군을 이루고 있는데, 단면으로 보았을 때는 계단식 배치로 라자로 마을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고전의 형식을 이런 배치형식 모방과 토착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현대화를 추구했다. 건물형식을 분석하면, 외장재의 종류별로 건물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수녀원식당, 수녀원, 우리의 집, 직원식당, 사제관, 그리고 정결의 집' 등은 시멘트벽돌 세워쌓기에 가로줄눈을 넣음으로서 마감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 라자로의 집, 치유의 집, 모둠의 집, 그리고 셋별의 집' 등은 붉은 벽돌로 마감을 하였으며, '고마움의 집'은 타일로 마감을 하였고, '반석의 집'은 호박돌 거친층 쌓기로 마감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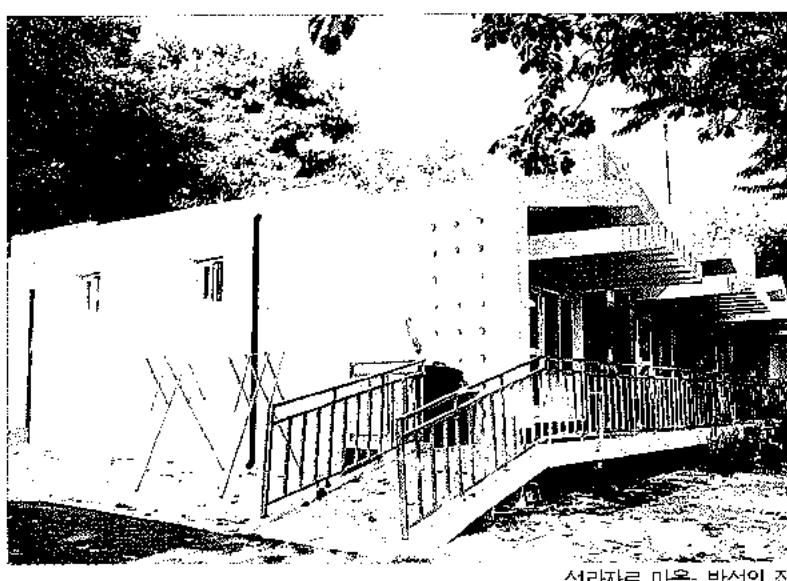
였다. 그리고 부분 부분 모르타르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물을 구분시키는 것은 지붕의 형식이다. 경사지에 위치하다보니 구조적으로 필요해서인지, 지붕재가 바닥까지 연결된 형식-토마스의 집, 고마움의 집-이 보인다. 그리고 처마를 추상화한 형식으로 부재(서까래)를 정면으로 길게 뻗은 형식-반석의 집, 쟁별의 집-이 있는데, 이것은 집이 남향함으로서 해서 더더욱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기쁨의 집은 평지스라브로 건물 전체를 육면체로 만들고 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측면에 세장하게 세워진 부재로, 서향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면서, 건물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살펴보았듯이 건물들은 재료나 규모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건물들은 전통건축의 대칭성에서 유추한 전면의 중심성에 대한 관심<sup>72)</sup>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원초적인 환경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토착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 그리고 원초적인 공간형상의 추구가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친숙한 것, 윤곽이 지나치게 뚜렷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낡은 느낌의 재료를 선호하면서 우리건축의 기억을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으며, 또한 형식에 대한 극단적 추구를 경원하면서도 근대적인 비례와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 마치는 글

이희태(1925~1981)는 식민지기간에 교육을 받고 해방이후에 활동이 활발했던 건축가로 주요 작품시기는 5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초까지이다. 이희태가 추구했던 건축은 서구근대건축-국제주의건축의 토착화와 고전양식의 현대화로 형식의 혼합적 결합이 아닌 별전적 통합이었다. 이러한 것은 이희태의 건축에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는 작품을 시기적인 분류보다는 건축형식의



성 라자로 마을- 반석의 집



성 라자로 마을- 토마스의 집

72) 송인호, 공주벽돌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10권 4호 통권 66호, 9404

73) 여기서 원형이라는 하나의 형식이 선택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그 소재로서 선택된 원형은 본질적으로 그 대지와 조화되면서도 공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작가의 역량과 관관된 문제로, 20년대의 순수주의들이 주장했던 primary한 형태, 원통이나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소재로 선택 되었다.

특징을 중심으로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와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로 분류하여 작품을 분석했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건축물은 명수대성당(1952), 송림동성당(1954), 경주성당(1955), 진해성당(1955), 혜화동성당(1955) 등의 종교건축과 제동빌딩(1956), 메트로호텔(1956), 무역센타(1968) 등의 사무소건축, 그리고 계성여고특별교실(1954), 서강대신부관(1960), 명지대학교본관(1962) 등의 학교건축, 용산양곡방열창고(1966-68)의 창고건축, 그리고 헬사이드아파트(1978) 등이 있다. 이 건축물들은 모더니즘계열로 모더니즘의 기술적 바탕위에 자신의 개성적 형태언어를 결합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수대성당과 혜화동성당 등 종교건축은 기존의 관습으로 획일화된 종교건축양식-고딕양식-을 벗어나, 성당건축에 새로운 형식-종탑.입면.평면-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고, 제동빌딩은 입면에 커튼월 형식의 도입과 자유로운 평면으로, 그리고 명지대학교 본관은 기존의 山자형 입면과 평면을 가능주의 형식을 통해 벗어남으로 해서, 그리고 용산양곡방열창고는 구조미를 통한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역회관은 격자창을 벗어난 입면과 친근한 재료를 통해 국제주의 형식을 토착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헬사이드아파트는 성냥갑이라는 기존의 아파트 형식을 입면과 평면형식을 통해 깨뜨리므로써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즉 명수대성당, 혜화동성당, 제동빌딩, 명지대학교본관, 용산양곡방열창고, 헬사이드아파트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해 벗어나므로써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무역센터를 비롯한 명지대학교 본관은 친근한 재료를 통해 국제주의 양식의 토착화 경향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는 순교복자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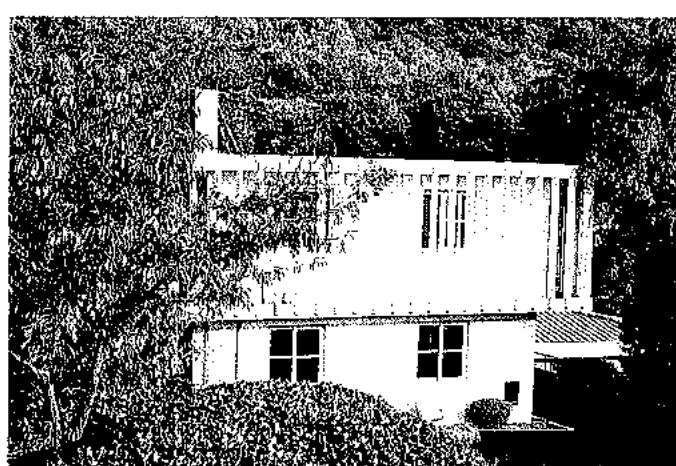
(1967)에서 시작하여, 국립극장(1969), 국악사양성소(1969),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1972), 국립공주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76), 부산연암회관(1979) 등 박물관 건축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를 작품에서 일부는 전통의 몰입으로 복고주의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고전건축어휘를 형태의 단순화와 재료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순교복자기념관은 고전건축의 다양한 형태어휘-지붕, 기둥, 기주, 주랑, 서까래 등-를 재료의 변형과 단순화를 통해 작가의 독창적인 건축어휘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립극장은 3부체계의 도입과 순교복자기념관에서 보여준 건축어휘를 변형해서 사용하므로써 전체형식에 고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악사양성소는 수평으로 긴 지붕선의 강조와 쌍기둥, 기주, 주랑을 통해 고전건축의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은 복고주의 경향의 지붕을 도입하므로써 지역성을 보여주고자 했고, 국립공주박물관은 창의 형식과 마감재료를 통해 토착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부산의 연암회관은 앞에서 보여준 박물관과는 다른 건축어휘를 보여주는 건물인데, 원형의 전체평면 속에 직사각형의 평면이 내부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극도의 추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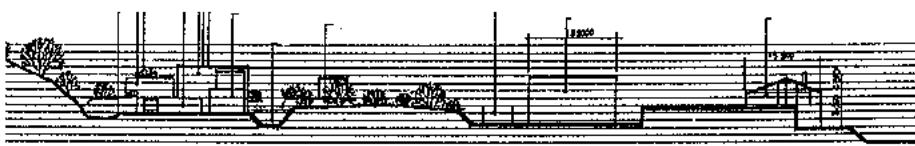
이 작품들은 당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논란-주로 전통논란-을 일으켰던 건물들로, 이 건물들이 의의를 갖는 것은 건축어휘, 비례, 입면형태, 재료 등을 통해 고전건축어휘를 현대화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희태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공통어휘를 혜화동성당과 순교복자기념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희태의 작품흐름 속에서 이 혜화동성당은 종교건축에서, 순교복자기념관은 전통어휘를 현대화하는 측면에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혜화동성당은 1952년에 설계된 명수대성당을 시작으로 송림동성당(1954), 경주성당(1955), 진해성당(1955), 그리고 전주교구주교관(1957), 아현동성당(1958), 청파동성당(1968), 다시 압구정동성당



성리자로 마을 배치도



성리자로 마을 · 기쁨의 집



성리자로 마을 종단면도

74) 그는 작품활동 초기인 1950년대부터 기학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당의 종탑에 디자인되어 풀린(open) 모습은 마치 몬드리안의 평면구성을 보는 면 분할을 느끼게 한다.

75)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 상, A. 하우저, 백낙청, 채성원 공역, 광작과 비평"

(1981)에서 연속성을 보여준다.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건축이휘는 종탑형식(가장 특징적인 형식), 지붕형식(혜화동성당은 가벽속에 숨어 있다.), 현관앞의 쌍기둥, 제단옆의 세로로 긴 창, 성당 축면의 창형식, 그리고 강당형을 이루는 평면형식이다. 즉 이러한 건축이휘를 통해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다.

1967년에 설계된 순교복자기념관은 고전건축이휘의 현대화를 시도했던 초기의 작품으로 전통형식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창조적으로 창출했다. 이 기념관에서 나타난 건축이휘들은 이후에 설계되는 국립극장(1969), 국악사양성소(1970), 국립 경주박물관(1972), 국립공주박물관(1974), 부산시립 박물관(1976)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국립극장과 국악사양성소에서는 쌍기둥, 기주, 주랑 등이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국립 경주박물관에서는 기둥과 보의 구조법과 주랑, 기주형식이 나타나고, 공주박물관에서도 기주형식이 공통이휘로 나타난다. 정리하면 이회태의 건축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건축의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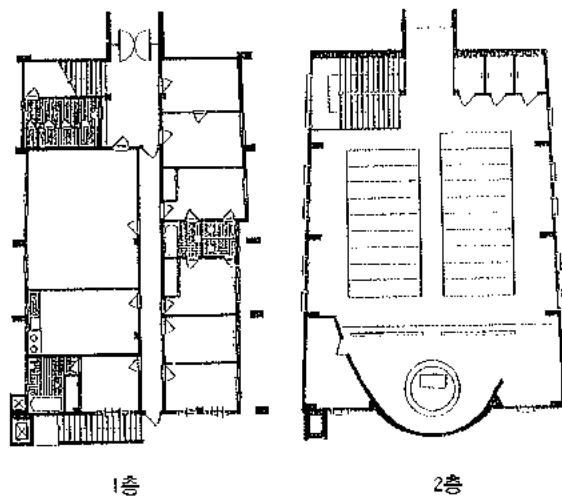
운 형식추구'이고, 둘째는 '고전건축이휘의 현대화추구'이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은 50년대, 60년대의 근대기능을 요구하는 건물들이고, '고전건축이휘의 현대화추구'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은 60년대후반부터 70년대말까지의 문화시설로 고전형식을 요구하는 건물들이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범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기존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난 독자적인 형식추구, 둘째, 재료와 형식을 통한 국제주의 건축의 토착화추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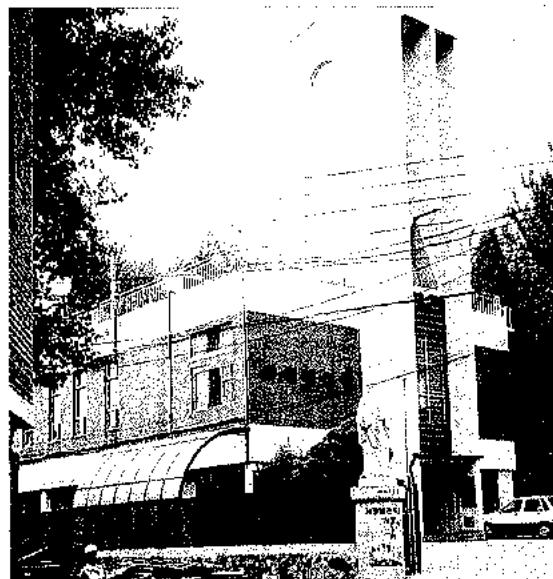
혜화동성당 등의 종교건축은 새로운 형식추구의 대표적인 건물들로, 고딕식의 첨탑을 사용하지 않았고, 종탑을 본 건물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강당형평면을 갖는 등, 그 특징은 평면과 형태에서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본관은 식민지 시기부터 내려오던 山자형 입면과 평면을 벗어나고 있고, 평면의 기능을 입면에 드러내고 있으며, 노출콘크리트와 적벽돌의 사용으로 국제주의 형식의 토착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회태 건축의 시기별 특징

유형	주 요 작 품			표현상의 특징
	50년대 작품	60년대 작품	70년대 작품	
건축의 새로운 유형 추구	명수대천주교성당(1952), 계성여고(1954), 경주천주교성당(1955), 혜화동천주교성당(1955), 제동빌딩(1956), 메트로호텔(1958)	명지대본관(1962), 서강대신부관(1962), 용산양곡방렬창고(1966~68), 무역회관(1968)	힐사이드 아파트(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건물을양식으로부터 탈피</li> <li>1. 명수대성당 및 혜화동성당은 기존의 고딕형식으로부터 탈피</li> <li>2. 제동빌딩은 입면의 명쾌성 도입</li> <li>3. 명지대본관은 山자형 학교건축형식으로부터 탈피</li> <li>4. 용산양곡방렬창고는 박스형태로부터 탈피</li> </ul>
고전 건축 이휘의 현대화 추구		순교복자기념관(1967), 남산 국립극장(1969)	국악사양성소(1970), 경주국립박물관(1972), 공주국립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77), 부산연암회관(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건축이휘에 대한 연구</li> <li>1. 순교복자기념관은 기주, 기둥, 지붕 등 여러가지 디테일을 통해 현대화 가능성 시도</li> <li>2. 국립극장 및 박물관 등은 절두산에서 시도했던 것을 변형 확대사용</li> </ul>



청파동 천주교 성당 평면도



청파동 천주교 성당

예술의 규범이 되는 통일성의 원리, 통일적 공간 감정, 비례의 통일적 기준, 하나의 모티브를 향한 묘사의 제한,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도의 통일적 종합은 합리주의 정신과 내용, 비합리적인 것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76) 이회태 작품연보

77) 이경재신부에 의하면 이회태는 성당건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탁했다고 한다. 이경재신부는 성당을 사랑으로 생각을 했고, 이회태는 기능적으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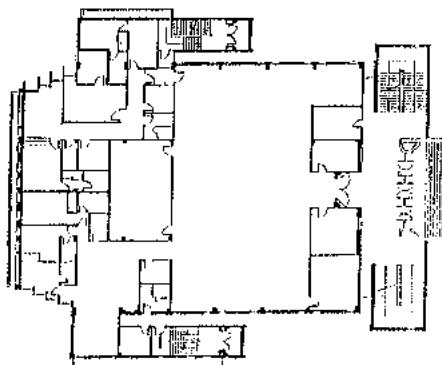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 범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고전건축의 다양한 형태어휘를 단순화와 추상화, 그리고 재료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범주의 건축물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근원은 지붕, 기둥, 기주, 주랑 등의 고전건축어휘로, 이 어휘들은 기능의 큰 변화없이 형태와 재료의 변화

를 통해 현대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순교복자기념관과 국립극장 등은 고전건축의 다양한 형태어휘를 실험을 통해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재료의 변화와 단순화, 그리고 형태변화로 다양한 형식이 실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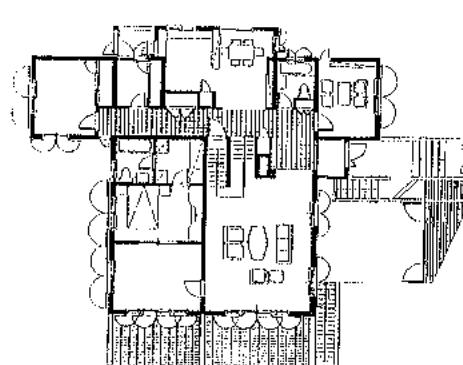
즉, 이희태는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건축가중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희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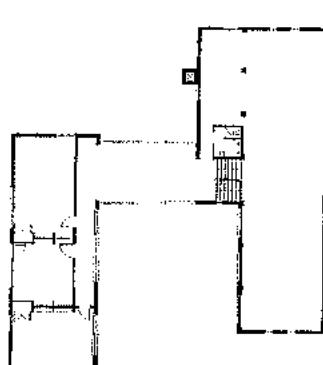
요 소	특 징	비 고
지 봉	1. 3부체계의 입면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하늘과의 접촉) 2. 작가는 각 작품에서 고전건축의 지붕을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변형하고 추상화하여 여러가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처마부분의 디테일: 기둥과의 연장선)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기 등	1. 전체입면의 틀을 잡는 기능을 하는 기둥을 가늘게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살감한다. 2. 기는 기둥을 쌍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정된 입면상의 비례를 만들었다. 3. 재료: 노출콘크리트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주 랑	1. 건물의 외부를 기둥이 주랑을 구성하면서 커를 하나 만들고 있다. 이 공간은 궁궐건축의 회랑을 연상시킨다. 2.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3. 외부공간을 내부공간화 한다. (내부공간 확정)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기 단	1.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분리 2. 격이있는 공간으로 형상화 3.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 주거건축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형식(서양 고전 양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부산박물관
기 주	1. 작자가 고전건축어휘에서 형상화하고자 했던 디테일 중의 하나(국립극장의 작가 침관기증에서) 2. 고건축의 樓下공간을 연상시킴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배 치	1. 작자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건축요소 2. 경사진 대지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여, 경사진 대지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 3. 특히 주거건축에 잘 나타나고 있음.	설리자로마을, 월사이드 아파트, 순교기념관



압구정동 천주교 성당 1층 평면도



평창동 주택 1층 평면도



얼이건축 1층 평면도

각한 대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78) 1969년도 국립극장을 시작으로 1972년 경주국립박물관, 1974년 광주국립박물관, 1976년 부산시립박물관 등 문화시설 중심의 관주도 작품들을 살펴보면 디자인

이 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79) 치유의 집, 샛별의 집, 토마스의 집 같은 건물의 입면이 중심축을 갖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

# 도시환경과 건축문화(5)

Urban Environment & Architectural Culture

21세기를 대비한 한국도시의 발전방향

黃鏞周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by Hwang Yong-Ju

## 7. 건축가의 서비스

건축설계실무는 매우 다양하다. 건축설계 조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건축설계 서비스는 건축주와 맺는 계약과 그 조건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축가는 건축주의 주어진 프로그램과 필요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계약조건, 설계에 대한 주문, 예산 등)과 신속한 승인 절차가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건축가는 작업에 들어가 여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스케치를 포함한 구상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구상안이 승인되면 구조, 설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포함된 설계도가 완성된다. 이 때 모형이나 투시도가 함께 제출되기도 한다.

건축주의 요구조건과 중간승인 과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용도서(설계도면)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정확한 구조, 공법, 재료에 대한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완성된다. 이 공사용 도서의 승인이 끝나면 건축가의 도움으로 건축주는 공사 도급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정확하고 바람직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준공검사)를 통하여 건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 7.1 설계업무의 흐름

#### 가. 설계작업의 진행

건축생산은 크게 설계와 시공의 2단계로 나뉘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엄밀하게 설계만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축설계는 일반적으로 건축가가 주어진 설계조건을 검토하고 대지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분석을 거쳐 자신의 사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아이디어의 창출은 개인적인 사고와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대체로 역사와 그 지역의 문화가 바탕이 되며, 그 시대의 여러가지 사회현상과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함께 드러나게 된다. 바로크시대의 건축과 근대주의 건축은 크게 다른 것이다. 조선시대의 목조건축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서구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평평한 지붕의 콘크리트 건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현대건축에서는 공기조화, 조명디자인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어 건축의 내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최근에 이르러 초고층건축과 인텔리전트빌딩으로까지 진화되면서 유례없는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의 재료와 기술과 시공법이 일시에 첨단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많다.

건축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소는 법과 제도이

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의 규범을 따라 도시를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지만,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테면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과 계단, 환기, 채광과 같은 성능과 기능의 기준사항 이외에도 사선제한, 일조권처럼 도시공간의 흐적성을 살리기 위한 사항까지 고려하면, 현대도시의 제한된 대지에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건축설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건축이 다른 예술분야와 크게 다른 점은 계획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건축주가 제시한 프로그램과 설계목표를 충분히 숙지하고 건축주의 투자기능 범위 내에서 설계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번의 피드 백(feed-back)작업을 통하여 공사비의 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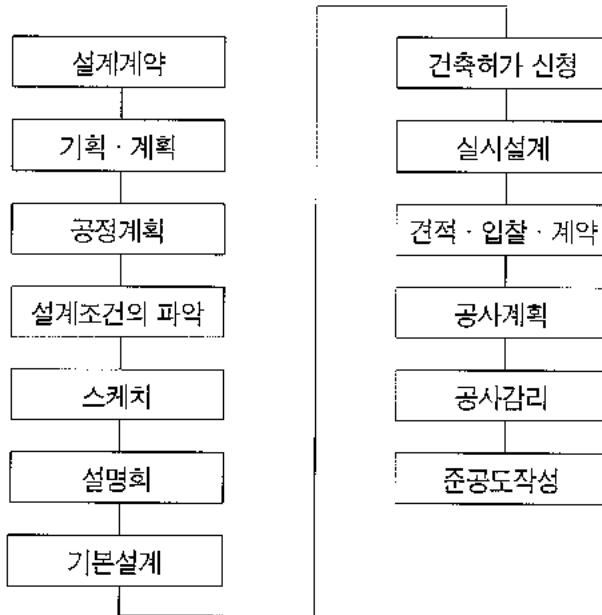
설계는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모델로 해서 반복해서 지어지는 경우를 별개로 친다면 건축설계에는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중요하다. 건축설계는 고도의 창작 과정이다. 철저한 사고의 집중이 필요하며 종합적, 지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

#### 나. 설계의 흐름

설계자는 건축주로 부터 설계 의뢰를 받아 양자간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에 착수 한다. 현실적으로 여러가지의 계약방법이 있는데 지명, 공개적인 설계경기, 설계자가 내는 제안서(proposal)방식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정식계약전에 실제작업이 착수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속한 사회 변화와 요구에 의하여 설계자와 건축기의 계약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공사까지 맡아서 수행하는 건설회사(owner-contractor)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조건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세분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능 단체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를 살펴보면〈자료3 참조〉 계약주체와 업무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주가 건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업 기획안을 작성, 제안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설계자가 단독으로 이 업무를 담당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 마케팅리서치 전문가, 엔지니어링 담당자 등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림 3-5) 설계의 흐름

프로젝트가 대형화함에 따라 이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설계자는 구체적 설계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주의 조건에 맞는 일정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는 설계공정 뿐 아니라 각종 신청수속일정, 공사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최초의 단계에서 정확한 공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공기는 직접 공사비에 반영되

#### 〈자료3〉 AIA의 설계표준 계약서/출판AIA Architect's Handbook

- ① 건축주와 건축기간의 표준 계약양식은 AIA Document B141이며, 이 양식은 설계업무가 5단계(Schematic Design-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Document, Bidding or Negotiation-Construction)의 일반적 서비스의 공사계약에 사용된다.
- ② B141 양식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가의 책임, 건축가의 기본 업무범위, 부대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주의 책임, 공사비 건축가가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기타 도서의 사용, 분쟁, 해지, 연장, 포기, 설계비의 지불방법, 임조항, 설계비의 지불 방법, 설계비 보상
- ③ B141양식은 일반공사계약조건에 명시된 AIA Document A201뿐 아니라, Architect-consultant 간의 계약에 관한 C141, C142, C161, C431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
- ④ 특별한 경우의 Owner-Architect 간의 계약양식은 다음과 같다.  
B141/CM Owner-Architect Agre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Edition.  
B151 Abbreviated Owner-Architect Agreement for Projects of Limited Scope  
B161 Owner-Architect Agreement for Designated Services  
B161/CM Owner-Architect Agreement for Designated Services, Construction Management Edition  
B162 Scope of Designated Services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B161 or 161/CM)  
B171 interior Design services Agreement  
B177 Abbreviated Interior Design Services Agreement  
B181 Owner-Architect Agreement for Housing Services  
B272 Owner-Architect Agreement for Special Services  
B801 Owner-Construction Manager Agreement  
B901 Design/Builder-Architect Agreement

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는 설계에 좌우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건축주의 요구사항, 건물의 기능, 건설예정지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조건, 사회의 경제동향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대지의 입지조건(방위, 기후조건, 지형의 고저차, 배수, 안전 등), 대지면적, 지형의 형상, 인접도로 상황, 각종의 법적규제, 교통시설상황, 주변의 도시환경, 인프라 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상황, 건설예산, 공사기간, 최적공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설계자의 과거경험과 지식, 제공된 자료, 각종문서, 참고사례 등을 모아 분석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홀히 할 경우도 흔하다.

설계자는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구상작업을 시작한다. 건축설계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간단한 스케치, 스터디 모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건축실무 작업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확정된 설계안도 실제로는 공사중에 여러가지 현장조건과 건축주의 사업변경뿐 아니라 건축가의 의지에 의하여 변경작업(설계변경)을 거치게 되므로 설계는 공사의 완료시점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설계자의 구상이 끝나면 건축주와 관계자에게 계획을 이해시키고 승인을 받는 프레젠테이션작업을 한다. 일반적으로 도면과 스케치, 모형 등이 설명의 수단이 된다.

기본설계에서는 설계의 개요와 일반도(배치, 평면, 입면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 대체로 설계담당자는 구조설계 담당자와 설비설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조단면 가정이나 설비계통도의 스케치와 개략 시방서(outline specification)을 작성한다. 또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예산견적이 진행되어, 계획이 예산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기본설계도와 구조설계도, 설비관계신청도면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부 상세도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작업을 진행한다. 신청용도, 입지조건에 따라 여러 수속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주변 근린관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계속하여 상세도와 시방서를 주체로 하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표현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발생된 변경사항도 수정하여 작업되어야 한다. 건축의장, 구조, 설비, 조경 등 필요한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각종 계산서(구조, 설비)가 이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견적입찰을 의뢰하게 된다. 건축주가 직접 지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회사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를 검토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설계자는 공사업자의 견적내용을 검토(사정)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정해진 예산 범위안에 들어오도록 설계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로부터 VE(Value Engineering)제안 등을 받아 수정에 참고할 수도 있다. 건축주와 공사업자 양자의 조건이 일치하면 공사계약이 이루어져 공사가 발주된다.

한편 설계-공사일괄방식(Turn-key system)에서는 설계의 각 단계에서 수시로 공사견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자는 공사지 조정(cost control)작업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공사비의 조정과 설계내용 확정이 끝나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고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의 초기단계에서 공사업자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사계획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공사계획서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를 모은 시공도(shop drawing)을 작성하여 시공정보를 기초로 제작업자에게 공작도(제작도)작성을 지시한다.

시공도와 공작도는 설계자의 체크를 받아 지적된 수정내용을 정정하여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자 측에서 공사상 수정을 요구하거나 설계도가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지만 설계자 측에서 보면 설계상의 자세한 마감부분까지 이 과정을 통하여 검토하게 되므로 공법에 관련된 정보가 설계에 피드백(feed-back)작업으로 수정되기 도 한다.

공사기간중에 설계자는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공사가 옮바른 공법으로 정확하게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 공사감리<sup>30)</sup>한다. 공사감리는 공사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지만, 공사의 각 단계에서 현장검사, 제품검사, 설계도서의 지정된 각종 시험의 입회, 시공도, 공작도 등의 검토승인, 현장지시가 일반적인 사항이다. 규모에 따라 상주감리보조원을 두게 된다.

공사업자는 공사중에 설계도의 변경사항을 모아서 준공도<sup>31)</sup>를 작성하게 된다. 이 준공도는 건물의 유지관리와 증·개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체로 청사진과 제2원도로 보관되지만 대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보관 스페이스와 검색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외국의 경우

건축가의 업무영역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처럼 내용의 단계로 나누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AIA)과 영국(RIBA)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하고, 다시 업무별로 세분하는데 기본 업무와 추가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predesign과 design 단계는 우리의 기본설계 단계와 비슷하고 preparing to build와 construction 단계는 실시설계 단계라고도 비교할 수 있으나, <자료 4.5>에서처럼 세부 분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표 3-8> 기획-설계-공사 단계 구분(AIA, RIBA)

	미국(AIA)	영국(RIBA)	한국
기본업무	Predesign(기획)	Pre-design	기본/실시설계
	Design(설계)	Design	
	Construction(공사)	Preparing to build Construction	입찰, 공사감리
	Post(공사후)	Post-construction	유지관리
추가업무	Supplement(추가)		

몇년전의 자료에서는 우리의 경우처럼 단순하게 계획 설계(schematic design),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development),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던 미국의 경우도 공사 전과 공사후의 업무까지 크게 단계별로 나눈 다음에 다시 서비스별로 세분하여 9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료5 참조> 이것은 업무의 규모가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가의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의 융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화시대의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건축 주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단계전에 해야 할 여러 일들, 이를테면 사업성 검토, 프로그램,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예산계획 등의 업무가 지금과는 달리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후의 유지관리도 건축가의 업무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공사-감리 프로세스로서는 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 실시설계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공사도서라고 하여 공사계약에 가장 중요한 문서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4>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사계약과 관련된 도서로 공사도서(construction documents), 입찰도서(bidding documents), 계약도서(contract documents), 프로젝트 매뉴얼(project manual)로 다시 구분되어 있다.

## 7.2 설계도서의 작성

각 단계별로 설계자는 설계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데,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가. 건축설계

— 기본설계: 도면목록, 설계개요, 개략시방서,

실내마감표, 주변현황도, 구적도  
(대지, 건물)면적표,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건축허가: 법규검토서, 지적도, 대지증명서류,  
방재계획도

— 실시설계: 단면상세도, 계단상세도, 평면상세도,  
전개도, 천정평면도, 부분상세도,  
창호리스트, 외부공사상세도, 표준도

— 공동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나. 구조설계

구조설계개요서,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기초복도,  
각층바닥 복도 지붕복도, 프레임도, 기초/보/기둥/스ラ브/벽 배근 리스트 철골상세도, 배근상세도, 각부 상세  
도 및 표준도

### 다. 설비설계

— 전기설비: 전기설비개요서, 특기시방서, 설비장비  
표(수변전, 발전기, 축전지, 간선동력, 감리제어, 전열, 전화, 약전, 화재경보, 피뢰, 운반기계), 계통도, 각층평  
면도, 각부상세도, 표준상세도

— 위생설비: 위생설비개요서, 특기시방서, 설비장비  
표(위생, 소화, 주방), 계통도, 각층 평면도, 각부상세  
도, 표준도

— 공조설비: 공조설비개요서, 특기시방서, 설비장비  
표(공조기, 넥트, 설비배관, 자동제어) 각층 평면도, 각

33) 우리의 '공감리'에 해당하는 정확한 용어가 구찌관에는 없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AIA, RIBA의 정의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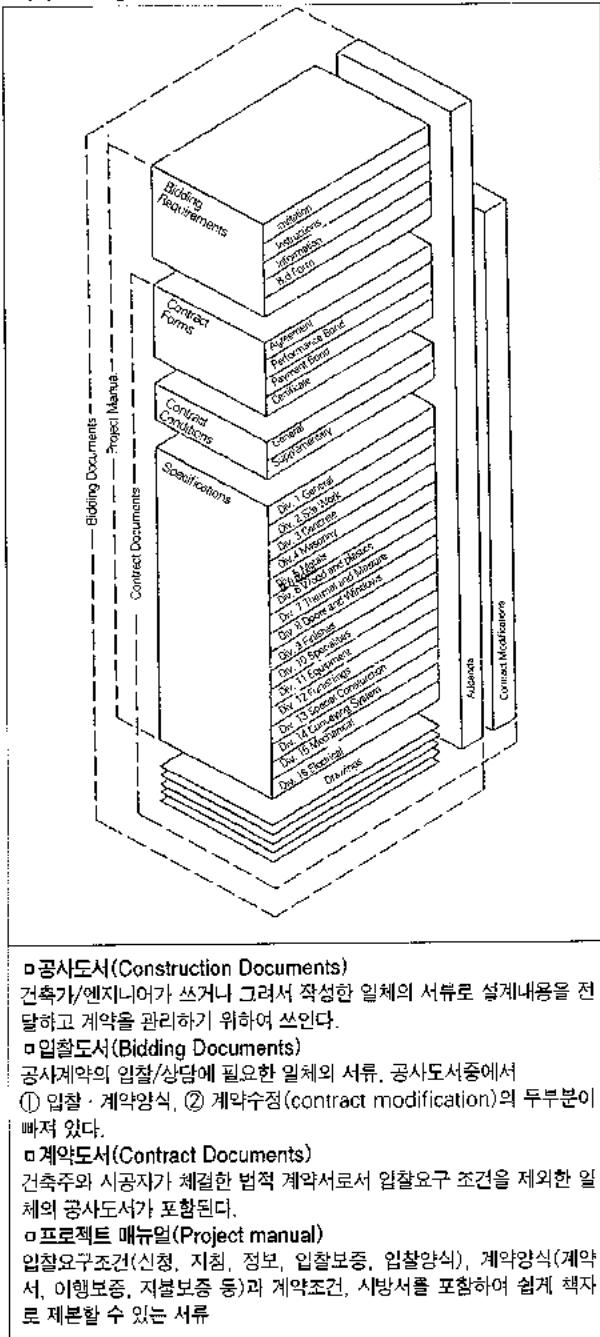
① supervision: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도록 현장에서의 감독(observation)과 검사(inspection). 현장감리 등을 말함. 현장감리는 건축가의 책임이거나 의무 사항이 아님(DAC), 공사장의 공사업자요원에 의한 현장감리(AIA)

② inspection: 계약서의 요구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건축가가) 공사의 진행 또는 완성된 공사를 검사(감리)하는 과정(AIA)

③ superintendent: 현장에서 공사의 진행, 총괄, 원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공사업자를 대표한다.(AIA)

34) 준공도 as-built drawing, record drawing, 공사과정중의 중대한 수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공사용도면. 대개 계약자가 건축가에게 제작하는 자료와 노면, 레이터 등에 가문을 둔다.(DAC/AIA)

〈자료 4〉 공사계약과 관련된 도서



### 부 상세도, 표준도

#### — 공통사항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지만 건물의 대규모화, 복잡화하는 경향이 커지는 최근의 상황과, 기술자의 부족에 따라 도면작성의 효율화, 도면관리의 능률향상면에서 설계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테마이다.

### 7.3 설계의 관리와 정보자료 처리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설비가 기술면에서 전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 함에 따라 설계도의 품질관리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규모 설계조직에서는 별도로 전문적인 조직을 두어 품질관리를 실시하긴 하지만, 일

〈자료 5〉 AIA의 업무분류

#### □ 기획 Predesign

##### ① 기획업무(Predesign Services)

프로그램, 공간계획도, 시장조사, 경제성, 스터디, 재정 및 예산계획,

공정계획 등

##### ② 대지분석 업무(Site Analysis Service)

대지분석, 토지이용계획, 현장기반시설조사, 환경계획 등

#### □ 설계 Design

##### ③ 구상(Schematic Design Services)

건축·구조·설비·토목·조경·실내디자인 설계, 일정계획 사용재료 계획, 공사비예산 등

##### ④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 Services)

건축·구조·설비·토목·조경·실내디자인 설계, 일정계획 사용재료 계획, 공사비예산 등

##### ⑤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s Services)

건축·구조·설비·토목·조경·실내디자인 설계, 일정계획 사용재료 계획, 공사비예산, 공사입찰 도서 및 일정계획 등

#### □ 공사 Construction

##### ⑥ 공사입찰 및 낙찰업무(Bidding or Negotiating Services)

입찰도서, 입찰요령, 상담(negotiation), 대안분석, 입찰가 분석평가(bid evaluation), 공사계약체결 등

##### ⑦ 공사계약 관리(Construction Contract Administration Services)

공사관리, 공사현장조사(observation)보고, 감리조정(inspection coordination), 견적서청구/설계변경(change orders)공정관리 모니터, 공사비 정산 등

#### □ 공사후 post

##### ⑧ 공사완료후 서비스(Post Construction Services)

유지관리·운영프로그램, 개관협조, 준공도, 하자보증검토 등

#### □ 추가업무 Supplem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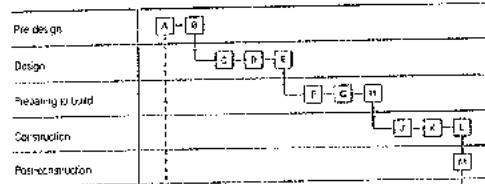
##### ⑨ 추가업무 Supplemental

특별검토, 랜더링, 모형제작,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분석, 상세공사비 견적, 물량계산, 에너지검토, 임대관련 업무, 그라피디자인 예술장식품 등, 임대브로슈어, 컴퓨터활동, 재료/시스템검사, 목업(mock-up), 영상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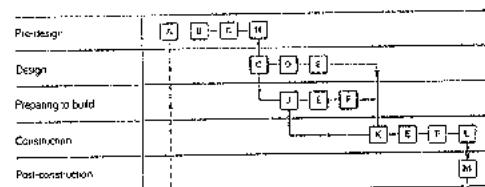
\*건축가 기본업무(AIA's Standard Owner-Architect Agreement=AIA B141)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추가업무

〈자료 6〉 공사별주방법에 따른 RIBA의 단계별 업무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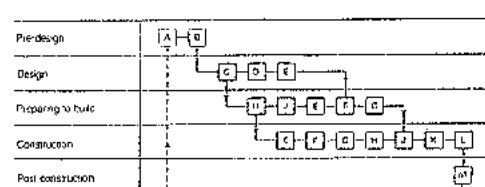
#### ① 전통적 인 발주방법



#### ② 설계 시공(design-build)·임찰별주방법



#### ③ 관리발주 (management procurement)



A=입찰개시, B=타당성, C=제작지연, D=구상연, E=설계설계, F=공사도서, G=제료수령처(BOC)  
H=시공자선정, J=공사착공준비, K=착공, L=준공점검, M=공사수령권리의 분석, S=공사결과

반적으로 각종 설계내용을 재 검토(cross check)하고, 도면, 표현 방법이나 설계정보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여 수정함으로서 퍼드백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변경, 수정시 도면의 정확한 발행과 관리 등과 같은 설계정보의 관리(기업비밀과 관련하여)도 설계자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설계에 이용되는 정보(인쇄물, 보고서, 카다로그 등)의 수집, 보관, 편집, 축적 등은 최근의 급격한 정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검색기능을 위하여 설계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정보활동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 7.4 새로운 건축생산정보 시스템

### 가. 건축생산정보의 종합

사회는 컴퓨터에 의한 전산화정보시대로 바뀌고 있다. 건축생산도 단독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다. 영국 RIBA도 1990년 들어 3분지 2정도의 사무실에서 문서작성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무소의 문서작성, 사무관리, 설계제도에 컴퓨터 혁명이 일어날 것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기능은, 문서작성용 워드프로세서, 도표를 계산하여 그리는 스프레드쉬트, 정보를 저장·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 CAD(computer-aided design)과 CG(computer graphics), 모뎀(communication modem), 빌딩자동화 프로그램인데 특히 건축설계 사무실에서는 일반사무의 업무관리, 디자인과 제도, 구조, 환경요수의 분석, 개인 프로젝트관리에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완성후의 건물시설관리 FM(Facility Management)를 위하여 건축주가 CAD로 제작한 설계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건축허가 신청업무가 건축행정을 압박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프로페디스크로 신청하고 컴퓨터로 심의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CAD화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전산화로 추진 했을 경우의 문제점도 크다. 설계실무측의 CAD사용의 목적은 도면작성의 효율화와 설계사고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기위한 수단(tool)으로서의 역할이다. 반면에 정보를 받는 입장인 공사업자측의 CAD화의 목적은 시공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쉽게 시공정보로 교환, 활용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CAD수단에 대한 요구성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CAD의 소프트웨어가 양쪽의 요구

에 충분히 대응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

### 나. 업무관리

관리	프로젝트예측, 인적관리, 경비, 타임쉬트분석
통신	일정, 전자메일, 사무소내에서의 통신
재무관리	재무상태/보고서, 예산, 지급 계획 및 예측, 봉급관리, 부기장부
표현	리포트, 기술자료(표준시방서)의 문서작성, 도표나 그림이 포함 된 보고서, 브로슈어,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전자 출판(DTP)
정보전략 검색	표준양식, 사무소 dbase(업무목록/업무기록/고객 및 시공자 명단, 보고서목차, 도서목록), 온라인 dbase(고용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연결)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가능하다.

### 다. 설계업무

CAD시스템으로 설계도를 제작하는 일에 익숙하기는 쉽지 않지만, CAD작업은 쉽게 축척을 바꾸고 대안제작과 수정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설계계산 연동프로그램을 쓰면 설계변경에 따라 면적, 수량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다.

계산	구조, 환경계산
제도	그래픽, 2D작도
종합디자인 시스템	3D모델링+데이터베이스의 통합체로 다른 프로젝트 도큐먼트 연동된 계산, 스케줄
모델링	3D작도, 와이어라인 모델 서페이스 모델 솔리드 모델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조직 및 관리, 직원배치, 시공도계획, CPM(공정관리)
공사도서	시방서, CAD시스템과 연동성
정보관리	설계, 기술 정보의 처리, 환경분석 및 개선

라. 설계작업에서 CAD지원과 설계 시공과정에서 CAD정보의 이용 설계작업에는 기획설계의 초기단계에서의 건축가능 불량의 시뮬레이션으로 활동하거나 기획프리젠테이션 툴, 시뮬레이션 툴, 제도 툴로서 사용하는 반면에 공사업자 측에서는 설계도서의 데이터를 시공도 작성에 이용하고, 시공도데이터를 준공도 작성에 활용함으로써 설계도와 준공도 데이터를 건물 완성후의 시설관리를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마. CAD시대의 문제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계정보를 관리한다고 하여도 문제는 따른다. 이를테면 정보노출, 저작권의 문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문가의 필요성, 정보제작의 규칙(rule)과 교육, CAD 데이터 보존과 같은 여러 문제

점을 해결해야 하므로 전문직종간의 상호정보개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8. 도시·건축 정보센터 구축

현재의 건축관련 생산은 국가·기업·개인의 개별적 정보관리에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통합체계가 미흡하고 신기술, 신재료의 빠른 개발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인정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경쟁력, 국제적 문화리더쉽을 배양하는 기반환경을 조성하며, 정보화 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도시, 건축, 토목, 주택분야에 관련된 정보관리, 법령 기준연구, 민원분쟁에 대한 증명, 판정 등을 수행하는 「도시건축정보센터」 설립

-재료/공법시험연구소, 토목연구센터, 국토개발센터, 건축정보센터 등 전문적인 민간 연구기관을 병설하여 상호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

-정보국가 기관·민간기관의 정보관리부분과 연결 네트워크 구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신기술, 신재료의 인정, 평가, 심사업무, 주택·도시·토목·건축관련 정보의 수집 DB구축, 검색, 배포 서비스(정보전산화), 도시건축관련 법령의 정비, 수집, 재건축, 공사하자에 대한 검증, 판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3,40년전부터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건축정보센터를 갖추고, 국제건축센터연맹(UCIB)도 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자료7 참조).

## 9. 전문인력 및 교육체계의 확립

다가오는 시대에는 새로운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첨단 정보통신,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한 첨단 도시기간 시설의 구축, 토지의 고도이용,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복합·입체 프로젝트 설계, 무인화, 고도의 CAD설계 활용 등 창조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시스템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계획과 건축부분, 또한 디자인 부문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진취적이고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사회문화 의식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치밀하고 세밀한 설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 〈자료 7〉 외국의 건축사례

#### ▣ 국제건축연구정보회(CIB)

Conseil International du Batiment pour la Recherche l'Etude et la Documentation  
회원국가-64국 296기관

#### 〈설립목적〉

건축의 연구, 조사, 응용 및 그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을 원조, 촉진

① 주택, 건축, 도시계획의 조사, 연구 및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원조하고 촉진하며 조정한다.

② 회원상호간의 문헌 및 정보교환을 원조하고 촉진하며 조정한다.

③ 회원상호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개발과 함께 연구자의 교환을 촉진한다.

④ 주택, 건축분야 관계의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UN기관과의 접촉을 갖고 협력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 ⑤ 기타

#### 〈회원〉

① 정회원-Public / industrial의 연구기관

② 준회원 기타 학회 기관

③ 개인회원

#### 3년마다 종회 개최

이사회사무국 뮁데르담 Bauzentrum

기판지 'Building Research Practice' 정보뉴스 'CIB Info'

#### ▣ 국제건축센터연맹(UCIB)(1958-)

Union Internationale des Centres du Batiment

세계주요건축센터로 구성된 국제기구

영구 The Building Center에 위치

24개국38개의 건축센터로 구성

#### 〈자격〉

① 비영리 민간조직

#### ② 활동

상설전시장, 건재 information 수집활동능력

건축기술에 관한 회의개최등

#### ▣ 일본건축센터(1965 재단법인설립)

평정 사업(건축에 관련된 신기술, 신재료등의 평정)

건축기준법의 인정에 관련된 사전 평정식 심사기관(평정위원회, 관련전문 위원회)

(평정, 인정, 평가, 심사 증명)

① 건축물 및 건축물 부분의 구조내력

② 건축재료 및 건축물 결조의 내구성

③ 건축물 구조계산 프로그램

④ 건축설비

⑤ 내화재료 등

⑥ 건축방재계획, 방재기구

⑦ 공업화 주택의 성능인정사업

⑧ 고구려 주택의 평가

⑨ 건축물등의 보전기술, 기술심사 증명사업

기관지 「빌딩레터」, 「신건축기술정보 가이드」, 영어 및 중국어 해설책자 「건축기준법령집」

#### ▣ 영국 The Building Center(1931-)

전시 활동, 정보제공서비스, 기술정보제공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세미나, 출판, 서점 등 운영

#### ▣ 네덜란드 Bouwcentrum(1946-)

전시시설, 출판교육시설, 연구동, 사무소동, 도서실, 서점, 카페테리아 370의 직원, CIB의 사무국, 건축, 주택분야의 정보기능

나 인력개발이 가장 큰 요건이 되는 바, 도시·건축분야는 그 '기술복합체' 적 성격과 '환경문화' 적 성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문별 전문화와 전문부분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는데 그 요체가 있으며 교육체계는 이러한 요건에 합당하게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건축분야는 문화적 리더쉽이 고도로 요구되며 이는 국제적인 문화안목을 갖춘 전문인을 키워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 9.1 새로운 시대의 도시건축분야의 필요인력

현재로는 도시·건축 분야의 필요인력의 분야별 분석이 없을 뿐 아니라 확정된 수급계획이 없다. 저번에 위치한 기초기능 인력의 양성이 전무하고, 중간 하급기술인의 양성도 부실하다. 따라서 고급인력양성의 전문적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도시·건축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할 인력이 부족하므로 장차에 필요한 인력은 문화적 창의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다양한 분야에 망라되어야 하며 현재의 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구 분	전문인력	교육·양성시스템
고급 인력	건축과	대학/대학원
	건축기술인	
	도시계획과	
중간 기술인력	중급기술자	전문대학
기초기능인력	기능공	현재로는 없음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도시 건축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부문 계획가-개발프로젝트 기획/관리전문가-환경관리-교통기획전문가-공공적 교통기획전문가-성능평가 전문가-도시설계 전문가-분쟁조정 전문인-사회개발전문인-빌딩시스템 엔지니어-시공 전문엔지니어-프로젝트 매니저(PM)-성능평가/진단 전문인-건축가(전문성과 문화리더쉽)-도시문화개발 전문가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양성의 다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초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인력 양성제도와 실무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장제도(독일의 마이스터제도와 같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건축사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격시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 9.2 대학교육의 정비

다양한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거의 획일적이고 동일한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정규교육제도를 다변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

### 가. 진부한 교육체제의 혁신

식민지하에서 하급식민기술자를 키우기 위한 일본의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전근대적 교육환경아래 환경관련 세반분야, 즉 도시계획, 토목, 도시설계, 건축, 조경, 환경디자인분야의 교류가 취약하여 부문간 협력체계 역량배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건축분야 교육이 4년제 공과대학에 속하여 전반적으로 기술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교육체계가 되지 못하여, 국제적 문화 리더쉽이 있는 건축가 양성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교육내용 역시 변별성과 특성이 없어 대부분 동일한 것도 큰 문제이다.

### 나. 실질적인 산학협동

실무건축가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임명될 수 없어 이론중심강의로 현장에서의 적용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력의 낭비와 질높은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종 기사시험교육, 건축사시험, 기술사시험과 같이 교육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등의 자격시험때문에 정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험준비로 학원화 되어가고 있다.

### 다. 새로운 교육체계의 확립

-기존의 공과대학:건축공학과+토목건축(시스템 엔지니어링)교육의 통합

#### -독립적인 건축대학의 설립

도시계획, 교통, 건축, 정보통신, 조경, 산업디자인 분야를 총괄하여 각 부분의 기반 인력 배출

-건축대학원 설립:수준높은 전공교육을 통해 건축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

-교수의 실무참여를 개방하여 현장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며, 실무건축가의 교육 참여 제한도 철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건축관련 대학을 건설부에서 관할

## 구조면에서

도시의 주택건축은 더욱 고층화되고 대륙성기후로 인해 연중 6개월은 난방을 해야하지만 우리 고유의 온돌식 난방은 이에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문화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건축공법의 진보와 아울러 설비분야도 고도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정보와

통신의 발전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여서 주거생활의 패턴도 점차로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주택이 생활의 안식처였지만, 미구에는 주택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정도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그런중에도 우리의 주거생활의 기거방식은 아직도 좌식이 주가 되고 있으며, 온돌방이 주택의 기본구조로 되어 있고, 지난 50년간 연료조건은 장작, 연탄, 석유, 가스 등으로 변천하여 왔건만 그래도 우리 고유의 난방은 구조적 변동은 되었지만 온수식 온돌로 바뀌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옛 온돌은 단층가옥에서 땅(지면)상부에 축조된 것이어서 마루와 같은 구조가 안되고 현재의 고층주택에는 스ラ브와 밀착한 온돌층 구조인데 그 스라브가 하층에는 지붕이 되고 상층에는 바닥이 되어서 고층구조상

다른 방법이 없다하겠으나 건축공학상으로 볼 때 온돌층이 스라브와 밀착은 모순이 된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온돌층은 스라브에서 10cm~12cm높이로 되어서 그 중 상부 5cm정도는 온수파이프 퍼복층이고 그 밑부는 축열층 또는 단열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수년전까지 아파트 건축에서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지역중앙공급식 난방으로 보일러에서 하루에 수회만 온수가 공급되고 각 주택은 온돌의 축열층에 축열상태로 하여 온수의 공급이 없을 때 이 축열층에 난방을 의지하는 방식에 의한 온돌층구조이다.

또한 아파트 건축외의 기타 주택건축분야의 온돌구조도 이에 준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난방 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즉 신도시개발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로 난방공사를 통하여 수도권일대의 많은 지역에 상시로 온수공급을 받고 앞으로도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추세이며, 또한 기타지역에도 지금은 각 가정마다 보일러의 리모콘에서 온도가 자동조절되어, 석유나 가스가 보일러 외 연소가 자동조절됨으로 결국은 종래의 온돌구조의 축열층 역할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앞으로의 주택건축의 온돌층 구성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절대적 조건이 된다.

또한 현재의 주택건축에서 극히 일부면적(욕실기타)만 남기고 대부

# 미래지향적 주택건축의 온돌난방시공

The Korean Under Floor Heating System  
고층 주택건축의 효능적 건식온돌

池健相+朴成圭 / 건축사사무소 합성건축  
by Chi Keon-Sang & Park Seong-Kyu

현대건축은 모든 건축자재가 공산품 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추세인데 주택건축분야에서 온돌난방식은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여라가지 원인 때문이지만 현재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은 현재의 온돌시공법이 가장 능률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현재 바닥에 경량콘크리트는 펌프기계로 작업하면 끝나므로 더이상 능률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분의 면적을 온돌층 구조로 신다콘크리트로 하므로 위생과 수도용의 파이프도 함께 매설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주택의 수명은 약 50년으로 볼 때 앞으로의 문화발전은 지난 50년과는 비교가 안될 터인데 설비의 발달로 아마도 주택내에 많은 배관과 배선(예, 센서선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온돌층구조 때문에 주택의 대부분의 면적은 스라브와 밀착한 신다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전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공법이다.

여기에서 상기한 축열층문제도 고려하면 반드시 새로운 온돌구조가 요구되는데 종래의 온돌층 높이는 변동할 수가 없으므로 10cm~12cm높이에서 온수파이프와 페복두께를 6cm로 하고 그 밑부분은 공간을 목적하여 인장강도가 높은 고강도콘크리트제 건식온돌로 하기 위해 온수파이프가 통과하는 패널 구조의 온돌층이 되게한다. 현재의 위생과 수도용의 배관은 물론이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도의 설비를 할 때 수반되는 배관과 배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하는 패널식 건식 온돌이 가능할 때 즉, 이 패널식온돌(장판온돌은 제외하고 시트깔기 온돌)은 패널이 손쉽게 분해가 (파이프와 같이) 가능한 구조로 하나 언제든지 패널밑부분에서 배관과 배선이 가능한 조립식 온돌의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여기에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온돌로 패널속에 함께 복사체가 되게한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거생활에서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온돌 난방의 열교환방식은 다른 어떠한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여기에 이 기술개발을 종래식 난방과 비교하면,

첫째, 상층과 하층과의 큰음파(큰소리)가 차단된다.

둘째, 온수가 패널만 열 전도하므로 종래식보다

에너지 절약이 된다.

셋째, 종래식온돌의 중량의 5분의 1로 된다.

넷째, 종래식온돌보다 월등한 자원원절감이 된다.

다섯째, 상기한대로 미래지향적이다.

## 건식온돌의 생산과 시공

이 건식온돌의 기본소재는 고강도 콘크리트재로서 40cm각의 유니트패널을 연속부설하는 온돌을 구성하

는데 패널의 압축강도는  $300\text{kg/cm}^2$ 이고 인장강도는 지지간격 40cm에서 철근콘크리트 강도와 동일한다. 중량은 유니트패널 약 9kg이므로 한평당 ( $3.3\text{m}^2$ )은 약 200kg정도이다. 이 건식온돌의 현장시공은 먼저 직선재바를 40cm간격으로 스라브상부에 수평으로 조정하고 요소요소에 몰탈로 고정하게 한 후 그 상부에 패널을 부설하는데 직선재바는 스라브와 패널과 공간이 구성되는 치수로 하여 스라브와 고정케한다. 직선재상부에 패널의 연속부설로 흡통에는 프拉斯파이프를 두루마리상태에서 풀어 흡통속으로 넣어 주위를 모래로 충진하고 뚜껑을 덮는데 이와같이 된 패널의 틈새는 몰발붓으로 메꾼다. 또한 이 건식온돌은 온수파이프를 외부에 입구와 출구를 두어 소켓트로서 연결하고 주거도중 생활 수준향상으로 고도의 설비도입에 의하여 배관과 배선이 필요할 때 장판온돌방은 제외하고 시트온돌방에서 분해작업이 손쉽게 되므로 미래지향적인 온돌이다. 패널생산은 이동식 생산체제가 가능하고 이 건식온돌의 순 생산단가는 아래와 같다.

- 1) 고강도 콘크리트패널로만 하는 온열(패널생판 양생 현장시공까지  $3.3\text{m}^2 = \text{한평당 } 40,000\text{W}$ )
- 2) 고강도콘크리트 온돌에 원적외선복사체 사용시  
(상기와 동일한 조건  $3.3\text{m}^2 = \text{한평당 } 50,000\text{W}$ )

## 건식온돌공법의 반대 예상

현대건축은 모든 건축자재가 공산품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추세인데 주택건축분야에서 온돌난방식은 현재까지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가지 원인때문이지만 현재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은 현재의 온돌시공법이 가장 능률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은 현재 바닥에 경량콘크리트는 평포기계로 작업하면 끝나므로 더이상 능률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온돌층의 구조상 스라브와 밀착은 이 건식온돌공법과는 상반되므로 아파트 건축업체들은 한사코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 신축이 더욱 고층화되어 가고 있고 아마도 현재 콘크리트펌프의 능력도 20층이상은 어려울 것이니 목전에 이득만 생각하자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2-2. 關額

## 闢額

造闢額之制；廣加材一倍，厚減廣三分之二。長隨間廣，兩頭至柱心。入柱卯減厚之半。兩肩各以四瓣卷殺，每瓣長八分<sup>9</sup>。如不用補間鈎作，卽厚取廣之半。

凡檐額；兩頭并出柱口，其廣兩材一梨至三材，如殿閣卽廣三材一梨或加至三材三梨。檐額下綴幕力

廣減檐額三分之一；出柱長至補間相對作樁頭或三瓣頭，如角梁。

凡山額；施之於闢額之下。廣減闢額二分<sup>10</sup>至三分<sup>11</sup>。出卯、卷殺并同闢額法。如有副階，卽於峻脚椽下安之。如無副階，卽隨有加減令高下得中。若副階額下，即不須用。

凡屋內額；廣一材三分<sup>12</sup>至一材一梨，厚取廣三分之二。長隨間廣，兩頭至柱心或駕峯心。

凡地祇；廣加一材三分<sup>13</sup>至三分<sup>14</sup>，厚取廣三分之二，至角

出柱一材。上角或卷殺作梁切兒頭。

난액(闢額)<sup>2)</sup>

闢額<sup>3)</sup>을 만드는 제도；높이는材의 1倍를 더하고, 너비는 높이의 1/3을 줄인다<sup>4)</sup>。길이는 간설(칸의 너비)을 따르며, 양쪽 머리는 기둥의 중심까지 삽입하는데<sup>5)</sup>。그 삽입되는 장부(卯)는 너비의 half을 줄인다<sup>6)</sup>。양 측면(肩)<sup>7)</sup>은 4瓣卷殺하는데, 每瓣의 길이를 8分<sup>9</sup>으로 한다。杜問包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너비를 높이의 half로 한다<sup>8)</sup>。

- 1) 원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加'의 誤記로 판단되므로 '加'로 고쳐 적었다.
- 2) 本 <闢額>條에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수평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수평재를 그 사용위치에 따라 闢額, 檻額, 山額, 屋內額, 地祇으로 구분하고, 이를 부재의 사용위치와 단면 크기 및 세부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데 이들 수평재를 설명하는 본 항목의 제목을 '闢額'이라 하고 있어, 闢額이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수평재의 총칭인 듯한 느낌을 받기 쉽다. 그러나 아래에 규정된 내용을 볼 때 闢額은 이웃한 기둥의 상부를 연결해 주는 부재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闢額'이라는 새목을 사용한 것은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모든 수평재가 2:1 쓰인새나 난면형태 및 세부 형태가 서로 비슷하고, 이를 부재 중 가장 대표적인 부재가 闢額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수평재들의 총칭으로는 이하의 문맥이나 이들 부재의 명칭을 볼 때 '額'이라는 명칭이 적합할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頭의 위치에 대해서는 <도1> 및 <표1>을 참조.
- 3) '闢額'은 기둥 상부에서 기둥과 기둥사이를 횡으로 가로질러 사용하는 力形단면의 부재로 闢額의 상면은 기둥상부와 일치시킨다<도1>。闢額은 契構式구조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부재로 기둥의 상부를 서로 전속시켜 중으로써 창방향의 용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闢額은 중국건축에 있어서 건물의 조영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왜나하면 중국건축에 있어서 闢額은 普拍方(창방)과 더불어 그 단면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闢額과 普拍方의 시대에 따른 단면변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도1>條의 <도8> 및 <도9> 참조). <도2>는 闢額에 대한 「營造法式」의 각종 규정을 図示한 것이다。  
闢額은 清代건축의 '額枋', 우리나라의 '替枋'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아래 본 번역문에서는 文意에 차장이 없는 한 '闢額'을 '창방'으로 옮겨 적도록 한다. 다만 뒤의 '檻額'도 闢額의 일종으로 판단되나 闢額과의 구분을 위해 창방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檻額으로 적도록 한다.
- 4) 창방의 단면높이는 2材(30分<sup>15</sup>)로 하고, 너비는 높이의 2/3(20分<sup>16</sup>)로 한다는 것이다(<도2>)。이는 보, 桁 등 수평재의 단면을 높이:너비가 3:2가 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하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부재들의 단면도 대부분 이와같은 높이와 너비의 비례를 지닌다.
- 5) 이 규정에 따르면 창방은 점기둥에서도 기둥 밖으로 들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본 「營造法式」에서는 창방밸목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도2>)。이 규정과 관련하여 南禪寺 大殿, 佛光寺 大殿 등 唐代건축에는 창방밸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遵宋代 이후의 건축에서는 川西省 繼次縣 雨華宮(木 人中元年 1008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창방밸목이 있으며, 창방밸목의 유형 또한 遵宋代의 積疊형에서 이후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도1>條의 <도9> 참조). 따라서 본 「營造法式」이 北宋代인 1100년에 만들 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營造法式」의 규정은 실제적인 창방밸목의 출현 및 그 보편적 사용과는 거리가 있는 古式의 것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6) 즉 기둥에 삽입되는 장부의 폭을 창방 단면폭의 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포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폭은 10分<sup>17</sup>이 된다. 본 「營造法式」의 卷3) <大木作制度圖樣上>에는 각종 결구에 사용되는 결구의 모습이 図示되어 있다(<도3>).
- 7) 창방을 수평으로 보았을 때, 장부와 연결되는 창방 단부의 양 측면을 말한다(<도2>).
- 8) 杜問包가 있는 경우와 달리 杜問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창방의 너비를 높이는 것은 杜問에 상부의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계묘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단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첨액(檐額)<sup>9)</sup>; 양단 모두 柱口 밖으로 돌출시키며<sup>10)</sup>, 그 높이를 2材1梨 내지 3材로 한다<sup>11)</sup>. 殿閣의 경우에서 높이를 3材1梨(51分°)로 하거나, 3材3梨(63分°)까지로 하기도 한다. 檻額 아래에 사용하는 작막방(綽幕方)<sup>12)</sup>은 檻額[높이]의 1/3을 줄인 높이로 하고<sup>13)</sup>, 기둥에서

돌출한 길이는 補間까지로 하며<sup>14)</sup>, [綽幕方끼리] 서로 마주 보도록 하여 [그 단부를] 檻頭<sup>15)</sup> 혹은 3瓣頭<sup>16)</sup>로 만든다<sup>17)</sup>. 角梁<sup>18)</sup>도 [이와] 같다.

유액(由額)<sup>19)</sup>; 창방 아래에 설치한다. 높이는 창방보다 2~3分°을 줄인다. 장부를 내는 방법이나 卷殺하는

9) '檐額'은 일단 關額, 즉 창방의 특수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문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檻額의 정확한 사용위치나 關額과 차이점을 알 수 없다. 다만 원문의 규정에서 檻額이 지니는 關額과의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① 단면의 크기가 關額에 비해 월등히 크다.

② 關額은 양단부에 장부를 만들어 기둥중심까지 삽입시키는 것에 반해 檻額은 양단부를 기둥 밖으로 돌출시킨다.

③ 檻額 아래에는 關額의 경우와는 달리 綽幕方이라는 보조적인 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關額은 그 길이를 1柱間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檻額은 그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梁思成은 檻額에 대해 河南省 濟源縣 濟瀆廟의 宋代 건축인 臨水亭에 사용된 창방은 길이가 3간에 이르고 양단부가 기둥 밖으로 돌출하였으며, 이 창방 아래에 단면 높이가 창방의 2/3에 이르고 단부를 檻頭로 처리한 綽幕方が 사용되고 있다. 이로 보아 臨水亭에서 보이는 창방이 檻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營造法式註釋卷上』, p.153). 또한 徐伯安과 郭黛姮도 檻額에 대해 "檻額은 건축물 외檐面의 폭 전체를 판통하거나 길이 방향으로 놓인 큰 關額이다."라고 하여 梁思成의 견해를 따르면서 같은 설례를 들고 있다(徐伯安, 郭黛姮, 『宋『營造法式』通譜匯釋』, p.76).

이와 같은 梁思成의 추정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檻額'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檻'은 처마를 말하는 것으로 宋代『營造法式』의 건축용어로 과학할 때 外陳柱을 '檻柱'라 부르는 것처럼 '檻X'은 건물 몸체의 外陳柱에 사용되는 부재를 지칭할 때 붙이는 접두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檻額'은 '外陳柱(檻柱)'에 사용하는 '額'이라는 의미로 과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營造法式』에서 규정하고 있는 檻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檻額은 창방의 일종으로 外陳(平)柱의 상부에 사용되며, 건물의 전후 또는 측면 전체길이에 걸쳐 사용하는 하나의 긴 부재이다. 또한 檻額의 양단은 關額과는 달리 벌목을 만들어 기둥 밖으로 돌출시키고, 그 아래에는 綽幕方을 보충하여 사용한다."

이상과 같이 과학할 때 '檻額'은 關額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창방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본 번역문에서는 關額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문대로 檻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0) 창방이 그 머리를 기둥 밖으로 돌출시키지 않는 것에 반하여 檻額은 기둥 밖으로 그 머리를 돌출시킨다는 규정이다.

11) 즉 36分°~45分°으로 한다는 것이다. 뒤에 關額에 대한 檻額의 단면 높이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이 치수는 關額인 경우의 단면 높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綽幕方'은 기둥에 끼워 사용하는 방형단면으로 된 보조적인 부재로 檻額 아래에 위치하며, 關額 아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sup>14)</sup>. 清代 건축의 '小額枋'과 비슷하며,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13) 즉 檻額 단면높이의 2/3로 한다는 것이다.

14) 이 규정은 綽幕方의 단부가 기둥에서 돌출하는 길이에 대한 것이나, '補間'이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綽幕方 단부가 기둥으로부터 돌출한 길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5) '檻頭'에 대해서는 1-2. <棋>條의 註21) 및 <노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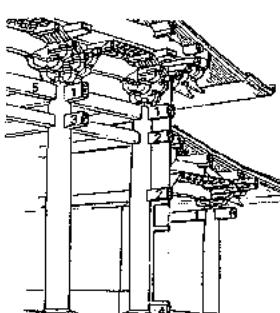
16) '3瓣頭'는 단부를 3瓣형식, 즉 세단으로 꺾인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7) 이와 같은 綽幕方의 단부처리에 대해서는 本 『營造法式』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上>에 図示되어 있다<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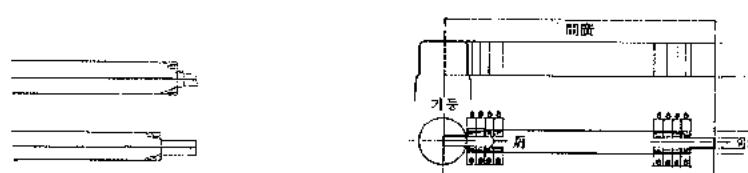
18) 角梁도 단부를 檻頭 또는 3瓣頭로 한다는 규정으로, '角梁'은 우리나라 건축의 '추녀'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2-4. <陽馬>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9) '山額'은 檻柱의 창방 아래에 창방과 평행하게 사용하는 방형단면의 수평재이다. 山額은 상부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고 인접한 기둥을 결속시켜 주는 역할만을 하므로 단면의 크기를 창방보다 작게 한다. 内陣柱가 있는 경우에 이 内陣柱에도 창방 아래에 수평재를 두르고 있는데, 이는 由額이 아닌 '屋內額'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구분하여 부른다<노1>.

由額은 일단 우리나라 건축의 상인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由額이 반드시 기둥 상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둥 중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단으로 중첩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由額은 우리나라 건축의 상인방과 중인방을 아우르는 인방재의 총칭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인방은 제외). 따라서 본 번역문에서는 由額을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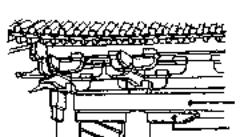
〈도1〉 각종 額의 위치



가. 『營造法式』 卷第30의 關額

나. 關額의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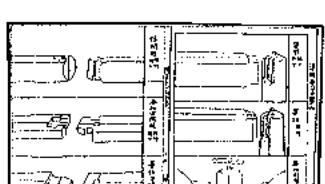
〈도2〉 關額



〈도4〉 河南省 濟源縣 濟瀆廟 臨水亭의 檻額과  
綽幕方(출처: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156)



〈도5〉 綽幕方의 단부처리(『營造法式』 卷第30의 도)



〈도3〉 各種 卯口(『營造法式』 卷第30)

것은 창방의 경우와 동일하다. 副階<sup>20)</sup>가 있는 경우에는 峻脚椽 아래에 설치한다<sup>21)</sup>. 副階가 없는 경우에는 적당히 加減하여 적당한 높이로 설치하도록 한다. 副階의 頸<sup>22)</sup> 아래에는 [由額을] 사용하지 않는다<sup>23)</sup>.

옥내액(屋內額)<sup>24)</sup>; 높이를 1材3分<sup>°</sup>에서 1材1梨까지로 한다<sup>25)</sup>. 너비는 높이의 1/3로 하며<sup>26)</sup>, 길이는 칸의 폭을 따르고, 양단부는 柱心 혹은 駝峯의 중심에 이른다.

지복(地袱)<sup>27)</sup>; 높이는 1材2分<sup>°</sup>~1材3分<sup>°</sup>으로 하고, 너비는 높이의 2/3로 한다<sup>28)</sup>. [건물] 모서리에서는 기둥 밖으로 [地袱을] 1材 만큼 빼낸다. - [이 地袱머리의] 위쪽 모서리는 경우에 따라 卷殺하여 梁의 切几頭<sup>29)</sup>처럼 만든다.

이상 본 <闕額>條에 규정된 각종 頸의 종류와 단면 크기 및 특징 등을 정리하여 <표1>에 나타내었다.

20) 1-1. <株>條의 計10) 및 <그림2> 참조.

21) 이 때 由額은 峻脚椽을 받아주는 역할도 겸한다. 峻脚椽에 대해서는 2-1. <梁>條의 計86) 참조.

22) 副階의 기둥머리에 사용하는 창방을 말하는 것을 이 또한 闕額이라 할 수 있다<도1>.

23) 이는 副階에 사용되는 기둥의 높이가 건물 몸체(본체)의 기둥높이 보다 낮기 때문이다. 즉 기둥높이가 창방 아래에 별도로 由額을 설치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여, 창방 아래에 由額을 설치하는 경우 개구부를 떨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副階의 창방 아래에는 山額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24) '屋內額'은 ①건물 내부의 기둥, 즉 內陣柱(內陣柱)은 그 높이를 外陳柱(平柱)보다 높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1.<梁>條의 計25)와 <도1,II> 참조) 상부의 창방 아래에서 기둥을 결속시켜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도1>, ②이웃한 駝峯을 서로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수평재이다. 前자의 경우는 기둥과 형태상 山額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後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건축의 '뜬창방(또는 뜬장례)'과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다.

25) 즉 屋內額은 단면높이를 18分<sup>°</sup>~21分<sup>°</sup>으로 한다는 것이다.

26) 屋內額의 단면 너비는 屋內額 단면 높이의 1/3, 즉 6分<sup>°</sup>~7分<sup>°</sup>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문이 있다. 다른 수평재, 즉 闕額, 檻額, 由額, 地袱 등은 단면이 「높이:너비=3:2」의 비율 이루어도록 하는데 반하여 이 屋內額 반쯤은 그 비율 3:1로 하여 단면의 너비를 높게 하고 있다. 물론 闕額에 있어서도 柱間筋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면비를 2:1로 하여 너비를 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3:2가 기본적인 단면비라 할 수 있다. 또한 屋內額의 기둥이 由額과 비슷함을 고려할 때, 山額의 단면비는 3:2이므로 由額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屋內額을 별도로 3:1이라는 단면비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屋內額의 경우도 단면비가 3:2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혹시 기록시의 誤記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일단은 원문의 의미대로 단면비를 3:1로 생각하도록 한다.

27) '地袱'은 기둥 밑등에 수평으로 결구되는 부재로 이웃한 기둥의 밑등을 서로 결속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도1>. 우리나라 건축의 '하인방(下引枋)'과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 본 번역문에서는 '地袱'을 '하인방'으로 옮겨 적도록 한다.

또한 地袱은 목조 외에 石造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地袱은 목조에서와는 달리 기둥 등 상부의 하중을 받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성문 출입구에 사용하는 石地袱이나 기단간에 사용하는 石地袱은 기둥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의 하중을 받는 작용을 한다.

28) 地袱의 단면 높이를 17分<sup>°</sup>~18分<sup>°</sup>으로 하고, 그 너비를 약 12分<sup>°</sup>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29) 2-1. <梁>條의 計63) 참조.

30) 원문에는 '間'으로 되어 있으나 '間'은 '闕'의 誤記임이 분명하므로 여기에서는 '闕'으로 교정하여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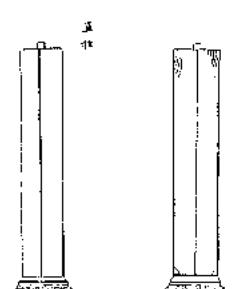
## 2-3. 柱

柱 其名有二：一曰 檻 二曰 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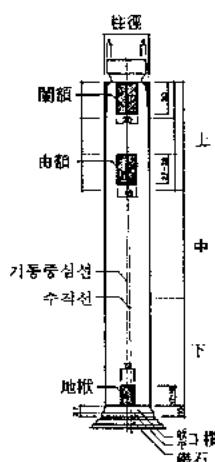
凡用柱之制；若殿閣<sup>30)</sup> 即徑兩材兩梨至三材，若廳堂 柱 即徑兩材一梨，餘屋 即徑一材一梨至兩材。若廳堂等屋內柱 皆隨舉勢 定其短長，以下檐柱爲則。若副階廊舍下檐柱雖長不越間之廣，至角 則隨間數 生起角柱。若十三間殿堂 則角柱比平柱生高一尺二寸，平柱 謂當心間兩柱也。自平柱 慲進向角漸次生起，令勢圓和，如逐間大小不同 則隨宜加減。他皆倣此。十一間生高一尺，九間 生高八寸，七間 生高六寸，五間 生高四寸，三間 生高二寸。

凡殺梭柱之法；隨柱之長 分爲二分，上一分 又分爲三分，如棋卷殺 漸收至上 徑比櫺科底四周 各出四分<sup>°</sup>。又量 柱頭四分<sup>°</sup>。緊殺如覆盆樣，令柱頭 與櫺科底相副。其柱身下一分 殺令徑圍與中一分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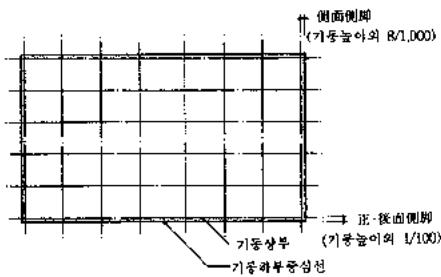
凡造柱下檻；徑周各出柱三分<sup>°</sup>，厚十分<sup>°</sup>。下三分爲平，其上并爲欹。上徑四周 各殺三分<sup>°</sup> 令與柱身通上勻平。



(도6) 直株와 棱柱(『營造法式』卷第30)



(도7) 棱柱을 만드는 방법



(도8) 側脚

〈표 1〉 각종 頸에 대한 규정

부재명	사용위치	단면(단위:分°)		길이	단부의 처리	비고
		높이(H)	너비(D)			
闌額	기둥의 상부	30	H의 2/3 = 20	1柱間	·장부를 내서 기둥중 심까지 삽입 ·장부의 너비 = D의 1/2(10分°) ·兩肩은 4瓣卷殺(매瓣 길이=8分°)	柱間包가 없는 경우 는 너비를 높이의 반(15分°)으로 한다.
檐額	外陳(平)柱의 상부	廳堂 殿閣 51 또는 63	36~45 24~40		·柱口밖으로 돌출시킨 다. ·단부 : 4瓣卷殺(매 瓣의 길이는 8分°)	·아래에 線幕方을 사용
山額	·闌額 아래 ·副階가 있는 경우 : 岫脚椽 아래 ·副階가 없는 경우 : 적당한 높이	闌額높이-(2~3) = 27~28	약 18	1柱間	闌額과 동일	·副階의 頸 아래에 는 사용하지 않음. ·檐柱에만 사용
屋內額	·內陣柱의 창방 아래 ·駕峯사이	18~21	H의 1/3 = 6~7	1柱間	柱心 또는 駕峯의 중 심까지 삽입	
地栱	기둥 하부	17~18	H의 2/3 = 약 12		·기둥 밖으로 1材(15 分°)를 돌출시킴. ·상부는 보의 切几頭 형식으로 卷殺	
線幕方	檐額 아래	檐額높이의 2/3 = 24~30	16~20		·기둥 밖으로 돌출 ·단부 : 楣頭 또는 3 瓣頭	

凡立柱；并令柱首微收向內 柱脚微出向外，謂之側脚。  
每屋正面 謂柱首東西相向者 隨柱之長 每一尺 卽側脚一分，  
若側面 謂柱首南北相向者 每長一尺 卽側腳八厘。至角柱 其  
柱首相向 各依本法 則此加減。

凡下側腳墨 於柱 十字墨心裏 再下直墨，然後載柱脚柱  
首 各令平正。

若樓閣柱側腳 抵以柱以<sup>31)</sup>上為則 側腳上更加側腳，逐  
層倣比 塔同。

주(柱) ; 기둥의 명칭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첫째 영

(楹), 둘째 주(柱)이다.

기둥(柱)을 만드는 제도<sup>32)</sup> ; 殿閣인 경우에는 기둥의  
직경을 2材2架 내지 3材로 한다. 廳堂인 경우에는 직경  
을 2材1架로 하며, 나머지 건물에서는 직경을 1材1架  
내지 2材로 한다. 廳堂 등의 실내에 사용되는 기둥은 모  
두 擧勢<sup>33)</sup>에 맞추어 그 길이를 정하는데, 이는 모두 檐  
柱<sup>34)</sup>를 기준으로 삼는다. 副階廊舍<sup>35)</sup>에 사용되는 檐柱  
는 길이가 間의 너비를 넘지 못한다. 건물의 모서리에  
이르기까지 間數에 따라 角柱<sup>36)</sup>를 生起<sup>37)</sup>한다.

31) '以'가 빠져야 의미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여기에서는 기둥의 직경을 殿閣, 廳堂, 기타 건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둥의 높이(길이)에 대해서는 "副階廊舍의 경우에는 檐  
柱의 길이를 間의 너비보다 넓게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殿閣, 廳堂의 기둥높이는 檐柱을 기준으  
로 지붕의 물매에 따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둥의 높이는 건물마다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營造法式』에  
규정된 기둥의 크기를 〈표.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 〈표.2〉 기둥의 크기에 대한 규정

건물유형	기둥직경	기둥높이
殿堂	2材2架~3材 (42~45分°)	· 檐柱를 기준
廳堂	2材1架(36分°)	· 실내기둥은 거세세 맞추어 조절
기타	1材1架~2材 (21~30分°)	· 副階廊舍의 檐柱는 間廣이하

## 〈표.3〉 기둥의 生起높이

건물종류	13間	殿閣	11間	9間	7間	5間	3間
生起높이 (기둥 높이 - 平柱높이)		1尺2寸	1尺	8寸	6寸	4寸	2寸

33) '擧勢'는 우리말로는 '자봉풀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뒤의 〈擧折〉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4) '檐柱'은 문자 그대로는 건물의 처마를 받는 기둥을 가리킨다. 즉 건물 몸체의 外陳柱를 檐柱라고 하는 것이며, 副階가 있는 경우에는 副階의  
처마를 받는 최외곽 기둥도 檐柱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外陳柱'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5) 1-1. 材 條의 計9), 計12) 및 〈그림.2〉 참조.

36) '角柱'는 건물의 모서리에 위치한 기둥, 즉 우리나라 용어로 헛기둥(隅柱)에 해당한다. 이하 번역문에서는 角柱를 '헛기둥'으로 옮겨 적도록  
한다.

37) 한 종류의 부재높이를 점차 증가시키는 방법을 '生起'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둥에 있어서의 生起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기둥의 경우  
御間 양 옆의 기둥에서부터 시작하여 헛기둥으로 갈수록 점차 기둥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설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生起법은 긴 수평선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쳐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역으로 교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朱南哲,  
『韓國建築意匠』, p.56).

본 『營造法式』에서는 殿閣과 廳堂의 경우에 한정하여 칸 수에 따라 기둥의 生起하는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3〉에 나타내었다.

- 13間 殿堂<sup>38)</sup>인 경우 기둥은 平柱<sup>39)</sup>에 비하여 1尺<sup>2寸</sup>을 높게 한다. 平柱는 心間<sup>40)</sup> 양측에 있는 기둥을 말한다. 平柱에서부터 기둥 쪽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生起하도록 하는데, 그 모습이 부드럽게 한다. 간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生起한 높이를] 적당히 加減 한다. 다른 것도 모두 이에 따른다.

- 11間이면 生起하는 높이는 1尺이고,
- 9間이면 生起하는 높이는 8寸이고,
- 7間이면 生起하는 높이는 6寸이고,
- 5間이면 生起하는 높이는 4寸이고,
- 3間이면 生起하는 높이는 2寸이다.

사주(棟柱)<sup>41)</sup>를 깎는 방법 ; 기둥의 길이를 3等分한 윗부분을 다시 3等分하여 棋의 卷殺처럼 점차 가늘게 함으로써<sup>42)</sup>, 기둥 上面의 직경이 檻科 아래면 주위에

비해 4分<sup>3</sup>씩 돌출하게 한다. 또 기둥 상부의 돌출한 4分<sup>3</sup>을 등급에 따라 기둥머리가 주두의 아래면과 일치하도록 한다. [세등분한] 柱身의 아래 부분을 깎아내 그 직경이 가운데 부분<sup>43)</sup>과 같도록 한다.

기둥 아래의 질(樁)<sup>44)</sup> ; 직경을 기둥의 주변으로 3分<sup>3</sup>씩 돌출시킨다. 두께(厚)는 10分<sup>3</sup>으로 하는데, 이중 아래의 3分<sup>3</sup>을 '平'으로 삼고, 그 윗부분은 모두 '欹(굽)'로 삼는다. 윗부분의 직경은 주변을 3分<sup>3</sup>씩 깎아내어 柱身과 더불어 윗쪽으로 고르게 한다.

기둥 세우기(立柱) ; 기둥머리를 약간 안쪽으로 쓸리게 하고 柱脚을 약간 바깥쪽으로 쓸리게 하는데, 이를 측각(側脚)<sup>45)</sup>이라 한다. 건물마다 正面 - 기둥머리가 東西로 마주보도록 한 것<sup>46)</sup> - 은 기둥의 길이에 따라 다르며, 기둥길이 1尺마다 1푼(分)씩 안쪽으로 쓸리도

이 규정에 의하면 13간에 3간에 이르기까지 칸수 2칸마다 生起하는 높이가 2寸씩 줄어드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기둥의 生起法은 唐代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明清代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기둥에 있어서의 이러한 生起는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귀솟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生起'라 하는 경우는 귀솟음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본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38) 本『營造法式』에서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건물유형 중 殿閣과 廟堂을 합쳐 부른 명칭이다.

39) '平柱'은 건물의 각 면에서 중앙의 칸, 즉 間의 양 옆에 놓인 기둥으로 기둥에 生起를 두는 경우 높이가 가장 낮은 기둥이다. 이 平柱를 기준으로 하여 기둥으로 가면서 점차 기둥의 높이를 높이는 生起를 주게 된다.

40) '心間'은 건물 각 면의 중앙 칸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御間'에 해당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하 본 번역문에서는 '心間'을 '御間'이라 는 말로 옮겨 적도록 한다. 心間에 대하여 心間 양 옆의 칸을 '次間'이라 하고, 가장 바깥 쪽에 위치한 칸을 '梢間'이라 한다.

41) '棟柱'은 기둥의 상하부 또는 상부의 직경만을 가운데 부분의 직경보다 작게 하여 곡선을 이루도록 깎아낸 기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모양이 배틀의 북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불은 명칭이다. 棟柱에 대하여 기둥의 상·중·하 세 부분의 직경을 같은 편으로 처리한 기둥을 '直柱'라 한다<도6>. 棟柱의 기법은 우리나라 건축의 '배흘림기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棟柱의 수법은 宋代 이후 明·清代의 構式건축에 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다만 남쪽 지방의 소위 민간건축에서만 그 전통이 계승하여 사용되었다고 있다고 한다(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p.158).

<도7>은 棟柱에 대한 本『營造法式』의 각종 규정을 図示한 것인데, 다만 기둥 하부의 직경에 대해서는 文意에 혼선이 있으므로(註43) 참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내용은 생략하고 圖示하였다. <사진1>은 山西 五臺 佛光寺 文殊殿의 전면 外陳柱이며, <사진2>는 山西 大同 菩提 寺 敦藏殿의 전면 外陳柱이다.

42) 기둥 상부 1/3 되는 부분을 3등분 하여 卷殺, 즉 3瓣卷殺 한다는 것이다. <도7> 참조

43) 梁思成은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분(中一分)'은 기둥전체를 세등분한 것 중 가운데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기둥의 아래 부분이 가운데 부분과 함께 되어 棟柱가 되지 않을 뿐더러, 기둥의 아래 부분을 깎아낼(殺)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운데 부분(中一分)은 기둥 전체를 세등분한 윗부분을 다시 세등분한 것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柱身의 아래 부분을 깎아낸다"라고 하는 문장과 本書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上>의 그림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도6>.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기둥 상부의 직경을 가장 작게 하고 중·하부의 직경을 같은 형태의 기둥이다. 이와 같은 기둥을 우리나라에서는 배흘림기둥과 구분하여 '민흘림기둥'이라 부르고 있다(朱南哲, 『韓國建築意匠』, p.54). 梁思成의 해석대로라면 本『營造法式』에서는 당시에 민흘림기둥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徐伯安·郭熙은 棟柱을 "기둥의 상하 양단 또는 상단만 卷殺하여 배틀의 북 모양으로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일단 棟柱를 기본적으로는 기둥의 직경이 상·하·중의 순으로 커지는 기둥을 의미하며, 상부만을 축소한 우리의 민흘림기둥도 棟柱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本『營造法式』의 著者는 배흘림기둥과 민흘림기둥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혹은 혼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44) '欞'은 기둥 아래 초석위에 초석과 비슷하게 놓인 원형의 木版을 말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欞을 석재로 하는 경우도 있다. 欞은 그 나뭇결의 방향을 기둥의 나뭇결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 기둥이 썩는 것을 방지한다(徐伯安, 郭熙, 『전계서』, p.129). 또한 欞이 썩으면 기둥과 관계 없이 欞만을 교체하면 된다<도7>.

45) '側腳'은 기둥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둥의 하부보다 상부를 건물 안쪽으로 기울게 세우는 방법이다. 이는 우리나라 건축의 '안쏠림(오류법)' 기법과 같은 기법이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수직선이 있을 때, 상부가 바깥으로 벌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한다는 의장적 효과(朱南哲, 『韓國建築意匠』, p.55~56 참조.)와 더불어 구조적 안정성을 증가시켜 주는 2중의 효과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인쏠림을 두는 기준을 어디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 梁思成은 『營造法式』에서처럼 "기둥 상부는 안쪽으로, 기둥 하부는 바깥쪽으로 쓸리게 한다."는 규정대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기둥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둥 밑등이 바깥쪽으로 돌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전계서』, p.150). 이는 기둥 상부가 기준이 되어야 그 상부에 놓이게 되는 鋪作이나 架構가 규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梁思成의 이와 같은 추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徐伯安, 郭熙도 "실례중 많은 경우가 기둥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柱頭만이 약간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여 梁思成의 說을 보충해 주고 있다<도8>.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본 『營造法式』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기둥이 세워져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기둥을 세우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에서는 오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側腳의 기준이 기둥하부나 중앙이 아닌 상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 건축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점이다. 이와 같은 기준이 성립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 더의 초석으로부터 건물의 평면을 추정하는데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볼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6) 위에서 "측면을 기둥 머리가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볼 때, 건물의 정면을 남쪽으로 한다는 당시 중국인의 건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방위개념을 엿볼 수 있다.

록 하고, 측면 - 기둥머리가 南北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 - 은 기둥 길이 1尺마다 8厘씩 인쪽으로 쏠리도록 한다. 귓기둥 머리가 相向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방법에 의한다<sup>47)</sup>. 기둥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 加減한다. 기둥에 안쏠림 먹줄을 칠 때는, 기둥에 ト字로 먹줄을 치고 중심에서 다시 아래로 수직 먹줄을 친 뒤에 기둥밀등과 기둥머리를 截斷하여 이를 각각 平正한다<sup>48)</sup>. 만일 樓閣의 기둥에 측脚을 하는 경우에는 다만 [아래층] 기둥의 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측脚위에 다시 측脚을 더하는데, 총마다 이러한 방법을 따른다. 塔도 마찬가지이다<sup>49)</sup>.

## 2-4. 陽馬

陽馬 其名有五：一曰觚棱，二曰陽馬，三曰闕角，四曰角梁，五曰梁抹

造角梁之制：

大角梁；其廣二十八分°至加材一倍，厚十八分°至二十分°。頭下斜殺長三分之二，或於斜面上留二分°。外餘直卷為三瓣。  
子角梁；廣十八分°至二十分°，厚減大角梁三分°。頭殺四分°。上折深七分°。

隱角梁；上下廣十四分°至十六分°，厚同大角梁或減二

47) 이상 규정으로 볼 때, 기둥의 안쏠림은 정면을 1/100, 측면을 8/1,000로 하여 정면의 안쏠림을 측면보다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귓기둥은 정면과 측면이 만나는 부분으로 정면과 측면의 안쏠림에 맞추어 45° 방향으로 안쏠림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48) 안쏠림을 두기 위하여 기둥 상면과 하면을 안쏠림 경사에 맞추어 설단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즉 기둥 상면과 하면을 기둥 중심선과 수직이 되도록 하면 측脚를 이울 수 없으므로 기둥에 ト字로 먹줄을 치고 다시 여기에서 기둥에 직각으로 먹줄을 그은 후 이 수직먹줄에 맞추어 안쏠림을 주기 위한 각도에 맞추어 기둥 상면과 하면을 절단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49) 대웅전에서 안쏠림을 두는 경우에는 아래층 기둥의 상면을 중심으로 해서 상층 기둥의 안쏠림을 둔다는 것이다.

50) 원문에는 '堂船'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廳堂'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번역문의 원문에는 '廳堂'으로 고쳐 기입하였다.

51) 원문에는 '卦'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문맥상 '若'의 誤記가 확실하므로 본 번역문의 원문에서는 '若'으로 고쳐 적었다.

52) '角梁'은 팔작이나 우진각지붕으로 된 건물에 있어서 건물 모서리에 45°방향으로 경사시켜 걸어 사용하는 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부재로 '陽馬'라고도 한다. 角梁은 두개를 아래 위로 중첩시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의 큰 것을 '大角梁', 위의 작은 것을 '子角梁'이라 한다. 즉 角梁은 좁은 의미로는 우리나라 건축의 '추녀', 넓은 의미로는 추녀와 사래 등을 포함하여 추녀를 구성하는 45° 방향의 부재에 대한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본 흐에서는 '角梁'을 大角梁(추녀), 子角梁(사래), 隱角梁으로 구분하여 그 크기와 构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9-가>는 本 「營造法式」의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上>에 있는 角梁에 대한 도면이며, <도9-나>는 梁思成의 의해 작성된 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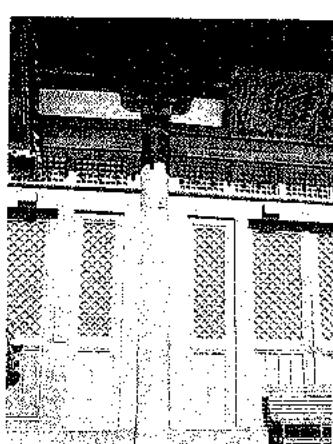
53) '大角梁'은 귓기둥 상부에 45° 방향으로 경사시켜 놓이는 부재로 귓기둥의 중심을 지점으로 하여 내외로 둘출하여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서까래 후미를 받고 내립마루를 형성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추녀'에 해당하는 부재이다<도9>.

54) 大角梁은 높이를 28分°~30分°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55)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지 않고,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角梁의 전체길이에 관계 없이 所梁의 하부를 외단부부터 전체길이의 2/3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경사시켜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로는 바로 뒤에 연결되는 문장(小註)과 관련시키는 데, 이 규정을 角梁의 단부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하여 角梁의 단부를 높이 2/3 되는 부분까지 경사시켜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뒤자의



山西 五臺 佛光寺 文殊殿의 전면 外陳柱



山西 大同 華嚴寺 薄伽教藏殿의 전면  
外陳柱

分° 上兩面 隱廣各三分° 深各一椽分. 隨隨逐架接續 隱法皆倣此

凡角梁之長；大角梁 自下平榑至下架檐頭. 子角梁 隨飛檐頭外至小連檐下 斜至柱心，安於大角梁內. 隱角梁 隨架之廣 自下平榑至子角梁尾，安於大角梁中 皆以斜長加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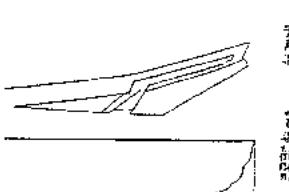
凡造四阿殿閣；若四椽·六椽五間 及八椽七間 或十椽九間以上 其角梁相續 直至脊榑，各以逐架斜長加之。如八椽五間至十椽七間 幷兩頭增出脊榑各三尺。隨所加脊榑處別施角梁一重。俗謂之吳殿 亦曰五脊殿。

凡廳堂<sup>50)</sup> 若<sup>51)</sup>廈兩頭造 則兩梢間 用角梁轉過兩椽。亭榭之類 轉一椽 令亦用此制為殿閣者 俗謂之曹殿 又曰漢殿 亦曰九脊殿。按周<sup>52)</sup>大典及<sup>53)</sup>營繕令云 世公以下居第并廳廈兩頭者 此制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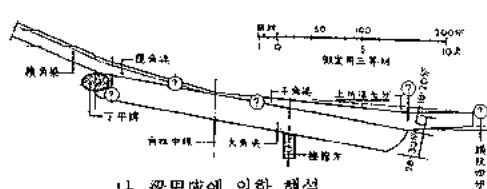
**양마(陽馬)** ; 陽馬의 명칭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 첫째 고릉(觚棱), 둘째 양마(陽馬), 세째 월각(闕角), 네째 각량(角梁), 다섯째 양말(梁抹)이다.

각량(角梁)<sup>52)</sup>을 만드는 제도 :

대각량(大角梁)<sup>53)</sup> ; 높이를 28分°내지 2材로 하며<sup>54)</sup>, 너비를 18分°~20分°으로 한다. 외단부의 아래부분은 길이의 2/3을 경사지게 짚아낸다<sup>55)</sup>. 경우에 따라서는



가. 『營造法式』 卷第30



나. 梁思成의 의한 해석  
(출처: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261)

(도9) 角梁

경사면 상부의 2分°을 남기고, 그 나머지 직선으로 된 부분은 卷殺하여 3瓣으로 하기도 한다<sup>56)</sup>.

자각량(子角梁)<sup>57)</sup> ; 높이를 18~20分°으로 하고, 너비는 大角梁의 [너비에서] 3分°을 줄인다<sup>58)</sup>. 외단부는 4

分°을 깎아내고<sup>59)</sup>, 상부의 겹인 부분<sup>60)</sup>은 깊이를 7分°으로 한다.

은각량(隱角梁)<sup>61)</sup> ; 上下의 높이를 14~16分°으로 하고, 너비는 大角梁과 같게 하거나 [大角梁의 너비보다]

해석은 梁思成의 도면에서 볼 수 있는 해석으로 本書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의 도면(<도.9-가>)과의 비교에 의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도.9-나>.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2-2. 間額條에서의 규정, 즉 “(綺幕方은 단부를) 檻頭 혹은 3瓣頭로 한다. 角梁도 이와 같다.”라는 규정 및 本書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의 도면에 실린 문장(“三瓣頭或只作檻頭” : 3瓣頭로 하거나 혹은 檻頭만을 만들기도 한다.)과 연관시켜 볼 때, 前者の 해석이 더 타당한 듯 하다. 즉 이 규정을 다음과 연결하여 볼 때, “角梁은 후미보다 외단부쪽의 단면을 작게 하며, 외단부를 瓣頭 형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부를 3瓣頭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斜削하기도 한다. 이 때 외단부의 단면을 줍히기 시작하는 부분은 角梁의 길이에 관계 없이 외단부로부터 2/3 되는 지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角梁 외단부의 단면을 줍힌 예로는 河北 正定縣 隆興寺 摩尼殿(宋代)의 상층처마에 사용된 角梁을 들 수 있다<도.10>. 그러나 角梁에 대한 本書의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6) 이는 角梁 단부의 세부적인 처리수법에 대한 규정으로, 角梁의 단부는 상부 2分°을 남기고 그 하부의 경사지게 깎아낸 직선부분을 卷殺하여 3瓣으로 만든다는 것이다<도.9>.

57) ‘子角梁’은 우진자지붕 및 팔작지붕에서 처마를 겹처마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재로 추녀 위에 놓이며, 부연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처마가 출처마인 경우에는 子角梁을 사용하지 않는다. 외단부는 부연의 단부와 가지런히 하며, 내부는 일반적으로 쿵기둥의 중심까지 오도록 한다<도.9>. 子角梁은 우리나라 건축의 ‘사래’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58) 즉 子角梁의 너비는 15~17分°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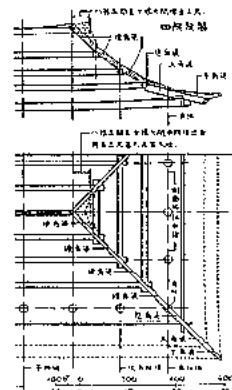
59) 子角梁너리, 즉 子角梁의 단부를 4分° 깎아낸다는 규정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營造法式』의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上>에 보이는 子角梁의 그림을 볼 때, 子角梁은 단부의 높이가 중간부분보다 높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梁思成의 해석과 같이 子角梁 단부의 아래부분을 중앙부분에 비해 4分°만큼 깎아낸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도.9-나>.

60) 子角梁 상면 중앙부의 겹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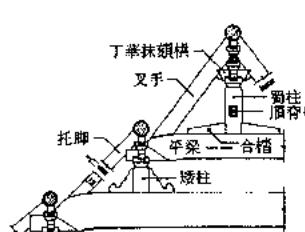
61) ‘隱角梁’은 大角梁, 子角梁과 더불어 角梁의 일종이다. 이를 세 부재 중에서 大角梁이 가장 아래에 놓이고 이 위에 子角梁이 놓이는데, 大角梁의 후미가 下平榑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반하여 子角梁의 후미는 쿵기둥 중심선까지 오도록 한다. 그리고 이 子角梁 뒷쪽에 연속해서 人角梁 위에 부재를 올려놓는데, 이 부재가 隱角梁이다<도.9-나>. 隱角梁은 서까래를 받고 내원마루를 형성해 주는 기능 외에도 角梁과 내부 가구재와의 결속을 강화해 주는 역할도 한다. 隱角梁이라는 명칭은 大角梁이나 子角梁과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내부에 가려져 있으므로 ‘숨어있다’라는 의미의 ‘隱’을 덧붙여 붙인 명칭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隱角梁 뒷쪽으로는 계속해서 隱角梁을 연结시켜 종도리까지 연속되도록 하는데, 이 연속된 隱角梁을 ‘연결한다’라는 의미의 ‘續’을 덧붙여 ‘續角梁’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隱角梁의 형태에 대해서는 本書 卷第30 <大木作制度圖樣上>에도 아무런 도면이 제작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본문의 규정 또한 불명확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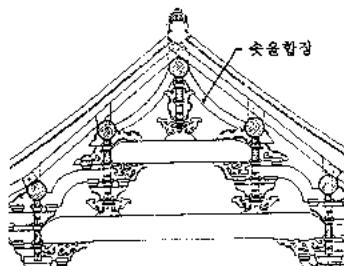
(도 10) 河北 正定縣 隆興寺 摩尼殿 상층처마의 角梁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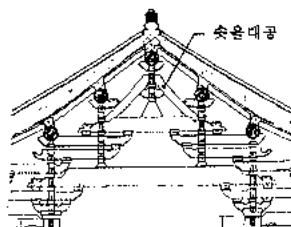
(도 11) 四阿殿閣의 내림마루 구성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 168)



(도 12) 蜀柱, 叉手, 托脚의 구성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 261)



(도 13) 修德寺 大雄殿의 栿架



(도 14) 浮石寺 無量壽殿의 栿架

2分°을 높이기도 한다<sup>62)</sup>. [隱角梁] 上面의 隱<sup>63)</sup>은 너비를 각각 3分°으로 하고, 깊이는 각각 1椽分으로 한다. 나머지는 架에 따라 接續하고, 隱法은 모두 이에 근거 한다<sup>64)</sup>.

角梁의 길이;

大角梁은 下平榑<sup>65)</sup>에서부터 아래의 檻頭<sup>66)</sup>까지이고, 子角梁은 飛檻<sup>67)</sup>을 따라서 외단부는 小連檻<sup>68)</sup> 아래에 이르도록 경사지게 설치하는데, [안쪽으로는] 柱心<sup>69)</sup>에 이르도록 한다. 大角梁 안에 설치한다<sup>70)</sup>.

隱角梁은 架의 너비<sup>71)</sup>에 따르며, 下平榑으로부터 子角梁 후미까지 이르도록 한다. 大角梁의 가운데(中)에 설치한다<sup>72)</sup>.

모두 斜長을 더한다<sup>73)</sup>.

사아전각(四阿殿閣)<sup>74)</sup>의 경우;

4椽, 6椽 5間 및 8椽 7間, 또는 10椽 9間 이상인 경우에, 角梁은 서로 연속시켜 종도리까지 이르도록 하고, 각각 架에 따라 대각선의 길이를 더한다.

8椽 5間에서 10椽 7間 까지의 경우에는 모두 종도리의 양단을 외부로 3尺씩 들출시킨다<sup>75)</sup>.

경우에 따라서는 종도리 끝에 별도로 角梁을 하나 더 설치한다.

四阿殿閣은 속칭 '오진(吳殿)', '오척전(五脊殿)'이라고 한다.

廳堂이 하랑두조(廈兩頭造)<sup>76)</sup>인 경우 雨梢間<sup>77)</sup>은 角梁을 사용하여 2椽에 걸친다<sup>78)</sup>.

亭榭類의 경우에 [角梁은] 1椽에 걸친다. 또한 이 制

62) 즉 隱角梁은 너비를 18~20分°으로 하거나 16~18分°으로 한다는 것이다.

63) 여기에서의 '隱'은 隱角梁의 양측면 상부를 깎아내어 단면을 '山'형으로 함으로써 서까래 후미를 양측에서 끼워 넣도록 한 부분이다. 「營造法式」에서는 이 부분을 너비는 3分°, 깊이는 1椽分, 즉 서까래나 부연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서까래와 부연의 단면 크기에 대해서는 뒤의 <椽>條에서 자세히 나루도록 한다.

64) 이는 隱角梁 후미에 연속해서 隱角梁을 연결시켜 놓는다는 것, 즉 앞의 計<sup>61)</sup>에서 언급한 소위 '續角梁'에 대한 규정이다. 繼角梁은 隱角梁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65) '下平榑'은 종도리선 아래의 도리에서 주심선상 안쪽에 위치한 도리 사이의 架構에 있어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도리를 의미한다.

66) '檻頭'는 처마 끝, 즉 서까래의 단부를 연결한線을 의미한다.

67) 飛檻은 염격하게는 우리나라 건축에서 겹치마 중 부연이 있는 부분의 처마만을 말하는 것이다.

68) '小連檻'은 飛子(부연=새끼서까래)의 외단부를 받아 겹치마의 곡선을 형성하기 위해 도리방향으로 길게 놓은 방형단면의 부재이다. 우리나라의 '부연평고대(이매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서까래의 외단을 받는 긴 방형단면의 부재, 즉 평고대(초매기)는 '人連檻'이라 한다. 小連檻의 제도에 대해서는 뒤의 <椽>條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69) 첫기둥의 중심을 말한다.

70) 子角梁은 당연히 大角梁 상부에 위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子角梁이 大角梁의 안에 위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71) 즉 도리와 도리 사이의 수평·직선거리를 의미한다.

72) 앞에서 "子角梁을 大角梁 안에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불명확하듯이 여기에서 "隱角梁을 大角梁 가운데(中)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73) 大角梁, 子角梁, 隱角梁은 45°방향의 부재이므로 종·횡으로 사용된 부재길이의  $\sqrt{2}$  는 1.41배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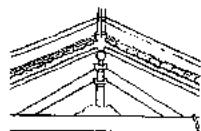
74) '四阿殿'에서 '阿'는 '언덕'이라는 의미로 四阿殿은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진각(지붕)이라고 부르는 지붕 형식이다. 당시에는 '吳殿', '五脊殿'이라고도 불렸는데, 五脊殿에서 '五脊'은 '지붕의 마루가 다섯 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清代에는 四阿殿을 '廈殿'이라 불렀는데, "廈"자는 일반적으로 本『營造法式』의 小註에 나타난 '吳殿'과 同音이라고 한다(梁思成, 『營造法式詳釋 卷上』, p.150). <도.11>은 四阿殿閣에서의 내림마루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75) 내림마루 상부와 용마루 단부가 만나는 위치를 원래의 위치(내림마루를 45°로 하여 그은 선과 용마루선이 만나는 점)에서 외부로 3椽을 들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清代건축에 있어서의 '推山' 기법과 비슷한 기법이다(梁思成, 『營造法式詳釋 卷上』, p.150)<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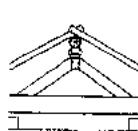
76) '廈兩頭造'는 '漢殿', '九脊殿', '曹殿'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합각지붕(팔자지붕)이라고 부르는 지붕형식이다. '九脊殿'에서 '九脊'은 지붕마루가 9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清代에는 '歇山頂'이라고 불렀다.

77) 건물에 있어서 한 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칸이다.

78) 廈兩頭造, 즉 팔자지붕의 경우에 추녀마루 상부가 합각마루 하부와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2椽架가 되므로 여기에서는 이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南禪寺 大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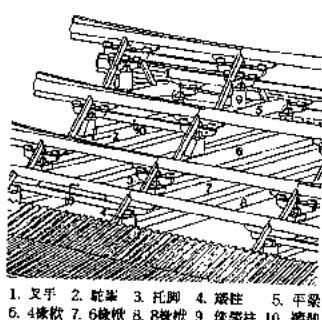


나. 佛光寺 大殿



다. 太原 双林寺

〈도15〉 叉手



1. 叉手 2. 肩栱 3. 托脚 4. 檻柱 5. 平梁  
6. 4椽欓 7. 6椽欓 8. 8椽欓 9. 律筋柱 10. 檻脚

〈도16〉 내부기구의 각종 부재명칭

度를 사용하여 殿閣을 만드는 것을 속칭 ‘曹殿’이라 한다. 또 ‘漢殿’, ‘九脊殿’이라고도 한다. 唐‘六典’과 ‘營繕令’에서 “王公이하 居第를 모두 廈兩頭로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制度인 것이다.

이상 본 『營造法式』에서 규정된 각종 角梁에 대한 규정을 <표4>에 정리하였다.

## 2-5. 侏儒柱

**侏儒柱** 其名有六：一曰 檻，二曰 侏儒柱，三曰 浮柱，四曰 檻，五曰 上檻，六曰 蜀柱。

**斜柱附** 其名有五：一曰 斜柱，二曰 檻，三曰 连，四曰 枝撐，五曰 叉手。

造蜀柱之制；於平梁上 長隨舉勢高下，殿閣 徑一材半，餘屋 量柱厚加減，兩面各順平檻 隨舉勢 斜安叉手。

造叉手之制；若殿閣 廣一材 梁，餘屋 廣隨材 或加二分°至三分°，厚取廣三分之一，蜀柱下安合槽者，長不過梁之半。

凡中下平檻縫 並於梁首 向裏 斜安托脚，其廣隨材 厚三分之一，從上梁角 過抱檻 出卯以托向上檻縫。

凡屋如徹上明造 卽於蜀柱之上 安科，若叉手上角內 安拱，兩面 出要頭者 謂之丁華抹頭拱 料上 安隨間檻間 或一材 或兩材，檻間 廣厚并如材，長隨間廣 出半拱在外 半拱連身對隱。

若兩材造 卽每間各用一材 隔間上下相閃 令慢拱在上 瓜子拱在下，若一材造 只用令拱 隔間一材，如屋內遍用檻間一材或兩材，并與梁頭相交，或於兩際 隨轉作檻頭 以乘替木，凡檻間如在平棟上者 謂之草檻間，并用全條方。

凡蜀柱量所用長短 於中心 安順脊串，廣厚 如材或加三分°至四分°，長隨間 隔間用之，若梁上用矮柱者 徑隨相對之柱，其長隨舉勢高下，凡順脊串 并出柱 作丁頭拱，其廣一足材，或不及 卽作檻頭，厚如材，在牽梁或乳柱下。

**주유주(侏儒柱)** ; 侏儒柱의 이름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첫째 절(棁)，둘째 주유주(侏儒柱)，세째 부주(浮柱)，네째 절(棁)，다섯째 상영(上檻)，여섯째 촉주(蜀柱)이다.

**사주(斜柱)附** ; 斜柱의 명칭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첫째 사주(斜柱)，둘째 오(梧)，세째 오(迂)，네째 지탱(枝樘)，다섯째 차수(叉手)이다.

촉주(蜀柱)<sup>79)</sup>를 만드는 제도；平梁위에 설치하며，길이는 舉勢의 높낮이를 따른다。殿閣인 경우 직경을 1材半으로 하고，기타 건물에서는 보의 너비에 맞추어 加減한다。[蜀柱의] 양측에는 각각 平檻<sup>80)</sup>과 평행하게 舉勢에 맞추어 경사지게 叉手를 설치한다。

차수(叉手)<sup>81)</sup>를 만드는 제도；殿閣인 경우에는 단면

<표4> 각종 角梁의 크기 규정

각梁	단면높이	단면너비	길이
大角梁	28~30分°	18~20分°	下平檻에서 下架의 檻頭까지
予角梁	18~20分°	15~17分°	角柱心에서 小椽檐까지
隱角梁	14~16分°	18~20分° 또는 16~18分°	架의 너리를 따른다。 下平檻에서 子角梁후미 또는 角柱의 중심까지

79) ‘蜀柱’는 넓은 의미로는 짧은 기둥, 즉 우리나라에서의 동자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항목에서는 宗樑위에 놓여 종도리를 받는 짧은 기둥, 즉 우리나라의 동자대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도1, 도.12>。

80) ‘平檻’은 平梁, 즉 우리나라에서의 宗樑(종보)에 해당하는 말이다.

81) ‘叉手’는 종량의 양단 상부에서 종도리 사이에 보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 종도리의 하중을 받아주는 방형단면의 부재이다<도1, 도.12>。

이叉手는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솟을(人字)대공’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叉手의 종도리의 결구 방식이다.叉手와 종도리의 결구방식은 첫째, 叉手가 직접 종도리와 결구되어 종도리의 양측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와 둘째, 叉手가 직접 종도리와 결구된 것이 아니라 종도리를 받쳐주는 부재와 결구되어 종도리의 하중을 받아주는 대공으로써의 구조적 기능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이와 같은 두가지 형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前者の 경우를 ‘솟을합장’(예:鳳停寺 楼樂殿 修德寺 大雄殿<도.13> 등)이라 하고 뒤者的 경우를 ‘솟을(人字)대공’(예:浮石寺 無量壽殿<도.14> 등)이라 하여 구분하여 부른다(솟을합장과솟을대공의 구분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朱南哲, 『전계서』, p.63~64 및 朱南哲, 『소술제의 연구』 <韓國學報> 제55집, p.260~290를 참조). 그런데 本『營造法式』 卷第31 <大木作制度圖樣下>에 의하면 叉手는 모두 종도리와 직접 결구된 것이 아니라 종도리를 받쳐주는 대공(기둥+주두+첨차+소로)의 형식)과 결구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本書 卷第31 <大木作制度圖樣下>의 ‘殿堂等八鋪作草架第十一’에서는 叉手로 생각되는 부재가 2重으로 되어 있고, 상부의 것이 종도리와 직접 결구되어 있어 인뜻 솟을합장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부정확한 면이 있고, 이외의 例樣에서는 叉手가 모두 솟을대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2-1. 梁條의 <도.10, 11> 참조). 따라서 本『營造法式』에서의 叉手는 모두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솟을합장’ 형식의 叉手는 표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唐代 이후 元代에 이르는 시기와 현존 목조건축 실례에 있어서는 山西省 五臺縣 南禪寺 大殿(唐)<도.15-가>, 山西省 五臺縣 佛光寺 大殿(唐)<도.15-나>, 山西 太原 普祠 聖母殿(宋)<도.15-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축물에 사용된 叉手가 솟을대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솟을합장형식의 叉手를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河北 正定 隆興寺 摩尼殿(宋)<도.15-라>, 山西 朔縣 崇福寺 廉陀殿(金)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예가 매우 적고, 시기적으로도 솟을대공형식의 叉手보다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叉手의 사용은 한국건축과 중국건축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앞으로 한국목조건축의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梁思成의 叉手에 대한 노면<도.12>에서 叉手의 상부가 종도리와 맞닿은 점도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건축에서 叉手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佛光寺 大殿의 경우에는 侏儒柱이 사용되지 않고 叉手만을 사용하여 종도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초기적인 叉手의 구조적 기능이 전해 내려온 古式的 구조수법을 지닌 드문 예라 볼 수 있다(梁思成, 『圖說中國建築史』, p.65)<도.15-나>. 이후로 叉手는 부재의 단면이 약화되고, 이에 반하여 侏儒柱의 구조적 기능, 즉 단면이 증가하는 경향으

의 높이를 1材1架로 하고, 기타 건물에서는 높이를 材와 같게 하거나 2分°내지 3分°을 더한다<sup>82)</sup>. 너비는 높이의 1/3로 한다. 蜀柱 아래에 합답(合榦)<sup>83)</sup>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길이는 보[길이]<sup>1</sup>의 半을 넘지 못한다. 中·下平構縫<sup>84)</sup>에는 보머리에 안쪽을 向하여 경사지게 탁각(托脚)<sup>85)</sup>을 설치하는데, 그 높이는 1材로 하며, 너비는 높이의 1/3로 한다. 상부에 위치한 보의 모서리까지 抱搏<sup>86)</sup>을 지나쳐 卯를 내어서 상부의 構縫쪽으로 기대도록 한다.

건물의 실내가 徹上明造인 경우에는 蜀柱위에 주두를 설치한다. 叉手의 상부 모서리 안쪽에 構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構의 양측을 쇠두로 한 것을 일컬어 ‘정화말해공(丁華抹額構)<sup>87)</sup>’이라 한다. 주두 위에는 매 칸마다 반간(欄間)<sup>88)</sup>을 설치하는데, 1材 혹은 2材로 한다. 檻間의 단면은 材와 같고, 길이는 間의 너비를 따른다. 바깥쪽으로는 半構을 놀출시키며<sup>89)</sup>, 檻間의 몸체쪽에는 隱構을 낸다<sup>90)</sup>. 兩材造<sup>91)</sup>인 경우 매 칸마다 하나씩의 부재를 설치하며, 한 칸 걸러 한 칸씩 上下를 서로 교대시키는데, 上段은 慢構으로 하고 下段은

瓜子構으로 한다. 一材造<sup>92)</sup>인 경우에는 슴構만을 사용하며, 한 칸 걸러 한 칸씩 교대로 하나씩의 부재를 설치한다. 室內에 사용한 檻間은 1材 혹은 兩材인 것에 관계 없이 모두 보머리와 교차하도록 한다. 兩際<sup>93)</sup>에서는 도리마다 檻頭를 만들어 替木<sup>94)</sup>을 얹는다. 平棟위에 위치한 檻間을 ‘草檻間<sup>95)</sup>’이라 하며, 모두 全條方<sup>96)</sup>을 사용한다.

사용된 蜀柱의 길이를 헤아려 그 중심에 順脊串(順脊串)<sup>97)</sup>을 둔다. 順脊串의 단면은 材와 같게 하거나 [材에] 3~4分°을 더하며, 길이는 칸의 너비로 하고, 한 칸 걸러 한 칸마다 하나씩 사용한다. 만약 보위에 矮柱<sup>98)</sup>를 사용하는 경우, 직경은 [이와] 相對하는 기둥과 같게 하며<sup>99)</sup>, 길이는 舉勢의 높낮이에 따른다. 모두 기둥 밖으로 돌출시켜 J頭構<sup>100)</sup>을 만든다. 높이는 1足材로 하는데, 혹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출된 머리를] 檻頭로 한다. 너비는 材와 같다. 견량(牽梁)<sup>101)</sup> 혹은 乳狀 아래에 위치한다<sup>102)</sup>.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시기(明, 清代로 판단된다.)에 이르러서는 侏儒柱가 叉手의 구조적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梁忠成, 「전계서」, p.72).

82) 즉 15分°으로 하거나 17~18分°으로 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83) 蜀柱의 아래 부분과 宗樑의 결속을 보강하여 횡이동을 방지하는 부재이다<도.12>.

84) ‘縫’에 대해서는 1-2 構 條의 주<sup>23)</sup>과 <도.5>를 참조.

85) ‘托脚’은 내부가구에 있어서 아래단의 보머리와 상단의 도리 사이에 경사지게 사용하는 방형단면의 부재로 도리를 부축하는 기능을 한다 <도.1, 도.12>. 기능이나 형태상 叉手와 거의 동일하지만 그 사용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

86) 보와 도리의 결구에 있어서 보 상면에 도리를 없고, 도리가 구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내는 ‘凹’형의 홈을 ‘抱搏口’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U’字를 생략하고 ‘抱搏’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87) 猫柱 상부의 주두위에 보방향으로 사용하는 첨자의 일종으로 난부를 쇠두형으로 한다. 내부가구가 외부에 노출되는 徹上明造의 경우에 장식적인 처리를 하여 사용한다<도.12>.

88) ‘欄間’은 도리 아래에서 도리를 받는 대공이나 동자기둥 상부의 주두 사이(일반적으로 蜀柱 또는 雕峯의 상부에 위치한다.)에 노리와 평행하게 높이는 방형단면의 부재로 이웃한 매 칸의 架構(梁架)를 결속시켜주는 보강재이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사용하는 ‘뜬장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도.16>.

89) 檻間의 몸체가 이와 결구되는 부재를 통봉하여 돌출되는 머리부분을 構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90) 즉 檻間의 몸체에 隱構을 세우나는 것이다<도.16>.

91) 檻間을 上下 2단으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매 칸마다 檻間을 상하로 교대시켜 사용한다<도.16>.

92) 蜀柱 위의 猫 상부에서 종도리 받침장혀까지의 사이에 檻間을 한 단만 사용한 것을 말한다.

93) 건물의 양 측면을 말한다.

94)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의 ‘뜬장혁’에 해당하는 용어로, 이에 대해서는 뒤의 <惟>條에서 다시 자세히 나누도록 한다.

95) 친장위에 위치한 檻間이라는 의미이다.

96) ‘全條方’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徹上明造에 사용되는 檻間은 장식적 가공을 하는데 반하여, 친장위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草檻間은 아무런 장식적 가공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장식적 가공을 하지 않은 檻間을 ‘全條方’으로 구분하여 부른 것으로 과학된다.

97) ‘順脊串’은 도리방향으로 사용되는 방형단면의 수평개로 이웃한 蜀柱나 矮柱를 도리방향으로 결속시켜 주는 보강재이다<도.12>. 檻間과 유사하지만, 檻間이 蜀柱 또는 矮柱 위에서 이 위의 構包材들과 결구되는 것에 반하여 順脊串은 蜀柱 또는 矮柱의 중간이나 상부에서 결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順脊串은 우리나라에서 ‘뜬창방’과 비슷한 유형의 부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8) ‘矮柱’는 문자 그대로 짧은 기둥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宗樑을 제외한 보 위에 도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기둥, 즉 우리나라에서의 ‘童子柱’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99) 矮柱의 직경을 그 矮柱과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한 건물의 기둥의 직경과 같게 한다는 것이다.

100) 1-2 構 條의 註<sup>28)</sup> 및 <도.2> 참조.

101) 寄柵이다.

102) 順脊串이 蜀柱나 矮柱에 사용되는 이외에도 牽梁이나 乳狀 아래에 위치한 기둥에도 사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1)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金知民 / 목포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 1. 머리에

### 조선조-성리학의 관제화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기로 하고 곧바로 등왕 3년(1394)에 궁궐(경복궁)을 짓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역대 선왕의 위패를 모시기 위한 宗廟의 창건도 서둘러 그 이듬해인 1395년에 1 차로 완공을 본다. 종묘는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세워진 국가 최고의 제례시설(大廟)로서 새로운 유교적 통치이념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태조는 즉위 원년에 모든 도의 안찰사에게 학교의 興廢로서 수령을 考課하도록 하여 향교에 대한 수령의 관심을 높게 했다. 이어서 수령의 직무로서 제시되는 守令七事에 學校興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적어도 東國與地勝覽이 나온 성종17년(1488)까지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향교가 설립되는 이른바 '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조선초 家禮의 보급 계몽은 고려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눈에 띠는 현상이다. 태조 때부터 경제육전을 통한 五服制의 준용과 더

불어 가례의 三年喪 및 家廟制 등이 시행되었고 태종 때에는 가례 시행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시책이 나왔으며, 평양부로 하여금 가례를 印造(150部)하여 각司에 頒賜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入仕者에게 가례를 시험 치게 함은 물론, 이미 임사한 경우라도 七品이하에는 역시 그것을 시험케 하였으며 양반층에서 家廟立祀를 불이행 할 때는는 엄벌케 하였다. 이렇듯 조선초 역대 왕들의 일련의 조치는 성리학의 관제화로서 '유교적 思考禮系 의 轉換'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사회는 태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동안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시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성종 시대에는 문물제도가 확립되고 유교사상이 서민에 까지 보급됨으로서 조선왕조 5백년의 유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즉, 조선 500년의 역사를 통해 생활속에서 행위규범으로서, 사회제도로서, 도덕적 가치기준으로서, 나아가 신앙적 의식 내면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유교사회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왕조는 관제화 성격의 유교적 체제로 사회조직의 정비를 실현해 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제도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새로 학교도 설립하고 朱子家禮에 따르는 가묘의 설치 등 다양한 유교적 시설물이 전국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 유교 유적- 그 다양성과 풍부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향교의 대성전에는 신라 시대의 六頭品 귀족



유교건축의 상징인 홍살문

출신으로 그 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설총과 최치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는 곧 신라시대에도 유교 문화의 수용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는 귀족 자제들의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서민 자제의 교육기관인 堂과 구분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태학의 교과목은 유교 경전이었고, 경당에서의 교육도 유교적 도덕이 주였다.

한편 소수림왕은 동년 동월에 前泰王 竪으로부터 僧順道를 통해 불교를 전수 받았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동시에 유교 교육의 최고 기관인 태학을 설치한 셈이다. 유교 교육의 최고 기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교문화의 풍토가 조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본다면 한국에서의 유교 역사는 중국의 그것에 비금한다고 추단할 수 있다. 太學의 설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600여년의 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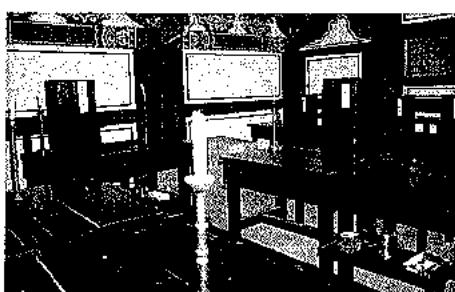
유교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 있어서 治道의 근간이었으며 가정 및 사회에 있어서 도덕규범의 준거가 되었다. 고려시기에는 불교와 쌍벽을 이루어, 유교는 경세지도로서, 불교는 심령구제지도로서 각각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조선사회의 유교 신분은 전 시대와 크게 구별되어 조선 전 기간에 걸쳐 국교로 승봉되었다. 사실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계급 조직을 바탕으로 한 질서의 확보와 국가적인 통일성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지방 향교의 문묘는 당시 유교적 신앙대상의 기본 유형을 이루고 있었고 이는 조선 후기의 서원과 더불어 선사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유교조직의 기본단위를 이루었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 체계 속에서 설립된 유교건축은 현재 전국의 아주 작은 마을 단위에 까지 거의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건축적 형태는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관학으로서 향교, 16세기에 등장한 서원, 문중의 제례를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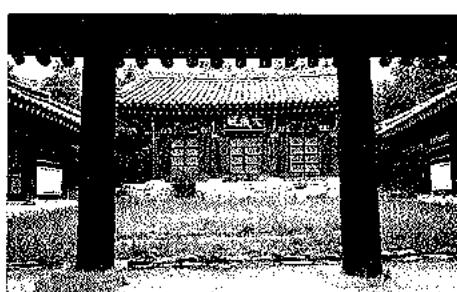
르기 위해 마련된 재실, 이외 가묘, 사우, 정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유적은 아직까지 지방의 유교문화 경

표1 조선의 사회상황과 유교건축

시기	사회·유교적 상황	건축 상황
1400	• 태조즉위(1392)-유교사상을 전국이념으로	• 종묘 창건(1395) • 향교건축의 전국적 확산(태조-성종)
50-	• 한양으로 환도(1405) • 국내를 8도로 나눔(1405)-중앙집권 국가 확립 • 세종(1418-1450)	• 가묘건축 확산(성종)
1500	• 유교사상이 서민에 까지(창종) • 동국여자승관 완성(1487) • 무오사화(1498)	• 정려건축(조선 전 기간)
50-	• 16세기 성리학 전성기 (이청, 이이, 김인수, 기배승 등) • 4대 사회후 은둔 사상 최초 서원(백운동) 설립(1543)	• 서원건축 등장(1543)
1600	• 당쟁 시작(1575) • 임진왜란(1592-6)	• 농운상사(1561) • 육신서원(1573), 도산서원(1574) • 월암서원(1590)
50-	• 병자호란(1636)	• 도동서원(1605) • 병산서원(1613)
1700	• 남인 서인 당쟁 카심(1660) • 17~18C 사립의 봉당·정치·향촌·양반·유교적 사회 윤리관	• 서원건축 남설·사우와 혼동(17~18세기) • 제각건축 확산
50-	• 서원 남설(한 때에 80~90개) • 영조즉위(1724~1776) • 문화적 전성기 (영·정조) • 실학의 전성기 (18C 중~19C 중) • 양명학 이해(18C)	• 서원·사우건축 난립 * 수원성 건설(1706)
1900	• 천주교 대박회(1801) • 목면삼서 왕성(1818) • 대원군의 서원철폐(1868) • 의리파·개화파 대립(한말)	• 전국 47개 서원 축치(1871) • 둘산·여수·완도·지도향 교창설(1897)
	• 한일합방(1910)	• 불영향교 창설(1901) • 오천향교(1905)



초계향교 문묘구역  
(건물배치의 정면성으로 인해 엄숙과 절제의 공간  
미가 잘나타남)



초계향교 위파 진열모습



순천향교 대성전



순천향교 東廡



누각에서 내려다 본 안의향교의 교육공간



안의향교 누각(정문)

관 조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표1은 조선왕조 전 기간의 사회변동에 따른 유교 건축의 상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종묘 창건(1395년) 이후 충남의 오천향교(1905)를 마지막으로 관제의 유교건축은 그 막을 내린다. 나라가 어 수선하였던 시기, 그리고 국가의 지원도 없이 지방 유림 자체로 건립을 본 오천향교의 의미는 우리에게 조선 유교의 이념과 권위를 여러가지로 생각해 준다.

필자는 표1에 언급한 여러 유적 중 향교, 서원, 사우, 재 실, 가묘, 정려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사실을 다음 호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 질서와 절제의 미

13세기에 安珦(1243~1306)은 송으로부터 신 유학이라 할 수 있는 性理學을 도입한다. 그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梅庵 朱熹(1130~1200)를 흡모하면서 그의 호를 본따 자신의 호를 梅軒으로 하였다. 배현은 국가감의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가르쳤다.

聖人의 道는 일상생활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이 되어서는 孝를 해야하고, 臣下가 되어서는 忠을 해야하며, 禮로써는 가정을 規律하고, 信으로서 朋友를 사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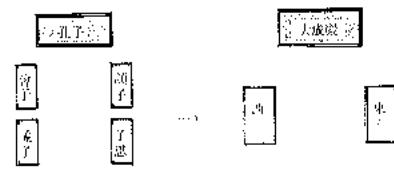
“禮”는 유가사상의 근간이 된다. 원래 禮란 ‘理’(理之不可易者) 또는 ‘義之實’이라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른 道理 ‘마땅히 행하여야 할 원리’(所當然之則) 또는 ‘善으로서의 德目’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의 의미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당연시 되는 ‘名分’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 성리학에 기초한 예와 같이, 고도로 세련된 예 일수록 단순한 습속 이상의 합리적 근거(思考)를 갖는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가 합리적 근거를 지닌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이성의 산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성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 ‘別’ ‘序’의 기능, 이른바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예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유교건축은 그 어느 한국건축보다도 ‘질서’가 조형의

기본개념으로 깊숙이 자리한다. 엄격한 유교적 제례 절 차와도 같이 격에 따라 위계성을 지닌 질서체계가 있다.

질서는 횡적



이 아닌 종적  
(상·하) 체계  
로 일관되어  
불교식과 크  
게 구별된다.

즉 사찰의 법  
당 내부는 횡

으로 중앙실과 협실 등으로 구별되어 주불과 보조불이 안치되는 반면 사당은 상·하 개념으로 공간이 분할되어 위폐가 모셔진다. 특히 문묘의 경우 그러한 질서개념은 바로 건축적 형태로 나타나고 집 모양도 孔子와 四聖(맹자, 증자, 자사, 암자)의 위폐가 안치된 대성전은 규모도 크고, 다소 화려한 반면 그 외의 학자가 모셔진 무(廡)는 행랑채 수준에 머문다.

한편 유교건축에 있어 질서의 미는 축선 사용과 균형에 있다. 특히 안정된 좌·우 대칭균형 기법은 정적이고 장중한 유교적 분위기를 잘 자아내고 있다.

그림1. 위폐의 위계적 질서와 건물배치 개념  
유교건축은 일면 유교라고 하는 종교건축이면서도 종교가 주는 신비감, 또는 뛰어난 상징적 건축요소는 지니고 있지 않다. 같은 시기의 불교건축 문화에서 흔히 보이는 화려함이나 치장적인 면도 없다. 오히려 질제된 단순성 만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유교가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인 동시에 「」과 禮라는 기본이념으로 백성을 교화하는데 그 기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禮를 말하기를

“예는 사치함 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한다. 겹악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는 드물다.”

라고 하였다. 유교문화는 이렇듯 절제, 간결, 소박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유교의



나주향교, 주제제향(제례는 유교실천 의식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현재 유교유적의 유일한 기능으로써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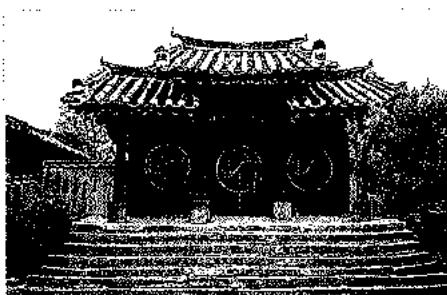
서원건축의 효시가 되는 백운동(소수)서원



이 퇴계선생이 거쳐했던 도산서원



도산서원 강당



종교적 의미로서 神門에 해당하는 내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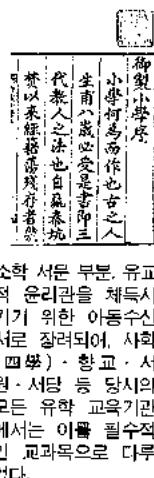
병산서원의 만대루 전경

상징적 공간이었던 대성전도 정면 5칸이 최고의 규모였고 상당수의 향교에서는 정면 3칸이 보편적인 건축으로 받아들여졌다. 유교사회에서 당시 국가적 배려나 지방 유림들의 관심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규모로, 또는 단종이 아닌 중종의 건물로도 조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공포의 경우도 익공식이 절대적인 유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에 사찰건축의 본전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다포양식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명륜당이나 강당의 경우는 더 난출하게 민도리 양식이 주류를 이룬다. 단적으로 말해 유교건축의 이름다움은 절제된 단순함에 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지나친 꾸밈도 없다.

## 유교건축의 가르침-『小學』

94년 8월에 유교건축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중국曲阜에서는 '孔子사상과 21세기'란 주제의 국제학술회회가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참가 학자들은 한결같이 유학의 인본주의와 자연애호 사상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도덕타락과 물질만능 풍조,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21세기에도 유용한 사상체계가 되기 위해선 공자 사상의 비판적 발전이 중 요하다는 데에도 의식을 같이 했다.

한민족에 있어 유교는 明理(이치)를  
밝힘)를 통해 인지를 계발시켰고 常綱  
의 윤리를 확립하였으며, 仁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를 함양시켰다. 또한 유교  
적 심성관은 한국전통사상의 한 기저  
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유교는 한국  
의 역사에 있어서 가치문화 창조의 중  
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륜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른바 패륜  
의 현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家統으로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traditional Chinese building, likely a temple or shrine. The building features a dark tiled roof with decorative ridges. In the center, there is a vertical plaque with Chinese characters. The entrance is flanked by two smaller plaques. The overall architecture is classic and symmetrical.

일자형 평면이 주류를 이루는 구례 윤씨문중의 재상



국례 박사



유교건축의 맥을 이어 가기 위하여 복구중  
인 창호의 양관서원



마을어귀에 세워진 구례의 최여진(1646~1725)  
한자 전례



3차으로 규모가 클 와이3세 축축전력



아시 외안리 치파대의 가문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적 예의식  
이 자리를 빼어 가고 있  
는 실정이다. 유교적 가  
치관의 정립이 다시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어·맹자 같은 유교경전도 좋지만 오히려『小學』이 이 시대의 작은 도덕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주지하다시피 소학은  
송나라 劉子澄이 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지은 아

동용 수신서로써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사적 등이 수록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에 까지 걸쳐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유교유적은 이젠 오로지  
제향의 기능만으로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젊은  
층의 철저한 소외 속에 노인들의 전유물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적들은 풍부한 건축적 공간을 갖고 있  
고 아울러 지방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  
는 그점에 착안하여 『소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장  
으로 활용함이 어떨까 한다. 피아노나 컴퓨터 학원도 좋  
지만 충효교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향토문화 자  
료실, 저통문화 교육 및 행사장 등으로도

마을 어귀에 흙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는 旗閣이 현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충신, 흥자, 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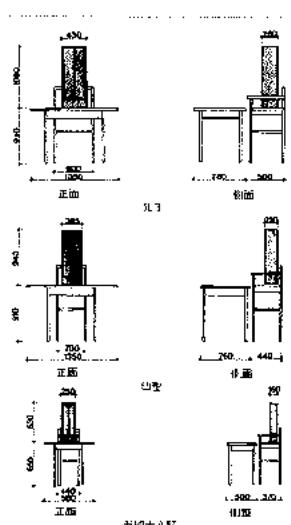


그림3. 위폐장과 진설상의 위계적  
질서(경남 거창 향교)

## 1. 개요

랭스 대성당의 위치는 파리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130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10만명이고 직물과 양조업이 발달해온 도시이다. 이 성당의 앞면은 대도로로 뚫려있어 접근할 때에도 시원하며 성당전체를 장애물 없이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당의 거대한 위용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성당은 아미엥(Amiens)의 대성당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건립된 성당으로서 프랑스의 고딕식대를 대표하는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역대 왕들의 대관식장으로 충분한 내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네이브, 아일, 및 내진부분을 크게 확장하였는데 이중 네이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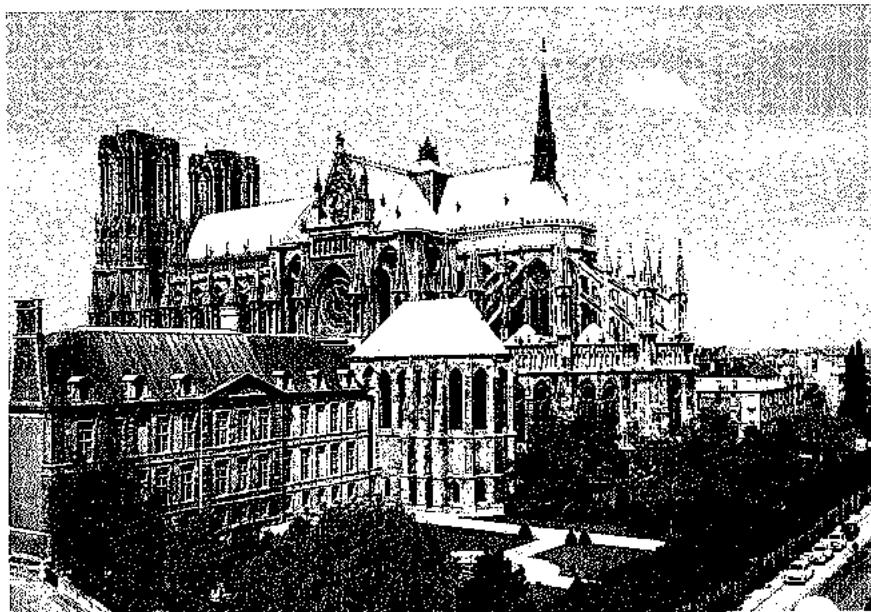
측면은 아케이드, 트리포리움 및 크리아스토리 등의 표준적 내부구성을 이루게 하였다. 외부적으로는 위엄이 넘치게 하였고 서쪽 정면의 화려한 조각장식에 의한 외관과 62m의 쌍탑의 수직적 액센트는 이 시대의 건축양식인 고딕양식으로서도 훌륭한 조화를 이룬 보기드문 성당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랭스 대성당의 외관은 전 유럽의 고딕성당 중에서 가장 통합된 성당으로서 ‘프랑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성당전체가 극도로 고

양된 통일된 입체적인 외관을 나타내며 이처럼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곳곳이 세밀하게 계획되고 고려된 성당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 2. 역사

로마 황제 올리시스 케사르가 골(Gaule : 프랑스의 옛이름)을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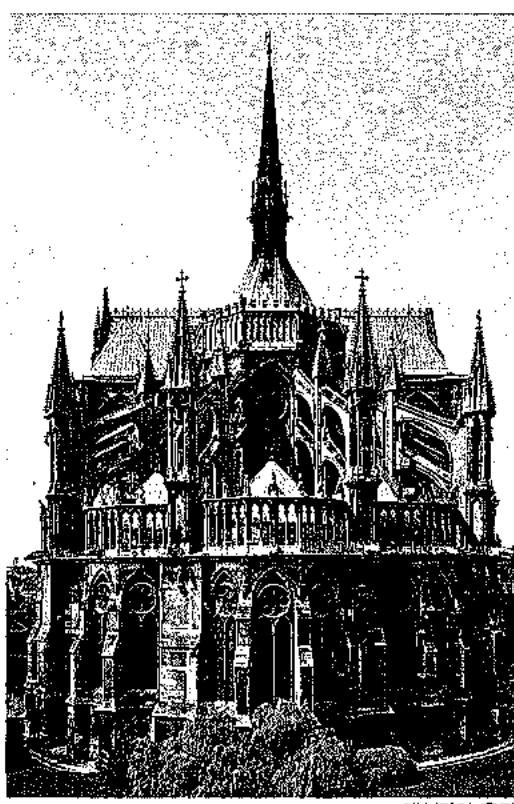
성당의 후진과 Tau

했을 당시 랭스(Reims)가는 케사르를 지원하여 그들의 도시국가를 샹빠뉴(Champagne)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벨기에 지방을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3세기 중엽 식스트(Sixte)주교가 이곳에 자리를 정하였다. 전통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 건축물들은 남쪽 교외(현재 Saint-Reims 구역)에 대부분 건립되어졌지만, 초기의 대성당인 Saints-Apotres 성당(후에 Saint-Symphorien으로 이름이 바뀜)은 현대 대성당 건물의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그 당시 이미 있었다. 5세기 초 니케즈(Nicet)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바실리크식 대성당으로 세례당이 달린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공중 목욕탕을 인수하였으며 498년 클로비스(Clovis)왕은 이곳에서 르미(Remi)성인에게 영세를 받았다. 사무엘이 다윗왕에게 도유했던 것을 모방하여 카롤링 왕가가 왕들의 축성식 행사를 도입했을 때 루이 르 빠외(Louis le Pieux)는 816년 대관식의 장소로 랭스(Reims)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것은 유명한 선조 클로비스(Clouis)시대로 되돌아가 왕국이 계속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카롤링 왕조의 통치 하에 있던 벨기에 지방의 수도이며 대주교가 있고, 성유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랭스의 대주교는 대성당에서 왕들의 축성을 담당하는 특권을 누렸다. 사실 랭스의 주교는 8세기부터 수아쏭(Soisson), 라옹(Loan), 보베(Beau-Vais), 샬롱(Chalon), 노아이옹(Noyon), 뚜르네(Tournais), 아미엥(Amiens), 상리(Sanlis), 페루안느(Therouanne), 캉브레(Cambrai), 아라(Arras) 교구에 대한 재판권이 있었으며 대주교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9세기, 10세기에 일반적으로 대주교가 랭스에서 주관하던 예식은 양리(Henri) 1세의 통치시기인 1027년부터 1825년 샤를로(Charles) 10세에 이르기까지 랭스

가 아닌 다른 지방, 즉 노아이옹(Noyon), 라옹(Laon), 꽁뻬에뉴(Compiegne) 등에서도 거행될 수 있었지만, 루이(Louis) 6세와 양리(Henri) 4세를 제외하고 모든 왕은 랭스의 대성당에서 축성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9세기 에봉(Ebbon) 대주교와 앵크마르(Hincmar) 대주교는 화려한 대성당을 재건축하기도 하였다. 1150년대 상송(Samson) 대주교가 개축하고 확장했던 두 번째 건물은 1210년 5월 10일 시 중심가 일부를 잿더미로 만든 화재로 인해 없어졌다.

그후 대주교 오브리드 드 앙베르(Aubry de Humbert)는 그 당시 공사 중이었던 대성당들(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수아쏭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처럼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1211년 5월 6일 오브리 드 앙베르(Aubry de Humbert) 대주교가 현재의 대성당의 초석을 놓았으며 장 도르메는 1228년까지 내진을 건축했고 장 르 루(Jean le Loup)가 중앙회중석과 정면을, 고세드 랭스(Gaucher de Reims)가 장 르 루 뒤를 이어 정면에 입상들을 놓고 정문의 안쪽까지 마무리 지었다. 베르나르 드 수아쏭(Bernard de Soissons)은 대형 원화창과 박공을 완성하고 중앙회중석을 궁륭형으로 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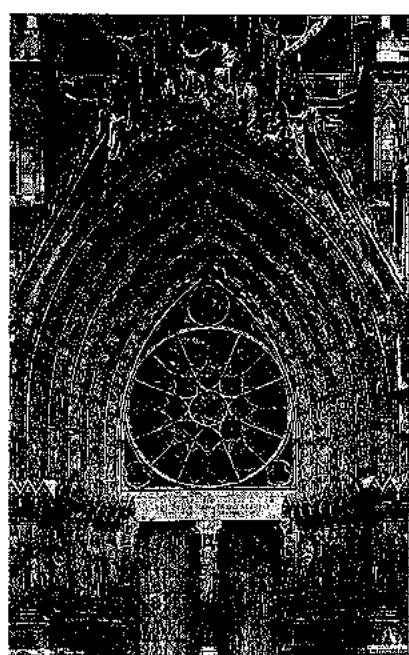
1285년에는 대성당의 내부가 완성되었고 정면은 원화창 위쪽의 배내기까지 건립되었다. 그러나 1481년 발생한 꿀조의 화재로 대성당은 영원히 완공되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의 계획은 정면과 좌우익랑의 탑을 세우고 그 위에 여섯 종루를 올리며 좌우 익랑의 교차점에는 대형 종루를 건립하는 것이었으나 1516년 건축가들이 그 계획을 포기하므로써 대성당은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건축가들은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따라가던 구불구불한 길인 미로의 포석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놓아 사



대성당의 후진



내진



서쪽 정면의 중앙정문

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나 불행히도 18세기에 미로가 파괴되었다. 같은 시기에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과 몇몇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공사를 하였으며, 다행히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19세기에 건물 보강공사와 복원공사를 했다. 보강공사와 복원공사를 겨우 끝냈을 무렵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대성당은 엄청나게 다시 훼손되었다.

전쟁시기인 1914년 9월 19일 대성당에 가해진 폭격으로 북쪽탑에 설치해 놓았던 나무비계에 불이 붙어 입상들을 훼손시키고 건물의 꼭대기로 번져 골조를 태웠고 종과 스테인드글라스의 납이 녹아 내렸으며 석재에 균열이 생겼다. 포탄은 1918년 여름까지 계속 투하되었다. 포탄에 맞아 부숴지고 불에 탄 대성당은 형편없이 되었으나 다행히도 계속 투하되는 포탄에도 대성당의 벽이 무너지지 않았고 전쟁이 끝날 무렵 록펠러(Rockefeller)재단에서 대부분의 복원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전쟁의 상흔을 치료하고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고치는데 부려 20년이나 걸렸다.

건축가 앙리 드네(Henri Deneux)는 파괴된 골조를 시멘트로 된 접합 부품으로 대체하고 매우 심하게 파손된 조각은 교체를 하여 1937년 마침내 대성당은 다시 봉헌되었다. 또 박물관(Musee de Tau)이라는 이름으로 1972년 개관된 대주교의 옛날 저택에는 원래의 조각품들이 있다.

### 3. 외부

#### 3-1 성당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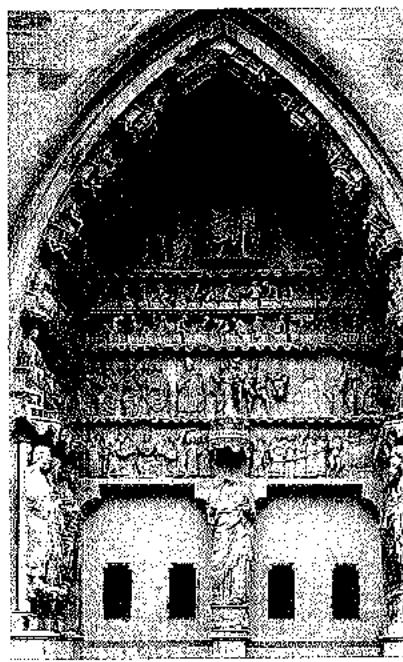
외부는 건축과 조각이 현재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부벽들은 대건축물의 균형에 없어서는 안될 역

할을 하고 있다. 아케이드 모양의 장식을 한 방사상의 작은 제단들은 건물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북쪽 익랑의 정면에는 먼저 있던 구조에 덧붙인 것이 눈에 띠는 비대칭의 문이 세 곳이나 된다. 오른쪽 문은 건축자재를 재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여섯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합각벽의 첫번째 가로띠 모티브에는 성인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과 지옥으로 가는 악인들을 조각해 놓았고, 두번째 가로띠 모티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 성모마리아와 세례자 요한 사이에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표현해 놓았으며. 상부의 아치속에는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그리고 부제들을 조각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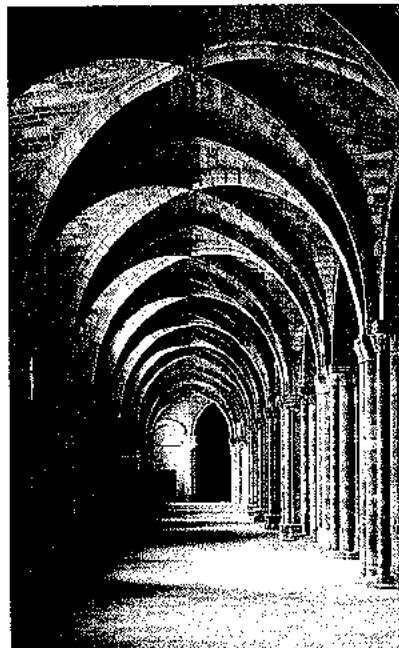
#### 3-2 정면

랭스의 노트르담 성당 정면은 가능하면 오후 석양이 대성당을 비출 무렵에 보아야 한다. 정면은 빠리의 노트르담(Notre-Dame) 정면과 비슷한 건축형태를 하고 있으나 합각벽, 박공, 뾰족한 첨탑, 가느다란 작은 원주와 왕들의 주랑의 거대한 초상들이 표출하고 있는 수직적인 움직임은 매우 아름답다. 중앙회중석으로 통하는 세 정문 위에는 중요한 박공이 있다. 이 박공은 일반적으로 합각벽에 있는 조각군을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세기에 모두 제작되기는 했으나 정문을 장식하고 있는 입상들은 계승을 한 네곳의 아폴리에에서 제작한 것으로 샤르트르(Chartres) 대성당의 입상들을 연상케하며 성직자들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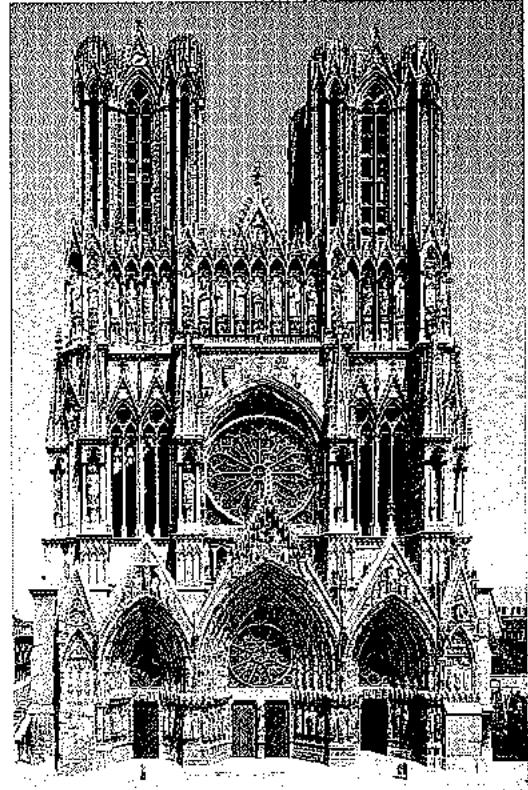
두번쩨 아폴리에의 작품들을 보면 주름진 옷과 얼굴 표정 속에서 고대 예술에서 받은 영향을 볼 수 있다. 좀 더 간결한 세번째 아폴리에의 작품들은 아미앵



북쪽 정면의 원쪽정문



남쪽측랑



대성당의 정면

(Arniens)의 입상을 연상시킨다.

세 아뜰리에의 모든 기교를 물려받은 네번째 아뜰리에는 독창적인 색빠뉴 양식을 만들었으며 “미소짓고 있는 천사”의 입상에서 이것을 표출했다. 자연스러운 자세, 늘어진 옷의 부드러운 주름, 미소를 짓고 있는 장난기 어린 얼굴에서 발산하는 생동감 등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중앙 정문에서 문사이의 벽에는 성모마리아가 미소를 짓고 있다(1), 물매지게 깍은 오른쪽 벽에는 “성모 방문(2)”과 “성모영보(3)”의 입상들이 있고 물매지게 깍은 왼쪽벽에는 “성전에서 예수의 봉헌(4)”을 나타내는 입상이 있다. 늙은 시메옹 결례 성모마리아와 비둘기를 들고 있는 장난기 어린 얼굴을 한 요셉이 있다. 박공 속에는 “그리스도에 의한 성모마리아의 대관식”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복제품으로 원래의 작품은 또(Tau)궁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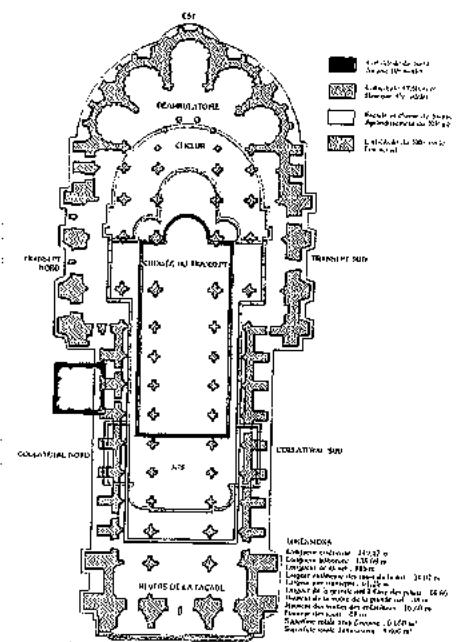
오른쪽 정문의 물매지게 깍은 오른쪽 벽에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렸던 시메옹, 아브라함, 이사야와 모세(5)의 입상들이 있는데, 굳은 얼굴 표정에 땅딸막한 몸집이다. 마지막 심판에 할애된 박공에는 수난의 도구들을 든 천사들에게 들려싸인 그리스도가 있다. 왼쪽 정문에는 랭스 성당의 성인들 중 엘렌(Helene) 성녀(6)와 두개가 잘린 모습의 니케즈(7) 성인의 입상이 있으며 그의 왼쪽에 미소 짓고 있는 천사(Ange au sourire)의 입상이 있다. 박공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묘사해 놓았다. 대형 원화창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묘사해 놓은 윗쪽에는 각각 높이 4.50m, 무게가 6~7톤에 달하는 왕들의 입상이 56점 있고 가운데 클로비스의 영세를 표현해 놓았다.

### 3-3 좌우익랑과 주위구조

내부에는 천지창조가 묘사되어 있는 북쪽익랑의 원화창 옆에 아담과 이브가 조각되어 있다. 화려한 박공은 1497년경에는 제작된 “성모영보”로 장식되어 있다. 마리아는 원죄로 혼란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남쪽 익랑에는 그리스도 교회, 유태교회, 1540년에 제작된 성모승천의 조각이 있다. 원화창의 뾰족한 첨탑에는 왕들의 입상이 있다. 이것은 왕실에 대한 대성당의 기능을 상기시킨다. 랭스의 건축은 중앙회중석 축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성당의 건축적 특징의 하나는 두 벽 사이를 아치 모양으로 걸치어 궁륭의 압력을 막는 벽날개를 이분화하고 있으며 부벽의 부피를 줄인 이 걸작품은 견고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4개의 각뿔을 동반한 8각형의 첨탑 속에는 날씬한 두개의 작은 원주가 날개를 편 천사를 받쳐주고 있다. 이 천사들은 후진의 천사들과 함께 성모마리아의 주위에서 호위를 하고 있으며 천상의 예루살렘을 예시하고 있다. 중세기의 건축가들에게 이승에서의 성당은 천국의 모습이었다. 비할데 없는 아름다움, 방대한 규모와 여러가지 상징들은 줄곳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벽날개의 위쪽에는 남상주가 높은 주랑의 배내기를 받치고 있으며 높은 주랑속에는 낙수 홈통이 들어 있다. 각각의 부벽에는 독특한 석누조가 있어 벽물은 이곳을 통해 배수된다. 랭스 대성당의 서쪽 정면은 13세기 건축의 훌륭한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간 모든 선은 굳건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선 역할을 하고 있다. 문 사이의 아치가 깊은 문들을 거쳐 중앙 회중석으로 통하게 된다. 합각벽은 투조세공을 한 것으로 조각은 박공 속으로 옮겨 놓았으며 이 박공으로 인해 건물 전체는 비약하는 느낌이 더 든다. 많은 장식에도 불구하고 초상학적 과정이



주제단



평면도

매우 돋보이는 성당이다.

### 3-4 중앙정문

첫번째 주제는 “성모마리아”다. 독창적인 중앙 정문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것으로 그의 아들 예수가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다. 신자들이 출입하는 중앙 정문사이 벽에는 성모마리아의 입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모 영보와 성모 방문(주 :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말함), 왼쪽에는 성전에서 예수를 봉헌한 것을 표현했다. 두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왼쪽 정문에는 고통받는 그리스도가 있다. 심하게 훼손된 문 상부의 아치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이 묘사되어 있다. 박공에는 그리스도의 책형이 그리고 북쪽 부벽의 저부조에는 십자가의 고안이 조각되어 있다. 물매지게 깎은 문의 벽에는 랭스지방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렸던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조각해 놓았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입상은 대형 원화창과 같은 층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들의 입상과 함께 있다. 엠마우스의 순례객들은 원화창의 양쪽에 마주보고 있다. 왼쪽 인물입상은 불에 탔고 오른쪽 인물입상은 대체한 것이다. 북쪽 탑의 첫번째 첨탑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복원된 것으로 순례자의 옷차림으로 엠마우스의 순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왼쪽에는 요한 성인이 있고 탑의 북쪽 축면위에는 토마 성인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 원래의 작품은 “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 작품은 1988년 대체한 것이다. 남쪽 축면에는 바오로 성인, 자끄 성인이 있다. 이 작품들도 대체한 것이다. 오른쪽 박공의 주제는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올 그리스도”이다. 물매지게 깎은 문의 왼쪽 벽에는 “사도들을 구하려 다시 올 그리스도”를, 오른쪽 벽에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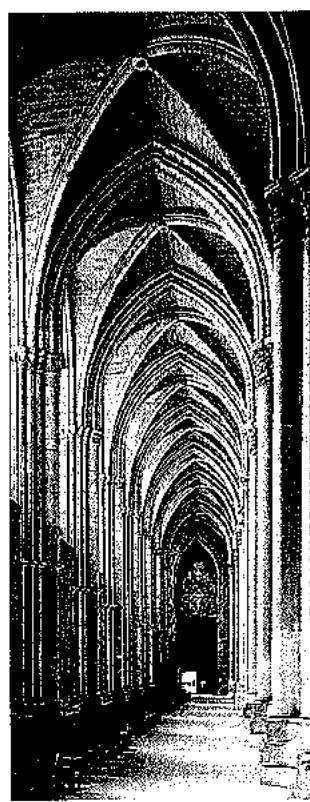
처럼 다시 올 그리스도”를 묘사해 놓았다. 중앙 정문의 양쪽에는 “시바의 여왕을 맞이하는 솔로몬”的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달려가는 교회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주제는 성당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대관식과 관계가 있다. 원화창의 위쪽에 있는 부조들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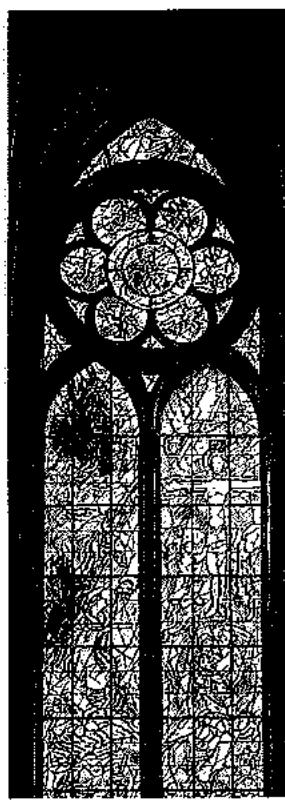
### 3-5 입상

대형 원화창 윗쪽의 아치는 충력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이 속에 다윗과 솔로몬의 일생의 장면들, 구약성서의 거룩한 왕들이 조각되어 있다. 좁은 아케이드 속에는 14세기에 제작된 거대한 입상 63점이 있다. 입상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4m50, 그리고 무게는 4~5톤이 나가는 것으로 그리 높은 수준의 작품들은 아니다.

중앙에는 영세통에 들어 있는 클로비스와 그 주위에 여섯명의 인물들이 있으며 그 양쪽으로는 여러 왕조의 왕들이 있다. 입상전체가 의미하는 바로는 렌스에서 프랑스 왕은 땅에서의 하느님의 대리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프랑스 왕은 다윗처럼 축성되었고 악의 세력을 물리친 정복자로서 도움을 받았다. 클로비스가 이곳에서 축성을 받은 후 클로비스의 후계자인 프랑스 왕의 축성은 이곳에서 행해졌다. 왕들의 주랑 위쪽으로 중앙회중석의 박공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박공의 양쪽에는 15세기의 탑이 있다. 이 탑들은 각각 4점의 투조 세공을 한 작은 탑들과 같이 있다. 정면의 상부의 훼손된 입상부분을 많이 복원하므로 원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가장 오래된 작품들은 오른쪽 정문에 있는 예언자들의 입상으로 대성당 건축의 초기인 1220년 이전에 제작되었다. 마른 몸집과 수직으로 처리한 선을 보면 사



남쪽창문



Chagall의 스테인드글라스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



Chagall의 스테인드글라스(Clovis와 영세)

르트르(Chartres) 대성당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

124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는 “성모방문”이 있다. 이 입상들은 매우 생동감 있고 얼굴은 내면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성모방문의 입상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샹빠뉴 지방의 여러 영주들은 얼마동안 그리스에 포진을 했던 빌아르두앵(Villehardouin : 샹빠뉴 지방의 장군)과 샹리뜨(Champlittre)를 뒤따라 원정을 간 이 때를 이용하여 예술가들은 그리스로 여행을 가서 그 곳에서 체류하면서 고대예술을 연구하고 랭스로 돌아와 연구 모방하여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성모영보”와 “성전에서 예수의 봉헌”은 124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성모방문”的 입상들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주름의 선이 더 간결하고 몸의 움직임도 앞의 입상들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은 13세기의 중요한 작품이다. 샹빠뉴 스타일은 미소 짓고 있는 천사, 성모영보의 천사, 성전에서 예수의 봉헌을 시중드는 천사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천사들은 모두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우아하게 주름진 옷을 입었으며 상당히 유연한 몸매를 가졌다. 균형 잡힌 몸매와 조심스런 몸짓은 보는 이의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한다.

#### 4. 내부

내성당의 내부공간은 조화로움으로 방문객을 사로 잡는다. 대성당은 라틴 십자가 형태로 양 측면이 약간씩 돌출해 있으며 측랑이 있는 중앙회중석과 내진, 후진 주위에 회랑이 있으며 다각형의 작은 제단이 방사상으로 후진 주위 회랑과 연결되어 있다. 내진은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이게 배치한 기둥으로 인해 매우 인상적이다.

건물 외부의 길이는 149m이며 궁륭 아래의 높이는 38m로 건물 전체는 균형이 잘 잡혀 있다.

##### 4-1 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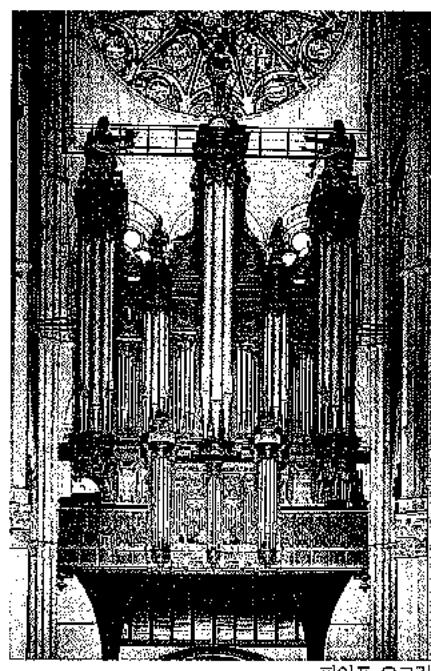
내진의 트라베(Travee :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는 둘 밖에 안되지만 사제들을 위한 공간은 중앙 회중석 쪽으로 매우 넓게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축성식이 거행될 때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다. 옛날에는 왕좌를 전립하는데 사용했던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이 울타리 역할을 했다. 내진의 기둥들로 인해 내진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건물내부는 더 높은 느낌이 든다. 후진 주위 회랑과 통하는 방사상의 작은 제단들을 연결하고 있는 통로는 전형적인 샹빠뉴지방의 건축양식이다.

##### 4-2 중앙 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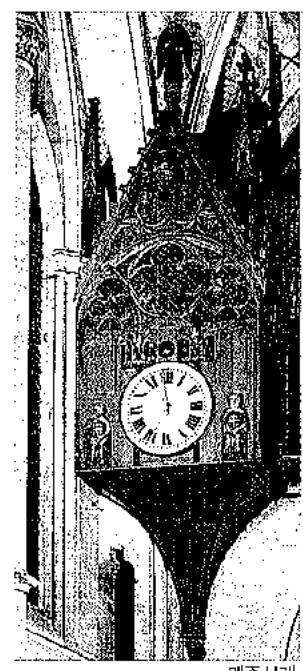
중앙회중석은 유선형으로 우아하면서도 견고하게 느껴진다. 샴트르(Chartres)의 영향으로 대형 아케이드 층, 아케이드 모양의 장식이 넷있는 트리포리움(교회건축의 측랑 상부에 있는 통로)층, 꽃잎 모양의 장식 여섯으로 된 원화창 아래로 두 예첨 아치가 있으며, 투조 세공을 한 귀들이 있는 높은 창문 층 이렇게 세 층으로 전립되었다. 측랑과 방사상의 작은 제단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창문의 형태는 고딕양식 창문의 중요한 발전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1220년경 건축가 비야드 온느꾸르(Villard de Honnecourt)는 그의 여행 수첩에 랭스 대성당의 창문을 그려놓고 여백에는 이 형태의 창문은 유럽에서 재빨리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고 적어 두었다. 창문 아래쪽으로 통하는 순찰로(샹빠뉴의 통로라고도 불림)는 두터운 기둥을 지나 사방으로 왕래할 수 있게 되



성모마리아



파이프 오르간



페종시계

어 있다. 후진에 있는 고풍스러운 기둥을 제외하고, 모든 기둥의 네 귀퉁이는 원주로 되어 있으며 이 원주들은 아름다운 나뭇잎 장식의 기둥머리로 마무리 지어졌다.

#### 4-3 정면의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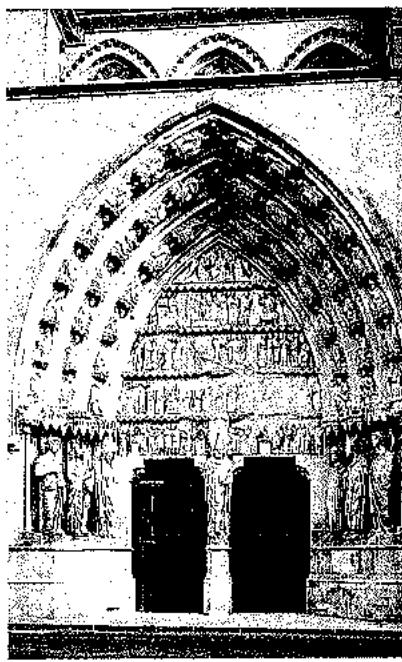
정면의 안쪽은 13세기경 구상했던 본래의 모습이다. 투조세공을 한 정문의 합각벽 트리포리움의 창문 아홉, 꼭지점이 삼각형인 공간 속에 내접한 대형 원화창으로 내부 전체는 매우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든다. 반면에 밝지 않은 것은 조각이다. 정문의 둑례에는 일곱 줄의 횡렬 벽감이 있고 이 벽감 속에는 천 두점의 조각이 있다. 벽감 속의 이야기는 원쪽 맨아래 세사람의 예언자에서부터 시작된다. 세례자 요한, 이사야 다윗이 그들이다. 그 윗쪽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안나(성모마리아의 어머니)와 요아킴(성모 마리아의 아버지)에게 마리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그 위쪽, 아래서 세번째 줄 벽감은 황금의 문에서 안나와 요아킴의 만남을 나타내고 있다. 네번째 줄 벽감은 이사야가 구유속의 아기 예수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줄 벽감은 죄없는 아기들의 학살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 일곱번째 벽감은 이집트로의 피신과 마리아의 순결함을 불타는 덤불과 계데옹(Gedeon : 히브리 사람들을 미데안 사람들에게서 구한 이스라엘 판관)의 양털로 상징해 놓았다. 오른쪽 맨 아래에서는 유명한 장면인 기사의 영성체를 볼 수 있다. 13세기 복장으로 멜키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밀며 사제로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 그 위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도끼는 이미 나무위에 있다” 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헤로데에게 단정치 못한 행실을 비난하고 하느님의 어린양을 소개하고 있

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자카라에게 예언자의 탄생을 알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맨 위쪽 벽감은 세례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마무리 지었다. 원화창의 초상과 관계가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외부에 묘사된 마리아의 일생을 보충하고 있다. 정문 중앙의 벽에는 407년 반달인(고대 게르만 민족으로 문화 파괴자를 지칭)에 의해 살해당한 대성당의 건립자였던 니케즈(Nicaise)주교의 입상이 있고 양쪽에 천사와 군인들의 입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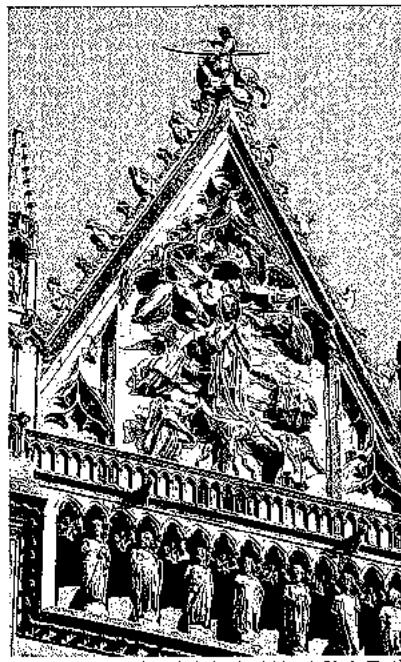
1914년의 화재로 매우 심하게 손상된 두 축문 중 북쪽문에는 그리스도의 수난 과정을, 남쪽문에는 심판 과정을 외부에 묘사해 놓고 있다.

#### 4-4 스테인드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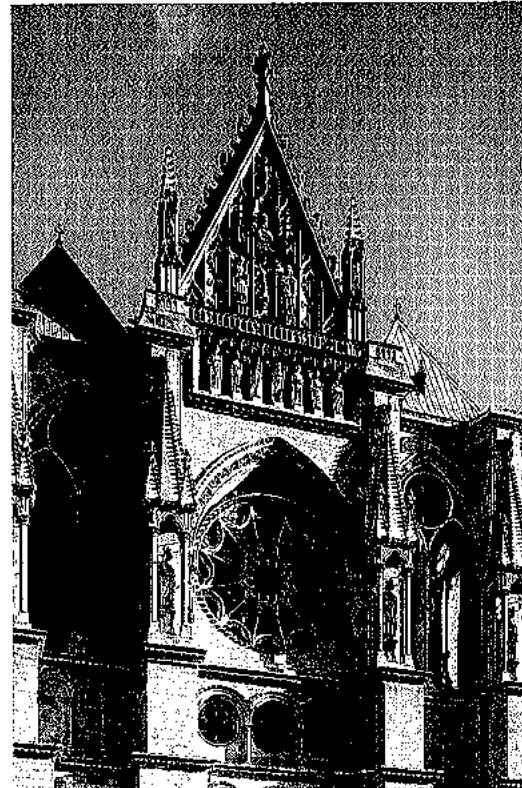
18세기의 윤색가들과 1914년에서 1918년까지의 폭격 때문에 많은 스테인드글라스가 없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스테인드글라스들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오래된 스테인드글라스(1235년경 제작)로는 내진의 높은 창문을 들 수 있다. 윗 부분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가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청적으로 아랫부분에는 벨기에 지방의 대주교 소속의 주교들이 대주교 양리 드 브레느(Henri de Braine)의 주위에 있다. 대부분의 주교들은 그들의 성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칠해진 건축물과 함께하고 있다. 스테인드글라스에서 교구의 배치는 지방 종교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이 대주교 좌석 주위에 앉았던 자리와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초상화과 대성당에서 행해졌던 예식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른 예는 축성대주교들을 동반한 왕들의 행렬 모습이 남아 있는 중앙회중석의 높은 창문들에서 색을 볼 수 있다. 좌우익랑의 크로



북쪽익랑의 정면



남쪽익랑의 박공(성모승천과 궁사)



북쪽익랑의 원화창과 박공

아자용의 높은 창문에는 스테인드글라스색을 전혀 칠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진 속으로 더 많은 빛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다만 그리자이유(회색만 써서 농담, 명암을 그리는 화법)화법으로 장식했다. 북쪽 익랑의 원화창은 후진의 스테인드글라스보다 약간 나중의 것으로 주제는 천지 창조이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첫번째 화관인 중앙에 있고 그 주위는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다. 궁륭 아래 귀돌 속에는 아기예수에게 젖을 먹이는 성모마리아를 표현했으며 이것은 예언자들에 의해 알려진 새로운 이브가 죄인인 인간들에게 구세주인 그의 아들을 제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맞은 편에 있는 남쪽 익랑의 원화창은 1580년 니콜라 데로데(Nicolas Derode)와 1937년 자끄 시몽(Jacques Simon)이 복원한 것은 붉은 망토를 걸친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열두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귀돌 속에는 성모마리아의 대관식을 묘사했다. 성모마리아는 천국에서 그의 아들과 만나 그곳에서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4-5 내진의 스테인드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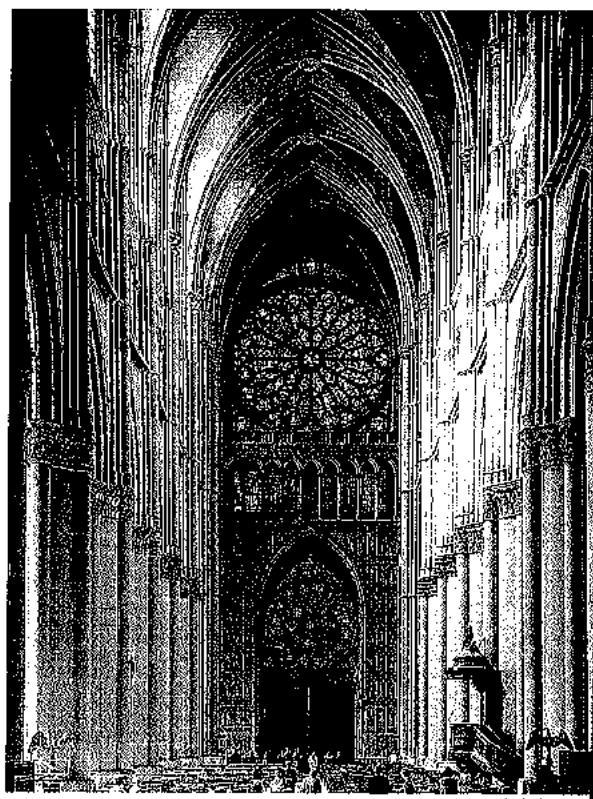
내진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장식적이면서도 연속적인 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중심 창문에는 성모마리아와 그리스도 교회, 랭스의 대주교를 묘사한 첫번째 이야기와 주교와 사도들의 이야기 이렇게 두 프로그램이었으나 연속적인 이야기가 나란히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 성모마리아와 대주교는 남쪽 익랑의 그리자이유 바탕위에 묘사되어 있었으며 네명의 복음사도들과 네명의 주교들은 내진의 마지막 두 창문에 같은 그리자이유 바탕위에 표현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연결하여 이

를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내진 중앙에 있는 아홉 창문을 이용했다.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주위에 열두제자들이 미사 전문에 있는 순서대로(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드로, 바오로, 안드레아, 자끄, 양 등)모여 있다. 자리가 남았으므로 바오로의 친구 바르나베(Barnabe)와 두 사람을 더 넣었다. 랭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복음사가들이었던 루가와 마르코임이 틀림없다. 랭스관구의 주교들은 이 내진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자리했던 순서대로 즉 오래된 교구의 주교는 상석을 차지했던 순서대로 대주교의 주위에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열두 제자들의 후계자들인 벨기에 지방의 주교들의 수가 열 두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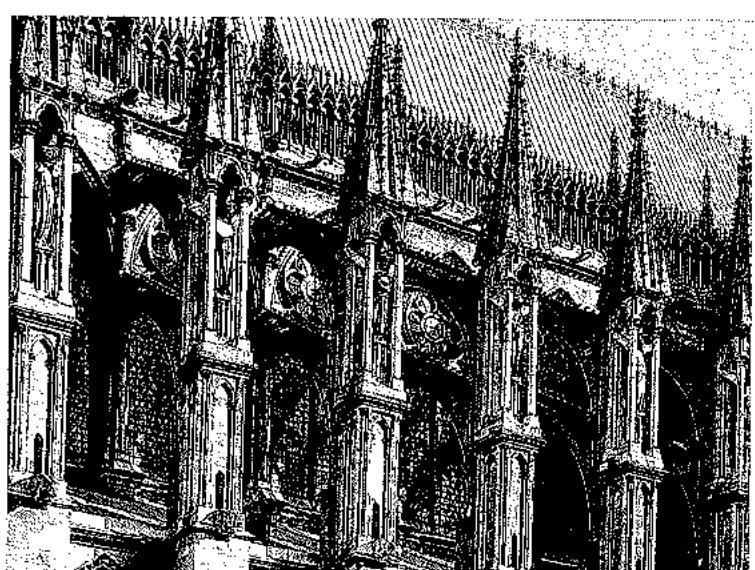
#### 4-6 정면의 스테인드글라스

전체 작품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13세기 말에 제작된 정면의 대형 원화창이다.

저녁 무렵 석양의 빛이 유리를 비추면 열두편의 꽃잎은 그 화려함을 아낌없이 발한다. 정문의 초상과 조화를 이루는 대형 원화창은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된 것이다. 중앙은 성모의 춤을 표현했고 첫번째 화관에는 열두 제자, 두번째 화관에는 성모마리아를 천국까지 동반한 24명의 악사 천사들을 나타내고 있다. 둘레의 4잎무늬 속에는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귀돌속에는 낙원에서 성모마리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묘사해 놓았다. 이 삼화는 대성당이 성모승천 축일인 8월 15일 성모마리아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주 : 성모승천 축일은 8월 15일로 가톨릭에서 성모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다). 트리포리움의 아홉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는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왕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정면의 인쪽



중앙회중석의 부벽속에 있는 천사들(천국의 수비병들)

있다. 중앙에는 백합꽃으로 장식한 망토를 입은 왕이 있고 왕의 양쪽에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있다. 성모마리아의 연도를 묘사한 정면의 소형 원화창은 1936년 제작했으며 포도주 제조의 여려과정을 표현한 남쪽 익랑의 상 빠뉴의 스테인드글라스는 1954년 자끄 시몽이 제작했다. 자끄 시몽은 중세기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조인들의 정신과 신앙, 그들의 색을 볼 줄 아는 대가였다. 이 남쪽 익랑과 북쪽 익랑에 있는 현대적이고 과감한 작품들은 브리지드 시몽 마르크(Brigitte Simon Marcq)가 제작한 것으로 그리자이유 색조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것이 눈에 띈다.

후진의 중앙에 있는 작은 제단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 1974년 제작한 것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왕들의 여러 에피소드와 제세(Jesse)의 나무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에 이 작은 제단을 장식하고 있던 19세기의 신고딕양식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오른쪽 두번쩨 작은 제단에 있다.

#### 4-7 장식 용단

옛날에는 교회 참사회원의 내진을 간막이로 두르고 간막이의 안쪽에 장식용단들을 걸어 놓았으나 현재는 이 장식 용단들은 또(Tau)궁궐에 전시되어 있다. 대주교 로베르 드 르농구르(Robert de Lenoncourt)의 주문으로 제작하여 1530년 완성된 17점의 장식용단은 풀랑드르(프랑스 북부, 벨기에 서부, 네델란드 남서부 지방을 포함한 지역)지방의 것인지 아니면 랭스 지방의 것인지 근원을 알 수 없는 작은 꽃무늬비탕에 성모 마리아의 일생을 묘사해 놓았다. 성모마리아의 일생의 한 장면이 있고 윗쪽의 모퉁이에는 열일곱 작품 중 열다섯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성모마리아 일생에 대해 장식용단에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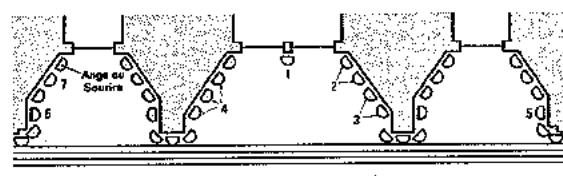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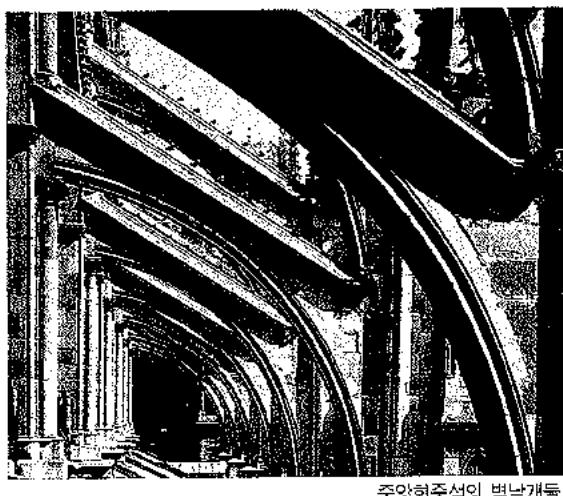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쪽 축랑에 있는 제세의 나무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전으로 내쫓긴 안나와 요아킴, 황금의 문에서 안나와 요아킴의 만남, 성모마리아의 탄생, 성전에서 마리아의 봉헌, 성모마리아의 약혼, 성모영보, 성모의 엘리사벳 방문, 예수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성전에서 예수의 봉헌, 이집트로의 도피, 성모마리아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항상 같은 구성으로 중앙에는 르네상스식 문으로 테두리를 하고 성모마리아 일생의 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윗쪽에는 구약성서의 구절들이 예시되어 있으며 아래쪽 모퉁이에는 예언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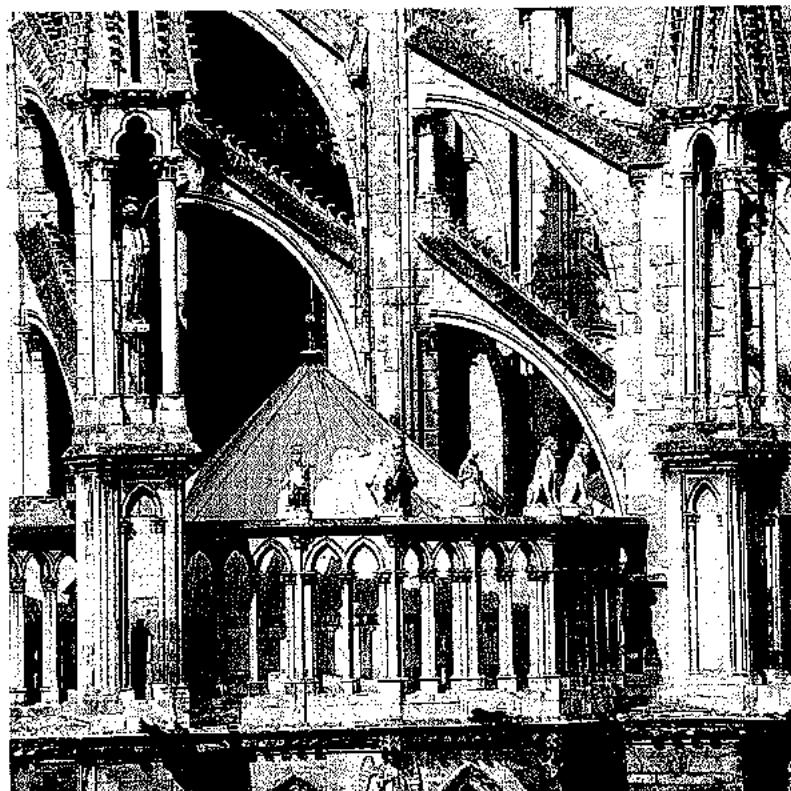
#### 4-8 주요 보물과 기타

성당의 보물들은 대성당에 인접한 곳으로 예전에는 대주교의 저택이었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 궁궐에는 13세기의 작은 제단이 있고 “또(Tau)의 방”이라 불리우는 15세기의 왕실의 대연회장이 있다. 매우 섬세하게 제작된 것부터 5m, 47톤에 이르는 골리앗에 이르기까지 대성당에 있었던 입상들이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금은 세공품으로는 사를 대제의 호신패, 12세기의 성작, 15세기와 16세기의 성유골, 샤를로(Charles) 10세기의 대관식에 쓰였던 물품들이 있다.

마지막 대관식에 쓰였던 왕의 망토, 중세기 군인들이 갑옷위에 입던 짧은 웃목 등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는 옛날 가구는 매우 적다. 그러나 북쪽 익랑속에 있는 13세기의 철로된 그릴과 1263년 제작된 위그리베로지에(Hugeus Libergier)의 묘석과 1487년 경에 제작한 난간속에 있는 것으로 17세기에 다시 고친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의 틀과 매 시간마다 마네킹들의 행렬이 움직이는 15세기의 패종시계는 눈여



정면 문주위의 입상위치도



방사상의 작은 제단과 후진의 벽난개들

겨 볼 가치가 있다. 내전의 안쪽에는 테레즈(Therese) 성녀의 일생으로 장식을 한 17세기의 설교단이 있다.

#### 4-9 제의실

전쟁으로 인한 참해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13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금은 세공품과 종교적 장식품을 모아 놓았으며 그중에서도 사제의 제의가 볼 만하다. 판화는 왕들의 축성식을 상기시킨다.

### 5. 맷음말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랭스(Reims) 성당은 유럽 고딕 성당 중에서 가장 잘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 전체가 극도로 고양된 통일된 입체의 외관을 자랑하며 또한 다른 성당과 달리 역대 많은 프랑스 왕들의 즉위식이 거행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당의 여러가지 건축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랭스 성당에서는 기존 성당에서 사용한 플레이트 트레이서리(Plate Tracery) 대신에 바 트레이서리(Bar Tracery) 양식을 도입하였다.

– Pointed Arch 위에 얹은 Lancet는 Spire와 병존되어 수직적 양고성이 강조되어 있다.

– 장식적인 측면에서는 표면적인 것에서 선적인 것으로 전이 되었다.

– 수평적인 연속성은 네이브와 챔슬을 따라 아케이드를 연속하였다.

– 정면 중심부에 있는 원화창은 그 직경이 12.30m로서 다른 고딕 성당의 원화창보다도 뛰어나다.

– 네이브의 지붕은 갤러리 상부에 박공 형태로 나타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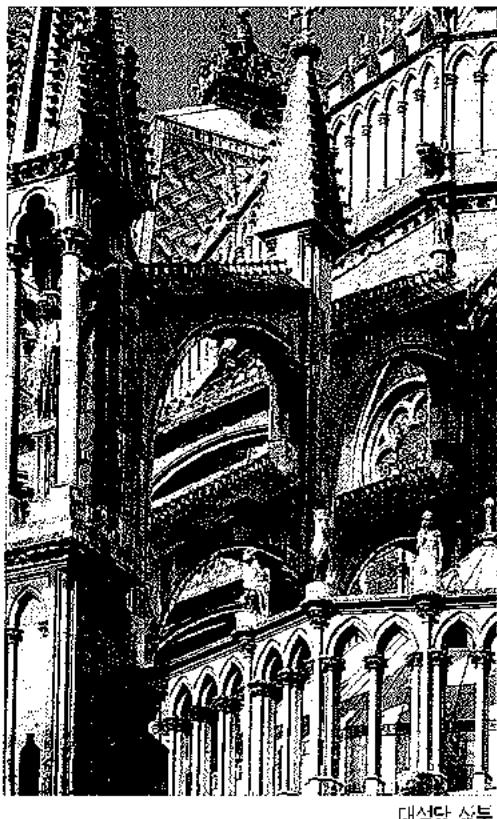
다.

– 정면은 종파 횡을 3분할하여 수직성을 수평성으로 조절하면서 Proportion을 결정하여 적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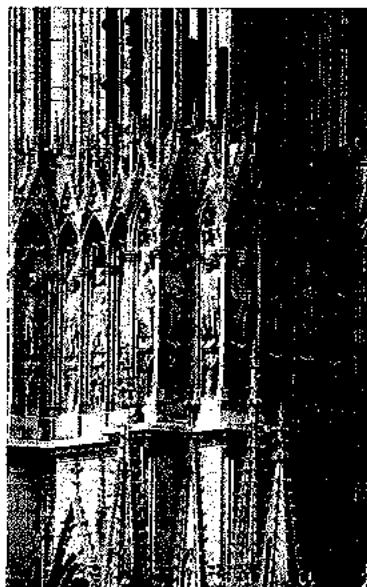
– 파이는 등근 형태이지만 네개의 기둥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각각 네이브와 아일의 횡단 아치와 네이브 아케이드의 수평 방향 아치를 받고 있다.

– 클리어 스토리의 창이 아일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벽과 좀 더 조소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상부로 올라갈수록 비물질화의 특징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건축적 특징이 있는 랭스의 노트르담 성당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오후 석양이 대성당의 정면을 비출 무렵에 보아야 한다. 정면은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정면과 비슷한 건축 형태를 하고 있으나 합각벽, 박공, 뾰족한 첨탑, 가느다란 작은 원주와 왕들의 주랑의 거대한 초상들이 표출하고 있는 수직적인 움직임은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성당 전면부에 있는 여러 입상들의 표정과 입고 있는 의상 등이 주의를 끈다. 이중에서 나카즈 성인의 왼쪽에 있는 그 유명한 "미소 짓고 있는 천사(Ange au Sourire)"의 입상이 있는데 천사의 자연스러운 자세, 늘어진 옷의 부드려운 주름, 미소를 짓고 있는 장난기 어린 얼굴에서 발산하는 생동감 등이 방문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뉘울 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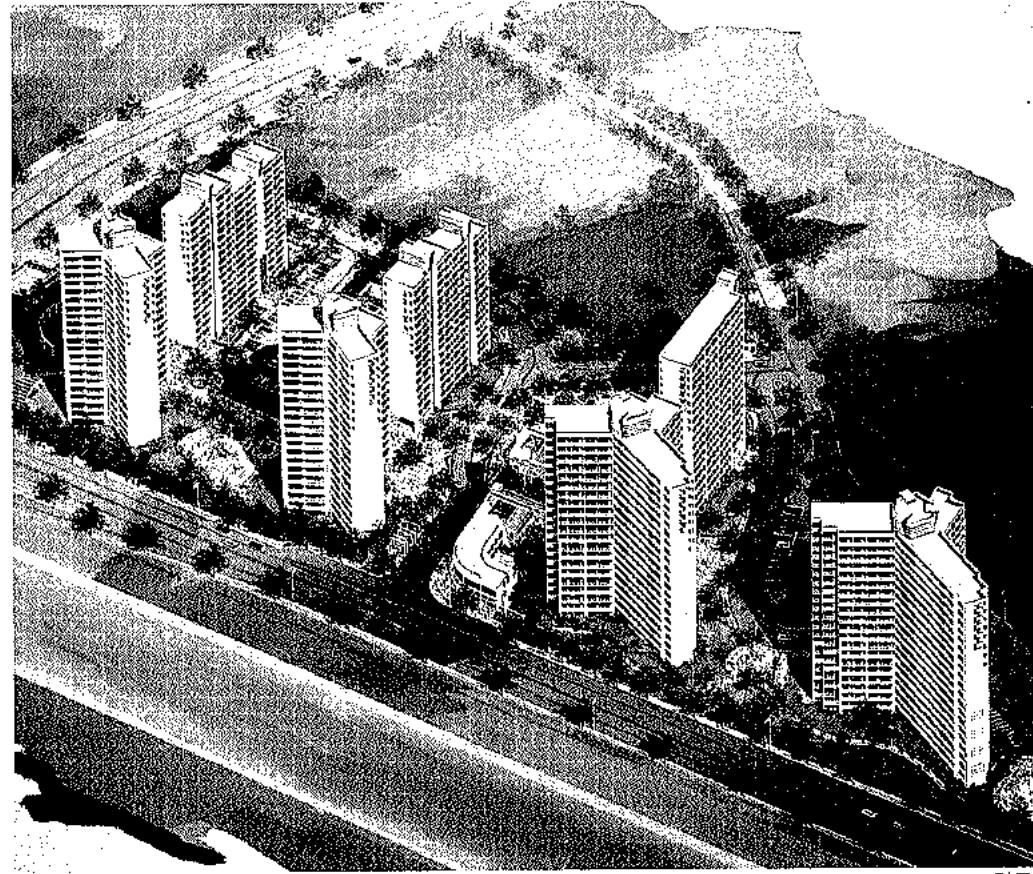
대성당 상부



남쪽뜰에 있는 왕들의 주랑



미소 짓고 있는 천사(복속성문)



조감도

## 대구 신천 지구 공동주택

Taegu Shincheon Apartment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구 신천1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의 괴적 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기본설계경기를 일반공개경 기로 실시, 총 8개 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종합건축 토문건설단 턴(최우수호)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3월 25일 발표했다.

우수작은 종합건축 한국조형(나영찬), 기작은 종합건축 이공(나 한진)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윤도근(흥익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여홍구(한양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이주영(한양대 교수), 조희태(대구시 도시 정비과장), 김창익(주공기술본부장), 구왕현(주공사업본부장)

### 최우수작

#### 토문건설단트건축(최우호)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1291-100

대지면적 / 17,584.00m<sup>2</sup>

연면적 / 59,815.59m<sup>2</sup>

건축면적 / 3,654.43m<sup>2</sup>

건폐율 / 20.68%

용적률 / 28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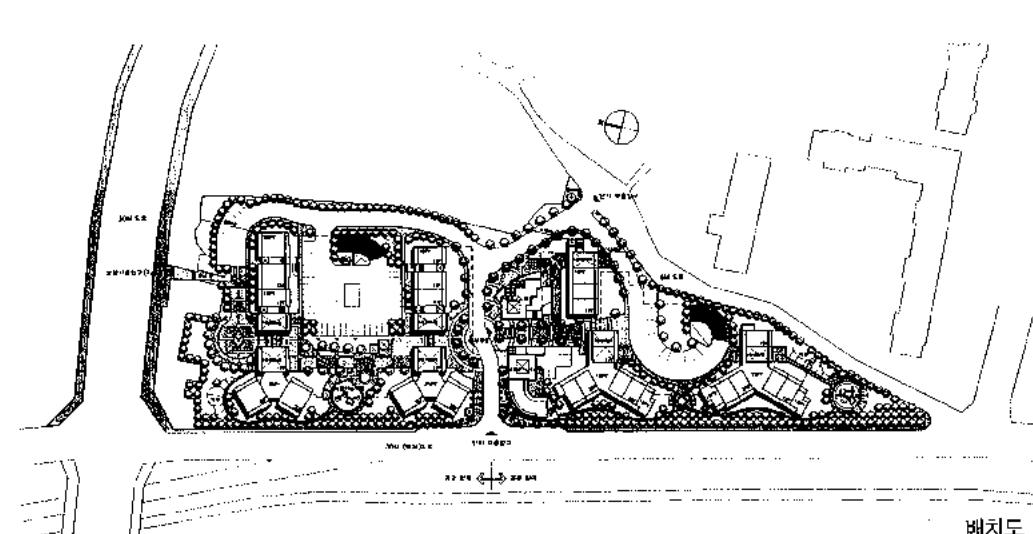
호수 / 분양 25평형-142세대

18평형-97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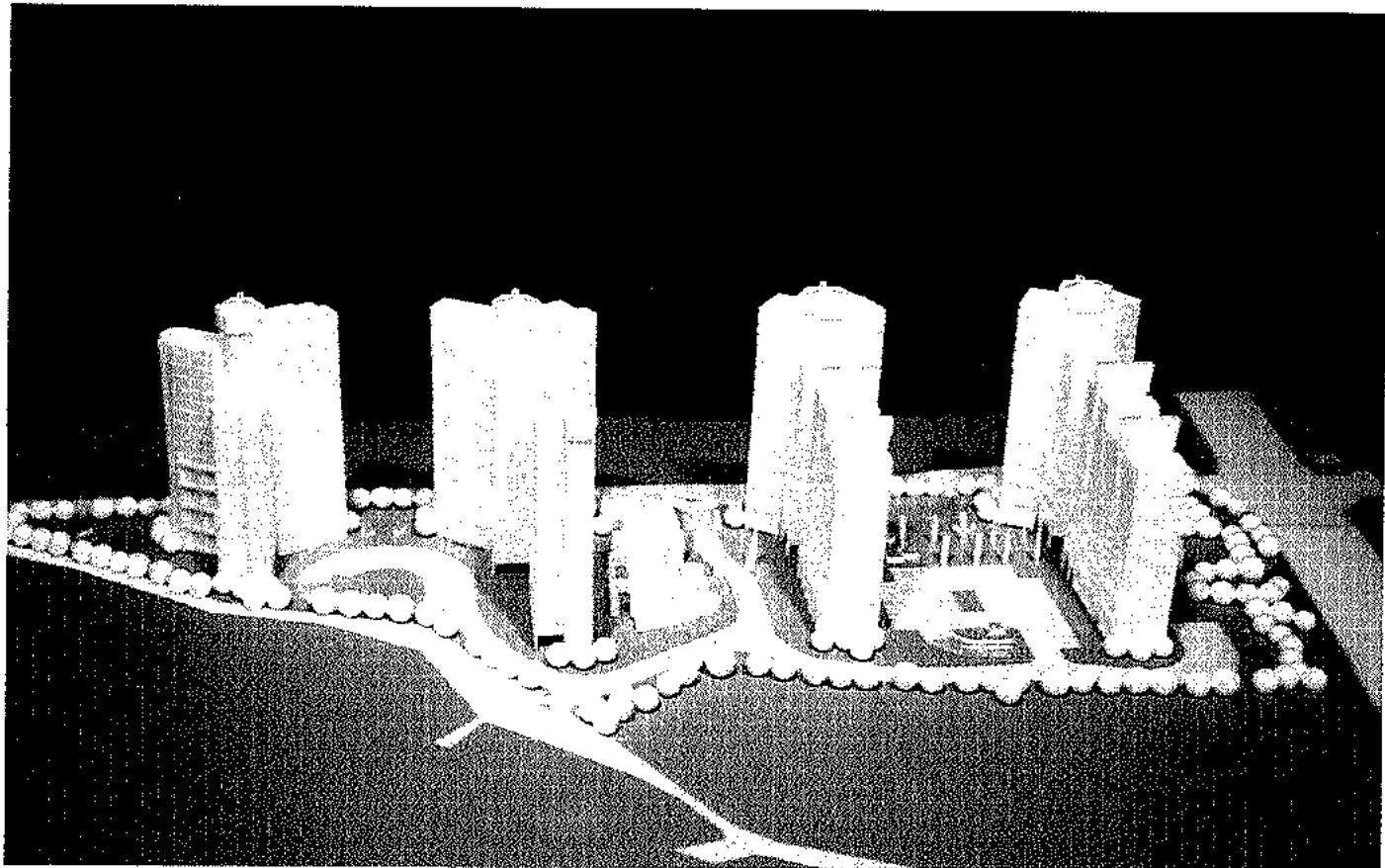
임대 15평형-224세대

12평형-58세대

계 : 581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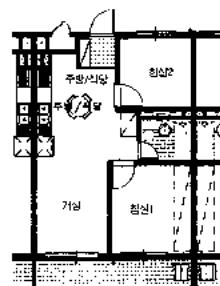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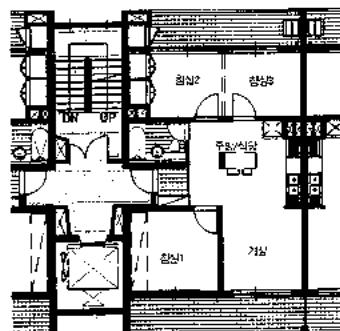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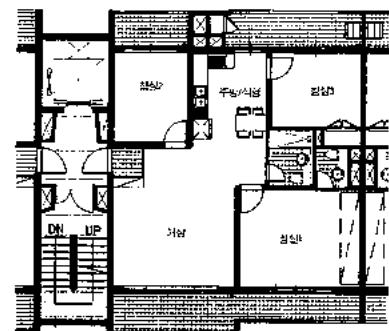
12평형



15평형



18평형



25평형



남서측 입면도

#### 계획개념

- 폐쇄적인 단지배치를 지양하고 개방감있는 배치로 유도
- 설계지구를 서쪽의 신천과 강변도로에 대응하고 관리구분에 따라 2개 Zoning으로 계획
- 조망간의 연결은 관리사무소, 생활편익시설을 배치하여 개방감과 진입공간으로서의 성격부여
- 대지의 형태 및 조닝 구분에 따

라 남북측의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서 방향으로 기존주거지와 고밀개발을 감안, 시각통로를 설치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변화감 부여

- 도시미관과 단지적 동질성이 구현되는 건물배치 및 설계
- 이용형태와 거리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시설물 배치
- 단지주민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고려한 동선계획수립

#### 토지이용/교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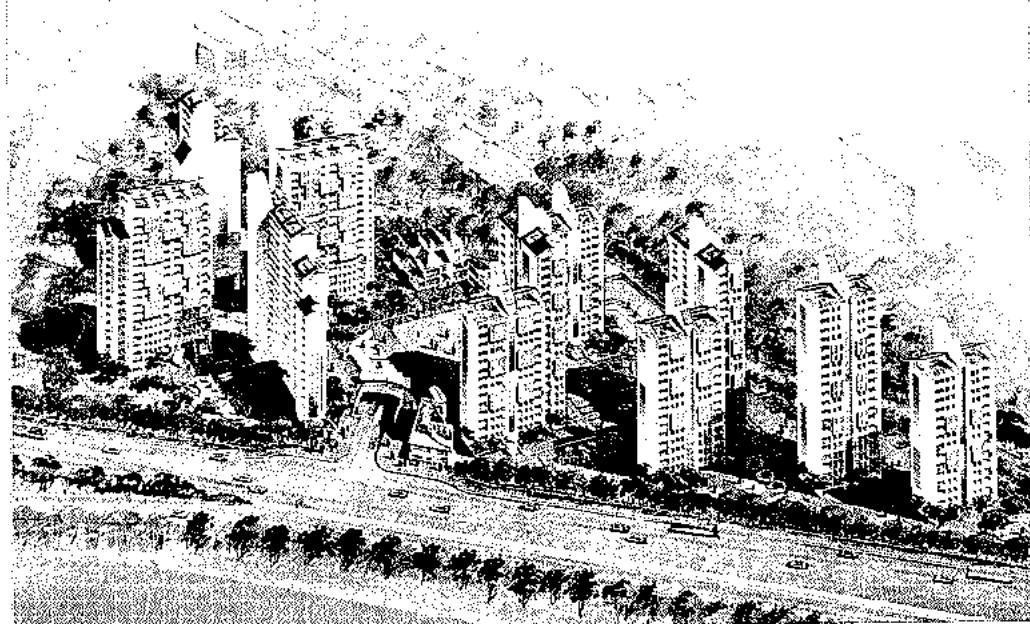
- 단지출입구는 12m 도로와 5m 도로에 2개소로 계획하여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구분하되, 단지중앙에 생활편익시설과 관리사무소/노인정을 배치함
- 단지내 차량동선은 짧고 명쾌하게 하며, 도로형태는 LOOP형과 각주호에 서비스되는 접근로는 CUL-DE-SAC형으로 계획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

계획하며 안정성과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함

- 생활편익시설과 관리사무소/노인정은 임대와 분양단지 보행축 상의 결절점 부위에 설치함

#### 외부공간

- 임대와 분양 Zone을 연결하는 넓은 보행축을 설치하고, 축선상의 1층 부분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과 일조, 통풍확보
- 동측의 저층밀집주택간 일조로 인한 분쟁요인 최소화 고려
- 신천변 도로측에 텁상형 건물의 정연한 배치로 시각적 변화 유도
- 간선도로변에 대한 공간은 차폐 및 소음 저감을 위해 수목의 일식식재



조감도

### 우수작

#### 한국조형건축(나영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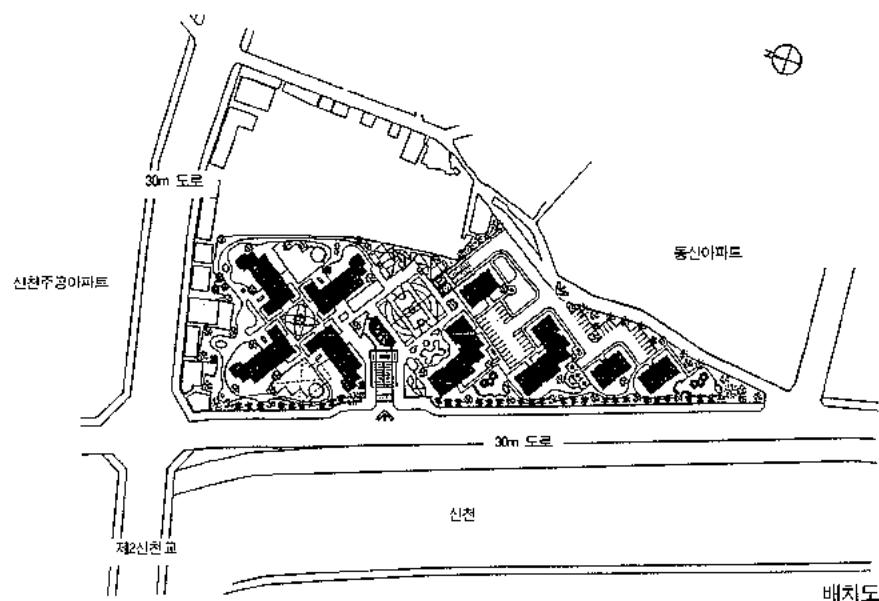
대지면적 / 17,684m<sup>2</sup>  
건축면적 / 2,310.78m<sup>2</sup>  
연면적 / 59,103.71m<sup>2</sup>  
건폐율 / 13.05%  
용적률 / 240.72%  
호수 / 12동 - 58세대  
15평 - 25세대  
18평 - 100세대  
25평 - 140세대  
계 : 58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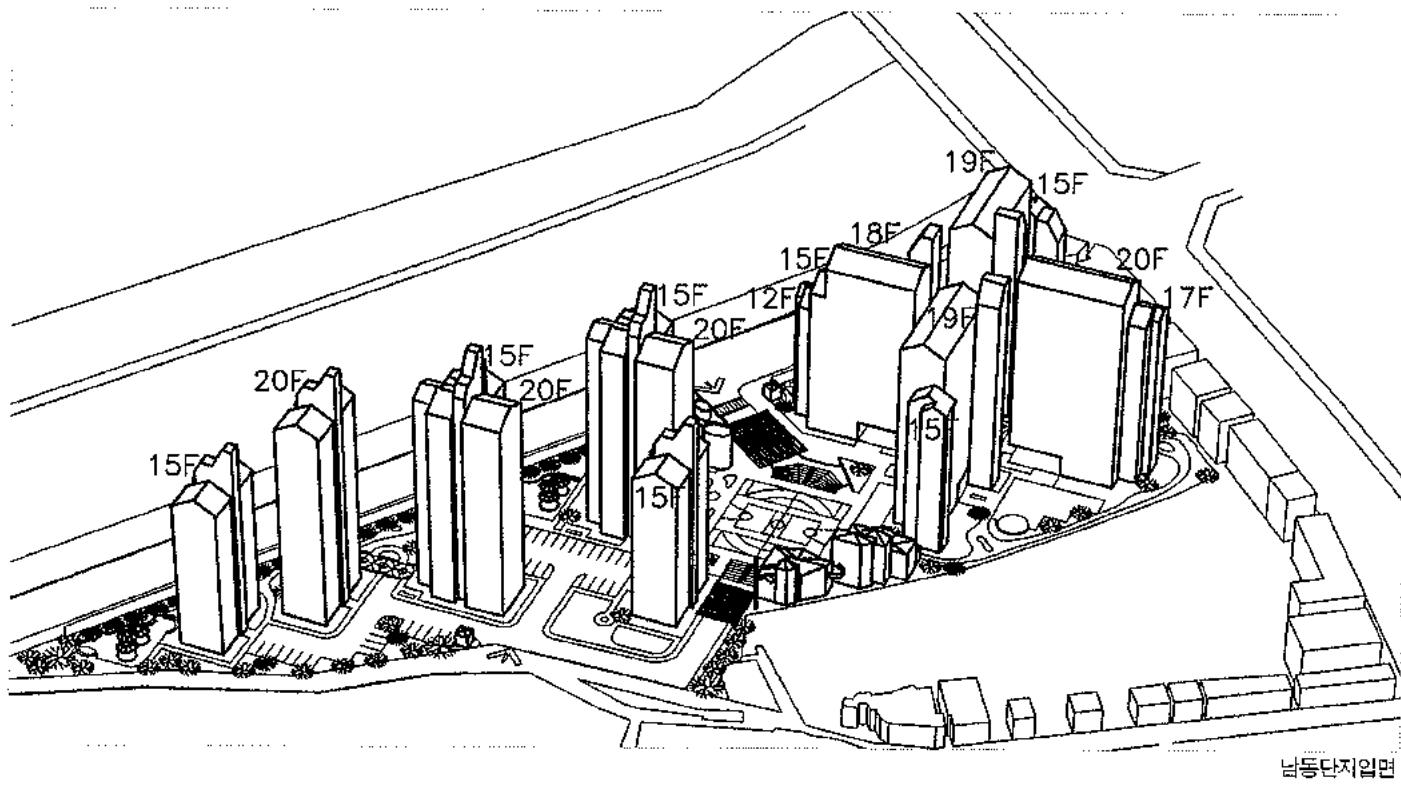
#### 계획개념

- 목표
  - 주거환경 개선지구 - 서민 주 거생활 개선 및 주거수준의 향상
  - 저렴하며 양질인 주택 - 적절한 용적률 확보
  - 다양한 주생활 욕구충족 - 아파트 형태의 다양화
  - 주변과의 조화와 특색있는 계획 - 기존택지 주변현황의 충분한 고려
  - 토지 이용의 극대화 - Open Space의 최대한 확보로 폐적한 환

#### 경 조성

- 방향
  - 주변환경과 조화된 커뮤니티 형성
- 남서쪽 신천측의 시각적 개방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획일적 배치를 지양,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공간을 조성,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였으며, 기존대지 Level을 적절히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수용하였다.
- 폐적한 단지 주거환경 형성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보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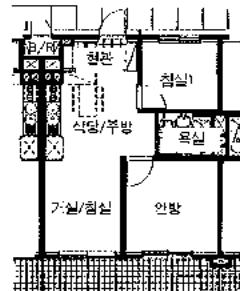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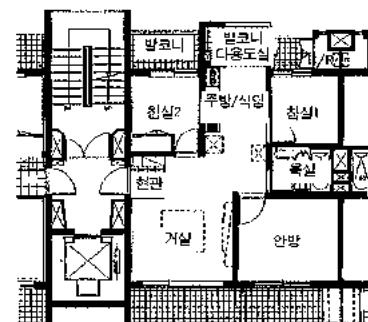
남동단지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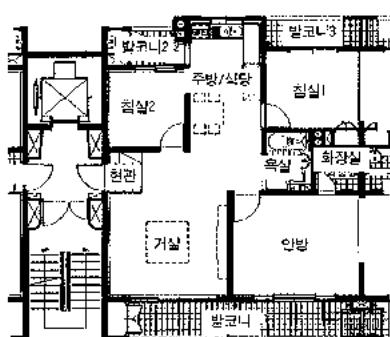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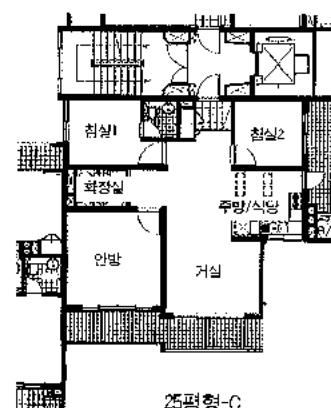
15평형



18평형



25평형



25평형-C

단위세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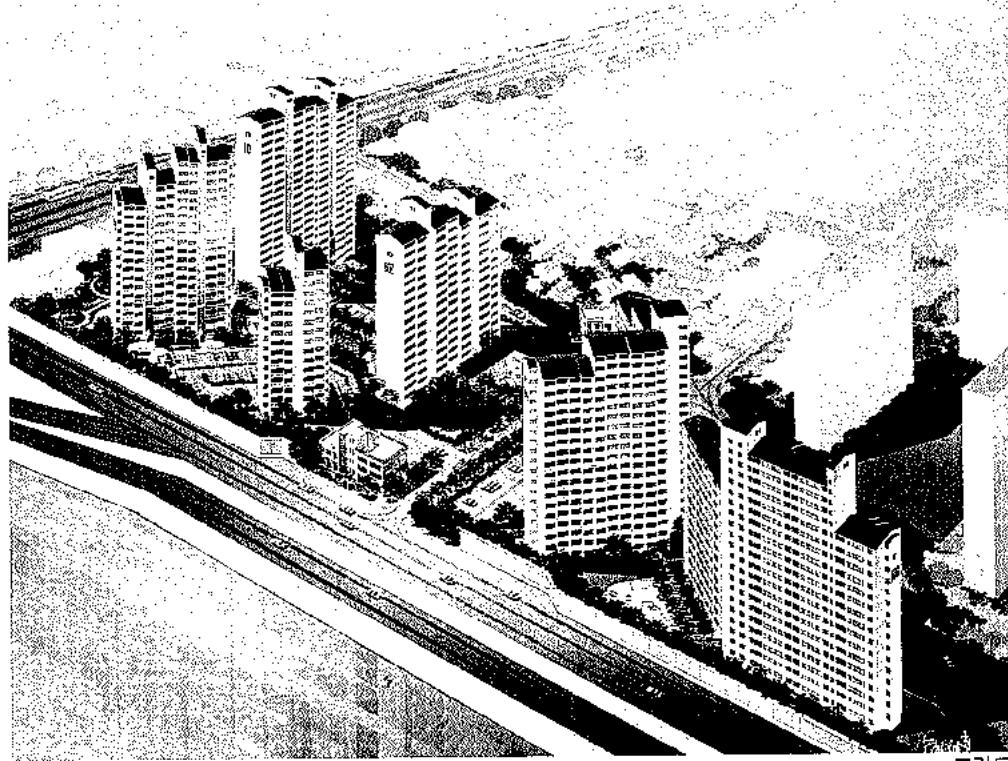
위주의 Open Space 확보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단지  
내·외 녹지대의 유기적 연계성  
수립으로 쾌적한 공간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 최대한의 경제성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를 위한 관  
리 방식을 선택하고 보편적인 공  
법을 전제로 한 저렴한 공사비로  
주택가격의 저가를 추구하였다.

- 개념  
• 배치상 단조로움의 탈피 - 정렬  
배치 배제  
• 변화 및 다양성을 함께하는 외

#### 부공간 구성

- 충분한 Open Space 확보
- 향과 개방감을 동시 구현
- 다양한 층수 분배로서 Sky Line  
계획 및 경관특성 강조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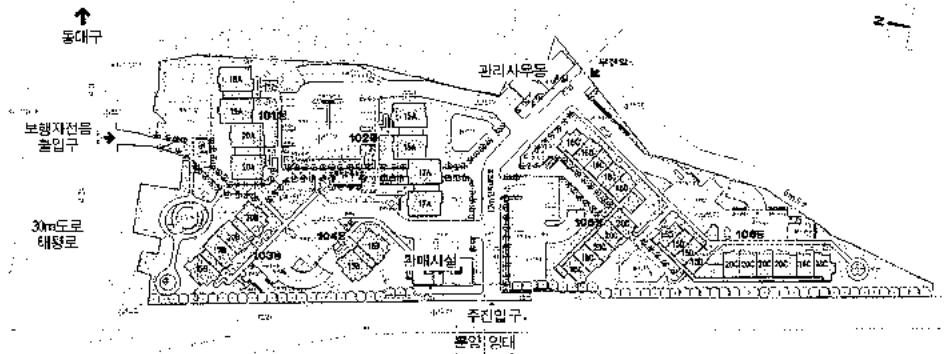
## 가작

### 이공건축(나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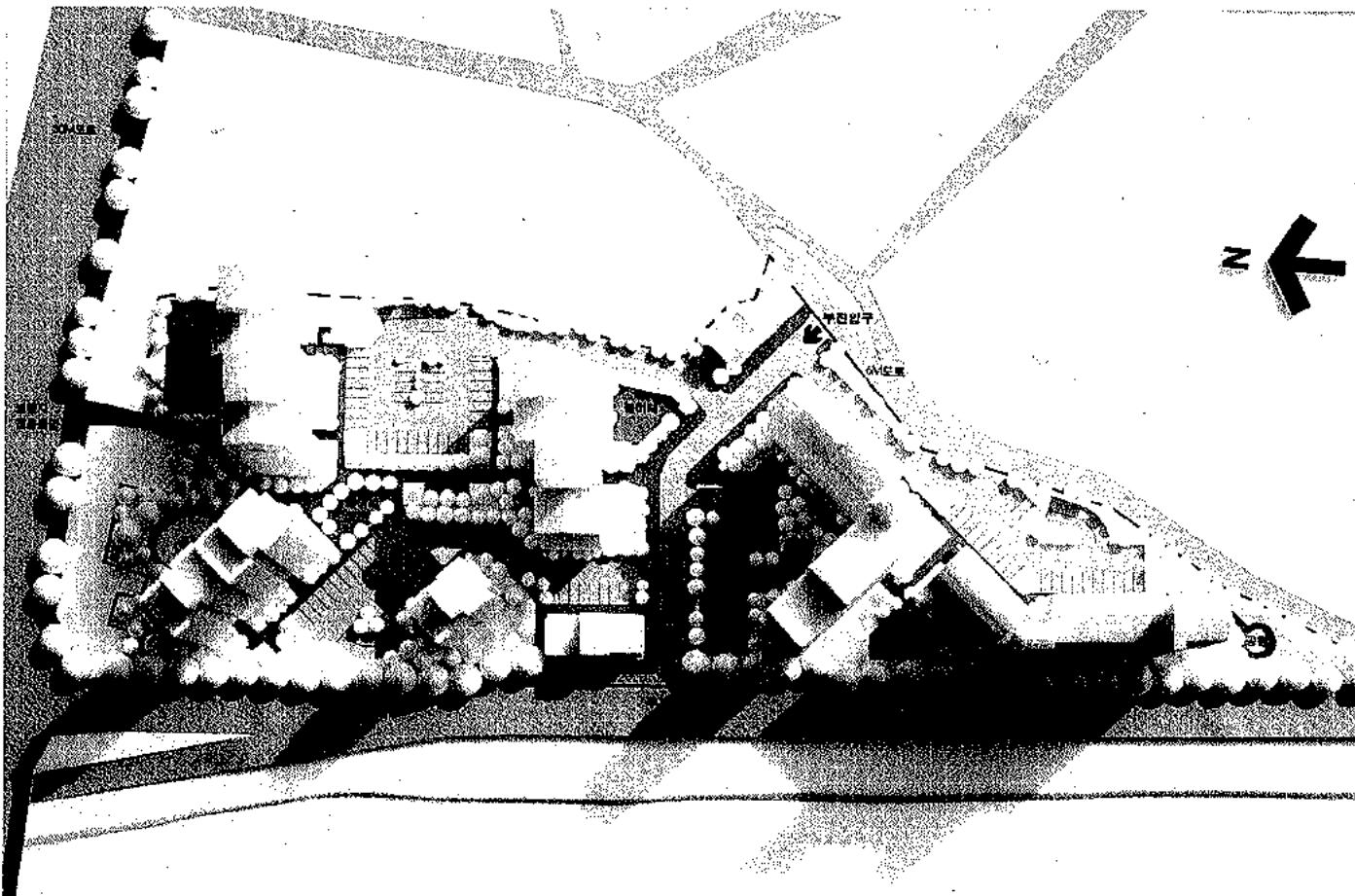
대지면적 / 17,682.72㎡  
건축면적 / 3,067.12㎡  
연면적 / 52,543.63㎡  
건폐율 / 17.34%  
용적률 / 247.99%  
호수 / 589세대(임대 : 349, 분양 : 240)

####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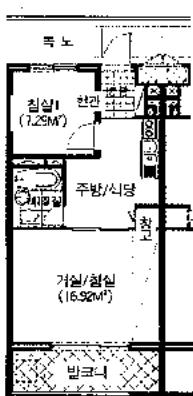
- 태평로에서 유입되어 대지를 남북으로 완전히 관통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모든 주민 휴식공간을 배치하여 이용효율을 극대화
- 모든 주동으로의 진입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부터 유도
- 주 진입로에서 진입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부터 유도
- 주 진입로에서 각각의 ZONE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차량동선을 단순화
-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명확한 분리
- 측세대 평면에 변화를 주어 개구부를 넓히고 변화있는 일면 구성
- 발코니 난간을 유리로 처리하여 외부를 향한 시야를 개방
- 일부 주동을 사선 배치하여 동향서향의 세대수를 줄이고 전면조망 확보
- 주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를 분리
- 25평형을 우선적으로 정남향 배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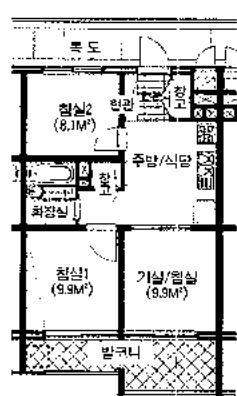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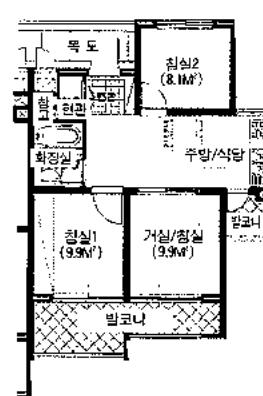
12평형(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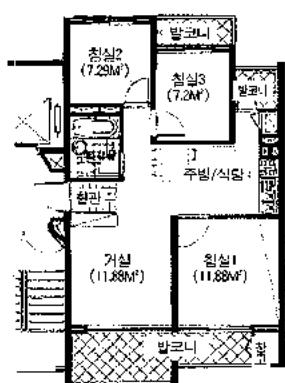
12평형(B)족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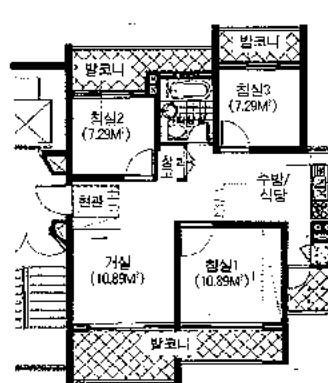
15평형(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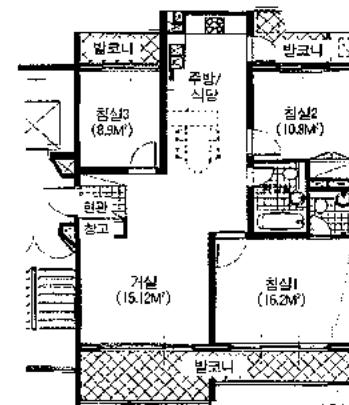
15평형(B)족세대



18평형(A)



18평형(B)족세대



25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 1995년도 3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2백8십만7천4백46m<sup>2</sup>보다 27.8% (3백5십6만3천65m<sup>2</sup>) 증가한 1천6백3십7만5백11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 누계 4천5십만7천6백m<sup>2</sup>보다 22.5% (9백1십만

2천4백96m<sup>2</sup>) 감소한 3천1백4십만5천1백4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다. 전월비

전월 2월분 8백2십2만8천1백61m<sup>2</sup>보다 99.0% (8백1십4만2천3백50m<sup>2</sup>) 증가한 1천6백3십7만5백11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 分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 율
증가지역	서 울	1,651,120	2,174,694	523,574	31.7%
	부 산	948,177	1,963,021	1,014,844	107.0%
	대 구	903,460	1,699,035	795,575	88.1%
	인 천	357,346	975,004	617,658	172.8%
	대 전	144,978	330,249	185,271	127.8%
	경 기	2,764,087	3,311,474	547,387	19.8%
	강 원	366,473	661,822	295,349	80.6%
	충 북	440,875	468,969	28,094	6.4%
	충 남	812,957	1,817,072	1,004,115	123.5%
	전 북	167,809	440,178	272,369	162.3%
감소지역	전 남	275,613	337,189	61,576	22.3%
	제 주	62,675	104,554	41,879	66.8%
	광 주	1,807,682	580,022	(1,227,660)	-67.9%
경 북	829,690	618,588	(211,102)	-25.4%	
	경 남	1,274,504	888,640	(385,864)	-30.3%
합 계	12,807,446	16,370,511	3,563,065	27.8%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sup>2</sup> )	
구 分	2월분	3월분	증 감
단 독 주 택	1,028,000	1,411,606	383,606
다 세 대 주 택	412,415	359,633	(52,782)
연 립 주 택	142,824	156,786	13,962
아 파 트	2,268,909	5,617,532	3,348,623
근린생활시설	1,522,233	2,252,985	730,752
종 교 시 설	74,994	100,106	25,112
의 료 사 설	21,511	82,211	60,700
교육연구시설	294,567	305,406	10,839
업 무 시 설	374,465	1,621,895	1,247,430
숙 박 시 설	160,220	281,986	121,766
공 장	1,264,147	1,759,311	495,164
기 타	663,876	2,421,054	1,757,178
계	8,228,161	16,370,511	8,142,350
			99.0%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 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 면 적 비 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5,826	5,959	1,331,087	5,527	5,620	1,411,606	(299)	(339)	80,519	6.0%	
다 세 대 주 택	868	940	444,827	802	840	359,633	(66)	(100)	(85,194)	-19.2%	
연 립 주 택	111	211	349,801	114	120	156,786	3	(91)	(193,015)	-55.2%	
아 파 트	197	893	3,946,477	182	795	5,617,532	(15)	(98)	1,671,055	42.3%	
근린생활지역	4,935	5,092	2,207,620	4,891	5,004	2,252,985	(44)	(88)	45,365	2.1%	
종 교 시 설	155	172	165,271	142	155	100,106	(13)	(17)	(65,165)	-39.4%	
의 료 시 설	21	21	31,980	38	42	82,211	17	21	50,231	157.1%	
교육연구시설	105	138	463,260	121	129	305,406	16	(9)	(157,854)	-34.1%	
업 무 시 설	122	133	434,583	148	149	1,621,895	26	16	1,187,312	273.2%	
숙 박 시 설	190	194	199,950	144	168	281,986	(46)	(26)	82,036	41.0%	
공 장	890	1,443	2,033,539	895	1,245	1,759,311	5	(198)	(274,228)	-13.5%	
기 타	1,413	1,902	1,199,051	1,098	1,348	2,421,054	(315)	(554)	1,222,003	101.9%	
합 계	14,833	17,098	12,807,446	14,102	15,615	16,370,511	(731)	(1,483)	3,563,065	27.8%	0=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3월분)

구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14,765	15,034	3,580,347	11,831	12,011	3,061,456	(2,934)	(3,023)	(518,891)	-14.5%	
다세대주택	2,425	2,652	1,247,003	2,004	2,115	997,896	(421)	(537)	(249,107)	-20.0%	
연립주택	286	447	654,642	282	309	392,380	(4)	(138)	(262,262)	-40.1%	
아파트	537	2,228	10,653,238	431	1,619	10,299,479	(106)	(809)	(353,759)	-3.3%	
근린생활시설	14,409	14,814	7,096,489	10,484	10,752	4,947,892	(3,925)	(4,062)	(2,148,597)	-30.3%	
종교시설	458	531	493,935	295	334	240,186	(163)	(197)	(253,749)	-51.4%	
의료시설	63	70	169,658	67	73	189,837	4	3	20,179	11.9%	
교육연구시설	320	405	1,141,482	291	315	804,486	(29)	(90)	(336,996)	-29.5%	
업무시설	327	358	1,101,768	296	296	2,132,759	(31)	(62)	1,030,991	93.6%	
축박시설	557	584	768,981	359	397	558,632	(198)	(187)	(210,349)	-27.4%	
공장	2,986	4,643	4,962,221	2,258	3,283	3,957,403	(728)	(1,360)	(1,004,818)	-20.2%	
기타	3,963	5,289	8,637,836	2,678	3,348	3,822,698	(1,285)	(1,941)	(4,815,138)	-55.7%	
합계	41,096	47,055	40,507,600	31,276	34,852	31,405,104	(9,820)	(12,203)	(9,102,496)	-22.5%	(=미어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2,092	2,195	1,651,120	2,174	2,180	2,174,694	82	(16)	523,574	31.7%	
부산	1,901	2,077	948,177	928	1,072	1,963,021	(973)	(1,005)	1,014,844	107.0%	
대구	1,807	2,029	903,460	1,578	1,642	1,699,035	(229)	(387)	795,575	88.1%	
인천	475	476	357,346	548	588	975,004	73	112	617,658	172.8%	
광주	1,000	1,288	1,807,682	390	529	580,022	(610)	(759)	(1,227,660)	-67.9%	
대전	211	224	144,978	389	414	330,249	178	190	185,271	127.8%	
경기	2,303	2,716	2,764,087	2,695	3,126	3,311,474	392	410	547,387	19.8%	
강원	561	642	366,473	720	858	661,822	159	216	295,349	80.6%	
충북	551	671	440,875	666	733	468,969	115	62	28,094	6.4%	
충남	583	615	812,957	567	627	1,817,072	(16)	12	1,004,115	123.5%	
전북	246	291	167,809	536	567	440,178	290	276	272,369	162.3%	
전남	585	-677	275,613	550	627	337,189	(35)	(50)	61,576	22.3%	
경북	913	1,184	829,690	902	1,067	618,588	(11)	(117)	(211,102)	-25.4%	
경남	1,399	1,774	1,274,504	1,200	1,322	888,640	(199)	(452)	(365,864)	-30.3%	
제주	206	239	62,675	259	263	104,554	53	24	41,879	66.8%	
합계	14,833	17,098	12,807,446	14,102	15,615	16,370,511	(731)	(1,483)	3,563,065	27.8%	(=미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3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5,680	5,964	4,799,311	4,878	4,908	4,420,698	(802)	(1,056)	(378,613)	7.9%	
부산	3,380	3,616	2,468,793	2,360	2,652	2,798,158	(1,020)	(964)	329,365	13.3%	
대구	4,096	4,630	2,224,509	3,506	3,628	2,346,098	(590)	(1,002)	121,589	5.5%	
인천	1,506	1,521	1,134,915	1,132	1,234	2,228,113	(374)	(287)	1,093,198	96.3%	
광주	1,661	2,099	2,503,907	945	1,269	1,452,322	(716)	(830)	(1,051,585)	-42.0%	
대전	1,746	1,837	1,019,639	786	848	754,412	(960)	(989)	(265,127)	-26.0%	
경기	7,639	8,954	8,025,652	6,106	6,981	6,499,859	(1,533)	(1,973)	(1,525,793)	-19.0%	
강원	1,566	1,769	945,453	1,511	1,818	1,280,908	(55)	49	336,455	35.5%	
충북	2,266	2,759	1,796,205	1,410	1,609	991,770	(856)	(1,150)	(804,435)	-44.8%	
충남	1,890	1,987	6,766,342	1,142	1,282	2,461,622	(748)	(705)	(4,294,720)	-63.6%	
전북	1,246	1,489	1,631,876	743	730	980,371	(503)	(759)	(661,505)	-39.9%	
전남	1,396	1,684	768,341	1,128	1,314	698,926	(268)	(370)	(69,415)	-9.0%	
경북	2,548	3,406	2,630,234	2,097	2,681	1,925,950	(451)	(725)	(704,284)	-26.8%	
경남	3,761	4,565	3,475,390	2,995	3,349	2,375,544	(766)	(1,216)	(1,099,846)	-31.6%	
제주	715	775	327,133	537	549	190,353	(178)	(226)	(136,780)	-41.8%	
합계	41,096	47,055	40,507,600	31,276	34,852	31,405,104	(9,820)	(12,203)	(9,102,496)	-22.5%	(=미어너스)

##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3월 17일(제4회), 3월 28일(제5회), 4월 3일(제6회)에 각각 개최되어, 협회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4회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시 백영기, 장기수, 손한종, 고남국, 김후곤, 조병원, 박정태, 조종관, 신기현, 김용훈 회원(10명)을 추대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재건축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 김백성 이사를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선임을 회장 및 위원장에게 위임함.
- 94회계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일반, 특별, 신문발간, 특별비상대책, 시험 및 연수, 건축사연금)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회 임시총회 임원 업무 분담에 대한 협의
  - 건축사현장 낭독은 김영식 감사, '94 회계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에 대한 답변은 오인준 감사, 건축개혁(안)에 대한 답변은 김태웅이사가 하기로 협의함.

### ● 제5회

- 건설종합화 대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원 및 시, 도건축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95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 추가 상정의 건
  - 제8호의 안: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9호의 안: 건축사 연금규정 효력의 일시 정지 및 특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추가상정하기로 결의함.

### ● 제6회

- 연금체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시, 도건축사회 회장, 임원 2~3인, 강남 서초구 건축사회장, 시, 도건축사회별 1억원 이상 연금납부 회원 등으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며, 실무작업 소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결의함.
-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협의

- 개혁추진 전담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되,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함.

·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
 

- 개혁추진업무 전담기구 결정 및 사용 경비 지출예산 결정(다음 이사회에 세부사항을 부의하기로 함.)

· 30주년 기념행사 결정
 

- 계획(안)대로 시행준비기로 하되, 다음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절차를 거치기로 함.

· 협회 운영회비 제도 및 납입방법 결정
 

- 개혁추진 전담기구에서 병행 추진키로 함.

· 위원회 위원 재선임 및 전문위원, 직원 조정관계

- 위원회 위원 재선임: 6월 총회시까지 연장키로 하되, 위원명단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3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위원과 30년사 발간위원회 위원은 새로 선임하기로 함.

- 전문위원 재위촉: 6월 총회시까지 재위촉하기로 함.

- 사무처 부장 겸직해지 결정: 회장 및 부회장에게 위임함.

· 정관 개정(안) 작업결정
 

- 개혁추진 전담기구에서 병행 추진키로 함.

· 건축사 시험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결정

- 사무실 확보, 인원충원 문제를 회장에게 위임함.

· 회관사무실 조정(안) 결정
 

- 회장에게 위임함.

## 소방관련 허가기준 완화

내부부는 지난 4월 17일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관할 소방서장의 소방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기준을 연면적 4백  $m^2$  이상에서 1천 5백  $m^2$  이상으로 완화하는 '소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점, 음식점, 목욕탕, 병원, 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4백  $m^2$  미만, 여관, 공장, 창고 등은 연면적 6백  $m^2$  미만일 경우 1년에 한차례씩 받아야 했던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공항시설, 철도역사, 교정 시설, 동식물 관련시설과 아파트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건축허가 동의대상을 연면적 1천 5백  $m^2$ 로 하되, 연면적 1만  $m^2$ (아파트는 1만 5천  $m^2$ )인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감리를 면제하고 환공검사만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6백  $m^2$  이상에서 1천  $m^2$  이상으로 완

화했고 소방시설의 변동없이 용도만 변경할 때에는 건축허가 동의를 생략도록 했고, 또한 현행 11층이상 연면적 6천㎡이상의 판매시설로 데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복합건물(5층이상 연면적 5천㎡이상)도 포함시켰다.

## ■ 중국 건설부 감찰설계사(勘察設計司) 대표단 우리 협회 방문

중국 건설부 감찰설계사(勘察設計司) 사장 우이링 외 4인이 지난 4월 26일에 우리 협회를 방문하였다. 그동안 한·중 수교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특히 한·중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마련과 교류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협회 김규태 회장, 박경환 부회장 및 국제위원회들은 이를 방문단을 맞이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환담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상호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 ■ 우리 협회, 제1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물품 협찬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을림픽 제1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백만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주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장애인 복지 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고 내무부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 우리 협회는 행사를 품을 협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 ■ 「새 국립 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응모 마감

문화체육부가 국내 최초로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공인을 받아 국제설계경기로 실시하고 있는 「용산 국립 중앙박물관」 국제설계공모에 세계 여러 건축가들이 큰 관심을 보여 58개국 8백 54명이 지난 2월말까지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모현황을 나라별로 보면 한국 2백34명, 프랑스 84명, 이탈리아 54명, 미국 45명, 스위스 39명, 베네치아 36명, 영국 35명, 일본과 독일 각 34명, 홍콩 28명 등이며 이들 작품은 오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고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1단계 심사에 들어간다. 서울대 이광노 명예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작품중 입선작 5점과 각각 5점을 선정하며, 이들 10점에 대해서 각각 상금 5만달러가 지급되고, 이후 입선자 5명이 2단계 설계도를 제출하면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당선작 1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97년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설계비는 총비용 3천3백억 원 중 6%에 해당되는 2백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 부산건축사회, 「제6회 사진동호회 회원전」 개최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부산일보사 전시실에서 제6회 부산건축사 사진동호회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84년 건축사진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올해로 여섯번째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부산건축사회 사진동호회는 현재 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개막식은 3월 22일 오후 7시에 1백여명의 회원, 내빈,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조년순 동호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부산건축사회 박성길 회장의 축사, 부산사진작가협회 박하원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축하연회, 작품관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 김해시 건축사회, 「가야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서」 발간

경남건축사회 소속 김해시 건축사회는 가락국의 종주국이자, 금관국의 수도로서 도시화와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2천년 역사의 숨결과 그 모습을 읽어가고 있는 가야 건축문화에 대한 기록보전을 위한 첫 성과물로 「가야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가야건축」은 그동안 김해시 건축사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3년 11월 6일부터 94년 11월 5일 까지 약 1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발간한 것으로 앞으로 김해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일원의 가락국 건축문화 계승발전과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연구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된다.

한번 출판기념회 및 발표회가 지난 4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많은 건축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구발표회에 이어 책자 발간 축하연회가 있었다.



## ■ 부산건축사회, 강연 및 초청간담회 개최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4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부산광역시 주택국장, 건축과장, 의례조빙교수를 초청, 95년도 상반기 건축사 및 건축사보 인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에는 부산건축사회 박성길 회장의 건축사 및 건축사보 358명이 참석했으며, 건축법 등 관련법규 개정내용, 건축행정 혁신방안, 건축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강연, 건축사 관련 업무, 민원처리 요령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부산 국제호텔 3층(천마홀)에서 부산광역시 및 각 구청 건축관계관 15명을 초청하여 건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법규 운용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 부산건축사회, 나무심기 및 자연보호운동 실시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4월 16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건축사회 임직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30주년 기념 나무심기 및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 금정산성동문 부근 0.2Ha에 유실수를 심고 자연보호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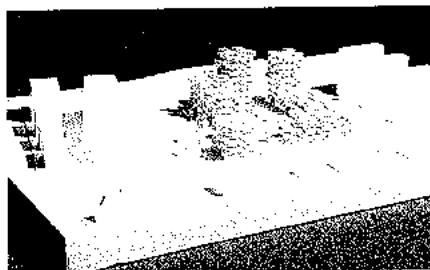


## 건축가협회, 『'95건축가 포럼』 개최

한국건축가협회 설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관영)에서는 5월24일, 6월14일 두차례 『'95건축가 포럼』을 기획, 개최한다. 한국문예진흥원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현대 한국 중견 건축가들의 건축관에 대해

알아보며 그들의 건축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다.

## 제2회 공동주택 학생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



현대산업개발이 미래주택의 성격을 정립하고 주거공간 및 형태에 관한 다양한 질적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공동주택 학생 설계 공모전 수상작이 지난 3월 27일(월) 발표되었다.

이번 설계공모전 공보대상은 고층아파트 단위세대 주동개발 및 단지계획으로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총34개 대학 83팀이 참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고 7명의 심사위원들이 9차례의 심의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입선 40점을 선정하였다. 한편 이번 수상작은 오는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대상1점에는 상금 3백만원 및 유럽건축답사, 우수상 3점에는 상금 1백만원 및 유럽건축 답사, 장려상 6점에는 상금 5십만원 및 참가기념품이 수여되었으며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 회	2 회
일 시	5월24일(수요일) 오후 3시~6시	6월 14일(수요일) 오후 3시~6시
장 소	한국문화진흥원 2층 강당	
대상건축가	김태수	김종성
평론가	강혁	이범재
주 제	두 문화관에서의 작품활동	보더니즘의 재음미
대상작품	국립현대미술관, 계성원 포함 3~4작품	육사도서관, 천재미술관 포함 3~4작품
진행방식	오후 3:00~4:30 주제발표 4:30~5:00 평론가 비평 5:00~6:00 플로어 공개 비평	

일 시	시 간	강 사	주 제
4월 22일(토)	오전 10시~12시	김유신 교수 (한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손장렬 교수	실내공기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내공기 환경의 특성과
5월 10일(수)	오전 10시~12시	(한양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평가
5월 13일(토)	오전 10시~12시	김신도 교수 (서울시립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김영덕 교수	실내공기의 오염실태와 관련 및 제어대책 실내기류의 실험적 분석
5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관동대 이공대학 환경공학과) 허남선 교수	실내기류의 수치해석
5월 27일(토)	오전 10시~12시		

대상/목경웅, 이준희(금오공대) 변화와 적용 그리고 진화  
우수상/김연주와 2인(홍익대) 세로운 삶  
김중섭의 1인 (서울산업대) UNDER THE GREEN  
심상보와 2인(홍익대) 도시.인간.마을...

## I.M.PEI 초청강연회 및 전시회 개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세계적인 건축가인 미국의 I.M.PEI를 초빙하여 강연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진행될 이면 강연회 및 전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연회/ '95.5.11(목) 14:00~16:00  
삼성생명 본관 1층 국제회의실  
전시회/ '95.5.11(목)  
삼성생명 본관 1층 국제회의실  
LOBBY

## 재불건축가 이은석씨, LA 한미예술문화센터 현상설계 당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 상징적 문화시설이 될 '한미 예술문화회관(KOMA)'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에서 재불건축가 이은석씨가 1등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94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세계 69개국 1천6백여팀이 등록하여 475팀이 최종 작품을 제출하여 지난 3월 31일 공식발표된 이번 현상설계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축설계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전세계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한 오픈 국제 설계경기였으며 국내에서 김종성(서울건축고문), 윤승중(한국건축가협회장) 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건축가들이 심사를 맡았다. 또한 이번 현상설계의 1등 수상자에게는 미화 2만5천달러의 상금과 건축설계권이 부여되었다. 한편 한미 예술문화회관은 LA코리아타운의 올림픽가에 연면적 6천평 규모에 2백억원 이상을 들여 세워지는데 교포사회는 물론 미국사회에 한국문화의 얼과 혼을 심어주는 한미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 제1회 건축환경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건축환경계획연구실에서는 「실내 공기환경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세미나실에서 제1회 건축환경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건축환경 계획연구실(880-7066, 885-8057)로 문의 하면 되며, 일정은 위쪽과 같다.

## 서울건축학교, 1995 워크숍 2기 모집

서울건축학교는 오는 6월 2일(금)부터 6월 16일(금)까지 우리들에게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번에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1개 클래스에 6인으로 4개 클래스를 구성하고 컴퓨터별 주제에 대한 해석 및 과제부여, 단위 클래스당 컴퓨터1인, 크리티컬1인, 심포지엄과 저녁 강좌(공개, 선착순)에 이론 및 관련분야 병행, 전체 평간평가 및 최종평가, 전시 및 출

판(워크숍3 시작전), 1박 2일의 건축기행순으로 진행되는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졸업자(재학생의 경우 해당교수 추천서 첨부)로서 자기소개서 1부, 포트폴리오 1부, 참가신청서 1부를 오는 5월 26일까지 수강료 30만원(기행비 5만원 별도)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강사진으로는 스튜디오 1(퓨터 최문규, 크리티컬 승효상), 스튜디오 2(퓨터 양남철, 크리티컬 김인철), 스튜디오 3(퓨터 최문규, 크리티컬 김영섭), 스튜디오 4(퓨터 최 육, 크리티컬 민현식)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오는 5월 15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오후 2시부터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SOC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활용 방안 세미나를 개최

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건설산업의 자금 조달 방안 및 관련기관의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금융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SOC사업 참여 기관에 유용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60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02-540-1824~6)로 문의 바라며, 강의내용 및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민자유치 사업개요/김성진, 재경원 예산 실 간접자본 담당관
- 프로젝트 금융해설/박동규,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
- 경제적 타당성 분석/최원규, 제일은행 국제금융부 차장
- 효율적 자금조달 방안 I/박순화, 산업은행 사회간접자본팀 부장
- 효율적 자금조달 방안 II/이형재, 동아그룹 부장
- 해외건설의 활용방안/임진하, (주)대우 이사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 안내

우리 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 기관으로서, 1987년 본 사업 추진이래 다년간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기술축적을 이룩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보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진단비용 절감
-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에 대한 봉사(30일이내 완료)
- 의뢰일로부터 2일이내 현장 출장, 진단의 필요성 유무 조사, 판단

###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 건물이 훼손되거나 멀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건축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 토지 이용도에 따른 경제성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합,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내의 주택

문의 : 기술부 (02)581-5711~4, FAX. 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재건축위원회